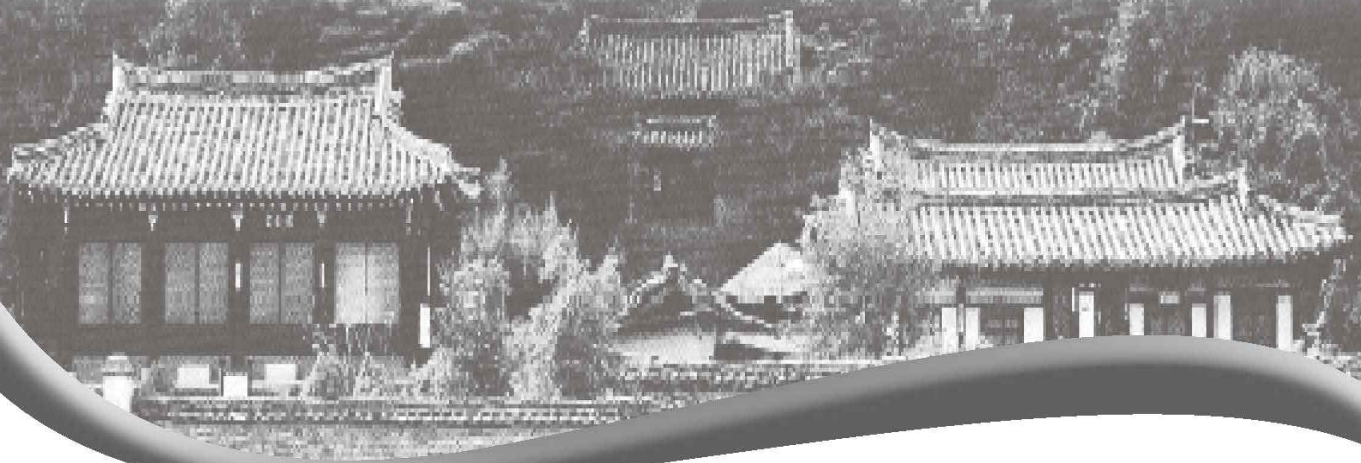


# 梧峯 申之悌의 생애와 임진란 의병활동

(1562~1624)



鵝洲申氏 梧峯公派 門中

## ■ 신지제(申之悌, 1562~1624)

자는 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峯)·구로(龜老),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1589년(선조22) 28세에 증광 문과에서 대책문(對策文)으로 장원을 차지한 뒤, 사삼시직장·세자시강원 문학·예조 좌랑·성균관 직강 등을 역임하였다. 예안 현감 재직 시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왜군에게 대항하였으며, 창원 부사 재직 시에는 명화적(明火賊) 정대립(鄭大立)을 토벌하여 민습을 수습시켰다. 저서로는 『오봉선생문집』(본집 7권 4책, 별집 1책)이 있다.

## ■ 梧峯 申之悌의 생애와 임진란 의병활동

인 쇄	2019년 12월 25일(음력)
발 행	2020년 1월 8일(음력)
발 행 인	신 명 균(오봉 선생으로부터 16세)
발 행 처	아주 신씨 오봉공파 문중
저 자	신 수 식
교열·윤문	김 기 엽
주 소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251번지
편집·제작	도서출판 성문기획
주 소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59-1 중앙데코 플라자 1401호 TEL. 02-2272-1977

ISBN 979-11-85813-10-3 <비매품>

신수식 : shinss@korea.ac.kr  
010-2207-1914

■ **집필자** : 신수식(申守植)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1968.2~2007.8)

경영대학 학장, 경영대학원장, 노동대학원장

현재 경영대학 명예교수(2007.8~)

오봉 선생으로부터 14세

초대 재경 아주 신씨 종친회장(2014~2016)

■ **윤문(潤文)·교열(校閱)** : 김기엽(金紀燁)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위원

『오봉선생문집』 번역위원(공동)

■ **일러두기(범례)**

1. 본문에 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자를 병기하되, 같은 단어가 인접해서 두 번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단어의 한자는 병기를 생략하였다. 단, 한자가 있어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 경우는 반복하여 병기하였다.
2. 운문[詩]의 경우 오른쪽에 원문을 부기하고, 번역문에서는 한자를 생략하였다.
3. 한자 표기는 괄호쓰기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 원문을 인용하거나 주석의 용어는 한자를 그대로 노출하기도 하였다.
4. 한자 가운데 한글과 음이 다른 경우에는 대괄호[ ]로 표기하였다.
5. 관직명을 표기할 때, 한글은 관직에 따라 띄어 쓰고 한자는 붙였다.  
예)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 예안 현감(禮安縣監), 창원 부사(昌原府使)
6. 본서에서 사용한 부호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 : 책명
  - 「 」 : 편명, 작품명
  -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 ‘ ’ : 강조 표현이나 간접 인용문
  - · : 병렬형 단어의 중간 표시
  - …… : 중간 생략문

# 목 차

I. 서문 - 연구동기와 배경 - .....	1
II. 오봉(梧峯) 선생의 생애와 업적 .....	4
1. 출생 및 가족관계 .....	4
2. 본관(本貫) .....	7
3. 시조 .....	8
1) 시조 .....	8
2) 입향시조(入鄕始祖) 신윤유(申允濡) .....	11
3) 파조(派祖), 귀파(龜派)와 읍파(邑派) .....	11
4) 중시조(中始祖) .....	13
4. 집성촌(集姓村) 의성 구미(龜尾) .....	13
1) 의성(義城)과 봉양(鳳陽)의 역사 .....	13
2) 500년 의성 구미 .....	14
5. 생애 .....	17
III. 오봉 선생의 업적 - 오봉에 의한 명문가 대우 - .....	20
1. 오봉·고송(孤松) 부자의 과거 급제 .....	20
2. 임진란과 공신서훈(功臣敍勳) .....	22
3. 396주기(周忌) 불천위(不遷位) 제사 - 2020.1.8.(음력) - .....	25
4. 오봉 종택(梧峯宗宅) .....	27
IV. 오봉의 학문과 시(詩), 관료 생활 .....	30
1. 학문 .....	30

2. 시(詩) .....	33
3. 30년간 (28세~57세) 관료 생활 .....	47
1) 선행 사례(善行事例) .....	47
2) 주요 관직 .....	49
(1) 예안 현감(1591.6~1596.2) .....	49
(2) 창원 부사(1613.8~1618.3) .....	51
(3) 오봉의 관직 제수 .....	54
3) 상소문(上疏文) .....	57
(1) 승지를 사양하는 소(「辭承旨疏」) .....	57
(2) 사헌부 상소문 차자(筭子) 초안(선조) .....	58
4. 대인관계 .....	61
1) 선현(先賢) .....	61
(1) 서애 류성룡(1542~1617) .....	62
(2) 학봉 김성일(1538~1593) .....	63
(3) 퇴계 이황(1501~1570) .....	65
2) 교류 인사 .....	66
5. 관직 은퇴 이후의 생활 .....	68
1) 의성 구미리(龜尾里) 정착 .....	68
2) 구미보(龜尾湫) 축조 .....	70
(1) 조선 시대의 수리 시설 .....	70
(2) 구미보(1610~1617) .....	73
(3) 400년간 가동 중인 구미보 .....	76
3) 향년(享年) 63세 .....	78
(1) 이조참판 증직 .....	78
(2) 제문(祭文) .....	79
(3) 만사(輓詞) .....	81
(4) 오봉문집 관련 .....	82
<b>V. 임진란과 의병 활동 .....</b>	<b>90</b>
<b>1. 임진란의 성격 .....</b>	<b>90</b>
1) 임진란의 성격 .....	90

2) 임진란 전의 국내외 정세 .....	91
(1) 국외 정세 .....	91
(2) 국내 정세 .....	92
<b>2. 전란 속의 당쟁·당파 .....</b>	<b>94</b>
1) 국론 분열과 정국 .....	94
2) 주화론(主和論)과 주전론(主戰論) .....	97
<b>3. 일본군의 침략과 항왜(抗倭)·의병 활동 .....</b>	<b>99</b>
1) 일본군의 침략 경로와 병력 규모 .....	99
2) 임진란의 시대 구분 .....	107
3) 조선군의 대항과 의병조직 .....	108
(1) 임란 직전 향촌 사회의 실정 .....	108
(2) 조선군의 군사적 상황 .....	109
(3) 군사 수의 감소 .....	111
<b>4. 임진란과 의병 .....</b>	<b>113</b>
1) 의병의 의미 .....	113
2) 전국의 의병장 .....	114
3) 관직의 제수와 통제 .....	115
4) 관군과 의병의 갈등과 조정 .....	118
<b>VI. 오봉의 의병 활동과 지원 .....</b>	<b>120</b>
1. 오봉의 충효사상과 구국정신 .....	120
2. 군사적으로 본 예안(현감)과 안동(부사) .....	122
1) 진관 체제(鎭管體制)와 관방(關防) .....	122
2) 초기 전황과 행정조직 .....	124
3. 신지제의 의병 대책 건의문 -1593년 경상좌도 관찰사 한효순- .....	125
4. 의병 조직 및 지원 활동 .....	129
1) 예안의병의 조직 .....	130
2) 안동 지역의 의병과 연합편성 .....	138
3) 용궁(예천), 문경, 상주, 봉화 .....	146
4) 의성(비안), 군위(의흥) .....	152

5) 영천 .....	187
6) 경주 .....	189
<b>5. 명군(明軍)의 참전과 실체 .....</b>	<b>192</b>
1) 명군의 임란 참여 동기 .....	192
2) 명군의 활약과 추이 .....	193
3) 조선과 명군의 알력과 갈등 .....	194
4) 정유재란 경상좌도의 명군 주둔 .....	197
<b>VII. 정유재란과 새로운 회맹(會盟) .....</b>	<b>199</b>
1. 정유재란 .....	199
2. 대구 팔공산 회맹 .....	200
3. 창녕 화왕산 회맹 .....	202
4. 오봉의 군사 관련 관직과 활동 .....	203
1) 의병대장 곽재우와 협력 .....	203
2) 오봉의 군사 관련 관직 10년 .....	205
3) 전략 요충지 시찰·조사 .....	208
(1) 봉화 청량산(淸凉山) .....	208
(2) 대구 팔공산(八公山) .....	211
<b>VIII. 맺음말 .....</b>	<b>215</b>
■ 참고 자료 .....	218
■ 편저자 신수식(申守植) 약력 .....	221





## I. 서문 - 연구동기와 배경 -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 1562~1624)의 문집(유교책판)은 2015년 6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아주 신가와 오봉과 후손 모두의 자랑이 되어왔다. 『오봉집(梧峯集)』은 1736년 자손들이 모여 문집 간행이 논의되었고, 1739년 10월 1일 고손자 진구(震龜)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1740년 2월 장대서원에서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되었다. 문집은 1742년 별집(別集)이 추가 간행되었으며, 목판본 문집은 소장처로서 규장각, 서울대 성균관대 장서각, 연대 도서관, 옥산서원, 도산서원 등이 알려져 있다.

오봉 종가의 보관 분은 1950년 6·25동란으로 일부 산질(散帙)이 되었고 유집(遺集) 20여점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었다. 1997년 12월 20일 종손 병철(炳哲)이 『오봉집』 5권과 그의 아들 고송(孤松) 문집 2권을 합하며 오봉(梧峯)·고송 선생(孤松先生) 양대 문집(兩代文集)을 700만원 예산으로 300권을 인쇄하고 권당 25,000원으로 배포한 바 있다.

『오봉집』의 내용은 이때까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후손들이나 일반 연구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2018~2019년 동안 국역 사업에 착수하여 2019년 7월 『오봉집』 6권을 상(上)과 하(下) 2권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오봉집』 국역 사업은 문중과 종원들에게 기쁨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오봉집』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점 이외에 오봉 신지제 선생은 임진란 시기에 예안 현감으로 있으면서 도망으로 공석 중인 안동 부사직을 겸임(1592.5)하며 의병 활동으로 예안·안동뿐만 아니라 당시 경상 좌도 북부 지역(봉화·의성·비안·군위·의흥·안동·신녕·영천·경주)과 상주·문경·예천(용궁)등을 지킨 공로가 지대하였다. 임진란이 끝나고 오봉 선생은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과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2등에 서훈(敍勳)되었다.

이상 두 가지 사실이 이번 문집 국역 사업에 정부기관이 도움을 주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19년 5월 필자는 오봉 선생으로부터 14세인 자손으로서 문집 교정 작업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평소 존경하던 중시조(中始祖) 오봉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새삼 감복하고 있다. 오봉 선생의 업적은 『선조실록』 등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고문서 등 귀중한 자료는 한국국학진흥원과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오봉 선생의 공적 가운데 임진란 시기의 의병 관련 업적이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있지 않아서 계속 고심하여 왔는데 이번에 문집 국역 사업이 끝나면서

## 2 • 梧峯 申之梯의 생애와 임진란 의병활동

전공이 아닌 나로서는 무모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 그동안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2013, 회장 류한성)가 연구 발표한 경북 지역 임진란사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경북 지역 가운데 의성(비안 포함)과 군위(의흥 포함)가 군(郡) 당국의 협조가 없어서 누락되고 있다. 의성 지역은 같은 경상좌도로서 안동과 인접하고 있고, 특히 이곳은 오봉 선생의 태어난 고향으로 부모님들이 일본군을 피하고 있었고, 형님(신지효)은 일본군의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지리적 여건 등으로 보아 이 지역의 의병 활동 또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오봉 선생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로서 보험학(민영보험·사회보험), 고용 및 노사관계론이 전공이다. 한학자(漢學者) 또는 국사학자(國史學者)들에게는 면목이 없는 일이지만 나의 조상에 관한 업적 조사를 내가 직접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건강을 보증할 수 없는 현재 우리 나이로 80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필자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00년사(1905~2005)를 단독으로 편술하였고, 전공인 보험에 있어서도 한국보험사(박사학위논문 1974), 손해보험 사료(史料) 본문 6권, 부록 2권, 생명보험사료 본문 4권을 1985년~1992년 기간 동안 편찬하였으며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년퇴임 후 아주 신씨 재경종친회 초대회장(2014~2016)을 지냈고 500여년이 되고 있는 아주 신씨 집성촌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동에서 태어났다. 오봉 선생은 13대 조부<sup>1)</sup>이지만 7대 조부 통덕랑 신근인(申近仁, 1727~1791)이 둘째 아들

1) 대수(代數)와 세수(世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상과 자신의 간극(間隙)을 헤아리는 방식에 주목하여, 크게 대(代)와 세(世)를 다른 개념으로 보는 입장(異義)과 대(代)와 세(世)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입장(同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대(代)와 세(世)를 다른 개념으로 보는 주장(異義) : '대는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 [代不及身·己不代數]'와 '조상은 代라하고 후손은 世라 한다. [上代下世]'는 방식에 입각하여, 대수(代數)는 자신을 제외하고 부친(父)부터 1대로 간주하여 윗대로 올라가며 헤아리고(조부 2代祖·증조 3代祖·고조 4代祖) 세수(世數)는 기준이 되는 조상부터 1세(世)로 간주하여 자신까지 내려가며 헤아린다.(고조 1世, 증조 2世, 조부 3世, 부친 4世, 자신 5世) 대수와 세수를 구분해서 사용하며, 세수가 대수보다 1이 더해져서 집계된다.(성공관 전례연구위원회, 박수밀 교수, 『박수밀의 알기 쉬운 한자 인문학』, 성주이씨·광산김씨 대종회 등)

② 대(代)와 세(世)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주장(同義) : '조(祖)는 자신의 선조'란 뜻이고, '손(孫)은 선조의 후손'이란 뜻이므로 선조나 자신을 대수(大數)나 세수(世數)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래는 세(世)로 써왔으나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의 이름을 피휘(避諱)하여 대(代)자로 바꾸어 쓴 것이므로 세(世)와 대(代)를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조상의 대수[代祖]나 세수[世祖]를 따질 때는 자신을 제외하고 부친부터 1대로 간주하여 올라가며 헤아리고(조부 2代/世·증조 3代/世·고조 4代/世), 후손으로서 대수나 세수를 따질 때는 기준이 되는 조상을 제외하고 자신까지 내려가며 헤아린다.(고조 0代/世, 증조 1代/世, 조부 2代/世, 부친 3代/世, 자신 4代/世) 또 후손으로서 자신을 지칭할 때 '○세손'보다는 '조상으로부터 ○세'라고 칭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성백호 교수, 『전통문화칼럼』, 영일정씨·대구서씨 대종회 등)

최근 학술적으로 대와 세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동의(同義)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성씨별 문중이나 대종회에 따라 이의(異義)를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봉신씨세계(梧峯申氏世系)』에 의하면 시조로부터 오봉 선생은 14세(世), 필자는 27세(世)가 된다. 여기서는 후손으로서 『아주신씨세보』를 따라 세(世)로 나타내되, 이의와 동의를 절충하여 오봉 선생이 필자에게 13대조(代祖)가 됨을 밝히고, 종가의 의견을 따라 필자는 오봉 선생으로부터 14세인 자손으로, 신명균은 오봉 선생으로부터 16세인 자손으로 표현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로 『오봉

로서 종가로부터 분가하였다. 이 원고는 논문이라기보다 특히 후반부 임진란 의병 활동에 있어서는 자료를 집성한 것으로서 훗날 본인이나 후손 또는 다른 학자가 연구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봉집』이 번역 해제(解題)되기 까지 오봉에 관한 소개 책자는 종가에서 만든 오봉종택지(梧峯宗宅誌) 이외에 특히 최근에 발표된 다음 두 편의 논문, 고송 신흥망 선생에 관한 논문 1편 밖에 없었다.

- ① 박명숙, 「오봉 신지제 선생의 생애와 학문」, 도운회(陶雲會) 2016년도 학술발표논문, 2016.4.30.
- ② 황만기, 「오봉 종가의 고문서와 오봉의 학문, 그리고 삶의 제 양상」, 2018년 의성 조문국 박물관 학술대회(의성지역 고문헌의 고찰), 2018.12.7.
- ③ 박채은, 「울산 도호부사 신흥망(申弘望)에 대한 고찰」, 울산문화연구, 2010 제 3집, 6~24쪽.

이제 오봉 선생은 그의 후손들이나 아주 신씨 33,000여명의 관심을 벗어나서 안동·예안을 중심으로 경북 북도 지역 전체 임진란사와 의병 활동 연구에 중요한 대상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

선생문집』 별집의 발문을 쓴 신체인(申體仁)은 「별집개편후지(別集改編後識)」 말미에서 “6세손 신체인이 삼가쓰다.[六世孫體仁謹書]”라고 하여 이의(異義)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 II. 오봉(梧峯) 선생의 생애와 업적

### 1. 출생 및 가족관계

오봉은 명종 17년 임술년 7월 19일 진시(辰時)에 아버지 몽득(夢得) 어머니 월성 박(朴)씨를 부모로 하며 3남 2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이 태어난 곳은 의성현 하천(下川) 신례동(新禮洞) 자택이었다.

선생의 윗대 조상은 거제도(巨濟島)·아주(鵝洲) 신영미(申英美)인데 왜구들의 계속된 침범으로 섬 전체를 비워주고 거창(居昌) 지역으로 집단 이주했다. 4대조 윤유(允濡) 때 상주군(지금의 의성군) 단밀면 청신동으로 이주하였고, 5대조 우(祐)<sup>2)</sup>는 그 부근의 상주 만경산(萬景山) 기슭과 그 부근 일대가 생활 터전이었다. 9대조 시생(始生)은 상주에서 안동 풍북면(豊北面) 정사동(鼎寺洞)으로 이사 가서 11대조 한(翰)이 안동에서 의성현 신례동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곳에서 오봉 선생이 태어난 것이었다.

오봉 선생이 언제부터 봉양면 구미동으로 와서 살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아다녔고 구미동은 관직을 은퇴하고 마지막 1618년 7월부터 작고한 1624년까지 구미동과 건넌마을 천동(泉洞)의 제사에서 거주했는데 구미동은 오봉의 아버지 몽득(夢得)과 3촌 몽필(夢弼, 한성 판윤에 증직)이 지금의 '못안[池內]'이라는 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오봉 선생 나이 8세인 1569년 12월에 어머니 박씨의 상을 당하였다. 선생의 몸이 야윌 정도로 슬퍼하는 것이 어른과 같았다. 태어난 지 겨우 10개월 된 어린 누이가 있었는데 선생은 동생을 안아주고 업어주면서 슬피 울기를 그만 두지 않았고, 늘 자신이 거처하는 방안에 두고 직접 유모를 구하여 젖을 먹였다. 9세 때 한번은 의흥(현재 군위군 의흥) 외가를 왕래하며 어머니가 거처하던 방을 보고는 문득 벽을 뚫으며 목놓아 우니 지켜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오봉 선생은 10세 때 계모 오부인(吳夫人)을 정성껏 섬기며 잘 따랐는데 어린 나이로서 누구나 해내기 어려운 일이고 또한 남들이 미처 몰랐던 점이다. 오봉은 장성하여 23세에 결혼하고, 28세 때 과거에 급제한 후에도 계모에 대한 효심은 늙어 죽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다. 오봉 신지체는 아버지 신몽득(申夢得), 어머니 월성 박씨(月城 朴氏) 사이에서 태어난 3남 2녀 가운데 차남이었고, 형님은 지효(之孝)<sup>3)</sup>, 아우 지신(之信)<sup>4)</sup>, 누이는 김희맹의 부인이다.

2) 신우(申祐) : 호는 퇴재(退齋),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고려 충혜왕(忠惠王) 때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봉상·사헌부장령·전라도 안렴사를 거쳐 호군(護軍)에 이르렀다. 상주의 속수서원(涑水書院)과 청주의 검암서원(儉巖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술은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2권이 있다.

3) 신지효(申之孝, 1561~1592) : 자는 달부(達夫)이고, 호는 응암(鷹巖)이다.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1592년

이복동생으로 고창 오씨 계모가 낳은 지의(之義)<sup>5)</sup>, 지행(之行)이 있고 그 아래 지경(之敬)<sup>6)</sup>, 지훈(之訓)이 있다. 지행은 한성 판윤(증직)을 지낸 3촌 몽필(夢弼)의 후사로 나갔고 지훈은 요절했다.

오봉 신지제 선생은 창원 부사를 마지막 관직으로 하고 고향 의성 구미로 돌아올 때는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아들 홍망(弘望)<sup>7)</sup>이 독자로 태어났고(선조33, 1600.5.7.) 그때 오봉 나이 39세이었다. 고송(孤松) 신흥망은 인조 17년(1639년)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젊은 나이는 아니었다. 고송은 인조, 효종 대에 걸쳐 승정원 주서·성균관 전직·병조 및 예조좌랑·사간원 정언·전주판관·사헌부 지평·울산 부사·풍기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대간으로 직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도승지 이시매(李時楸)의 모략으로 효종의 노여움을 사서 한 때 압록강변 벽동(碧潼)으로 유배를 갔다. 전주 역전에는 아버지 오봉(梧峯)·고송(孤松) 부자의 선정비가 서 있는데 두 분은 시기는 다르지만 우연한 일로 전주 판관을 각각 제수 받아 선정을 베푼 적이 있다.

고송 신흥망은 아들 셋(한로(漢老), 한걸(漢傑)<sup>8)</sup>, 한백(漢伯)), 딸 10명을 두었다. 시조 신영미의 16세 손자인 한노, 17세손 숙범(叔範), 18세손 분구(賁龜), 19세손 도삼(道三)<sup>9)</sup>, 20세손 중인(重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인 선생의 동생 근인(近仁, 1727~1791)이 통덕랑(通德郎) 벼슬을 했고 필자의 7대 조부이다. 7대 조모 오천정씨(烏川鄭氏)는 친정이 가까운 군위군 고로면 양지동 앞산에 무덤이 있고 친정아버지는 승지(承旨) 관직을 지냈다. 필자의 부모 산소를 그곳으로 모셔서 7대 조모 오천 정씨는 지금까지 후손들의 성묘를 받고 계신다.

의성 구미의 오봉 종가에서 오랫동안 보존해 온 고문서 등은 한국국학진흥원과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 기탁하였는데 조문국 박물관에 오봉 신지제부터 여러 후대에 이르기까지 호적에 관한 관청의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다. 신흥망의 호적 기록은 다음과 같다.<sup>10)</sup>

(선조 25) 왜진왜란 때 왜적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부모님을 더 이상 모시지 못하게 되어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한탄하였다. 유고로 1권의 『응암실적(鷹巖實蹟)』이 전하는데, 주목할 작품으로 「혈서습록(血書拾錄)」 등이 있다.

4) 신지신(申之信, 1566~1632) : 자는 원부(元夫), 호는 독현(獨峴),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김언기(金彦璣)의 문인이다.

5) 신지의(申之義, 1577~1642) : 자는 의부(宜夫), 호는 괴현(槐軒),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6) 신지경(申之敬, 1595~1660) : 자는 직부(直夫),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장현관(張顯光)의 문인이다.

7) 신흥망(申弘望, 1600~1673) :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1639년 별시 병과로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지평·정언·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 사헌부 지평 재임 시 탄핵되어 2달간 벽동으로 유배되었다. 저서로는 『孤松集』이 전한다.

8) 신한걸(申漢傑, 1625~1697) : 자는 시중(時重), 호는 삼지당(三知堂),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9) 신도삼(申道三, 1695~1742) : 자는 사달(士達), 호는 독성당(獨醒堂),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1727년 증광시 생원에 합격하였다.

10) 오봉 종가에는 시조 신영미(申英美)로부터 15대 손자 신흥망때 만든 고문서(1600년대) 보첩(譜牒)이 보존되고 있다.

### 신흥망의 호적

강희(康熙) 5년(1666) 신흥망이 올린 호구 단자에 의거하여 의성현에서 발행해준 준호구이다. 호적은 3년에 1번 개수(改修)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백성들이 자가(自家)의 호구 상황을 적어 보고하는 호구단자 2통을 작성하여 올리면 관(官)에서는 확인·정정하여 1통은 원적을 개수하기 위하여 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백성에게 환부(還付)하게 된다. 한편 백성들은 소송시의 첨부 자료로서 또는 노비 소유의 자료로서, 혹은 가문 유지의 자료로서 관으로부터 원적에 준해서 등급 받는 '준호구'가 있다. '호구단자'는 백성이 관에 올리는 형식이고, '준호구'는 관에서 등급 받는 형식이나 두 가지를 혼용하여 쓰는 경우도 있다.

강희 5년(1666) 신흥망의 준호구를 살펴보면, 금뢰면(金磊面) 구미리(龜尾里)에 거주하였으며 통훈대부 전 종부시정 겸 춘추관 편수관(通訓大夫前宗簿寺正兼春秋館編修官)의 지위이며, 나이는 67세 때이다. 본관은 아주(鵝洲),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지제(之梯), 조부 몽득(夢得), 증조 응규(應奎)이며, 외조(外祖) 함안 조씨로 조지(趙址)이며, 아내는 영천 이씨이다. 이에 아내의 4조(父·祖·曾祖·外祖)를 기록하고, 노비도 기록하였다.

### 신분구의 호적

강희 56년(1708) 12월 신분구가 41세 때의 준호구이다. 분구의 본관은 아주(鵝洲), 아버지는 학생 숙범(叔範), 조부 선교랑(宣敎郎) 한로(漢老), 증조부 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 흥망이며, 아내는 옥천 김씨이다. 함께 거주하는 자로는 아우 태구(泰龜)와 제수, 아들 셋은 각각 도연, 도유, 도홍으로 개명하였으며 자부는 예안 김씨이며 100여 명의 노비를 기록하였다.

### 신제원의 호적

도광(道光) 26년(1846) 신제원(申濟遠)의 26세 때 준호구이다. 제원의 본관은 아주, 아버지는 학생 휴룡(休龍), 조부는 학생 조응(祖應), 증조부는 정옥(鼎沃)이다. 외조는 풍산 류씨로 화조(華祚)이며, 아내는 풍산 류씨이다. 동거인으로 계모 이씨가 있으며, 솔자(率子) 효상(孝祥), 솔제(率弟) 달원(達遠)과 귀의(貴宜)가 있다. 제원은 상원(相遠)으로 개명하였고, 이어 노비를 기록하였으며 후반부는 탈락되었다. 1849년 솔자 효상은 관익으로 개명, 1852년 솔자 효상이 관익(寬翼)에서 관익(寬益)으로 변경, 1855년 솔제 귀의의 이름이 성원(聲遠)으로 변경, 솔제 달원과 성원이 혼인하여 제수 이씨와 남씨가 추가되었다.

## 2. 본관(本貫)

아주 신씨의 관향(貫鄉)인 아주(鵝洲)<sup>11)</sup>는 옛날 거제군(巨濟郡=巨濟島)의 한 현단위(縣單位), 3개 가운데 아주현(鵝洲縣)의 이름이었다. 이 지역의 책임자 관리는 신라와 고려 때에 다르다. 고려 때는 현감(縣監)보다 한 단계 높은 현령(縣令)을 두었다.

고려 현종 12년에는 왜구 때문에 땅을 잃고 거창현(巨昌縣)의 속현인 가조현(加祚縣)에 백성들이 거주하였다. 충렬왕 때는 관성(管城)과 병합하였고 곧 현(縣)을 파(罷)해 버렸다. 조선시대 태종(太宗) 14년에는 거창과 거제를 병합하여 제창현(濟昌縣)이라고 불렀고, 세종14년(1432)에는 옛 섬으로 환원시켰다.<sup>12)</sup>

왜구를 피해 아주와 송변(松邊)을 버리고 거창으로 옮겨온 사람들은 아주촌(鵝洲村)이라는 집성촌을 이루어 살았다. 고려 24대 원종(元宗) 때는 삼별초(三別抄)의 난이 있었다. 삼별초는 고려의 최씨 무신정권 때 집권자인 최우(崔瑀)가 도둑을 잡기 위해 만든 야별초(夜別抄)를 좌우로 나눠 좌별초·우별초라 하고 몽고와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병사들을 모아 신의군(神義軍)으로 조직하여 만든 군대를 합쳐 삼별초라 불렀다. 이 삼별초는 고려의 관군과 몽고군에 의해 쫓기는 처지가 되어 남해안의 진도, 멀리 제주도 까지 쫓겨 갔으며, 한 편으로 경상도 쪽 해안 섬으로 숨어들어 가기도 했다. 여기서 거제도도 그들 삼별초에 점거당하고 관아의 관리들과 주민들은 삼별초를 피해 육지로 빠져 나와 결국 거창으로 모여 살았다. 이와 같이 옛 거제도도 빈번한 왜구의 침입과 삼별초에 의해 점거당하는 수난이 많았고 속현 아주도 폐현이라는 허망한 역사를 본 것이다. 옛 아주 지역은 1971년 대우조선(大宇造船)이 들어서서 세계 굴지의 선박건조회사가 자리 잡고 있다.

아주현에는 고려조에 와서 성씨(姓氏) 제도가 등장하자 토호 세력(土豪勢力)으로서 맨 처음 성을 갖는 수장(首長)이 있었다. 그 수장은 신(申)의 성을 취하였는바 후일 신영미(申英美)로 알려진 아주 신씨의 시조였다.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중앙집권이 여의치 않아 산재(散在)한 각 지역의 호족 세력에게 현(縣)이나 군(郡)을 다스리게 하는 책임자를 두었는데 그에게 호장(戶長)이라는 관직을 제수하였다. 거제 관내 속현으로 아주현, 송변현(松邊縣), 명진현(溟珍縣)이 있었는데 이들 3개의 현은 왜구 때문에 폐현이 되었고 아주와 송변의 사람들은 내륙 지방인 거창으로 이주해 갔다. 이들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아주에서 온 이주민의 사람들은 아주촌(鵝洲村)이라 불렀다.

아주 신씨 선대의 기록에는 아주라는 말에서 글자로 표기하기는 아주(鵝洲)라고 하였다. 이 아주에서 ‘주’라는 한자는 섬이라는 뜻의 글자인 ‘洲’를 쓴 것이다.<sup>13)</sup> 그러나 『동

11) 아주(鵝洲) : 한자로 아주(鵝州) 또는 아주(鵝洲)로 쓰고 있다. 단순한 글자로 표기할 때는 아주(鵝州)로 쓰고 아주(鵝洲)라고 할 때는 섬이라는 뜻이다.

12) 신기욱 편저, 『아주 신씨의 역사』, 아주 신씨 시조 바로 세우기 협의회, 2009, 16~23쪽.

『국여지승람』 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표기되는 거제의 지명 편에는 고을이라는 뜻의 ‘州’였고 거창의 지명 편에는 바로 섬의 뜻인 ‘洲’로 표기한 것이다. 과거에 편찬자의 표기는 다르게 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고증하자면 아주현이 폐현되기 전에는 거제에서 분명히 한 고을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느 고을처럼 고을이라는 뜻의 ‘州’로 표기한 것이다. 이를테면 거제의 아주(鵝洲)라 하였다. 거창 지역의 아주촌(鵝洲村) 표기는 실제 아주라는 고을 이름으로 표기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짐짓 고을의 뜻이 아닌 섬의 뜻인 ‘洲’의 글자를 쓴 것 같다. 섬 지역의 관아와 주민이 옮겨와 거창 지역에 한동안 정착한 마을 이어서 그런 의미를 두어 한자 표기를 거제와 다르게 섬의 뜻을 둔 글자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거창 편 의 고적(古跡)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아주촌(鵝洲村)’이란 글이 있고 가조(加祚)에는 거제도에 속한 아주현(鵝洲縣)이 있었다는 내용의 설명이 있다.

### 3. 시조

#### 1) 시조

아주 신씨의 시조는 신영미(申英美)이고 그를 시조로서 1세(一世)로 하여 상계(上系)는 시작되었다. 아주 신씨(鵝洲申氏)의 발상지는 한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큰 섬 거제도(巨濟島)의 한 지역이다. 이 섬의 행정 명칭은 거제군이였다. 신라 때부터 군(郡)으로 불러왔던 큰 고을이었고 여기에는 아주현(鵝洲縣), 송변현, 명진현이라는 3개의 지역 단위가 있었다. 아주현에는 고려조에 와서 성씨 제도가 등장하자 처음으로 성을 가지는 수장(首長)이 있었다. 그는 신(申)의 성을 가진 신영미(申英美)이며 그가 시조이다. 고려 조정에서는 중앙 집권이 쉽지 않아 각 지역의 호족 세력에게 현(縣)이나 군(郡)을 다스리는 책임자를 두었는데 그에게 호장(戶長)이라는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 관직은 향직(鄉職)이라 하였고 지방 관리는 향리(鄉吏)였다.

중앙에서 관직을 갖고 있는 벼슬아치들은 사족(士族)이라 하고, 향리의 사람들은 이족(吏族)이라고 불렀다. 이족의 자식들은 중앙으로 진출하며 벼슬을 할 수 있고 또한 사족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다. 호장은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관리보다 비록 지위는 아래이나 그 영향력은 컸다. 중앙 관리가 지역 통치를 하는데 호장에게 문의하고 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장의 자식이 있으면 나라에서는 동정(同正)이라는 벼슬을 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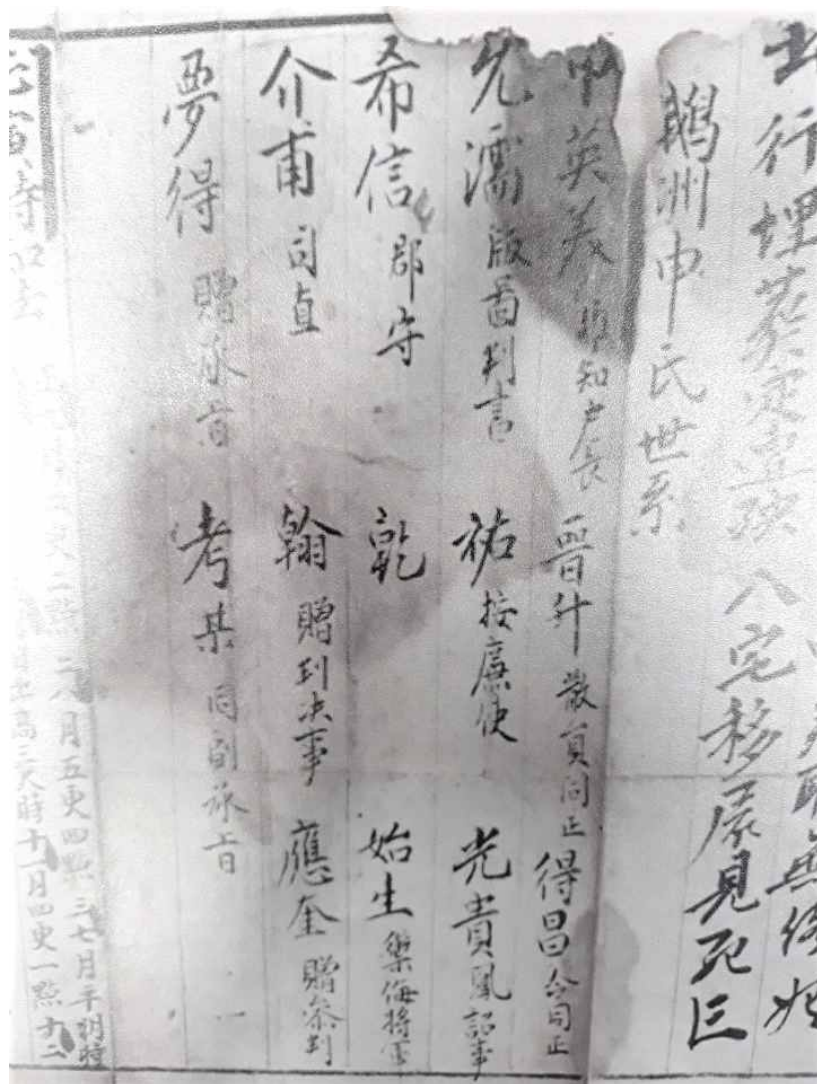
13) 상동, 183~184쪽.



기도 하고 이런 벼슬을 음직(蔭職)이라 하는데 바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위상과 신분에 의해 벼슬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미의 아들 진승(晉升)의 관직은 산원동정(散員同正)이고, 손자 득창(得昌)은 영동정(令同正)이었다. 산원은 고려 때 2군 6위(二軍六衛)에 소속된 정8품의 무관 벼슬이다. 여기에 동정이라는 직위는 산원보다 높은 정5품의 무관 벼슬이고 대개 향리(鄕吏)에게 제수되었다.

고려에서 권지호장(權知戶長)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관직이다. 권지(權知)는 관리시보(官吏試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임시로 어떤 공무(公務)를 관장한다는 뜻도 있다. 호장직에 있으면 자손들이 과거 시험에 나갈 수도 있고 중앙 관서에 진출하여 사족(士族)이 되는 기회도 있었다. 시조의 증손 신윤유(申允濡)가 그 예의 인물이다.

〈자료1〉 아주 신씨 보첩(譜牒)



아주 신씨의 근원은 아주현의 호장 신영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헌이 있다. 이것은 조선조 왕명에 의해서 인물, 세헌(世獻)등에 관해서 편찬한 국가적 문헌으로 영조 때 편찬된 『문헌비고(文獻備考)』라는 책이다. 시조 신영미는 고려에서 권지호장의 관직을 제수 받았다. 그 윗대는 삼국시대부터 아주 지역의 호족(豪族)으로 거주해 왔고 어느 지방 호족과 마찬가지로 성(姓)이 없다가 고려조에 들어와서 성을 가졌다. 성을 가진 후 토착지역 아주를 성의 본관으로 삼았고 향직인 호장을 수임하였다.

우리 아주 신씨 시조 영미(英美)께서는 거제 속현인 아주현의 권지호장(權知戶長)이라는 기록을 아주 옛날의 가첩 또는 보첩(譜牒)에서 보는데 그러나 그 윗대는 상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어느 성씨 문중을 막론하고 오래전 일이라 문적이 보존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호장이라 함은 지방 토호족으로서 가진 향직이다. 즉 호족의 우두머리가 가진 관직인 것이다. 고려 때 5도(五道) 향리(鄉吏)의 정원을 보면 100정(丁)이하의 현(縣)에서는 4인의 호장을 두고 있었다. 『거제군지(巨濟郡誌)』에 보면 고려 원종 12년(1271)에 왜구의 침범으로 인하여 거제 주민과 아주 신씨 족속들이 육지로 옮겨가 거창지역 가조현에 피난하여 살았다고 한다. 이후 거제도에는 151년간 왜구의 침입 때문에 호족의 자료가 없어졌다고 한다. 권지호장 신영미를 시조로 하는 아주 신씨는 거제에서 거창으로 나아가 더부살이를 하다가 5세(世)에 이르러 상주로 이전하였고 6세가 다시 의성 지방으로 옮겨 갔으며 이곳에서 종인이 번성하며 조선 중기에는 사족(士族)과 이족(吏族)으로 세력이 떨쳤다고 한다.

신영미(申英美)의 묘는 현 거제 아주동 옥녀봉 산록, 당등산 혈맥이고 풍수설에 의하면 거위의 비상형이고 양 날개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큰 명당 자리라 한다. 묘는 1972년 대우 조선 부지 조성 공사 시 후손들에 의해 이장하였으며 부장품은 고려 시대에 동조(銅造) 순가락과 밥그릇이 출토되었다고 하며, 이장 시 67세~70세 가량 7명~8명의 자손이 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인적 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분실하였다고 하며,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8·15해방까지 20명~30명의 자손들이 묘제 행사를 하였다고 한다. 묘지 봉분은 컸으며 둘레는 약 사방 30m 정도이고 축대는 1단 정도의 높이로 쌓여져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는 당시 거제군 공보실 근무자 이승철(李承哲)씨가 전한 것이다.

대우 조선소가 들어 올 당시 간송, 용사골, 장터물, 당목(堂木), 탑골 일부 480세대가 이주를 했고, 그 때 묘지도 이장을 해야 했다.

고려조에 등장한 어느 성씨도 그러하지만 시조의 부인에 관한 것은 잘 기록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시조부터 3세까지 배(配)는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부인은 실전(失傳)으로 전해왔다. 고려 중기 때까지 시조의 부인을 기록한 것은 사실에서 벗어난 것으로 학계에

서는 말하고 있다. 부인이 기록된 것은 4세인 윤유(允濡)때부터이고 배(配)는 지평직(持平職)에 있는 이언(李堰)의 딸이었다.

## 2) 입향시조(入鄕始祖) 신윤유(申允濡)

각 성(姓)씨 시조의 출신지역이 다양하고 각 국가의 도읍지가 아닌 시골[鄕里]인 경우가 많다. 아주 신씨 시조 신영미 뿐만 아니라 고려 신씨 신숙주, 풍산 류씨 서애 류성룡의 시조도 모두 호장 출신이었다고 한다. 원래 본관은 시조의 출신지역 이름(지명)을 따서 작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곳에서 끝까지 종족이 살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또는 도읍지에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고려 말기 이성계와 정치적 사상이 달라서 선산 구미 금오산으로 들어간 야은(冶隱) 길재(吉再)처럼 아주 신씨도 4세째 윤유(允濡)가 상주 만경산(萬京山), 상주 단밀면(丹密面) 청신동으로 거처를 옮겨 왔다.

입향 시조 신윤유의 고려 때 관직은 판도판서(版圖判書)이었다. 이것은 고려 시대 판도사(版圖司)의 수장 관직이다. 충렬왕 때 상서호부(尙書戶部)를 고쳐 부른 관직 명칭이며 그 때까지 재상급 관직으로서 조선시대 호조 판서(戶曹判書)와 같은 직위이다. 신윤유는 초하루 보름마다 산마루에 올라 개성을 바라보고 깊은 한은 풀었기에 산 이름도 망경산(望京山)이라 하였는데 그 후 만경산(萬京山)으로 변경하였다.

입향시조(윤유)와 그의 아들 우(祐)의 무덤은 현재 행정 구역으로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인데 장소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후손들은 현재까지 아주 신씨 대종회가 중심이 되어 매년 10월 3일(개천절·공휴일) 이곳을 찾아와 제사를 지내고 있다. 구천면 청산리에는 제사 건물이 있고 2세 진승(晉升), 3세 득창(得昌)의 가묘(假墓)가 있다. 이곳으로 이전하여 입향 시조가 된 윤유는 개성에서 내려 왔지만 실제 아주 신씨 종원들은 다수가 거창에서 살다가 이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조 신영미의 묘는 거제도, 2세와 3세의 묘는 거제도 또는 거창 지역의 어느 곳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3) 파조(派祖), 귀파(龜派)와 읍파(邑派)

아주 신씨 5세는 우(祐)이다. 관직은 봉상대부 사헌부 장령(奉常大夫司憲府掌令)과 전라도 안렴사(按廉使), 신호위호군(神號衛護軍)을 역임하였다. 봉상대부는 고려의 문관 벼슬로 정4품의 품계이다. 충렬왕 때 제정된 대부(大夫) 벼슬이었다. 사헌부 장령은 문무 양쪽의 공직자들을 감찰하는 업무와 풍속을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기관에 소속된 관직이다. 종4품에 해당되었다. 전라도 안렴사는 전라도 지역을 안찰(按察)하는 직무이고

품계는 종3품에 속했다. 신호위 호군은 신호위라는 군 부서에 소속된 정4품의 무관벼슬이다. 신호위는 고려의 육위(六衛)의 하나로 7개의 군영(軍營)을 거느리는 부대였다. 위(衛)는 군의 부서를 표시한 것이다.

특히 우(祐)는 효자로 유명하다. 『여지승람(輿地勝覽)』의 문헌에 보면 관직은 호군이었는데 고려 말 혼탁한 세상에 스스로 몸가짐에 조심했고 물러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진력하였다. 아버지 판서공(判書公)이 졸(卒)하였을 때 묘 앞에서 여막을 짓고 3년 동안 조석으로 곡을 했다. 그런데 대나무 두 그루가 분묘 앞에 자란 것을 보고 효도에 감동한 소치였다는 소문이 났다. 조정에서는 정려문(旌閭門)이 내려지고 노변 좌측에 효행을 기록한 효자비가 섰다. 그래서 이 지역을 효자리(孝子里)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의 의성(그 당시 상주) 단밀현 관동리(館洞里)이다. 단밀현은 현재 의성군 지역이다. 그러나 관동리는 상주시 외서면 지역이다. 당시 의성현은 상주목(尙州牧)에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단밀현을 상주 지역으로 표기한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 효성을 기려 묘우(廟宇)를 현 북쪽 1리 지점에 지어 속수서원(涑水書院)이라 하였다. 배(配)는 류씨(柳氏)로 약목(若木)의 곤산 부원군 류익정의 여식이며 묘는 동쪽 10리 사포(蛇浦) 서향원(西向原)에 있다. 우(祐)는 상주 땅에서는 그의 효에 감동하며 짐짓 아버지의 묘전(墓前)에 쌍죽(雙竹)이 자랐다고 한다. 특히 공(公)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와 막역한 사이로 친구같이 지냈는데 형조판서의 재상 자리를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아주 신씨 5세 우(祐) 광부(光富), 광귀(光貴) 두 아들을 두었다. 광부는 내부령(內府令)이고 광귀는 지봉주사(知鳳州事)이다. 내부령은 나라 안의 재물을 맡아 보는 관직이며, 지봉주사는 황해도 봉산 군수의 관직이다.

아주 신씨는 6세부터 읍파(邑派) 신광부와 귀파(龜派) 신광귀로 나누어진다.

- |                |               |            |
|----------------|---------------|------------|
| 邑派 : 申光富(內府令公) | 龜派 : 申光貴(鳳州公) |            |
| - 縣令公派(士贊)     | - 安東派(以甫)     | - 果川公派(用甫) |
| - 靜隱公派(元福)     | - 直長公派(幹)     | - 北軒公派(暹)  |
| - 判官公派(尙道)     | - 鷹巖公派(之孝)    | - 教授公派(善甫) |
| - 鰲潭公派(泳道)     | - 梧峯公派(之梯)    | - 判事公派(倣)  |
| - 三百堂公派(志道)    | - 獨峴公派(之信)    | - 扶餘公派(命周) |
| - 華谷公派(師道)     | - 槐軒公派(之義)    | - 悟齊公派(鶴)  |
| - 溪峴公派(敏道)     | - 通德郎公派(之敬)   | - 杏亭公派(鶴)  |
| - 虎溪公派(適道)     | - 同知公派(之行)    | - 禦侮公派(希敬) |
| - 晚悟公派(達道)     | - 參奉公派(應壁)    |            |
| - 懶齊公派(悅道)     | - 訓導公派(之忠)    |            |

#### 4) 중시조(中始祖)

아주 신씨 족친 또는 파조(派祖) 간에 시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어 오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위의 각 파조를 중시조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다. 중시조의 채택 또는 도입 여부는 각 파(派)에 따라서 다소의 사정이 다르다. 위에서 제시한 읍파(10개)와 귀파(18개)의 공통점은 각 파조의 연령이 비슷하고 특히 읍파는 도(道)자 돌림의 이름에서 6촌간이 대부분이고, 귀파는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의 6형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주 신씨 가운데 대표적인 파조는 오봉 선생이다. 우선 그는 족친 가운데 과거 시험에 제일 먼저 합격하였고, 임진란의 공신에 책봉되는 등 그의 인물 평가는 절대적이다. 한편 읍파 가운데 적도(適道), 달도(達道), 열도(悅道)는 형제간이다. 과거 급제도 부자간(신지제와 신흥망), 형제간(신달도<sup>14</sup>)와 신열도<sup>15</sup>)에 성취된 경우가 있어서 28개의 파조 가운데 불과 몇 개의 가문에서 대표적인 중시조가 선정될 수 있다.

### 4. 집성촌(集姓村) 의성 구미(龜尾)

#### 1) 의성(義城)과 봉양(鳳陽)의 역사

의성의 역사는 신라 벌휴왕 2년(AD 185) 가야나라 조문국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후 조문국은 신라에 합병되었다. 의성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문소군(聞韶郡)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태조 12년(929) 7월 후백제 견훤의 군사 5,000명이 문소군을 침략하여 성주(城主) 홍술 장군이 전사했다. 태조는 성주의 순국에 보답하고자 고을 이름을 대의간성(大義干城) 4글자에서 2글자를 줄여 의성(義城)이라 하였고 태조 23년(939) 의성부로 승격하였다. 의성은 고려 개국 공신 홍유(洪儒)의 고향이기도 하며 그의 딸이 태조의 후비가 되어 의성부원대군을 출산하였다. 의성은 고려 현조 이후 안동부의 속현으로 있다가 의성부로 승격하였다.

의성과는 별도로 비안현(比安縣)이 독립되어 있었는데 태종 1403년 유양(兪讓)을 현령으로 처음 임명하였다. 비안현은 구한말까지 존재하였다. 봉양면(鳳陽面)은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하천면(下川面)과 금뢰면(金磊面), 석전면(石田面)이 합하여

14) 신달도(申達道, 1576~1631) : 자는 형보(亨甫), 호는 만오(晩悟),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조목(趙穆)·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1623년 정시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문한관·사간원 정언·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척화론을 주장하다 파직되었다. 후일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만오집』이 전한다.

15) 신열도(申悅道, 1589~1659) : 자는 진보(晉甫), 호는 나재(懶齋),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1624년 증광시 을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서장관·예조 정랑·사간원 정언·울진 현감·사헌부 장령·능주 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생긴 이름이다.<sup>16)</sup> 이때 충북 제천군 봉양면(鳳陽面)도 면 단위의 같은 지명이 나왔고 지금도 중앙선 기차역의 명칭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봉양의 유래는 봉황(鳳凰)에서 봉(鳳)과 조양(朝陽)에서 양(陽)을 따온 것으로 시경에서 봉황은 아침 해가 비치는 곳(동쪽)에서 온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지명의 연유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 2) 500년 의성 구미

우리 조상들이 이주한 의성 신례동(중리 또는 상리)은 외진 산골로 천수답에 의존하는 환경이어서 의식주 해결에 부적합했다. 반면에 구미동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역촌 도리원이 있고 대구, 안동, 상주로 통하는 교통이 요지였고, 상리보다는 넓은 들에 의성과 금성에서 흘러오는 강의 합류점이어서 영농이 용이하고 어류도 많았다. 오봉의 증손자(淑範)는 지내에 있던 종가를 헐고 현재 종택 위치를 중심으로 99칸을 건립하였다. 이 시기가 조선조 숙종 임금 때였다. 그 후 우리 조상은 오봉 부자의 버금가는 인물이 나오지 못했고, 오랜 세월 풍우에 시달린 종택은 허물어지고 있어서 1884년 지손들의 도움으로 현재 종택으로 축소·개축했다. 그때까지 종가식구로 살아왔던 우리는 나의 7대 조부 근인(近仁, 1727~1791)이 둘째 아들로써 종가에서 분가했다.

자연 부락이 하나의 집성촌으로서 500여년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화와 개발시대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구미동은 오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며 500년에서 조금 부족하지만(460년) 이 동네의 동편에는 같은 아주 신씨로서 귀파에 속하면서 파조가 다른 훈도공파(訓導公派)가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500년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970년대 후반 고려대학교 교직원 산우회(안암산우회)에서 만난 가족사회학을 연구하는 사회학과 최재석 교수(당시 한국족보학회 회장)가 우리 시골 동네(구미)가 임진왜란 전부터 조성된 집성촌이라고 하였더니 혹시 그 때의 족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물어왔다. 그 때 나는 최근과 같이 완전히 활자화된 대형 책자의 족보인 줄 알고, 없다고 대답했는데 사실은 보첩(譜牒, 가첩의 일종)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동네는 오봉 신지제의 경우 1589년 대과에 급제했기 때문에 이 경우 과거 합격자의 신상 등록·보고에는 조상과 성씨 본관의 기재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었다.

구미와 같은 전통적으로 오래된 동네에 대해서 1812년 이미 200년을 지나온 동네를 소개한 신정주(申鼎周, 1764~1827)가 집필한 『구장지(龜莊志)』가 있다.(105쪽 분량) 신정주는 본관 아주, 자는 경백(景伯), 호는 도와(陶窩), 조선조 영조 갑신년에 봉양면 길천 2리(천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재종숙(再從叔) 회병(晦屏) 신체인(申體仁)에게 글

16) 이형석, 「봉양면의 지명 유래」, 『의성문화』 제 14호, 1999, 130~132쪽.  
김종우, 『의성 다가서기』, 다심, 1996, 26~28쪽.

을 배웠는데 48세 되던 해에 200년간 내려온 구미·구산의 『산천기지(山川基址)』와 연혁, 인물, 문장의 흥쇠를 자세하게 기록한 『구장지』를 저술하였다.<sup>17)</sup>

### 구미촌(龜尾村)

#### ① 인접지와의 거리

- 의성현 서쪽에 금뢰면(金磊面)에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 구호(龜湖)라고도 한다. 동쪽으로 의성과는 30리, 서쪽 비안과 30리, 남쪽 의흥과 50리, 북쪽 안동과 90리, 서남쪽 군위와 30리 거리에 있다.

#### ② 촌락별명(村落別名)

- 지내촌(池內村) : 못안, 옛 종가자리가 있었던 곳
- 지외촌(池外村) : 지금의 종가가 있는 곳
- 서변(西邊) : 신당(新堂)이 있던 아래 곳
- 송월촌(松越村) : 동부 작은 언덕으로 소나무가 있었던 곳<sup>18)</sup>
- 동변(東邊, 동부) : 종가가 있는 동쪽을 일컬으며 못 밖이라고도 함. 오랫동안 아주 신씨 훈도공파가 모여 살았다.
- 야촌(野村) : 종가 앞길 몇 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 신기(新基) : 서부 앞 큰 길로 지금은 없어 짐.
- 석박신기(石朴新基) : 송월촌 앞 바둑판과도 같은 큰 돌이름. 오늘 날 지식묘(고인돌)로 판명되었고 마치 바둑판과 같다.

#### ③ 산천(山川)

- 유판령(楡坂嶺) : 구미 동북 뒷산 판항촌(板項村)이라고도 하였으며 문흥 2리 서북으로 넘는 고개.
- 동산(東山) : 종가 뒷산 옆에 있고 반월형(半月形)으로 재사가 있다.
- 신당(神堂) : 서부 뒷 언덕 위에 옛날 경송재(敬松齋)와 안골에 독신당(獨愼堂)이 함께 있던 곳
- 쌍천(雙遷) : 지금의 금산서원 건너 국도변 앞 깎아지른 듯한 큰 바위에 쌍천이라고 새긴 두 글자가 있고 구동공(龜洞公)의 글씨가 전해오다가 1996년 도로 확장 공사로 허물어 버렸다. 이곳은 남대천과 쌍계천이 만나는 섬개들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조산(造山) : 소부(小阜, 작은 언덕)란 옛 이름이 있어 쌍천 아래 낮은 곳에 흙으로 쌓았던 곳.

17) 신차수(申且洙), 『『구장지(龜莊志)』 해제(解題)』, 『의성문화』 제14호, 1999, 103~112쪽.

18) 나의 집이 있던 곳으로 통상 '솔림'이라고 불렀다. 1725년경 7대조 신근인이 지은 집으로 2006년 교육으로 헐어 버렸고, 지금은 넓은 빈터로 남아 있다.

- 삼보산(三寶山)<sup>19)</sup> : 구미 앞산을 말하며 뒤쪽에 북망산이 있고 남쪽에 장대서원이 있던 곳.
  - 구산(龜山) : 구미 안산으로 거북이 엮드린 형으로 그 아래 가마소가 있고 위에 서당과 구산 마을이 있던 곳.
  - 천방산(天放山) : 구미촌 먼 안산으로 지보사와 오봉공의 독서하던 곳이 있는 곳.
  - 장천(長川) : 청송에서 발원하여 굽이굽이 흘러온 강으로 서쪽 하천(쌍계천)과 합류한다.
  - 부연(釜淵) : 구산 아래 가마와 같은 형을 한 곳, 가마소라고 함.
  - 보방(洑防) : 오봉공이 처음 이거하여 아래·윗 들에 축을 쌓아 논을 연결시켜 이십 리에 물이 흐르게 하였다.
  - 하천(下川) : 빙산(춘산)에서 발원하여 금산 아래 장천(남대천)<sup>20)</sup>과 합류한다.
  - 금연(錦淵) : 금연정사 앞 산 아래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짐.
- ④ 수목 : 마을에서 심어지거나 자생되어 자라는 수목을 정리하였다. 홍매(紅梅), 백일홍, 측백, 칠송, 질경, 향수, 죽림, 추목, 정향, 괴목, 벽오, 유목, 역목, 흡협, 계변유, 보전송
- ⑤ 제택(第宅) : 구당(龜堂), 고송공구제, 사우(祠宇), 종가(宗家), 낙선당(樂善堂), 별묘(別廟), 재사(齋舍), 서당(書堂), 죽애정사(竹厓精舍), 쌍벽당(雙碧堂), 정빙정(亭冰亭), 양신당(養神堂), 경송재(敬松齋), 수졸당(守拙堂), 만심재(晩尋齋), 학실(學室), 죽은정사(竹穩精舍), 책방(冊房), 온와(穩窩), 구암(懼菴)
- ⑥ 과제(科題)
- ⑦ 인물(人物) : 세첩에 실려 있음
- ⑧ 우거(寓居) : 상사신공(上舍申公), 상사심공(上舍心公)
- ⑨ 별지(別志) : 금연정사, 경독와(耕讀窩), 침유현(枕流軒), 산야재(山野齋)
- ⑩ 부록

구장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와 인물은 문중의 세첩으로 아우르다가 항목에서 밝혔다. 항목마다 시와 산문으로 덧붙여져 대대로 학문한 문중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다. 저자는 경자(庚子, 1812)년에 회병공의 고종록을 짓고 순조 14년 갑술(甲戌, 1814) 겨울 50세에 중국 향약에 준해서 구미촌 동약(洞約)을 만들고 순조 27년 정해(丁亥, 1827)년 63세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19) 옛날 봉양초등학교 다닐 때(1948~1954) 소풍을 갔으며 통상 '산불산'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20) 옛날 초등학교 4학년(1951) 사회과목 시험문제로서 "우리 학교 앞을 따라 흐르는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 정답은 남대천인데 나는 여름 한 철 친구들과 물장난하던 '가마소'라고 적어서 틀린 것을 기억하고 있다.



## 5. 생애

### 1) 성장 과정과 수학(修學)

#### (1) 7세 때 글공부 시작(선조 원년 1568)

오봉 선생은 어릴 때부터 글 읽는 것을 좋아 하였다. 일찍이 책을 가지고 이웃 노인에게 가르침을 청했는데, 노인이 막 텃밭을 매러 들어가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자 선생이 울타리 밖에서 울며 기다리고 서서 기어이 수업을 받고서야 돌아왔다.<sup>21)</sup>

#### (2) 13세(1574)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sup>22)</sup>

13세 때에 안동 북쪽 고을 가야곡(佳野谷), 현재 안동시 와룡면 소재 하는 곳에서 김언기 선생에게 지도를 받았다. 김언기(金彦璣, 1522~1588) 선생은 광산 김씨,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서 태어났으며 퇴계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61년 안동시 와룡면 가야리에서 가야서당을 지어 제자를 양성하였다. 김 선생이 은거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여 그의 문하에 출입하는 이가 수백 명이었는데 오봉(신지제)도 백형(伯兄) 지효(응암)과 함께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오봉 선생이 뜻을 가다듬고 학문에 힘써서 아침부터 밤까지 게을리 하지 않으니 김 선생이 기특하게 여겨 “이 아이는 말이 신중하고 용모가 중후한 데다 학문에 독실함이 또 이와 같으니 훗날 반드시 큰 인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봉이 17세(1578)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4년 동안 가야곡에서 수학하였는데 아우 지신(之信, 1566~1632) 이도 뒤따라 와서 함께 수학하였다. 그때 가야곡에서는 동학 70여명이 서당에 돌아가며 불을 지폈는데 하루는 오봉 선생이 동료 권태일(權泰一)<sup>23)</sup>, 박의장(朴毅長)<sup>24)</sup>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동료가 실수로 나무꾼을 밀치는 바

21) 나의 큰 손자 주윤(2009년 3월생)이가 이 나이에 유치원 다니면서 한자 공부를 시켰는데 가능하다고 본다. 처음 1년 동안 방문 교사에게 한문을 배우다가 내가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 한자급수시험 8급과 7급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우수한 성적(우등)으로 합격했다. 나는 손자를 위하여 정년퇴직 후 고대 평생 교육원 방과 후 한자 교육 교사 자격을 위해 2학기 동안 공부한 적이 있다.

22) 김언기(金彦璣, 1522~1588) : 자는 중운(仲暉), 호는 유일재(惟一齋),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도산(陶山) 근처에 살면서 서사(書舍)를 지어 '유일'이란 편액을 걸어놓고 후진을 교육하였다. 문하에서 남치리(南致利)·정사성(鄭士誠)·권위(權暉)·박의장(朴毅長)·신지제(申之悌)·권태일(權泰一) 등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어 당시 안동의 학문진흥의 창도자로 알려졌다. 이황이 죽은 뒤에는 여강서원(廬江書院)을 세우고, 백련사(白蓮寺)를 철거하여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데 노력하였다. 저서로는 『유일재집(惟一齋集)』 1권이 있다. 안동의 용계서원(龍溪書院)에 제향되었다.

23) 권태일(權泰一, 1569~1631) : 자는 수지(守之), 호는 장곡(藏谷),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599년에는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권지부정자로 등용되고, 이어서 검열·승정원주서·시강원설서·정언·이조좌랑 등을 두루 역임하고 병으로 사임하였다. 뒤에 다시 홍문관수찬으로 복직하고, 이어서 이조정랑을 거쳐 영덕현령으로 4년간을 재임하면서 큰 치적을 올린 공으로 왕으로부터 옷감을 하사받았다. 저서로는 『장곡집』이 있다.

24) 박의장(朴毅長, 1555~1615) : 자는 사강(士剛), 호는 청신재(淸愼齋), 본관은 무안(務安)이다. 1577년 무

람에 나무꾼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나무꾼의 아들이 관아에 고소하여 밀친 동료가 잡혀가자, 오봉 선생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갔는데 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쓰게 할 수 없다.”라 하고 관아로 따라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서로 자신이 밀쳤다고 다투었다. 고을 수령이 한참 지켜보다가 마침내 고소한 자에게 “세 아이에게 모두 정승의 기상이 있으니<sup>25)</sup> 차마 일개 촌부의 일 때문에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없다. 관아에서 널을 갖추어 네 아버지를 물어 줄 것이니, 너는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봉 선생에게 “너희들은 염려 말고 돌아가서 글을 읽어라.” 하고, 이어서 서당 근처 마을에서 관아에 바치는 땀감을 서당에 바치게 하여 나무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이를 해마다 관례로 행하게 하였다.

### (3) 천방산 지보사(持寶寺)<sup>26)</sup>에서 독학(1578~1581)

오봉 선생이 17세로 지보사에 와서 독학으로 공부할 때는 학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다. 지보사는 의성 구미에서나 신례동을 기준으로 하여도 크게 먼 거리는 아니다. 옛날 초등학교(구미)와 중학교(도리원)때 당일로 걸어서 소풍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오봉이 지보사에서 공부할 때 마을에 사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절을 왕래하다가 선생의 풍모를 보고 반하여 밤이 깊도록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렸다. 선생이 여인의 숙내를 알아차리고는 의로서 엄히 꾸짖고는 그 여인에게 회초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 매질하고 돌려보냈다. 수십 일 뒤에 남편이 술과 음식을 가져와 주며 “공이 바른 도리를 들어서 마을의 부녀자를 가르쳤다가에 사례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그 여인이 선생의 말에 감동하여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한 듯하다.

### (4) 빙산사(氷山寺)<sup>27)</sup>

1581년 오봉 선생 20세 되던 해 형님 응암 선생과 함께 빙산사에서 수학하였다. 이 사찰의 벽에 전에 공부한 윤국형 선생이 지은 시가 있었는데 오봉 선생이 그 시에 차운하였다. 윤국형은 1568년 문과에 급제한 뒤 사간원 정언, 홍문관 부제학, 충청도 관찰

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경주관관을 지내고, 경주성 탈환의 공으로 경주부윤을 제수 받았다. 임진왜란 때 세운 공으로 선무원종일등공신에 책록되었다. 저서로는 『관감록(觀感錄)』이 전한다.

25) 그 때 땀감 나무하러 산에 간 세 사람은 신지제, 권태일(權泰一), 박의장(朴毅長)인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신지제를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은 위의 각주 22), 23) 참고.

26) 지보사(持寶寺) : 현재 군위군 군위읍 상곡리(上谷里) 천방산에 있는 절의 이름이다. 내가 초등학교(의성 구미 소재)와 봉양 중학교(의성 도리원 소재)때 두 번이나 봉양면 덕은동으로 소풍을 걸어서 다녀왔다. 중학교 때는 산 위에서 실수로 큰 바위와 아래로 굴러 내려갔는데 그 밑에는 샘이 있었고 많은 학생이 운집되어 있었다. 다행히 바위는 샘 바로 위의 큰 도토리나무에 걸리면서 정지 되었다. 또 한번은 6·25동란 군위군 우보면 달산동으로 피난 갔다가 신녕·영천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구미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보사를 지나 덕은동으로 넘어오니 한 여림의 아침햇살이 떠오르고 있었다. 지보사는 673년 신라시대 의상(義湘)이 창건하였고, 맷돌·가마술·청동향로 세 가지 보물을 지니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7) 빙산사(氷山寺) : 현재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氷溪里), 빙산 서쪽 기슭에 있는 절로서 신라 말기 또는 고려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는 석탑만 남아 있다.

사, 병조 참판, 공조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저서로 『문소만록(聞韶漫錄)』을 남겼는데 문소는 의성(義城)의 옛 지명이다.

(5) 학봉 김성일(金誠一)<sup>28)</sup>

오봉 선생이 존경하고 지도를 받고 싶었던 인물은 원래 퇴계 이황(李滉)이었는데 퇴계는 1570년 작고했기 때문에 오봉의 나이는 너무 어렸다. 오봉은 학봉 선생 문하에서 공부하며 그의 고제자가 되었고, 과거시험 보기 직전 겨울 한 철 서에 선생을 찾아가서 수학하였다. 학봉과 서애가 퇴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봉은 퇴계 선생의 간접 제자라고 할 수 있다. 오봉은 퇴계에게 직접 못 배운 한을 풀기 위해서 예안 현감을 자청했으며 4년 이상 근속했다.

오봉은 1591년 7월(당시 30세) 예안현에 부임하면서 바로 도산서원으로 가서 퇴계 선생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선생은 뒤늦게 태어나 도산의 문하에서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오봉은 예안 고을에 부임한 뒤로 매달 서원에 들러 사당에 참배하고 선생의 유적을 둘러보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흥의 뜻을 붙이고 당시 퇴계 선생 문하에서 직접 배운 원로로서 월천(月川) 조목(趙穆)<sup>29)</sup>, 설월당(雪月堂) 김부륜(金富倫)<sup>30)</sup>,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sup>31)</sup>, 성성재(惺惺齋) 금난수(琴蘭秀)<sup>32)</sup> 등과 서로 왕래하고 교유하며 경전의 뜻을 강론하였다. 임진왜란으로 군사를 징발하고 민생을 돌보느라 한시가 급박한 중에도 왕래를 멈추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오봉을 학봉의 고제자라고 하는데 1593년 진주성에서 작고할 때까지 서애와 더불어 오봉 선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위에 있었지만 오봉은 윗분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가거나 신세를 지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봉 선생은 퇴계 선생을 따라 큰 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28) 김성일(金誠一, 1538~1593) :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鶴峯),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68년 증광시 병과로 문과에 급제하여 봉교를 제수 받았다. 통신부사,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경상우도 순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잘못 보고한 책임으로 처벌이 논의가 되었으나 류성룡(柳成龍)의 변호로 화를 면하였다. 저서로는 『학봉집』·『상례고증(喪禮考證)』·『해사록(海槎錄)』 등이 전한다.

29) 조목(趙穆, 1524~1606) : 자는 사경(士敬)이며, 호는 월천 또는 동고(東阜), 본관은 횡성(橫城)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관직은 공조 참판에 이르렀으나 평생을 청빈하게 지내고 학문 연구에만 뜻을 두어 대학자로 존경을 받았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문집에 『월천집(月川集)』, 저서로 『곤지잡록(困知雜錄)』이 있다.

30) 김부륜(金富倫, 1531~1598) : 자는 돈서, 호는 설월당(雪月堂),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555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경릉 참봉·돈녕부 봉사 등을 제수 받았다. 1585년 전라도 동북 현감(同福縣監)에 부임하였다. 만년에 향리에 설월당(雪月堂)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저서에 『설월당집(雪月堂集)』이 있다.

31) 이덕홍(李德弘, 1541~1596) : 자는 평중(宏仲), 호는 간재,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10여 세에 이황(李滉)의 문하에 들어갔다. 1578년에 벼슬을 시작하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자를 따라 성천까지 호종하였다. 후에 호종의 공으로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계산기선록(溪山記善錄)』, 『주자서절요강록(朱子書節要講錄)』, 『간재집』 등이 있다.

32) 금난수(琴蘭秀, 1530~1604) : 자는 문원(聞遠), 호는 성성재 다른 호는 고산주인(孤山主人), 본관은 봉화이다. 퇴계의 제자이며,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켜 안동부 수성장이 되어 명나라의 원군(援軍)을 안내하고 군무(軍務)를 주관하였다. 예안의 동계정사(東溪精舍)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성재집』이 있다.

### Ⅲ. 오봉 선생의 업적 - 오봉에 의한 명문가 대우 -

#### 1. 오봉·고송(孤松) 부자의 과거 급제

1600년 5월 오봉의 나이 39세 때 아들 홍망(弘望)이 태어났다. 이전에 선생에게 아들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는데(오봉 23세 때 결혼) 꿈에 신령이 아기를 안고 나타나 “선행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후손에게 경사가 있다. 그대에게 기이한 아이를 보내 줄 것이니, ‘망(望)’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고송이 과거에 급제한 40세(1639년 12월 20일)는 오봉의 사후 15년이 지나서였다. 고송 선생은 아버지 오봉의 그늘에 가려 그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는데 여기서 고송의 업적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기로 한다.<sup>33)</sup>

- 신흥망(申弘望)의 자(字)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신응규(申應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몽득(申夢得)이며, 아버지는 승지 신지제이고, 어머니는 함안 조씨(咸安趙氏)로 조지(趙址)의 딸이고, 부인은 영천 이씨(永川李氏) 이민환(李民寔)의 딸이다.<sup>34)</sup>
- 1627년(인조5) 진사시에 급제한 뒤 강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인조17) 별시 문과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1645년 승문원(承文院) 주서(注書)가 되었으나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 1646년 전적(典籍), 병조 좌랑(兵曹佐郎), 정언(正言), 1647년(인조25) 예조 좌랑, 전주 판관(全州判官) 등을 역임
- 1623년 7월 12일 승정원에서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임명되었으니 말을 타고 속히 상경하라고 발급한 유지(有旨)가 있다.
- 1644년 4월 13일 : 이조(吏曹)에서 신흥망에게 ‘봉훈랑 행 승정원 주서 겸 춘추관 기사관(奉訓郎行承政院注書兼春秋館記事官)’에 제수하는 봉교(奉敎)
- 1646년 3월 13일 : 병조 좌랑
- 1646년 3월 18일 : 사간원 정언
- 1647년 4월 21일 : 통훈대부(通訓大夫) 예조 좌랑
- 1647년 10월 26일 : 전주부 판관(判官)

33) 심수철, 「오봉 종가의 자료」, 『의성 조문국 박물관 소장자료 해제』, 2018, 65~184쪽.

백채은, 「울산 도호부사 신흥망(申弘望)에 대한 고찰」, 『울산문화연구』 제3집, 2010, 6~24쪽.

34) 지금 오봉 종가에는 신영미로부터 15세인 신흥망 때 만든 고문서 보첩(譜牒)이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아주 신씨 시조로서 권지호장(權知戶長) 신영미(申英美)가 기록되어 있다.

- 1652년 7월 21일 : 사헌부 지평(持平)
- 1656년 11월 19일 : 울산 도호부사(蔚山都護府使)
- 1659년 1월 26일 : 풍기 군수
- 1663년 4월 11일 :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
- 1664년 7월 6일 : 통훈대부 종부시정(宗簿寺正) 겸 춘추관 편수관

고송 신흥망을 이야기할 때 귀양지의 일기를 쓴 『장사일록(長沙日錄)』<sup>35)</sup>을 빼 놓을 수 없다. 『장사일록』은 1652년(효종3) 신흥망(1600~1673)이 사헌부 지평으로 재직 시에 도승지 이시매(李時樸)<sup>36)</sup>가 올린 상소 중에 선현을 모함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시매를 사판(仕版)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오히려 당론(黨論)을 빙자한 죄로 평안북도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으나 유배가는 도중에 다시 홍제원(弘濟院)에서 기다리라는 명을 받고, 또 경북 평해(平海)로 유배지가 바뀌었으며, 평해에서 해배(解配) 되기까지 1652년 9월부터 12월 21일까지의 기록이다.

이 일기는 1739년(영조15)에 신흥망의 증손인 신진구(申震龜)<sup>37)</sup>의 서문이 첨가되어 있는데 서문에서 자신의 증조부는 당시에 진언할 수밖에 없는 직책에 있었으며, 혹시 선조의 사적이 훼손될까 염려되어 유배 갈 당시에 지우들과 주고받은 수창시를 첨가하여 다시 쓴다고 서문에서 밝혀 놓았다. 『일기』에는 조정에서 논의되는 소식을 비롯하여 지우들의 전별시와 수창시, 문안 온 사람들, 편지로 위문한 사람들,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과 물명, 지나는 지역에서 위문 온 수령들과 지우들, 함께 따라간 자질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신흥망이 파직되어 고향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나졸들이 압송하여 유배지로 출발하여 10월 18일에 한양에 도착하였을 때 다시 홍제원에서 기다리라는 명을 받고, 10월 30일에 정언(正言) 정두경(鄭斗卿)이 상소하여 결코 당론이 아니고 공론(公論)임을 강조하고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계문을 올려 11월 2일에 다시 평해로 유배지가 결정되었다.

11월 3일 다시 평해로 통보를 받고 출발하여 17일에 평해에 도착했다. 12월 12일 감영(監營)에서 관문(關文)이 도착하여 12월 2일에 유배에서 석방되었음을 알게 된다. 신흥망은 유배간 지 26일 만에 석방되었으며, 석방된 지 7일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35) 『장사일록』은 오봉종가의 귀중한 고문서로서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36) 이시매(李時樸) : 자는 자화(子和), 호는 육은재(六隱齋),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1629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629년 정언을 거쳐 1635년 부수찬·검도관·수찬·부교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639년에는 정치화(鄭致和) 등과 같이 암행어사로 파견되었고, 현납·부응교·응교·사간 등 삼사의 요직을 담당하였다.

37) 신진구(申震龜, 1680~1754) : 자는 문수(文叟), 호는 죽애(竹厓),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1710년 증광시 생원에 합격하였다.

고 진술하며 월송정을 비롯한 동해 바닷가의 많은 경치를 유람하게 된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라고 술회하고 있다. 이 일기의 제목도 10리나 되는 동해의 긴 백사장을 보고 『장사일록(長沙日錄)』이라고 제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를 초록한 내용이 35쪽이며, 뒤의 21쪽은 「통훈대부 승문원 판교 겸 춘추관 편수관 고송부군 행장초(通訓大夫承文院判敎兼春秋館編修官孤松府君行狀草)」로 신흥망의 행장을 기록하였다. 이 문서는 『장사일록』의 뒤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 신흥망의 행장 초고이다. 1738년에 신진구가 쓴 것으로 선조의 평생 사적이 민멸될 것을 염려하여 『장사일록』 뒤에 기록한다고 하였으나 신흥망의 문집인 『고송집(孤松集)』을 발행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고송집』에 실려 있는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이 쓴 「통훈대부 행 사간원 정언 고송 신 선생 행장(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과는 다소 문자의 출입은 있으나 대동소이 하며, 평해(平海)로 유배 간 내용도 상세히 기록되었으며, 증현손이 800여명에 이르러 모두 기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2. 임진란과 공신서훈(功臣敍勳)

임진란과 정유재란(1592~1598)이 끝나고 1600년부터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공훈 심사 준비를 하여 왔는데 여기에는 많은 혼란과 논란이 있었다. 임진란에서 부산에서 출병한 왜병이 한양에 도착하는데(1592.4.14.~5.3) 짧은 기간이 소요된 것은 도중에 조선군의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난이 평정되고 공과를 평가할 때 특히 관아를 버리고 도망 간 관료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하였다. 임란 시 안동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함경도 길주 까지 도망간 안동부사 정희적은 도망자 신분에서 악명이 높았지만 평안도에서 관직을 제수 받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같이 자료의 한계와 고증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공신록 자체를 다루기가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선조수정실록』 38권 4장에 의하면<sup>38)</sup> 평란 후 1601년 공신감훈(功臣勘勳) 시에는 공신들을 호종(扈從), 정왜(征倭)로 나누었고, 1602년 가을에는 이를 다시 합록(合錄)하였다. 1604년 대봉공신(大封功臣)할 때는 한양에서 의주(義州)까지 가마를 맨 사람들 수가자(隨駕者) 118명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정왜제장(征倭諸將)과 병량주청사신(兵糧奏請使臣) 18명을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하였다. 또한 이몽학(李夢鶴)<sup>39)</sup> 토평공신(討平功臣) 5명을 청난공신(淸難功臣)으로 봉하고 다시 또 이를 3등으로 나누어서

38) 류영하(국역), 『백암실기(栢巖實記)』, 의성 김씨 백암공파 문중, 2013, 144~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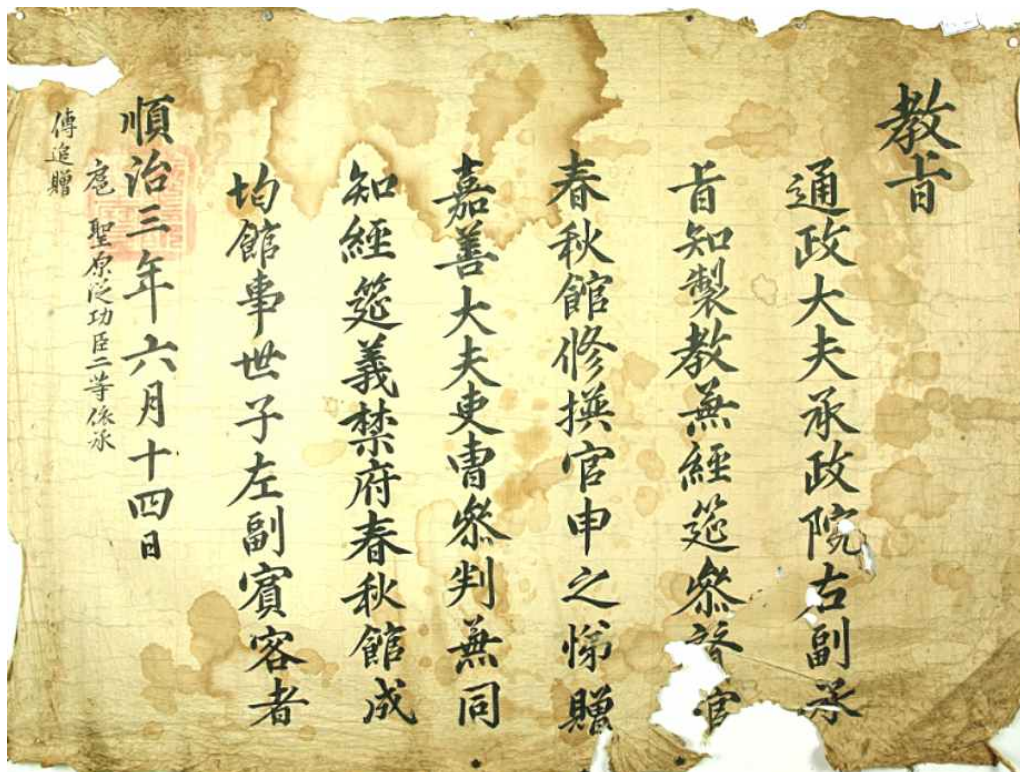
39) 이몽학의 난은 임란 중 호서지방 최대의 민란으로 전주 이씨 서얼 출신이다. 하층민이 신분제도의 모순에서 탈피, 식량과 민생고에 시달려 경제적 꺾박을 받아 난을 일으켰으며, 일부 사족과 무인이 반란에 가담하였다.

차등을 두고 석호(錫號=賜號)하였다. 공신 책봉에 혼란이 일어난 것은 처음에 선조 임금에 직접 따라 다닌 사람들로 범위를 너무 한정하였고, 전란 중에 공을 세운 의병장 등에게 그 때마다 관직을 주고 공신으로 대우하여 나중에 중복 문제가 발생되었다.

공신 문제의 마지막 정려는 선조 38년 1605년 4월 16일 위의 선무공신 이외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9,060명(1등, 2등, 3등)과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2,475명을 또 서훈(敍勳)했으니 이 때 원종공신 개개인에게 급사(給賜)된 교지(教旨)가 바로 이 녹권(錄券)의 원본이므로 발간된 지 오래되어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다. 원래 공신록 이름에서 호성(扈聖)이 붙으면 선조 임금을 따라 다니며 가마, 호위, 시중을 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호성원종공신(1등, 2등, 3등) 2,475명으로 늘어난 것은 전국 의병조직과 활동에서 근왕병(瑾王兵)과 충의군(忠義君) 등으로 임금에게 충성을 표방한 의병 등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오봉 선생의 공신록(功臣錄)은 오봉 연보와 『오봉종택지(梧峯宗宅誌)』에 호성선무원종공신(扈聖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두 개의 공신(호성원종공신, 선무원종공신) 각 1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선무원종공신은 1등이 맞고, 호성원종공신은 2등이다. 의성 조문국 박물관 소장 오봉 종가 고문서(박물관 자료번호 교지 002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료2〉 이조 참판 추증 교지



위 자료는 순치(順治) 3년(1646) 6월 14일에 신지제에게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 좌부빈객(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에 추증하는 교지이다. 연호 좌측에 ‘호성 원종공신 2등(扈聖原從功臣二等)’이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추증한다는 사유를 기록하였다.

1605년 4월 최종 공신록에서 숫자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무원종공신 9,060명 중에서 신분 상승 측면에서 참여하여 공을 세운 노예와 천민이 3,230명이 포함되어 숙원인 면천(免賤)이 이루어 졌다. 오봉 선생의 공신 등급은 류성룡, 이덕형, 광재우, 권응평 등이 선무원종 1등 공신이며, 류성룡의 호성원종 2등 공신과 비교해 보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선무원종공신에서 1등급을 받은 수혜자에게는 다음 3가지 혜택이 부여된다.

1등 ① 각자에게 일자급씩을 더한다.

② 자손에게 음관(蔭官)을 승습시킨다.

③ 부모에게 봉작한다.

2등 ① 각자에게 일자급씩을 더 한다.

② 자손에게 음관을 승습시킨다.

③ 자손 중 지원자에게는 산관 일자급을 더 한다. 만약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 사위, 조카 중 지원자에게 신관 일자급을 더 할 수 있다.

3등 ① 작자에게 일자급씩을 더 한다. 자손에게 음관을 승습시킨다.

〈공통 적용〉

① 통훈대부(정3품) 이상 자에게는 자손 형제 생질여서 가운데 한 사람을 음관일자급을 더 준다.

② 공신 중 사망자에게는 원래에 따라 시행하되 일자급을 추증한다.

③ 범죄자로서 산직(散職)인 자는 서용(敍用)한다.

④ 금고자나 한품 서용자에게도 사노를 허용한다.

⑤ 직첩을 빼앗겼던 자에게도 모두 환급시킨다.

⑥ 첩자는 한품서용에 구애받지 않는다.

⑦ 공천은 모두 면천한다.

⑧ 역당 및 역적의 피뢰자는 모두 현직관에는 복귀시키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공신녹권을 받은 자는 관직을 부여 받았고 또 그 자손에게도 음관의 혜택이 주어졌다. 3품 이상자를 우대하였으며 금고자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제한을 두었던 한품서용 자에까지도 관로를 열어 주었다. 공천자는 면천되고 첩자는 한품서용에서 벗어나 신분 해방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자만은 끝까지 현직 관작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선무공신에는 여러 해 동안 왜적을 정벌한 사람이 누락된 반면, 호성공신에는 하다못해 임금의 말고삐를 잡은 천예와 명령을 전달하는 내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비판이 없지 않았다.

오봉에게는 본인보다도 위의 ③항에 의하여 할아버지 응규(應奎)에게 증 공조 참판(贈工曹參判), 아버지 몽득(夢得)에게 증 승정원 좌승지(贈承政院左承旨)가 부여되었다. 오봉의 3촌 몽필(夢弼)에게 증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 판윤(漢城判尹)의 관직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전 재산을 군량미로 제공한 공덕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 3. 396주기(周忌) 불천위(不遷位) 제사 - 2020.1.8.(음력) -

현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전국에는 특정 조상에 대하여 영원히 제사를 모시는 (불천위不遷位) 가문이 수백 가문이 넘고 있다. 아주 신씨의 경우에도 오봉을 포함하여 두 개의 가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불천위 제사는 나라 임금의 승인과 지시에 의한 것과 그러하지 않고 자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특정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불천위가 있다. 지금 전국에는 이 두 가지 불천위 조직이 나누어져 있다.<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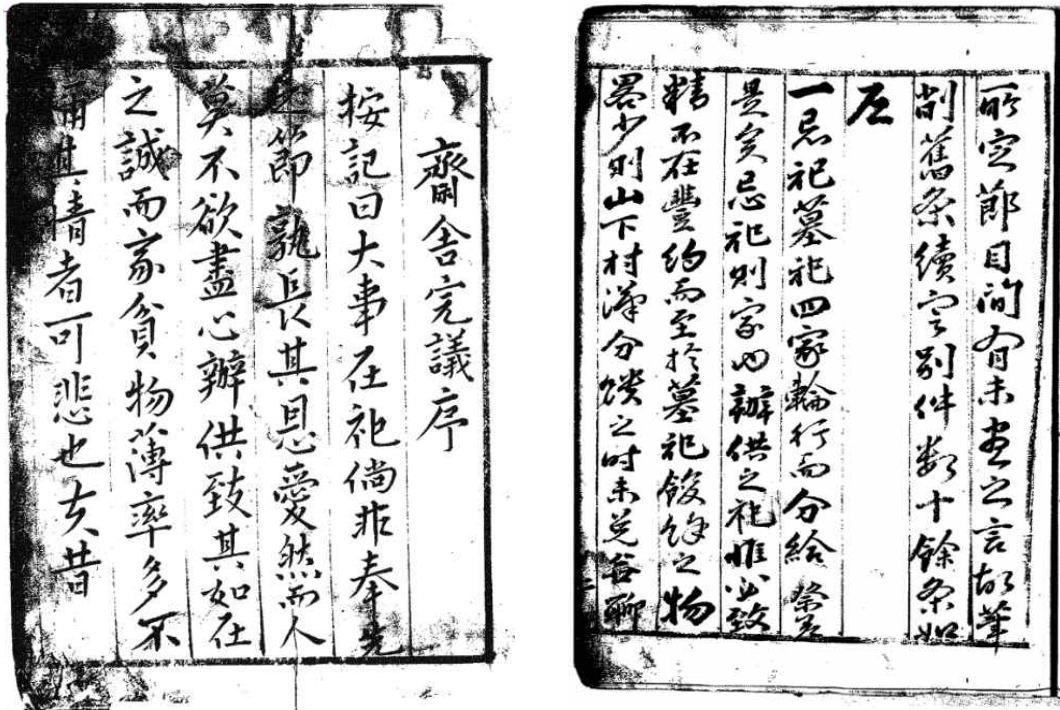
오봉 선조의 불천위 제사는 음력으로 1월 8일이고 2020년 1월 8일 제사는 396주기(周忌)이다. 시대의 변화와 진전에 따라 불천위 제사에 참여하는 종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오봉 종가에서는 제사 음식이 차려진 안 건물의 마루, 뜰, 마당에 까지 자손들이 모이고 있다. 2017년도 제사 때는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하여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제사의 전 과정을 촬영하였다고 한다. 제사 음식의 내용, 절차 등은 옛날과 비교하여 다소 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복장(도포)이나 방식은 옛날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와 관련하여 종가에는 재사완의(齋舍完議)라는 고문서가 있다. 완의(完議)는 종중(宗中), 가문(家門), 동중(洞中), 계(稷)등에서 제사, 묘위(墓位), 동중사(洞中事), 계 등에 관하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입의(立議)라고도 한다. 이 완의는 전체 32쪽으로 오봉의 증손자인 신숙범(申叔

40) 불천위 제사와는 별도로(사단법인) 임진란 정신문화선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의 단체는 2018년 현재 477개 조직에 이르고 있다.

範) 숙보(叔篋), 숙연(叔筵), 숙호(叔篋)의 4형제에 대한 제사를 후손들이 잘 지켜 나가자고 약속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서문은 1717년(숙종 43년) 10월 그믐날에 분구(賁龜)가 썼으며, 그 다음에 영원(鵠原)이라 하고 봉사 대상자인 숙범 등 4형제를 기록하였다.

〈자료3〉 재사완의 서문(좌)과 일부 내용(우)



영원은 척령재원(鵠鵠在原)의 준말로 곧 ‘할미새가 노는 언덕’을 의미한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상채(常棣)」에 “할미새가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서로 어려움을 구해 주도다.”에서 온 말이다. 그 다음으로 제사를 위한 약속을 절목으로 기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제와 묘제를 네 집에 돌아가며 행하되, 제답 소출이 많게는 40석에 이르므로 그 뒤의 윤차를 따라서 제수로 쓰고 1위(位)에 2석에 한하여 출급할 일.
- ② 유(由), 청(淸), 면(麵), 미(米), 과물(果物)을 각각 준비하며, 소란할 단서가 있으면 2석 중에서 각자가 변용할 일.
- ③ 3대(三代)의 제사는 이와 같이 나누어 쓰며, 정월 8일의 제사<sup>41)</sup>는 고비(考妣)의 제사와 겹치므로 기본 2석에다 1석을 더할 일.

41) 정월 8일의 제사란 오봉선조의 불천위 제삿날을 의미한다.

- ④ 제사에 맞추어 출급하지 않으면 궁한 집은 미리 끌어다 쓰는 근심이 있으므로 유사가 해야 할 일.
- ⑤ 유사는 매년 개체(改遞)하며 네 집이 돌아가며 맡을 일.
- ⑥ 기본 2석을 출급하고 남은 곡식은 모아 두었다가 정 쓸 일이 없으면 논을 사서 뒷날을 준비할 일.
- ⑦ 혹 남은 곡식으로 솔이나 제기를 사다가 네 집이 돌아가며 내어다가 쓰게 하고 제사를 마친 뒤에는 유사가 즉시 점검하여 받아들일 일.
- ⑧ 상사(喪事)시에는 형제간의 우의가 있어야 한 즉, 양상(兩喪)에 한하여 5석을 출급하고, 자손의 상사에는 허급하지 않을 일.
- ⑨ 유사가 부지런하지 않을 때는 일가가 회의하여 그 경중에 따라 벌할 일.

그 뒤 1758년(영조34) 12월에 성구(聖龜)가 추정약조(追定約條)를 더하여 완의를 처음 창설 당시의 절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처음의 9조목이던 것이 20조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선현 봉사에 해이해지는 후손들의 기강과 유대를 다진다는 의미가 깊다.

#### 4. 오봉 종택(梧峯宗宅)

2007년 8월 고려대학교 교수직을 정년퇴직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병용(炳用, 종손 泳均의 3촌)과 함께 안동 지역의 종택을 방문하고 다녔다. 하회 서애 류성룡, 퇴계 종가, 학봉 종가, 안동 권씨 종가 등을 방문하였는데 구미 오봉 종손의 3촌이라고 하니 모두가 알아보았다. 옛날 임진왜란 때에 오봉 선조가 이 일대를 지킨 공로가 새삼스럽게 기억나고 있었다.

하회 마을은 종손 3촌의 외가 동네이지만 입촌료(入村料)를 내라고 하였고, 퇴계 종가는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종손(당시 70대 후반)을 만나려고 했는데 출타 중이어서 100세가 넘는 종손이 마당에서 우리를 맞았다. 마당에서 서로가 고개 숙여 인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높은 뜰과, 퇴청 마루, 사랑방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가니 종손이 커다란 도포를 걸치고 정식으로 서로 엎드려 큰절을 하였다. 방안에는 큰 냉장고가 있었고 그 속에는 '비타500'이 가득하게 들어 있었다. 손님 접대를 위해 집 안채로 연락할 것 없이 이것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였다. 학봉 종가는 집 앞에 찾아가서 서 있는데 정원에서 우리를 본 관리인이 뛰어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이와 같이 안동 지역 일대에는 아직도 각 성씨 종가가 즐비하게 남아 있는데 이곳은 특이한 경우이고 전국의 유명한 종

택(宗宅)과 서원(書院) 등은 점차 사라지고 종손들도 생업을 찾아 도시의 아파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오봉 신지제 선생은 조선왕조 13대 명종 임술(1562년) 7월 19일 문소군(聞韶郡) 금뢰면(金磊面) 신례동(新禮洞), 지금 주소로는 의성군 봉양면 상리(현재 중리 1리)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 곳은 외진 산골로 천수답에 의존하는 환경이어서 생활 환경으로는 부적합하였다. 오봉의 아버지 몽득(1539~1607)은 20리 가량 떨어진 봉양면 지내(池內)로 이사하였다. 지내(池內)는 현재 구미동 서부 ‘못안동네’이다. 이곳으로 와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고 생활이 윤택해 졌는데 무엇보다도 오봉의 구미보(龜尾洑) 축조와 영농 조건이 용이해 졌기 때문이다.

오봉 선생의 증손자 숙범(叔範, 1648~1713)이 지내(池內)에 있던 종가를 헐고 현재의 종택 위치를 중심으로 한 99칸을 건립하였다. 건물의 크기는 현 종택의 위치에서 그 옆의 마을 회관(경로당)까지 미쳤다고 한다. 이 시기가 숙종 재위 연간으로 가세가 가장 왕성한 때였다. 정치적으로 그 이후 남인에게는 벼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오봉 부자에 버금가는 인재가 나오지 못했다.

또한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린 종택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오봉 선생으로부터 13세 종손 건수(建洙, 1868~1924)는 1884년 2월 지손(支孫)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재를 모으고 보강해서 현존 종택을 축조 개축하였다. 현존 종택 기둥에 네모난 나무토막으로 기둥을 때운 것은 개축의 한 증거로 남아 있다.

오봉 종택은 그 옆에 고송(孤松) 신흥망(申弘望) 선생이 관직 은퇴 후 후학 양성을 위해서 지은 낙선당(樂善堂)을 건축했는데, 화재 등으로 몇 차례 개보수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옛날 대원군이 전국을 떠돌아다닐 때 이곳에 들러 쓴 글씨 춘오재(春梧齋)를 보고 1950년대 해공(海公) 신익희(申翼熙) 선생이 대통령 출마 전 신씨들의 집성촌 의성 구미에 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대원군의 글씨와 똑같이 ‘춘오재(春梧齋)’라고 써 주었다. 오봉 종택은 오봉과 고송 부자분의 흔적을 간직한 채 오봉 선생의 불천위 제사를 모시면서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종택이 비어 있다. 대구에 사는 종손이 주말마다 농사도 짓고 종택을 관리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불천위 제사는 종택 안채에서 모시는데 공교롭게도 오봉 내외분의 제사일(祭祀日)이 같은 날이다. 오봉 선생은 인조(仁祖) 갑자(1624년) 정월 초8일 향년 63세, 배위(配位)인 정부인(貞夫人) 함안 조씨(咸安趙氏)는 경인(1650년) 정월 초8일 향년 88세로 졸하였다. 오봉 종택이 비교적 많은 유물을 현재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13세 종손 원식(元植)께서 1950년 6월 피난 직전 오봉 사당 정문 아래 주춧돌을 들어낸 뒤 구덩이를 파고 큰 독에 유물을 넣고 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4년 3월 11일자로 종택 일괄

내에 있는 건물 6동(棟)이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187호로 지정되었다.

2016년 4월 30일에는 도운회(陶雲會) 정기 총회 및 학술 발표회가 있었는데, 의성의 전통 있는 두 문중 오봉 선생(아주 신씨)과 만취당 선생(의성 사촌 안동 김씨)이 연구 발표의 대상이었다. 필자가 누구보다도 오봉 선생과 오봉 종택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오봉 선생의 자손인 본인과 오봉 선생으로부터 15세 되는 종손 및 그 가족들과의 돈독한 관계 때문이다. 오봉 선조와 나의 나이 차이는 380년이며 의성 구미라는 같은 터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 또한 오봉(1562~1624), 홍망(1600~1673), 한노(1623~1676), 숙범(1648~1713), 분구(1677~1745), 도삼(1695~1742)으로 이어지는 6세까지는 필자도 종손 가족이었다. 7세 근인(1727~1791)이 도삼의 둘째 아들로써 분가·독립하였다. 우리 집안에서는 이 어른을 영천 할아버지, 영천 할머니라고 한다. 영천 할아버지는 흑석동에 산소가 있고, 할머니는 친정 부근인 군위군 고로면 양지동 앞산에 산소가 있다. 그곳은 6.25 직후 팔공산 줄기의 잔비들 때문에 성묘를 가지 못했는데 지금 근인으로부터 6세 손자, 6세 손자며느리인 나의 부모님 산소가 그 곳에 있어서 할머니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손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필자가 누구보다도 오봉 종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15세 종손 병철(炳哲) 선생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종가 옆의 봉양초등학교에서 오랜 교편을 잡고, 종택을 지켜 왔으며, 종손의 넷 동생 중에 나와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인 병용(炳用)이는 나의 친구로서 중학교 여름 방학 동안 아예 종가에서 여름밤들을 함께 보내왔다. 또한 겨울에는 종가 뒤에 대나무를 베어 연을 만들어 날리기도 하였다. 병용이와 나는 남다른 우의를 다지며 평생을 살아 왔는데 2015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 IV. 오봉의 학문과 시(詩), 관료 생활

### 1. 학문

오봉 선생은 23세에 어계(漁溪) 조려(趙旅)<sup>42)</sup> 선생의 후손인 망운정(望雲亭) 조지(趙址)의 딸과 혼인하면서 처가인 함안 조씨의 여러 학자와도 교유를 하였다.<sup>43)</sup> 우선 그의 장인 조지는 어릴 때부터 시문(詩文)에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하였고, 아들 4형제도 학자 출신이었다. 오봉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는데, 성장할수록 뜻을 더욱 분명히 하고 학업에 충실하였다. 벼슬길에 나가서도 어려서 퇴계의 문하에 나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예안 현감(禮安縣監)에 자청하였고, 항상 도산을 왕래하며 임란 중에도 여러 급문제장로(及門諸長老)들과 학문을 강구하고 지결(旨訣)을 이어 받았으며, 제현(諸賢)들과 시정(時政)을 담론하고 고견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오봉은 아버지의 권유로 형(신지효)과 함께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sup>44)</sup> 선생에게 배웠는데, 그는 퇴계의 급문제자(及門弟子)이면서 출사(出仕)를 단념하고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도산 근처에 서사(書舍)를 지어 '유일(惟一)'이란 편액을 걸어 놓고 후진을 교육하였다. 그의 문하에서 오봉을 비롯해 남치리(南致利), 정사성(鄭士誠), 권위(權暉), 박의장(朴毅長), 권태일(權泰一) 등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어 당시 안동의 학문 진흥의 창도자로 알려졌다.

오봉은 퇴계의 뛰어난 제자[高弟]인 학봉 김성일 선생에게 배웠다. 학봉은 학문적으로 퇴계의 수제자이며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주리론(主理論)을 계승하여 영남학파의 중추 구실을 하였다. 예학(禮學)에도 밝아 아버지의 상(喪)을 당해서는 모든 예절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행하였다. 오봉은 또한 학봉의 수제자로서 그를 통하여 퇴계의 사상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오봉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공무를 집행하는 여가에도 지속되었고 심지어 전란 중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오봉집』에는 오봉이 읽었던 도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sup>45)</sup> 먼저 그는 한시(漢詩) 창작에 남다른 특징과 장점을 보였다. 이것은 오봉이 평소 중국 당나라

42) 조려(趙旅, 1420~1489) : 자는 주옹(主翁), 호는 어계(漁溪),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서산서원(西山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저서로는 『어계집』이 있다.

43) 박명숙, 「오봉 신지제 선생의 생애와 학문」, 『동양예학』 38호, 동양예학회, 2017, 63-94쪽.

44) 김언기(金彦璣, 1520~1588) : 자는 중운(仲暉), 호는 유일재(惟一齋),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九潭里)에서 태어났으며, 이황(李滉)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안동 용계서원(龍溪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유일재집』이 있다.

45)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179~211쪽.

두보의 시를 애독하고 애송했던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오봉은 관직에서 스스로 예안 현감을 선택하고 전란 중에도 예안과 안동에서 퇴계 학문을 연마하여 왔는데, 학자로서 오봉은 임진란이 크게 방해 요소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오봉은 유일재 김언기에게 수학하면서 급진적인 학문적 발전을 이루었고, 학봉 김성일을 통한 학문적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식인들의 기본 필독서인 『소학(小學)』, 사서삼경을 위시하여, 두보시(杜甫詩)와 『성리대전(性理大全)』 등 각종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퇴계집(退溪集)』을 애독하면서 그 중에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을 통해서 내면의 수양을 완성해 갔다.<sup>46)</sup>

오봉은 백씨(伯氏, 신지호)가 『성리대전』에서 직접 가려 뽑아 베껴 쓴 책 뒤에 발문(跋文)을 썼다. 내용을 보면 백씨가 생전에 애독하던 책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성리대전』은 퇴계를 비롯한 많은 유학자들의 필독서였기에 오봉 역시 이 책을 탐독하였다. 오봉은 1598년 성재(性齋) 금난수(琴蘭秀)<sup>47)</sup>에게서 얻은 『고경중마방』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내면 수양에 치력하였다. 이 책은 퇴계 이황이 은나라 탕왕의 「반명(盤銘)」을 비롯해서 77편의 잠(箴), 명(銘), 찬(贊)을 뽑아 엮은 잠언서이다. 이 『고경중마방』은 1595년 월천(月川) 조목(趙穆)<sup>48)</sup>이 도산서원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책이다. 오봉은 퇴계의 편저인 이 잠언서를 통해 속세에 찌든 내면을 정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경중마방』은 1607년 한강(寒江) 정구(鄭逋)<sup>49)</sup>에 의해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세상에 널리 유포되었고, 영조·정조 때에는 궁중에까지 전파되어 애독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오봉의 학문과 관련하여 광해 경술 1610년 오봉 선생이 생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복축강서(卜築講書)하던 곳이 있는데 장현광(張顯光)<sup>50)</sup> 선생이 그 이름을 ‘장대(藏待)’<sup>51)</sup>라 하였으니, 이는 “간직하고 익히며 때를 기다린다.[藏修以待之]”<sup>52)</sup>는 뜻을 취한 것이다.

46) 황만기, 상계 논문, 180쪽.

47) 금난수(琴蘭秀, 1530~1604) : 자는 문원(聞遠), 호는 성재(性齋)·성성재(惺惺齋)·고산주인(孤山主人), 본관은 봉화(奉化)이다. 이황의 문인이며, 1561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제릉 참봉·봉화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공로로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성재집(性齋集)』이 있다.

48) 조목(趙穆, 1524~1606) : 자는 사경(士敬), 호는 월천(月川), 본관은 횡성(橫城)이다. 이황의 문인이며, 1594년 군사감 주부(軍資監主簿)로서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는 상소를 하였고, 벼슬이 공조 참판에 이르렀다. 예천(醴泉)의 정산서원(鼎山書院),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 봉화의 문암서원(文巖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월천집』, 『곤지잡록(困知雜錄)』이 있다.

49) 정구(鄭逋, 1543~1620) :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江),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창녕 현감·공조 정랑·안동 부사·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한강집』 등이 있다.

50) 장현광(張顯光, 1554~1637) : 자는 덕회(德晦), 호는 여현(旅軒),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1583년에 향시에 합격한 뒤 보은 현감·공조 좌랑·의성 현령·사헌부 장령·형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저서로는 『여현집』, 『역학도설(易學圖說)』 등이 있다.

51) 장대(藏待) : 장대서당(藏待書堂)은 1610년 신지제 선생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지은 강당으로, 의성군 봉양면 장대리에 있다. 1669년에 사당인 경현사(景賢祠)를 지었고, 1672년에 위판을 봉안할 때 이민성(李民成)을 함께 배향하였다. 1702년에는 서원으로 승격되고 김광수(金光粹)와 신원록(申元祿)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52) 간직하고……기다린다 :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군자는 재능을 몸에 품은 채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君子藏器於身 待時而動]”라고 하였다. 원문의 장수(藏修)는 『예기』 「학기(學記)」에 “군자는 배움에 있어 마음에 간직하고 반복해 익히며 물러나 쉬고 노닐며 즐긴다.[君子之於學也 藏焉 修焉 息焉 遊焉]”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장대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989년에 중건되었다.

오봉의 학문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의 성격이 관후(寬厚)하였으며 유년시절부터 학문에 열중하였고 특히 청년 시절에는 도산을 왕래하며 당대의 거유(巨儒)들과 강론지결(講論旨訣)하며 자신의 학문을 형성하게 되었다.

오봉은 문관이었지만 문무겸전(文武兼全)하였고, 퇴계를 숭모하였으며, 학봉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퇴계와 남명(南冥)의 양문(兩門)을 출입하는 학자들과도 교류하였다. 오봉은 경상 좌·우도를 통하는 사우 관계(師友關係)를 맺어 활약한 조선 중기의 선비였다.

『오봉집』을 통해 우리는 신지제의 일생 행력과 시와 학문에 관해 다음 4가지 사항을 검출할 수 있었다.<sup>53)</sup>

① 신지제는 문무겸전의 인물이었다. 신지제는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정언, 예조 좌랑, 문학, 사헌부 지평을 역임했고, 왜적이 국토를 유린하는 때에 항왜 활동을 하여 공훈이 두드러졌다. 정유재란 때는 광재우와 뜻을 같이하여 『화왕산동고록(火旺山同苦錄)』에 이름이 올라 있다.

② 신지제는 국가의 통치와 관련한 관각 문학에도 뛰어났고, 개인의 서정을 토로하는 순문학에도 뛰어났다. 신지제는 지제조(知製教)<sup>54)</sup>의 삼자함(三字銜)을 지닐 만큼 국가의 공적 문장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오봉집』에 실린 많은 수창시(酬唱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우들이나 지방관, 하급 관료들과 폭넓게 시문을 주고받은 문학가였다.

③ 신지제는 지방관으로서도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지방관으로서 선정을 베풀었으며, 특히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했다. 창원 부사 재직 시에 명화적 정대립(鄭大立)을 체포하여 경내를 안정시킨 것은 중요한 공적이다. 그리고 57세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로는 고향의 의병 유가족 돕기와 후진 양성에 전력했다.

④ 신지제는 영남의 여러 학풍을 흡수했다. 그는 소년 시절 퇴계학맥의 김언기에게 배우고, 그 후 김성일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러는 한편으로, 장현광을 중유했고, 남명학맥의 학자들과도 교류했다. 따라서 신지제는 경상좌도와 우도의 학맥을 소통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로 신지제는 17세기 초반 영남학맥에서 이채를 띠는 인물이다. 17세기 영남의 문학사와 사상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문과 일생 사적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53) 심경호, 전계 해제, 70~71쪽.

54) 신지제는 성상의 명에 따라 임란공신 이광약(李光岳, 1557~1608), 고희(高曦, 1560~1615)에게 내릴 교서를 지어 올렸다.(글씨는 한석봉이 씀)



## 2. 시(詩)

오봉이 예안 현감으로 있던 1591년 이후부터 1613년 창원 부사가 되기 전까지 지은 35제의 시는 『오봉집』 원집 권1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기는 임진란 등으로 한가롭게 시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오봉집』 권2~4는 1613년에서 1618년까지 창원 부사로 재임하면서 지은 시들을 모은 「회산잡영(檜山雜詠)」으로 회산(檜山)은 창원의 별칭이다. 「회산잡영」은 상권 108제(題), 중권 54제, 하권 90제, 모두 252제의 시를 수록했다. 권7 습유에는 시 6제가 실려 있다. 결국 『오봉집』의 원집과 별집에는 449제의 시가 실려 있다. 즉, 원집 권1 35제, 권2 「회산잡영(상)」 108제, 권3 「회산잡영(중)」 54제, 권4 「회산잡영(하)」 90제, 권5 「구당만록」에 95제, 권7 습유(拾遺)에 6제, 별집 61제이다. 이 61제는 신지제가 예안 현감으로 있던 1590년대 지은 것부터 그가 죽은 1624년까지 원집에 실리지 못한 시들을 연대순으로 수록했다. 『오봉집』에 수습된 시들은 많지 않지만 왜란 당시의 여러 상황, 저자의 교유 관계, 향촌 생활의 양상을 드러내 보여 주는 소재가 특이한 것이 많다.<sup>55)</sup>

신지제의 시는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수창이 많다. 1613년부터 1618년까지 창원 부사로 있을 때 교유한 곽재우(郭再祐)<sup>56)</sup>·박서구(朴瑞龜)<sup>57)</sup> 등과 주고받은 시가 있고, 설월당 김부륜(金富倫)<sup>58)</sup>이나 신지제보다 앞서 창원 부사를 지낸 손기양(孫起陽)<sup>59)</sup>과 주고받은 시도 여러 편이 있다. 오봉이 젊어서 스승 김언기의 문하에서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스승님 책상 위에 두보시 전질(全帙)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았더니 바로 친구 김광문(金光門)의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예안 현감으로 부임하자마자 임란이 일어났는데 그 때 두보의 시(詩)가 보고 싶어서 김광문에게서 빌려 보았다. 시 가운데 오봉의 기호에 맞는 것을 베껴서 5권으로 나누었는데 다만 필체가 졸렬하여 글씨가 몹시 삐뚤삐뚤한 것이 한스러웠다. 오봉은 두보의 시 가운데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시만 뽑아 다섯 권으로 만들었다.

55) 심경호, 「오봉 선생문집 해제」, 『오봉 선생문집』1, 한국국학진흥원, 2019, 23~71쪽.

56) 곽재우(郭再祐, 1552~1617) : 자는 계수(季綏), 호는 망우(忘憂), 본관은 현풍(玄風)이다. 성주 목사·진주 목사·한성부 우윤·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남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1598년 정유재란 때에는 화왕산성을 지켰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저서로는 『망우집』이 있다.

57) 박서구(朴瑞龜, 1546~1623) : 자는 정하(呈夏), 호는 악견(嶽堅),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박창도(朴昌道)의 아들이다. 임진왜란 때 곽재우 휘하에서 의병 활동을 했고, 만년에 회산 교수(檜山教授)를 지냈다. 저서로는 『악견시집(嶽堅詩集)』이 있다.

58) 김부륜(金富倫, 1531~1598) : 자는 돈서(惇敘), 호는 설월당(雪月堂),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555년 사마시에 합격한 뒤 전생서 참봉·내섬시 주부·동북 현감·봉화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설월당집』이 있다.

59) 손기양(孫起陽, 1559~1617) :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鰲漢)·송간(松澗),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1588년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학유·성현도 참방·신녕 현감·울주 관관·창원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밀양의 칠탄서원(七灘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오한집』이 있다.

성당(盛唐) 때의 시인인 두보는 안사의 난이라는 혼란기를 살면서 우국충정에 불타는 마음을 시로 노래하였다. 그러므로 오봉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두보가 내적 갈등을 어떻게 승화하였는가를 두시(杜詩)를 통해 살피고자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한시 창작(漢詩創作)에 있어서 두시(杜詩)의 시작 기법(詩作技法)을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지제 선생은 이백(李白), 두보(杜甫), 진여의(陳與義), 육유(陸游) 등 중국 시인들의 시에 차운하여 자신의 심회를 드러내는 한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나 석주(石洲) 권필(權韜)<sup>60</sup> 등 조선 시에도 적극적으로 차운했다. 선생은 창원 부사로 재직 시 많은 시작(詩作)을 남겼고(『檜山雜詠』), 문집 번역판의 1권에 있는 대부분의 시도 이때에 쓴 것이다. 선생의 수준 높은 많은 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의 정신세계와 문학세계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 1) 왜란 당시의 상황과 항전 의지

신지제 선생이 예안 현감 시절에 지은 「병중에 두서없이 진술하다[病中漫述]」 시는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왜적에 의해 국토가 유린당한 모습,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을 근심하며 지은 것이다.<sup>61)</sup>

조선의 운수 왜 이리도 어긋났는지	靑丘氣數何太蹇
동쪽 왜구 몰려와 병화가 참혹하네	巨寇東來兵禍酷
해를 넘긴 전쟁에 살기 흥흥하니	經年劒戟殺氣高
피로 물든 동해, 시체 쌓인 골짜기	血流溟海骨填谷
영남에 덮친 재앙 사나운 불길에	氛蔽東南虐焰盛
관가와 민간의 곳간 다 타버렸구나	公蓄私藏付回祿
백성은 옛 터전을 잃고 떠돌며	生民流落失舊居
노약자 산으로 피해 몇집을 지었네	老穉登山草爲屋
관리가 군량 조달로 곡식 독촉하니	有司調糧簿書急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갖다 바쳤네	貧人富人傾斗粟
거둬 닦친 기근에 백성들 탄식소리	飢饉荐臻民嗷嗷
이 집은 헐벗은 채 떨고 저 집은 곡하네	東家肉寒西家哭
갓난 아이 길가에 버려져 있어도	宛宛赤子路傍棄
경각에 달린 목숨 누가 돌보랴	命在須臾誰顧復

60) 권필(權韜, 1569~1612) :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임숙영(任叔英)이 유희분(柳希奮) 등의 방종을 탄핵하다가 삭관된 사실을 듣고 분함을 참지 못하여 「궁류시(宮柳詩)」를 지어서 풍자, 비방하여 해남으로 귀양을 가는 길에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석주집』이 있다.

61) 이하로 본고에서 인용한 원문의 번역은 『오봉선생문집』(한국국학진흥원, 2019)을 참조한 것이다.

굶주려 죽어 길에 널린 시체에  
 까마귀와 들개들 물어뜯고 있네  
 습한 기운에 역병이 크게 도니  
 남은 백성마저 날마다 죽어가네  
 작년 열 집이던 것이 지금 두어 집 남아  
 고아와 과부와 외로운 노인뿐이네  
 방백이 농사 힘쓰라는 글을 내려도  
 심고 가꾸려는 이 없으니 어찌하리오  
 병든 수령이 근심한들 어찌하랴  
 밥상 앞에 두고 차마 먹지 못하겠네

荼顏盈道相繼斃  
 烏鳶集啄狗犬簇  
 瘴氣流行癘疫熾  
 餘民死亡日相續  
 前年十室今數家  
 子孤妻寡老者獨  
 方伯雖有勸耕書  
 其奈莫肯種黍菽  
 病倅憂傷終奈何  
 對案不敢喫公餼

신지제 선생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영남 지역의 방어에 힘썼는데, 이 시기에 친형 신지효(申之孝)와 동향의 스승인 김성일(金誠一), 의병장이자 친우(親友)였던 김해(金垓)의 죽음을 겪었다. 이때 김해를 애도하는 만시를 20운으로 지었다.

고관은 목가를 두려워하고  
 철인은 용사의 해를 꺼린다지  
 얼마 전 학봉 선생을 애도했는데  
 그대 또 죽었으니 어찌하랴

達官怕木稼  
 哲士忌龍蛇  
 曾悼鶴峯逝  
 又如達遠何

...(중략)...

불공대천의 원수에 분노하고  
 의병 일으켜 자주 격문 돌렸네  
 임금 위한 충심은 간절하였으나  
 바다 가득 메운 적들을 어찌하랴  
 잠시 강가에서 같은 꿈을 꾸었는데  
 곧 바닷가에 나가 있느라 멀어졌네  
 얼마 전 부인을 잃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대 상여 온다고 들었네<sup>62)</sup>  
 떠도는 말 처음에 안 믿었는데  
 마침내 부고가 오고 말았네  
 어찌하여 나라가 쇠퇴하는지  
 친구에게 통한이 일게 하네  
 집안에 아들은 아직 어리고  
 아버이는 머리가 다 백발이라  
 천지사이에 슬픔이 끝이 없고

憤讐天共戴  
 鳴義檄頻過  
 捧日心徒切  
 填溟勢則那  
 乍同灘上夢  
 還阻海濱珂  
 卽說遭盆歎  
 驚聞返柳車  
 行言初不信  
 凶訃竟非訛  
 爭奈邦家瘁  
 徒貽舊識嗟  
 庭孤年未長  
 堂老髮皆皤  
 俯仰悲無盡

62) 얼마……들었네 : 김해의 부인 이씨(李氏)가 세상을 떠난 지 1개월 만에, 김해가 뒤이어 진중(陣中)에서 병사한 것을 말한다.

저승과 이승으로 갈라졌네	幽明路已差
그대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데	音容都寂寞
이 세상에서 홀로 쓸쓸히 지내네	人世獨婆娑
한없는 슬픔에 통곡하자니	慟哭無窮意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리네	茫茫淚漲河

시의 첫 구절에서 목가(木稼)는 나무에 물방울이 얼어붙어 기묘한 형태를 이룬 것으로, 위인의 죽음을 예고하는 뜻으로 쓰인다. 또 용사(龍蛇)에 해당하는 진년(辰年)과 사년(巳年)은 현인에게 불행이 닥치는 흉년으로 일컬어지는데, 전란이 일어난 해가 임진년(壬辰年)이며 그때 의병장으로 활동한 김해(金垓)와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이 세상을 떠난 해가 계사년(癸巳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신지제 선생은 예안 현감으로 있을 때, 외가 중형제 항렬의 누이 장씨가 곤궁에 처한 것을 애처롭게 여겨서 김춘룡(金春龍)<sup>63)</sup>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느라 시를 지어 보냈다. 즉, 「누이 장씨를 위하여 4운시를 지어 김춘룡 원서 형에게 주고 중서 아우에게 보이다 [爲張氏妹賦四韻 呈于金元瑞兄〔春龍〕示仲瑞弟]」라는 제목의 칠언율시 1수이다. 시는 다음과 같다.

불쌍하게 떠돌며 살던 장씨 누이	瑣尾流離張氏妹
호해에서 잠시 만났구나	相逢湖海暫時人
어려운 시기에 다들 외면하니	畏途顏面元多厚
타향에서는 친한 인척 더욱 적네	異地婚姻更少親
곤궁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 되었으랴	不爲困窮寧有此
다른 형제가 있다지만 누구를 의지하겠나	謂他兄弟欲誰因
구덩이에 쓰러져도 내 구제할 수 없으니	將填丘壑吾難救
지하의 조상 야단친 지 오래됐으리	地下先靈久已嘖

장씨는 5~6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지냈는데 지금 병란을 만나 생업을 잃었다. 또 인척들에게 자주 속아서 편히 지낼 수 없었으므로 어렵게 살던 집을 떠나 월성을 떠돌다가 김춘룡의 집에 더부살이를 했으나 형편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신지제는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죽은 큰형의 식구들을 돌봐야 해서 장씨를 보살필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유복한 김춘룡에게 장씨를 특별히 부탁한 것이다.<sup>64)</sup>

왜란 당시 명나라에서 조선을 침략한 일본과 강화(講和)를 시도하자 이에 대한 울분을

63) 김춘룡(金春龍, 1558~1621) : 자는 원서(元瑞), 호는 행파(杏坡),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광재우(郭再祐)와 합세하였으며, 울산에서 왜적을 격파한 공으로 송라도 찰방(松羅道察訪)에 제수되었다. 『오봉집』 권5에 신지제가 쓴 만시가 실려 있고, 권7에 제문과 묘지가 실려 있다.

64) 심경호, 전계 해제, 48쪽.

아래의 시로 표출하여 설월당 김부륜(金富倫, 1531~1598)에게 전하였다.

하늘을 뒤덮은 요망한 기운 언제 없어지려나	蔽天氣祲幾時清
삼한 땅에 다섯 해 내내 전쟁이 끝나지 않네	五載三韓不解兵
작은 나라에 좋은 대책 없음을 스스로 알지만	褊壤自知無上策
잃어버린 대국의 위신은 어떻게 회복하려는지	大邦何復損王靈
동창 아래서 마침내 남조의 의론 주동하니	東牕竟主南朝議
용절 들고 범 아가리로 간 사행길 헛수고였네	龍節徒勞虎口行
도망쳐 돌아온 필부의 일 참으로 가소로우니	堪笑逃來匹夫事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는 임무 가볍지 않구나	四方專對任非輕

김부륜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산을 기울여 의병을 도왔으며, 달아난 봉화 현감을 대행하여 수습에 힘써 특교(特敎)를 통해 봉화 현감이 된 인물이다. 신지제 선생은 조선에서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한탄하고, 남송(南宋)의 간신 진회(秦檜)가 금(金)나라와 화의(和議)할 것을 주장한 일을 인용하여 명나라가 조선의 뜻과 다르게 일본과 강화를 시도한 것을 비판하였다. 또 명나라가 일본과 강화하는 것을 대국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굴욕적인 일로 인식하고, 『춘추(春秋)』에서 정(鄭)나라 집정대신 정첨(鄭詹)이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齊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억류되었다가 구차히 목숨만 부지하여 도망쳐 돌아온 고사에 빗대었다.

## 2) 교유시

신지제 선생은 정유재란 때 곽재우와 함께 화왕산성을 고수하여 왜적을 막았다. 전란이 끝나고 창원 부사로 재직할 때는 손기양과 함께 곽재우의 망우정(忘憂亭)을 방문하여 시를 남기는 등 전란 후에도 교유를 이어나갔다. 아래의 시는 곽재우의 선물에 감사하는 뜻으로 지은 것이다.

낙동에서 금빛 옷 입은 사신이	東洛金衣使
너울너울 날아 바다 모퉁이로 왔네	蹢躅落海隅
땅에 떨어진 석류 열매가	墮地石榴子
신선 세상에서 날아왔구나	飛來自僊區
둥글게 황금을 싸고 있고	團圓裹黃金
영롱하게 붉은 구슬을 꿰었네	璀璨絡丹珠
쪼개 보니 바람과 이슬처럼 차가워	試劈風露寒
쟁반에 담아내어 늙은이 놀라게 하네	登盤驚老夫

요즈음에 가려움증을 앓고  
 마음에 심란한 일이 많았는데  
 한 번 삼키니 상쾌함이 감돌고  
 두 번 씹으니 묵은 병이 낫네  
 금세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고  
 문득 바람 타고 날고 싶구나  
 멀리 난새와 학을 타고  
 동정호 위로 날아가  
 발을 씻으며 팔황을 바라보고  
 신선의 무리 좇아 노는구나  
 늙은 신선이 나를 돌본다면  
 이 길이 응당 외롭지 않으리

邇來病風癩  
 心緒多煩紆  
 一吞新爽廻  
 再嚼沈痾蘇  
 俄覺身骨輕  
 忽欲凌風衢  
 遠逐鸞鶴驂  
 飛過洞庭湖  
 濯足望八荒  
 追遊韓衆徒  
 老僊如顧我  
 此道應不孤

곽재우가 자신의 망우정 아래에 열린 석류를 다섯 개를 보내오자, 이 석류를 황금과 붉은 구슬[丹珠]로 표현하여 선물을 진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 외에도 곽재우의 망우정을 주제로 한 시(「奉呈忘憂亭僊丈」)와 차운한 시(「次忘憂堂郭丈韻」, 「次郭丈韻 送別子張」) 등이 『오봉집』에 다수 실려 있어 서로 돈독한 교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지제 선생은 퇴계학파의 김부륵과도 많은 시를 나누었다. 아래는 김부륵이 술을 들고 찾아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 소매에서 시 몇 폭을 꺼내 보여주자 이에 대하여 화답한 시이다.

낮은 벼슬 전전하다가 자주 몸져눕고  
 전란과 공문서 처리로 정신이 없구나  
 때로 고을 노인 따라 모임에 참석하니  
 오상<sup>65)</sup>을 마련했던 고인에게 부끄럽네

薄宦支離臥病頻  
 軍州簿牒損精神  
 時從邑老攀佳會  
 却向遨牀愧古人

높은 산 우러르듯 자나 깨나 그리웠는데  
 바위틈 매화와 시내의 달은 옛 기풍일세  
 후생이 배울 만한 곳이 어찌 없으리오  
 선보에서 스승을 따른 이 아직 있다오

景仰高山夢寐頻  
 巖梅溪月舊風神  
 後生私淑寧無地  
 單父從師尙有人

김부륵이 당(唐)나라 종리권(鍾離權)의 「장안의 술집 벽 절구 3수에 쓰다」[題長安酒肆

65) 오상(遨牀) : 고을 수령의 들놀이를 뜻한다. 중국 성도(成都) 태수가 매년 4월 19일에 두보(杜甫)의 초당(草堂)인 창랑정(滄浪亭)에 나와서 놀고 잔치할 때면 사람들이 너른 뜰에 의자를 늘어놓고 관람하였는데, 이 의자를 '오상'이라고 하였다.(『老學庵筆記』 「佩文韻府」)

壁三絶句」 시에 차운하여 동년 급제자 모임을 기념하는 시를 지어 보여주자, 신지제 선생이 취중에 두 편을 지어 화답한 것이다. 선보(單父)의 수령으로 나갔던 공자(孔子) 제자 복자천(宓子賤)의 고사를 인용하여 김부륵을 중유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밖에 찾아와 준 김부륵에게 사례하는 시(「謹次雪月丈韻謝枉顧」), 가야로 가는 중에 술을 들고 오는 설월당 어른을 만나 모래사장에 앉아 이야기 나누다가 술에 취해 절구 한 수를 읊은 시(「將往佳野 路上見雪月丈佩酒而來 坐話沙頭 醉吟一絶」), 기타 차운시(「敬次雪月丈留韻」, 「次杜團練宣州韻 奉呈雪月丈」) 등에서 사적으로 그와 왕래가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신지제 선생은 자신보다 앞서 창원 부사를 지낸 손기양(孫起陽, 1559~1617)을 중유했다. 손기양의 자는 경징(景徵), 호는 오한(鰲漢) 또는 송간(松澗), 본관은 밀양이다. 1588년 문과에 급제한 뒤 울주 판관·창원 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밀양의 칠탄서원(七灘書院)에 제향되었다. 훗날 이익(李瀼)이 작성한 「창원 부사 오한 손공의 행장(昌原府使鰲漢孫公行狀)」에 따르면,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지산(芝山) 조호익(曹好益),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 월간(月澗) 이전(李堧) 및 그 아우 창석(蒼石) 이준(李峻), 부용(芙蓉) 성안의(成安義), 완정(浣亭) 이언영(李彦英), 감호(鑑湖) 여대로(呂大老), 검간(黔澗) 조정(趙靖),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외재(畏齋) 이후경(李厚慶) 등과 함께 신지제 선생도 손기양을 따랐다고 한다.<sup>66)</sup> 아래는 손기양이 이숙평<sup>67)</sup>에게 준 시에 차운하여 경징을 전송한 시이다.

아마 무성한 숲속 교외의 집	遙想郊居著茂林
시내와 산에 질푸른 안개 자욱하리	霧灘煙嶂綠沈沈
젊어서는 동해에 낚싯대 드리웠고	初年東海持竿手
늙어서 남산에서 콩 심을 마음 있었네 <sup>68)</sup>	晚節南山種豆心
강가 언덕에서 지팡이 짚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	沙岸投筇隨好景
들판 정자에서 자리 바꾸어 시원한 그늘 찾네	野亭移板趁清陰
못난 이 몸은 괴롭게 헛된 명예에 매여	龍鍾苦被浮名繫
성성한 백발로 동루에 앉아 휘파람을 불고 있네	坐嘯東樓雪半簪

66) 심경호, 전계 해제, 39쪽.

67) 이숙평(李叔平) : 이준(李峻, 1560~1635)의 자이다. 호는 창석(蒼石), 본관은 흥양(興陽)이다. 1591년 문과에 급제한 뒤 정자·예조 정랑·단양 군수·사간·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저서로는 『창석집』이 있다.

68) 젊어서는……마음 있었네 : 손기양의 정치적 역량과 처세를 칭송한 것으로, 젊어서 백성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데에 힘쓰고 늙어서 전원으로 물러날 생각을 하였다는 말이다. 『장자』 「외물(外物)」에 “임 공자(任公子)가 큰 낚시예다 소 오십 마리를 미끼로 하여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아 그 고기를 포로 만들어 주어, 절강의 동쪽과 창오(蒼梧)의 북쪽 사람들이 모두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한 내용과 도연명의 「귀전원거(歸田園居)」에 은거의 즐거움을 표현하면서 “남산 아래에 콩 심으니〔種豆南山下〕”라고 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또 손기양이 예전에 편지를 보내어 밀양 부사와 공명정(空明亭)에서 만나서 배를 타고 광재우의 강가 정자에 들르자고 약속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시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오한 노인이 편지에서 좋은 일 전해 오니	輦叟書來好事傳
공명정 아래에다 작은 배 띄웠네	空明亭下泛蘭船
오리 타고 함께 한 이는 영남루 <sup>69)</sup> 주인이고	乘鳧相逐嶺南宰
학 타고 들른 곳은 강가의 신선이러네	駕鶴仍過江上僊
고운 기녀는 줄지어 옥고리처럼 둘러 있고	紅袖引行環似玉
술동이 벌여 놓고 샘물처럼 퍼 마시네	綠罇圍坐酌如泉
산수에서 한껏 취해 마음껏 즐기고 구경하니	湖山一醉狂歡賞
천년의 좋은 풍류란 바로 이 자리를 말하리	千載風流說此筵

신지제 선생이 창원 부사로 재직할 때 지었던 시를 모은 「회산잡영」 상·중·하를 보면, 박서구(朴瑞龜, 1546~1623)와 수창한 시가 가장 많다. 창원 교수였기 때문에 선생은 그를 ‘광문(廣文)’이라고 불렀다. 저술로 『악견시집(嶽堅詩集)』이 있으나 시는 그리 많이 수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높은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창원에서 선생의 문학 적 빛이 되었던 인물로, 선생의 시에 박서구의 시적 재능을 인정한 대목이 많이 보인다.

광문 젊은 나이에 명성이 빛나더니	廣文華譽壯年時
저 멀리 서울로 달려가려고 하네	欲向天衢逞遠馳
만 마리 말을 다 제치고 앞길을 열었고	萬馬空羣開道路
천 명의 군사 끌어버리고 깃발을 걷었네	千人掃陣捲旌旗
죽엽 향아리 새로 빚은 술을 기울이고	迷罇竹葉傾新釀
금옥 소리처럼 아름다운 옛 시를 읊조리네	擲地金聲誦舊詩
재주와 힘이 아직도 강건하니	才力如今尙強健
앞길의 운수가 기구하지 않으리라	未應前路命偏奇

박서구가 육유(陸游)의 시에 차운하자, 여기에 다시 차운해서 지어 준 시이다. 이 시를 지은 시기는 박서구가 서울로 과시(科試)를 보러 가던 참이었다고 하는데, 시의 구절 구절마다 그의 재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눈 내리는 하늘에 햇빛 희미하게 빛나니	雪天殘日少光輝
추위 견뎌낸 뜰의 매화 아직 움츠리고 있네	寒勒庭梅未解圍
팽택 현령은 술 한 잔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彭澤眞思傾杓醪

69) 영남루(嶺南樓) : 1365년에 밀양 군수 김주(金湊)가 영남사라는 절터에 지은 누각으로 절 이름을 빌어 영남루라 불렀다. 김주가 중수한 이후에 전쟁이나 실화로 훼손되어 수차례 중건하는 과정을 거치고, 지금 건물은 1844년에 밀양 부사 이인재(李寅在)가 새로 지은 것이다. 현재 밀양시 내일동(內一洞)에 있다.



초나라 객은 마의에 익숙한 것 공연히 자랑하네 <sup>70)</sup>	楚人虛詫慣麻衣
작은 고장에서 학문 닦지 않음을 감히 논하라	敢論百里絃歌斷
변방에서 급보 들리지 않는 것만 조금 기쁘다네	稍喜三邊羽檄稀
나라의 귀한 시인을 외지에서 만났으니	國寶詩流逢塞上
백발 늙은이 그대 따라 취해 함께 돌아가리	從君白首醉同歸

광문의 시에 차운하다[次廣文] 중 3번째 수

흰머리 노인 세상에서 누가 받아주리	皓首人寔爲孰容
청년의 기상 씩씩하여 용도 잡을 만했지 <sup>71)</sup>	青年意氣壯屠龍
봉새 삼천리 박차고 가서 <sup>72)</sup> 도로 날개를 드리웠지만	三千搏去還垂翼
운몽 여덟 아홉 개 삼키고도 속에 체함이 없네 <sup>73)</sup>	八九吞來不滯胸
사조가 즐기던 경치 제일의 명승지이고 <sup>74)</sup>	謝眺風煙元勝地
정건이 지은 시는 또 문장의 으뜸일세 <sup>75)</sup>	鄭虔文字更詞宗
장성이라 항복의 깃발 세우겠다고 말하기 부끄러워	長城慚告降旗豎
앉아서 작은 부대를 써서 웃으면서 공격하리	坐用偏師帶笑攻

3) 구미리 정착 후의 시

신지제 선생은 1618년 창원 부사에서 체직되어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에 정착하였다. 아래의 구미 별장에 터를 잡고 살며(「龜庄卜居」)라는 시는 선생의 한가로운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작품이다.

새로 널찍하게 터 잡은 구미 별장	新卜龜庄一畝寬
--------------------	---------

70) 팽택……자랑하네 : 전원에서 술을 벗하고 외지에서 은자처럼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빗댄 말이다. 팽택(彭澤) 현령은 현령의 인끈을 풀고 고향으로 돌아간 진(晉)나라 도잠(陶潛)을 가리키며, 초나라 객은 초나라에서 삼려대부(三閭大夫)를 지내다가 소인배의 참소로 쫓겨난 굴원(屈原)을 말한다.

71) 용도 잡을 만했지 : 원문의 '도룡(屠龍)' 특별한 재주를 뜻한다. 『장자』 「열어구(列禦寇)」에 “주평만(朱泚漫)이 지리익(支離益)에게 용 잡는 기술을 배우느라 천금의 가산을 모두 탕진하면서 3년 만에 기술을 완전히 터득했으나 썩먹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72) 봉새……가서 : 큰 뜻을 펼치는 모습을 나타낸 말로,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물을 3천 리나 박차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9만 리나 날아오른 뒤에야 6개월을 가서야 쐈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73) 운몽(雲夢)……없네 : 포부가 웅대함을 나타낸 말이다. 한나라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상림부(上林賦)」에서 “초나라에는 일곱 개의 못이 있다. 하나는 운몽택으로 사방 9백 리인데, 운몽택처럼 큰 호수를 여덟아홉 개를 삼켜도 가슴속에 조금도 막힘이 없다.[楚有七澤 其一曰雲夢 方九百里 吞若雲夢者八九 其於胸中曾不蕪芥]”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史記』 卷117 「司馬相如列傳」)

74) 사조(謝眺)가……명승지이고 : 사조의 자는 현휘(玄暉), 남조 제(齊)나라의 시인이다. 종산(鍾山)의 별장, 경정산(敬亭山), 삼산(三山) 등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읊었다고 한다..

75) 정건(鄭虔)이……오름일세 : ‘광문’에 착안하여 박서구를 광문관 박사(博士)를 지낸 정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정건은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문인으로 현종이 그를 총애하여 광문관(廣文館)을 설치하고 박사(博士)로 임명했으며 두보(杜甫) 또한 정건과 교류하면서 남긴 시가 있다. (『新唐書』 卷202 「文藝列傳·鄭虔」)

앞에는 푸른 물, 뒤에는 푸른 산	平臨碧澗背蒼巒
열심히 농사지어 우선 생계를 이어가고	力耕且足供飢飽
작은 집 지어 그나마 추위와 더위 견디네	小構聊堪度暑寒
대와 매화 옮겨 심어 오래된 정분 유지하고	移竹兼梅存宿契
갈매기와 해오라기 불러 즐겁게 함께 지내네	喚鷗和鷺託同歡
지금 늙은이라 아무 할 일 없으니	從今老矣無餘事
인간사 험난하다는 말 믿을 게 없네	不信人間道路難

「석주 권필의 ‘임거십오영’ 시에 차운하다[次權石洲(韞)林居十五詠]」는 15편의 칠언절구 연작이다. 이른 봄의 풍광, 늦봄의 풍광, 초여름의 풍광, 가을 소리, 초겨울의 풍광, 가뭄 걱정, 내리는 비를 기뻐함, 사물을 보면서 일어나는 감회, 할일 없이 소요함, 사물 관찰의 방식, 시냇가 정자, 홀로 즐기는 생활, 마음 살피는 방도, 성품을 보존하고 수양하는 태도, 가을 해바라기 등을 차례로 읊었다. 아래는 15편 중에 일부를 추린 것이다.<sup>76)</sup>

얼어붙은 물 녹아 시냇물 맑고	流盡寒澗澗水清
따뜻한 봄에 새가 정답게 우네	禽聲初暖漸和鳴
봄바람 부는 중에 산비 뜰에 내리니	一庭山雨東風裏
땅 가득 파릇파릇 새싹이 자라네	滿地微微細草生
【위 시는 이른 봄을 읊은 것이다.】	

남쪽 이랑에 단비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니	望望南阡穀雨來
거북등처럼 갈라진 땅에 먼지가 자욱하네	田疇龜坼漲塵埃
옛날 비 뿌리던 사람 어디에 있는지	舊時行雨人何處
신총은 멀리 떠나 돌아오지 않네	萬里神驄去不廻
【위 시는 가뭄을 걱정한 것이다.】	

아득히 먼 구만리 하늘에	茫茫九萬老天長
대궐에서 향불 하나 피웠으리	禁裏應燒一炷香
사방에서 환호하는 소리에 놀라 일어나니	驚起四鄰爭拍手
새벽에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네	曉來江水看汪汪
【위 시는 비가 내린 것을 기뻐한 것이다.】	

한가한 중에 사물을 살피니 은자 감동시키고	閒中觀物感幽人
동풍이 삼라만상 변화시켜 날마다 새롭네	百變東風日日新
끊임없는 천기 쉬지 않고 돌고 도니	袞袞天機流不息
푸른 복숭아 붉은 살구 절로 봄 다투네	碧桃紅杏自爭春

76) 심경호, 전계 해제, 46쪽.

【위 시는 사물을 보고 감회가 이는 것을 읊은 것이다.】

단전丹田과 적실赤室은 본래 비어 있으니	丹田赤室本來空
지극한 이치 빈 곳 통해 가는 곳마다 합하네	至理虛通逐處融
주인翁을 불러 늘 여기에 있게 해야 하니 <sup>77)</sup>	要喚主翁常在此
잃은 닭과 개 찾는 일 <sup>78)</sup> 을 맡아야 하네	管求雞犬放收中

【위 시는 마음을 살피는 것을 읊은 것이다.】

사람이 해야 할 일 잊어서는 안 되니 <sup>79)</sup>	人間有事未應忘
성품을 보존해야 하는 것 <sup>80)</sup> 의미가 깊네	只要存存一味長
좋은 바탕을 한없이 너그럽게 가지면	無限寬閒好田地
눈앞의 사물마다 천향天香 아님이 없으리	眼前無物不天香

【위 시는 성품을 보존하고 수양하는 것을 읊은 것이다.】

구미리에 물러나 지내면서, 전란을 겪고 폐허가 된 수도가 다시 중흥하고 새 궁궐이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보(杜甫)의 시에 차운하여 감회를 나타내었다.

전쟁의 승패 한 판의 바둑과 같으니	勝敗兵家一局碁
그때의 전쟁에 백성들이 슬퍼하였네	那時荊棘國人悲
우환을 겪은 전날에 노래하며 기대하였고	謳歌舊屬殷憂際
중흥하는 때에 새로 대궐을 바라보네	象魏新瞻再造時
하늘 끝 높이 구름 밖으로 누가 솟아있고	雲外瓊樓天極迤
대궐 곁의 금장에 이슬이 늦게 맺히네	日邊金掌露華遲
외로운 신하 바다에서 늙어가니	孤臣白髮滄洲暮
꽃가지를 꺾으면서 한없이 사모하네	采采芳花無限思

새 궁궐이 옛 규모보다 장엄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바라보고 축하드리기를 원하였지만 병환으로 차질이 생겨 초야로 물러나 사는 처지에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표현하였다.

77) 주인翁(主人翁)을……하니 : 당(唐)나라 때 서암(瑞巖)이란 승려가 매일 “주인옹아! 깨어 있느냐?”라고 자문하고 “깨어 있노라.”라고 자답한 것을 말한다. 이는 마음이 외물(外物)에 이끌리지 않도록 시시각각(時時刻刻) 일깨우는 지경(持敬)의 방법이다. (『心經 卷1』)

78) 잃은……일 : 풀어졌던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닭이나 개가 도망치면 사람들이 찾을 줄을 알면서도 마음이 도망치면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놓친 그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人有雞犬放 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文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79) 사람이……되니 :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나오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야 하지만 결과를 미리 기약하지 말아서, 마음에 잊지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80) 성품을……것 :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본성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의로 들어가는 문이다. [成性存存 道義之門]”라고 한 것을 말한다.

선생은 구미리에 물러나 지내면서 명나라가 몰락하고 후금이 흥기하자 이에 우려를 나타낸 시도 지었다. 이 시는 「듣자니 왕 참정<sup>81)</sup>이 수군 2만 명을 이끌고 압록강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군사와 함께 의주를 지키고자 하였다. 이때에 오랑캐가 요동을 함락한 뒤 요동과 계주에 웅거하고 있어 왕 참정이 적은 군사로 깊이 들어가 오랑캐 사신을 목을 베고 오랑캐의 후방을 요격하기를 도모하여 마치 관군과 양편에서 협공하는 형세를 취하는 듯이 하였다고 한다. 그 뜻이 장대하고 원대하니 중국에 큰 인물이 있구나. 이 계획이 만약 성공하면 중국을 위해 막중한 사안을 처리한 것이 된다. 중국을 위해서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익과 피해가 어떠한지를 모르겠으니 정세로 보아 따라야 할지 말지를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왕공의 조치를 옳게 여기면서도 조정의 계획은 결단하기 어려운 것을 걱정하여 우연히 그 일을 읊다[聞王參政 領舟師二萬到鴨綠江 欲同本國守義州 時奴賊陷遼 雄據遼薊 參政以孤軍深入斬奴使 謀爲要擊奴後 若爲官軍犄角之勢 其志壯且遠 上國有人矣 此計如就 其爲上國料事重矣 第未知本國利害如何 亦未知事勢之可從與否 竊思之 誠非放過之地 於是 臆王公之舉措 而慮廟謨之難斷 偶詠其事]」라는 긴 제목으로 되어 있다.

왕공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 전해진 명성 어찌 그리 장하고  
 백성들이 모두 눈을 비비고 바라보니  
 하늘에서 신선 내려왔다고 들은 듯하네  
 양공과 원공이 서로 연이어 패배하여<sup>82)</sup>  
 요동 한쪽 구석이 전란으로 휩싸였네  
 이리와 범이 온 땅에서 우레처럼 우니  
 평평한 산동 지방에 요새로 삼을 곳 없네  
 적은 군사로 죽음 무릅쓰고 깊이 들어가니  
 압록강 파도 위에 청작 배가 떠나네  
 격문을 날려 보내 조선을 진작시키니  
 백만 오랑캐 군사 간담이 서늘해지네  
 조정의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매우 어려운 일이라 힘써 강구해야 하리

王公未知何狀人  
 名傳海外何其壯  
 東人拭目盡回頭  
 如聞羽人來天上  
 楊公袁公相繼敗  
 遼天一隅煙塵漲  
 豺虎滿地聲如雷  
 壇漫山東無堡障  
 孤軍深入出萬死  
 鴨綠波上青雀舫  
 羽書飛來聳下國  
 百萬胡兵膽已喪  
 不知廟筭出何場  
 事有至難宜勉強

81) 왕참정(王參政) : 왕사기(王士琦, 1551~1618)로 참정은 산동포정사사 우참정(山東布政使司右參政)을 말한다. 자는 규숙(圭叔), 호는 풍서(豐嶼)이다. 절강 태주부 임해현(臨海縣) 사람이다. 1583년에 진사가 되어, 문장에 능하다 하여 처음에 서길사(庶吉士)로 뽑혔다. 1598년 6월에 흠차 어에서로감군(欽差禦倭西路監軍) 산동포정사사 우참정(山東布政使司右參政)으로 조선에 나와 유정(劉楨)과 진린(陳璘) 모두를 지휘했다.

82) 양공(楊公)과……패배하여 : 1616년 만주에서 후금(後金)을 건국한 누르하치가 명나라의 변경을 자주 침략하자 명나라는 날로 강대해지는 후금을 치기 위해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명나라 군대는 양호(楊鎬)가 이끄는 10만 명의 군대가 진출하여 조·명 연합군이 앞뒤에서 일제히 적을 협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작전에 차질이 생겨 부차(富車)에서 대패하였다.

당시의 국사를 누구에게 물으시려나  
 훌륭한 재상에 의지해야 할 테인데

此時謀國問何人  
 安危成敗憑賢相

시의 서문을 별도로 쓰는 대신 제목을 통해 명나라와 후금, 조선의 정세에 대하여 밝히고 시의 내용과 창작 경위를 설명한 점이 이채롭다. 명나라는 후금과의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명나라를 사대하던 조선으로서는 이를 거절할 명분이 없었으나, 자칫 강성해지는 후금에 견제를 당할 우려와 군사적인 소모를 감수해야 하므로 국익을 위해서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신지제 선생은 고향 구미리에 물러나서도 나라에 대한 걱정에 위 시를 지어 답답한 마음을 달랠던 것이다.

구미리에 정착한 이후에 지은 「구당만록(龜堂漫錄)」에는 살고 있는 향촌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시들이 여럿 보인다. 아래는 「외가에 옛날부터 있던 연못이 황폐한 지 여러 해가 되어 늘 안타까웠는데 종손 박군이 우물을 파서 보수하고 못가에 초당을 지었다. 한 밤중에 비가 개고 달이 떠서 맑은 물가에 서서 보니 매우 시원하여 잠을 자지 않고 거닐다가 닭이 세 번 울고서야 그쳤다. 나는 박군이 옛 집을 보수하여 내가 바라보고 감개하는 곳을 황폐하지 않게 한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여겼다. 이어서 여러 시에 차운하여 내가 감개한 심정을 기술하여 박군이 더욱더 힘쓰도록 하다[外家舊有蓮池 荒廢累年 每惜之 宗孫朴俊疏鑿重修 構草堂于池上 時夜將半 雨晴月出 俯臨鏡面 甚覺清爽 逍遙不寐 至于雞三鳴乃已 余甚幸朴君保守舊宅 使吾瞻感之地 不就荒蕪也 仍次諸作 述吾感愴之情 使朴君更加勉強焉]」라는 제목의 시이다.

계단 아래 네모난 연못 맑고 깊으니  
 갠 하늘의 밝은 달이 물결을 비추네  
 자손들 모인 옛 집에 먼저 들어가니  
 사물마다 느끼는 감회 고금이 다르네

階下方池清且深  
 霽天明月印波心  
 先入舊宅諸孫會  
 物物關情異古今

2〔二〕

못과 대를 다시 넓히니 물색이 새로운데  
 맑은 밤에 일어나 앉아 남몰래 애태우네  
 지난 오십년 전의 일을 헤아려보니  
 그 당시 아이가 벌써 노인 되었구려

重拓池臺物色新  
 清宵起坐暗傷神  
 筭來五十年前事  
 當日兒郎已老人

고향에 머물며 선생의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낸 시 중의 하나로, 외가의 박군이 초당을 지어준 일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지어 전해준 작품이다.

신지제 선생은 신유년(1621) 7월 28일에 도적떼에게 습격을 당하였다. 이때 화재로 인해 집이 반이나 타고 서책 오백 권 이상이 잿더미가 되었으며 시종도 여섯 명이나 화

상을 입었는데, 이 사실을 아래와 같이 시로 표현하였다.

하녀가 다급해하며 방으로 들어와서는	下女愴忙叫入閨
도적떼가 야밤에 담장을 넘었다고 하네	已聞羣盜夜踰垣
처음에 잠에서 깨니 약간의 취기가 도는데	初廻枕上微酣起
모두들 곤히 잠든 상황에 손을 쓸 수 없었네	無奈鋒前衆睡昏
앞 다투어 상처 점거하여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爭點癡瘡披亂血
다친 사람을 부축하여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네	走攜呻痛慰驚魂
다행히 죽은 사람 없으니 무엇을 더 바라랴	幸無殤歿餘何問
도적 잡느라 분주하니 두렵고 원통하네	逮捕紛紜恐或冤

황지의 못된 젊은이 <sup>83)</sup> 도 선량한 백성이니	潢池惡少是良民
하늘이 준 본성은 본래 부족하지 않았네	天賦初來本不貧
다만 곤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只爲困窮方有此
우선 편안히 다독여서 친애해야 하리라	且應安戢轉須親
서적은 천여 권이나 흩어지고 없어지고	詩書散落將千卷
집은 기울어지고 무너져 잣더미가 되었네	棟宇傾堆又一塵
처자식에게 분부하노니 한스럽게 여기지 마라	分付妻孥且無恨

선생은 밤중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도적떼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또한 도적떼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이었으나 곤궁하여 난리를 일으켰으므로 이들을 다독여 주어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서, 궁핍한 백성에 대한 연민과 이들을 은덕으로 포용하려 하는 돈후한 성정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신지제 선생의 가족에 대한 애뜻함은 아래의 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고작 30리 떨어졌다고 녀석 괴로워하는데	纔三十里渠猶苦
이른 나이에 어머니 여윈 우리는 어찌하였으랴	早歲幽明我若何
슬하의 우리 오남매가 너무나도 슬퍼했으니	膝下哀哀五男女
그 당시 얼마나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을까	異時何限惱先爺

선생의 가족애와 인간미가 구절마다 묻어나는 작품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가 있는 며느리를 그리워하는 손자를 보고서 본인이 느낀 안타까움이 발단이 되어 지은 시이다. 옛날 신지제 선생과 그 형제분들은 1569년에 모친 박씨를 여의었는데, 당시 선생의 큰형

83) 황지의 못된 젊은이 : 생활고에 시달리고 수령들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말한다. 한(漢) 나라 공수(龔遂)가 선제(宣帝)의 하문(下問)을 받고는 “이번의 반란은 기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관리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폐하의 백성들이 무기를 슬쩍 훔쳐서 황지에서 한번 장난친 것일 뿐입니다.〔其民困于飢寒而吏不恤 故使陛下赤子盜弄陛下之兵于潢池中耳〕”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漢書』「循吏傳·龔遂」)

은 9살, 선생은 8살, 누이는 5살, 아우는 4살, 막내 여동생은 태어난 지 10개월이었다. 그때 너무나도 슬퍼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선친을 더욱 애통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선생의 생각은 선친에 대한 효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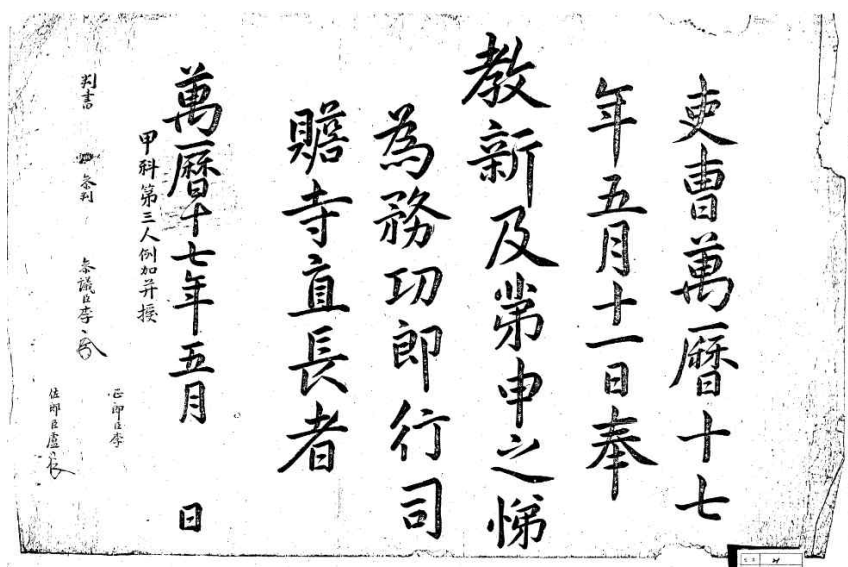
### 3. 30년간 (28세~57세) 관료 생활

#### 1) 선행 사례(善行事例)

오봉은 28세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과 장원이라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문과 장원은 9품직이나 8품직이 아닌 7품직부터 관직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특혜가 수반되었다. 이후 내직과 외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관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 특히 예안 현감 시절에는 임진왜란을 당해 수령으로서의 치안 유지에 진력하면서 7년간의 난리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은 목민관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다.

오봉은 28세 때인 1589년 4월에 이단(異端)에 대해서 논한 대책문으로 문과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5월에 무공랑(務功郎, 정7품)의 품계에 사삼시 직장(司瞻寺直長, 종7품)이라는 행직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1591년 봄에 내직인 사헌부 감찰(정6품)에 임명되었지만 내직보다는 외직인 예안 현감(종6품)을 자청하였다.

〈자료4〉 1589년 사삼시 직장 고신(告身)



① 예안 현감 때 관군과 의병으로 일본군을 막으면서 전장이 수습된 이후 창고 문을 열

어 굶주린 백성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으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② 1591년 11월에 봉직랑(奉直郎)에 부임하자 강도 10여명이 체포되어 예안현의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절도사에게 맡겼다. 그러자 강도들이 모두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 이때도 선생이 풀어 주라고 명하면서 “너희들은 본래 양민인데 의식(衣食)이 곤궁해서 스스로 불의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니 너희들은 잘못을 고쳐 스스로 지난 허물을 뉘우치고 새 길을 가라.”라고 타일러 죄를 뉘우치게 하였다. 이를 통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백성의 편에 서서 해결하도록 힘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해주니 도적들은 모두 감격하여 울면서 백배 사죄하였고, 귀농을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일이 있던 뒤로는 현의 경내에는 경계하라고 미리 알릴 일이 없게 되었다. 선생은 관이 먼저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해결하고 믿음을 주면, 백성의 교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③ 오봉은 1601년 8월 전주부 판관(全州府判官)에 제수되었다. 오봉은 번다한 일을 마음을 다해 처결하여 모두 이치에 맞게 하였다. 또한 강한 이를 억누르고 약한 이를 도와서 위엄과 은혜가 넘쳐났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선정비를 세워 뜻을 기렸다.

④ 1602년 전라도 암행어사에 차출되어서는 관리의 폐단을 없애고 백성의 고통을 보듬으며 실적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명백하여 권세가 있다 해서 봐주는 일이 없으니 고을 수령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⑤ 1613년(52세) 8월 창원 부사에 제수되었는데 한양집으로 권세가가 청탁하며 이르기를 “제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송사하러 올 것입니다. 저를 봐서 잘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하였다. 이에 “공정한 마음으로 밝게 들으면 시비는 저절로 분별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청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청탁한 이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나가서 끝내 송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⑥ 내암(萊庵)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이 함천(陝川)에 있으면서 멀리 조정의 권력을 잡고 흔들었지만 오봉은 가까운 근방의 고을 수령으로 있는 여섯 해 동안 한 번도 그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정인홍은 오봉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미워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말을 지어내어 “고을 수령이 궁궐에 납부할 면포 40 필을 사사로이 사용하였다.”라고 하며 정인홍에게 알리니 정인홍이 말하기를 “나는 그가 행한 정치를 들어왔다. 필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하였다. 오봉은 이 말을 듣고 향당(鄕黨)에 고을 백성들을 모아 면포 수를 조사하게 하되 물건의 유무만을 살피고 말을 지어낸 자가 누구인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봉이 체직되어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이 와서 길가에서 전별하고 뒤따라오며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⑦ 오봉은 병란 중에 굶어 죽은 신체가 길가에 즐비하자, 마음을 다해 구제하여 날마



다 한 말의 곡식을 주며 말하기를 “인정이란 많으면 쉽게 써버리게 마련인데 급할 때마다 돕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오봉의 구휼에 힘입은 고을 백성들은 구렁텅이에 뒹구는 일을 면하게 되었다. 원근의 유리걸식하던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 들었다. 오봉이 말하기를 “모두 다 같은 백성이니 차마 피차를 구분하지 못하겠다.”하고는 마침내 아울러 구호하여 목숨을 보전한 이가 수 천여 명이었다.

⑧ 비안 현감(比安縣監)에게 편지를 보내어 장례 비용이 없어 부친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주의 선비 칠봉(七峯) 황시간(黃時幹, 1558~1642)의 장례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sup>84)</sup>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지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상주(尙州)에 사는 사인(士人) 황정간은 곧 저의 옛 친구입니다. 이제 갈 곳을 잃어 관할구역인 저곡촌(渚谷村)으로 이주했습니다. 5월에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비용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만약 은혜를 베풀어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조금 보내 주신다면 어찌 황군(黃君)만 감사하겠습니까! 저 또한 친구의 일에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윤달 25일에 영구를 만들어 고향에 반장(返葬)할 예정인데 노정이 금당(金堂)을 거쳐서 위만(威萬)과 입석(立石) 등지를 지나갈 것입니다. 바라건대 길가에 사는 민가에서 네댓 마리의 큰 소를 동원하여 잘 호송하도록 하여 운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황군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 할 것입니다. 무릇 민가의 상사(喪事)도 오히려 달려가서 도와야 하는 법인데, 더구나 사대부 집안이 이런 망극한 아픔을 당하였으니 어찌 차마 어려운 사정을 보고서도 구휼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⑨ 창원 부사 재직 시 1614년 오봉 선생 53세 때에 병란을 겪으면서 학교(서당 등)가 폐락하였는데 선생이 봉록을 털어 학교를 짓고 유학을 진작시켰다.

⑩ 오봉 선생이 관직을 떠날 것을 전제로 구미보(1610~1617)를 축조하고 몽리담에 물값(水稅)을 받아 그 일부를 의병의 유가족을 돕는데 지출하였다.

## 2) 주요 관직

### (1) 예안 현감(1591.6~1596.2)

예안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퇴계 이황이다. 조선의 유학을 집대성한 대유학자인 퇴계의 탄생은 유학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예안의 핵심이 되어 왔으며,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이다. 예안은 신라시대에는 영주(榮州)에 속했고, 고려 때는 안동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시대는 다시 독립 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다가<sup>85)</sup>

84) 황만기, 전계 논문, 194쪽.

20세기 초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시 안동에 속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안은 퇴계 이황의 고향으로 ‘추로지향(鄒魯之鄉)’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으나 사족 세력(士族勢力)이 강하며 ‘난치지향(難治之鄉)<sup>86)</sup>’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선조대(宣祖代) 이래 문고나 수령을 파견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이 한사(寒士)들로 예안 사족 층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예안의 사족들은 공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예안 내에서도 명망을 갖추고 예안의 사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5〉 1591년 예안 현감 고신(告身)



오봉 선생의 예안 현감 재직 기간은 임진란과 같은 특수 사정을 고려할 때 4년 7개월이라는 재직 기간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특히 임진년 1592년에 예안 부근의 안동부, 의성현 등의 수령 재임 기간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여러 명이 교체되었다.

### 〈예안 현감 신지제〉

1591.2.8. 承議郎 司憲府 監察 趙守

85) 오봉의 연보 등 기록에 보면 처음에 예안을 선성(宣城)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 태조 때에 수령 이능선이 의거하여 이 지역을 선성으로 고치고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86) 황만기, 「임진란기 예안의 유학과 학맥」,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435쪽.

- 1591.6.21. 承議郎 行<sup>87)</sup> 禮安縣監 제수  
 1591.11.8. 奉直郎 行 禮安縣監 제수  
 1593.1.30. 通德郎 行 禮安縣監 제수  
 1593.8. 通善郎 兼 禮曹正郎 兼 禮安縣監 제수  
 1594.4.11. 通德郎 行 禮安縣監 兼 春秋館 記事官 제수  
 1595.7.4. 朝奉大夫 行 禮安縣監 兼 春秋館 記事官 제수  
 1595.7.20. 朝散大夫 行 禮安縣監 兼 春秋館 記事官 제수  
 1596.2.6. 朝散大夫 行 世子侍講院 文學 제수

임진란이 일어난 1592년 한 해 동안 수령(부사)이 교체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안동 부사 : 정희적(도주), 신지제(대행), 김륵(중앙에서 파견한 安集使), 우복령(1592~1596)
- 문경 현감 : 이희급(1592.1 부임), 신길원(1592.4 재임 중 일본군과 전투 중 사망), 변흔(1592.9 임시부임)
- 의성 현감 : 선조 임금 재직 기간 중 22명
- 비안 현감 : 선조 임금 재직 기간 중 16명

예안 현감으로서 오봉 선생의 업적은 전체 재직 기간이 임란 기간이었고 전란 중 군량미, 무기 조달, 성곽 축성, 명나라 군대 지원, 의병 조직, 지원 등으로 일관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해당 항목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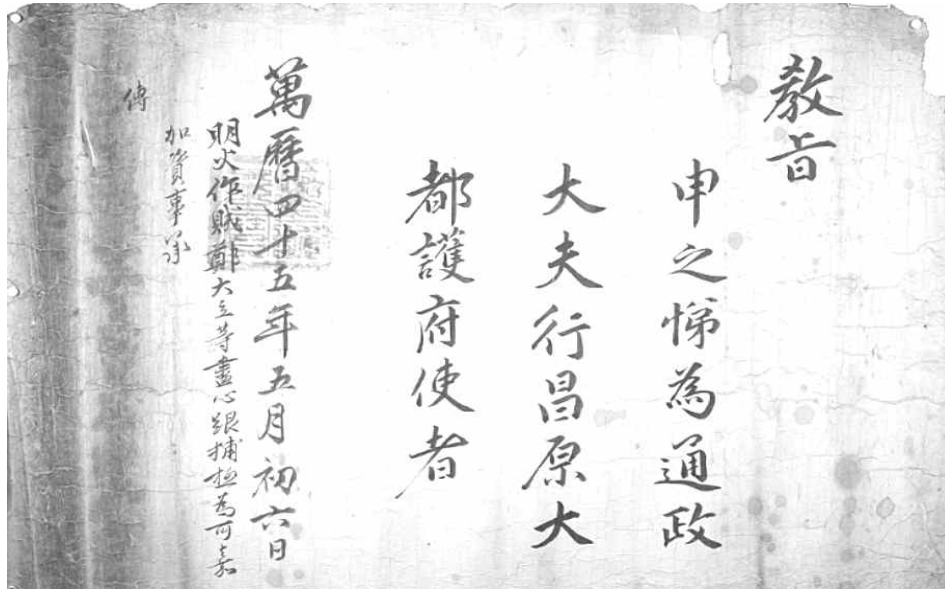
## (2) 창원 부사(1613.8~1618.3)

1613년 8월 선생 나이 52세 때 창원 부사에 제수되었다. 선생은 1610년 3월 충청도 도사에 제수되었고, 5월에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해 8월 함경도 북평사, 1611년 10월 전라도 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선생은 충청도 도사를 그만두고 돌아온 뒤로 광해군 시절에 벼슬길에 나갈 뜻이 없어서 여러 차례 관직이 내렸지만 한번도 부임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계모 오부인이 간절하게 재촉하는 통에 마지못해 애써 일어나 관직에 부임하였다.

1617년 선생 나이 56세 창원 부사 시절에 도적 정대립(鄭大立)을 잡은 일로 인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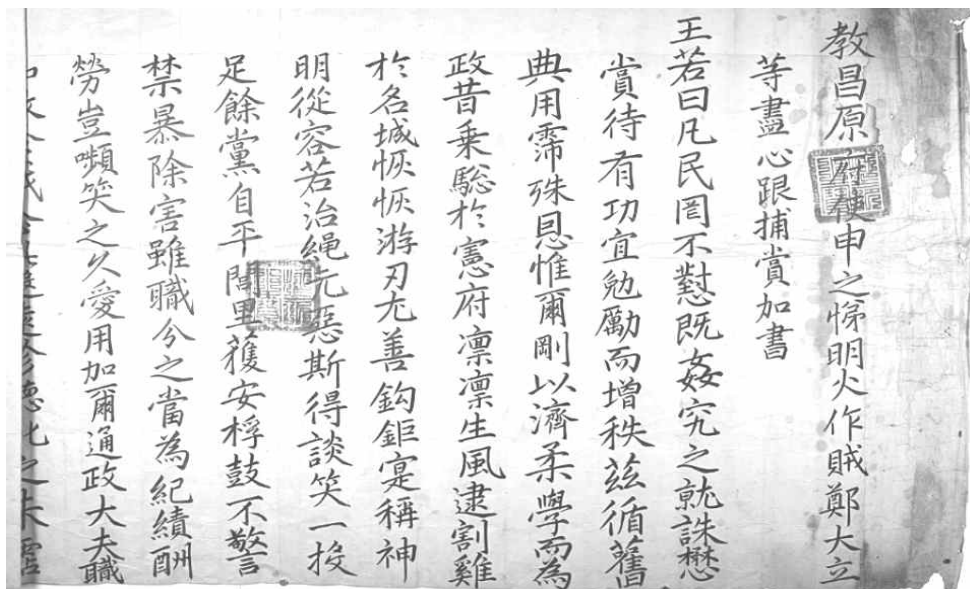
87) 행(行) : 행수법(行守法)이라 하며 품계와 관직의 불일치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 '수(守)'라고 한다.

〈자료6〉 통정대부 가자(加資) 교지(教旨)



당시 정대립은 그의 무리 수 천명을 데리고 바다와 섬 등지에 출몰하면서 고을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약탈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러 창원 일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골칫거리였다. 이에 오봉이 근포(跟捕, 죄인을 정탐하고 수사하여 체포함)하여 정대립 이하 두목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남은 무리까지도 와해시켰다. 이로 인해 바닷가 여러 고을이 편안해졌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통정대부의 품계를 알리는 교서를 내렸는데 교서에는 명화작적(明火作賊)이라고 쓰여 있다.

〈자료7〉 1617년 광해군으로부터 받은 교서(教書)



위 교서는 오랫동안 오봉 종가에 보관되어 오다가 최근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 기탁되었다. 교서 내용의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8)</sup>

생각건대 너는 강함으로 부드러움을 구제하고 충분히 배운 뒤에 정사에 임하였다. 예전 사헌부에서 이미 늙은 기상이 있었는데, 이름난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훌륭한 솜씨를 발휘하였다.

오봉은 1618년 57세 때에 창원 부사로 재직하면서 쓴 시(詩)를 모아서 『회산잡영(檜山雜詠)』이라 하고 그 서문을 지었는데 이것이 이번 국역된 문집의 상권에 실려 있다. 선생은 어머니의 뜻에 이끌려 마지못해 창원 고을에 부임하였는데 공무 여가에 지루하고 무료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가고픈 생각과 계절의 변화에 느끼는 마음이 있어서 이따금 시구로 나타냈다. 이를 1책으로 묶어서 『회산잡영』이라 하고 직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문을 지었다.<sup>89)</sup>

#### 「회산잡영」 서문

계축년(1613)에 내가 창원 부사로 부임해 왔다. 창원은 옛날에 의안(義安)과 합포(合浦) 두 현으로 있다가 합쳐져서 하나의 부(府)가 되었다. 옛날 원나라 세조 때(1274) 홍다구(洪茶丘)와 김방경(金方慶)에게 조서를 내려 일본을 정벌하게 하면서 합포현에 성개부(省開府)를 설치하였다. 성개부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이 바로 절도영(節度營)이다. 지금은 절도영을 옮겨서 설치하여 태수가 임시로 거쳐하면서 직무를 보았다. 지난번 일본 병사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마산포(馬山浦)에 진지를 설치하고 산을 따라 못을 파며 계곡을 끊어 성으로 만들었는데, 성개부의 치소와 서로 바라보는 곳에 있었다. 태수가 남쪽 누각에 앉거나 동관을 올라가면서 볼 때마다 애통해 하였으니 옛날 큰 번진이었다.

병란 이후에 성곽은 무너지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으며 무지한 관리와 어리석은 백성들은 수군과 육군의 진영 사이에 나뉘어져 있고, 둔군(屯軍)과 모군(募軍)의 대역에 섞여 들어갔다. 아! 고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가 없으니 매번 공무를 보는 여가에 홀로 앉아서 휘파람을 불고 옛날과 지금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 슬퍼하였다. 새소리가 귀에 요란하고 인애와 장기가 살에 예이며 생각은 막히고 몸과 마음은 적적하였다. 그래서 도성과 고향을 떠난 그리움과 시대를 아파하고 사물을 슬퍼하는 마음이 눈길마다 일어 스스로 주체할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친구와 친척들이 찾아오면 미친 듯이 기뻐하고 놀라자빠져서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고 혹은 흠뻑 취해 즐거워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북을 치고 간간이 피리를 불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여 흠족한 뒤에야 그만두었다. 하늘 끝에서 우연히 만났으니 인정과 의리가 그러한 것이다. 즐거움이 가시고 나면 더욱 쓸쓸함을 느끼

88) 황만기, 전계 논문, 192쪽.

89) 이하로 본고에서 인용한 원문의 번역은 『오봉선생문집』(한국국학진흥원, 2019)을 참조한 것이다.

고 모였다 헤어지는 것이 일정함이 없고 떠났다 머무르는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 보내고 맞이하는 한스러움으로 압담한 마음이 끝이 없었다. 때때로 푸른 바다에 배를 띄워 섬을 실컷 둘러보다 흥이 다하면 돌아오니 때로는 저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밤이 되기도 하여 해 그림자가 기울어 금빛으로 일렁이고 달이 떠오르자 구슬이 잠긴다. 맑은 바람이 서서히 불고 파도가 비늘처럼 출렁이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배회하여 배가 가는 대로 두어 깊은 마음을 달래니 황홀하여 훌쩍 인간 세상과 뚝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에 허공을 기대어 바람을 타고서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 있는 마음이 든다.

또 옛 대와 남은 비석에서 고운(孤雲)이 노닐던 자취를 찾고 푸른 시내와 자그마한 집에서 한강(寒岡)의 그윽한 기약을 떠올리며 줄 지은 매화와 대는 양주의 시흥을 불러일으키고 한 말 쌀을 위한 타향살이는 평택(彭澤)으로 돌아가는 생각으로 울적하게 하니 마음에서 느끼는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아! 탄식하고 읊조리는 나머지 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만둘 수 없구나. 아! 성정이 발하여 시가 되니 시는 본래 억지로 지을 수 없을 뿐이다. 더구나 글 솜씨가 없는 내가 글을 짓는 데 더욱 서툰 것을 말해 무엇하랴. 평소에 시를 읊고 짓는 것을 일삼지 않은 적이 없어 이번에 부임해 온 뒤로부터 감회가 일어 회포를 풀기도 하고 무료하여 번민함을 달래기도 하며 운에 따라 차운하기도 하고 흥을 부쳐 기록하기도 하여 근심과 탄식의 뜻을 부치고 너그럽게 누그러뜨리는 생각을 섞어서 날마다 읊고 번뇌하여 마치 시를 전공하는 사람과 같이 하였다. 스스로 회포를 풀고 마음을 위로하여 마침내 스스로 번뇌를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이니 어찌 감히 성정이 발로되는 것이라는 논의에 함께 끼어서 시인들과 서로 어울리기를 생각 하겠는가. 훗날 혹 자손들이 보게 된다면 또한 나를 끔찍이 생각해 주는 데 보탬이 되게 하고 너희들이 효성으로 사모하는 데에 자료로 삼게 하려는 것이니, 혹여나 기록할 만한 것은 아우와 아들들 시켜 거두어 가서 한 책에 베껴서 후일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

### (3) 오봉의 관직 제수

이 글의 전반부는 오봉 선조가 관료로서 삶과 업적이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후반부는 임진란의 어려운 시기에 일본군과 싸워야 하는 전쟁 또는 군사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봉의 업적 등을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항목에서 예안 현감과 창원 부사로서의 관직은 재직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어서 따로 취급한 것이다. 여기서는 오봉의 관직 연보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그 구체적인 행적은 후반부에서 필요에 따라 언급하기로 한다.

#### <관직 연보>

1589.05 무공랑(務功郎) 사섬시 직장에 제수

11 선무랑(宣務郎)에 승진하여 조정에 들어감

- 1590.04 승훈랑(承訓郎)에 제수  
 05 승의랑(承議郎)에 제수
- 1591.02 성균관 전적에 승진  
 사헌부 감찰로 옮김  
 06 예안 현감에 제수  
 11 봉직랑(奉直郎)에 제수
- 1592.04 임진란 일어난  
 05 오봉 안동 부사 겸직  
 05.5 군사를 거느리고 용궁(예천 지역)으로 달려가 적의 길목을 막음  
 06 오봉의 형(신지효)이 일본군에 의하여 피살
- 1595.04 춘추관 기사관 겸직
- 1596.02 조봉대부에 제수  
 05 임기가 차서 공조 정랑으로 옮김  
 체찰사 이원익(1547~1634)이 임금에게 오봉에게 예안 현감을 계속 맡길 것을 청원  
 07 조산대부 겸 춘추관 기주관에 제수
- 1597.02 사간원 정원에 제수되었다가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옮김  
 03 병으로 사직하고 용양위 부사직에 제수  
 04 순찰사 종사관에 제수되어 순찰사와 함께 팔공산성을 들어가 지키
1599. 화왕산성(火旺山城)으로 달려가 곽재우와 동맹, 창의록에 이름 수록
- 1600.02 증훈대부 제수  
 전라도 도사에 제수  
 05 아들 홍망(弘望) 출생
- 1601.01 예조 좌랑에 제수  
 증직대부에 오르고 예조 정랑에 제수  
 07 영남 출신 인사들과 장악원(掌樂院)에서 동도회(同道會) 설립(27명)  
 08 전주 판관 제수

- 1602.03 사헌부 지평에 제수  
    통훈대부에 제수되고 체찰사 종사관이 됨  
    전라도 암행어사 차출  
    07 실록교정청 낭청에 선발
- 1603.08 경상도 군무안핵사에 차출
- 1604.05 시강원 문학 겸 춘추관 기주관지제교에 제수  
    성상의 명에 따라 이광약(1557~1608), 고희(1560~1615) 임란공신에 내릴 교서를 지어 올림
- 1605.05 사헌부 지평에 제수 겸직은 전과 동일, 시강원 문학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사헌부 지평에 제수  
    왕명의 의하여 사헌부 차자(劄子, 간단한 상소문)를 작성
- 1606.04 충무위 부사용에 제수  
    07 통제사 종사관에 제수
- 1607.03 강계부 판관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 병환으로 부임하지 않음  
    04 아버지 별세(3년간 여막살이)
- 1609.12 공조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음. 광해군의 정사가 혼조로워 벼슬길에 나갈 뜻이 없었음
- 1610.03 충청도사에 제수  
    05 해임되어 귀향  
    08 함경도 북평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음
- 1611.10 전라도 도사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음
- 1613.08 창원 부사에 제수
- 1614    봉록을 털어 병란으로 퇴락한 학교를 재건
- 1616.01 학교에 유생들을 모아 강학
- 1617.05 정대립 사건처리로 품계가 올라 통정대부가 됨
- 1618.03 체직되어 고향으로 옴  
    07 의성 구미에 자리 잡고 살다



1623.02 천동재사(泉洞齋舍)에서 우거  
 1624.1.8. 별세  
 1646(인조) 이조 참판 증직  
 1669.08(현종) 장대서당 오른편에 사당을 세움  
 1702.4(숙종) 사당을 서원으로 승격

### 3) 상소문(上疏文)

#### (1) 승지를 사양하는 소(「辭承旨疏」)

동부승지 신(臣) 신지제는 참으로 황공하여 머리를 거듭 조아리고 삼가 주상전하께 백 번 절하며 올립니다.

삼가 아뢰입니다. 신은 작년 5월 중에 우연히 더운 바람을 쐐었다가 그만 오한과 신열이 수시로 반복되어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워 지낸 것이 거의 반년이 넘었습니다. 10월 초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혼절하여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한 채 네댓새를 몸져 누웠다가 탕약을 마시고 침을 맞고 나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때부터 원기가 소진되고 정신이 흐릿하며 눈이 침침한가 하면 담이 치받고 기가 멍치며 어지럽고 초조하니 이런저런 병이 갈수록 고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건대 조만간 죽음이 분명 닥칠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여름 사이에 잠시 차도가 있는 것 같이 비로소 마을을 출입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천만 뜻밖에 성상이 내린 소명을 받고서 놀라움과 두려움에 감격의 눈물이 흘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에 삼가 대궐에 나아가 사은숙배를 하려고 억지로 병든 몸을 일으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안현(比安縣)에 이르러 반나절 더위를 겪은 나머지 예전의 증상이 그만 재발하여 현기증이 나고 담이 막히며 온 몸이 오한으로 떨리고 정신이 흐리며 눈이 침침한 증상이 전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다리와 무릎에 힘이 없고 허리와 옆구리가 육신거리는데 억지로 몸을 이끌어 말을 타고 보니 곧장 엎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에 멀리 대궐을 향해 바라보노라니 한 발짝은 나아갈 수 없고 뉘이 빠져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특별히 친지 부모와 같은 인정을 베풀어 신의 직첩을 환수하고 분수에 맞게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신은 몹시 두렵고 황송한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위의 상소문은 오봉의 6세 자손 신체인(申體仁, 1731~1812)<sup>90)</sup>이 관리하고 있던 것인데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고 있다.

90) 신체인(申體仁, 1731~1812) : 자는 자장(子長), 호는 회병(晦屏), 본관은 아주이다. 신지제의 6세손으로 의성 구미리에서 태어났다. 출사의 뜻을 버리고 평생 학문에 힘썼다. 봉양면 금산서원(錦山書院)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회병집』이 있다.

선조 오봉 선생은 혼조(昏朝 광해군)의 어지러운 시대를 만나 벼슬에 나갈 뜻이 없어서 임명장이 자주 내려왔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해년(1623)에 반정이 일어났을 때 폐주(廢主 광해군)가 왕위를 넘겨준 일을 듣고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얼마 뒤 승지에 임명(인조)되었으나 마침내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짝막한 상소를 지어 올리되 병의 증상만 진술하고 새 시대의 정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느긋하고 완곡하여 성급하지도 않았고 노골적이지도 않았다. 당시 친구 중에 오직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sup>91)</sup>과 경정(敬亭) 이민성(李民歲)<sup>92)</sup>만이 그 뜻을 알았다.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이 선조를 애도한 만시에 “승정원에 임명하는 왕의 부름 사양했네.”라고 하였고, 경정이 지은 제문에 “왕명 출납에 탁월한 재주를 장차 새 조정에서 펼치려 했는데 공(신지제)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야말로 우리 선조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행장을 살펴보면 신제로 단서만 들고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예컨대 묘지와 묘갈 등의 문장에서는 애초에 그 대강을 설명하지 않았으니 자손과 후인들이 선생의 진면목을 알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돌아가신 스승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sup>93)</sup>이 일찍이 내가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는 말하기를, “오봉(梧峯)이 승지를 사양한 상소문은 바로 군자가 말년에 행하는 큰 절개인데 한스럽게도 문집에 실리지 못했다. 들리는 바로는 잃어버렸던 글을 다시 찾았다고 하니 이보다 큰 다행이 있겠는가. 서둘러 이어 간행하여 세상에 전해지도록 해야 할듯하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늘 귓전에 맴돈다. 이제 못난 후손 체인(體仁)이 주제도 모르고 외람되어 몇 줄의 글을 덧붙여 그 전말을 대략 위와 같이 기술하였다. 훗날 평가하는 사람이 만약 속간을 인하여 이 상소문을 살펴보고서 은미한 뜻을 이해한다면 아마 숙연히 공경심이 일어나 그 숨은 덕을 드러내 밝히려고 할 것이다. 6세손 체인이 삼가 기록한다.

## (2) 사헌부 상소문 차자(筴子)<sup>94)</sup> 초안(선조)

오봉 선생은 “대책을 논하라”는 과거시험 답안지부터 글짓기, 논술문을 쓰는 데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 같다. 오봉은 과거시험에서 이단(異端)에 대하여 논한 대책문으로 1등에 뽑혔고, 임진공신록을 지을 때 왕명을 받았으며, 선조가 풍수 재해(風水災害) 대책에 대해서 널리 의견을 구할 때 사헌부를 대표하여 상소문(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91) 이호민(李好閔, 1553~1634) : 자는 효연(孝彦), 호는 오봉(五峯),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1584년 대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전직, 병조 좌랑, 좌승지, 예조 판서, 홍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92) 이민성(李民歲, 1570~1629) : 자는 관보(寬甫),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1597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정자에 임명되었다. 1601년 승정원 주서·예조 좌랑·병조 정랑·홍문관 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경정집』·『조천록(朝天錄)』이 있다.

93) 이상정(李象靖, 1711~1781) :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大山),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735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 권자부정자·예조 좌랑·연일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저서로는 『대산집』이 있다.

94) 차자(筴子) :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이다.

1593년 경상도 관찰사에게 보낸 의병 문제와 대책에 대한 유명한 글도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풍수 재해에 대한 왕명의 대책 의견 상소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요사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자리에 드러나는 이변들과 강과 바다와 나무와 돌과 짐승에게 나타나는 변괴는 모두 성상의 세상에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이 우리 백성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서가 속이는 것이고 사람의 일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늘이 속이는 것입니다. 신들이 만일 자리에 앉아서 봉록을 타먹으려 생각하고 성상의 귀를 거스르는 충언을 꺼려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입니다. 신들의 말이 온당하지 않으면 마땅히 함부로 말한 죄를 받을 것이니 진실로 전하로부터 직분과 봉록을 헛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의 근본이 위태롭고 온 나라가 피폐하며 기강이 날로 해이해지고 정령이 갈수록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대 열성조께서 물려 준 은혜에 힘입어 유지되고 있을 뿐이지, 조정이 잘 다스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도리가 모두 사라지고 사사로운 욕심이 마구 난무하여 하나같이 서로 배척하는 것을 일삼고 나랏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쪽 사람이 등용될 때마다 한쪽 사람이 물러났으니 지금까지 몇 사람이 등용되고 몇 사람이 물러났습니까. 경박한 신출내기들이 여론을 맡아서 묘당(廟堂)을 뒤흔들고 대성(臺省)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성상께서는 가려진 바가 있어서 살피지 못하고 조정의 신료들은 하는 대로 내버려 둔 채 금하지 못하며 음양을 고르게 다스려야 할 사람<sup>95)</sup>이 천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에 무관심하며 간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공정하게 시비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쪽 변경에 근심거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북쪽 변방에 다급한 경부가 잇달아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변고는 하늘이 내린 재앙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변화시켜 만회할 방법은 큰 근본을 세우고 큰 강령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밖의 세세한 일은 힘쓸 것도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보위에 오른 이후로 격치성정(格致誠正)<sup>96)</sup>의 학문과 참찬위육(參贊位育)<sup>97)</sup>의 공부를 오래도록 익히고 편안하게 행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두 사람의 어진 재상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힘을 썼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인재를 쓰고 버릴 즈음에 그저 비위나 맞추며 임금을 섬기는 자를 어질게 여기시는지 아니면 사직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이를 어질게 여기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편은 그 말이 달콤하여 받아들이기 쉽고 다른 한편은 그 행동이 직설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재를 쓰고 버

95) 여기서는 재상(宰相)을 말한다. 『서경』 「주서(周書)·주관(周官)」에 “이 삼공은 치국의 도를 강구하여 나라를 경영하며 음양의 기운을 고르게 다스린다. [茲惟三公 論道經邦 變理陰陽]”라고 하였다.

96) 사물의 도리를 파고들어 지식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의 격물치지(格物致知)와 뜻을 정성스럽게 품고 마음을 바르게 가진다는 의미의 성의정심(誠意正心)을 합친 말로 『대학』에 보인다.

97) 천지가 제자리를 잡아 안정되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지는 일을 도와 천지와 함께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중용』에 나오는 말이다.

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나라의 존망과 직결되니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만일 아랫사람에게 사사로움이 없기를 바란다면 먼저 ‘사사로움(私)’이라는 한 글자를 없애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요사이 벼슬을 내리는 날마다 궁 밖의 사람들이 성인의 조정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손가락질 해대고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모두 아무는 아무와 인연이 있다느니 아무가 아무에게 빌붙었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명장이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누구라는 말이 떠도니, 작은 벼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큰 벼슬도 이런 폐단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일을 바라고 벼슬과 상을 함부로 행사한 탓에 불만에 쌓인 민심이 거리마다 가득합니다. 신들은 이러한 조치가 성상의 치세에 큰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왕실이 끼치는 폐단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기 어려운 고질이 되어서 경연에서 측근 신하들이 이 일을 언급할 때면 번번이 견책을 받고 귀양을 갑니다.

아! 대궐문 밖에 원성이 들끓는데 재상과 측근 신하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니, 전하께서는 어디에서 왕자의 허물을 듣고서 올바른 가르침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여기시는데 신하들이 끝이끝대로 그 허물을 들추어 내려한다면 불경죄에 가깝습니다. 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자가 불의에 빠진 것을 보고서도 전하 앞에서는 따르는 척 하다가 집으로 물러나서는 몰래 비방한다면 그것이 임금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고수(髡腹)가 사람을 죽이면 법관은 법대로 집행할 뿐이다.<sup>98)</sup>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임금의 아들이라도 처벌하기를 청해도 되는데, 하물며 신하들이 하인을 처벌하길 청하는 경우이겠으며, 하물며 공방의 중도 아니면서 가칭한 자이겠습니까. 당시 간사한 하인 한 둘을 법률에 비추어 처벌하는 것이 나라의 체통에 있어서 무슨 큰 흠이 되기에 조정의 대신과 측근 신하들이 서로 번갈아 청하는데도 받아들여지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입는 것입니까. 다만 구실을 붙여주고 악행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여우와 쥐떼가 성곽과 사당에 빌붙어 사는 것처럼 사방에 가득 퍼져 남의 노비를 빼앗고 남의 전답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반을 모의하는 하인들이 다투어 귀의하며 도리어 제 주인에게 창을 겨누고, 부역에서 도망친 백성들이 다투어 불쫓아서 관아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들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갖은 방법으로 숨기고 속이기 때문에 고을 수령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관찰사도 손쓸 수가 없습니다.

지방 관아의 아전으로서 세금을 맡아 거두는 이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시장의 상인으로서 은전(銀錢)을 가진 이가 도리어 화를 입기도 하며, 게다가 마치 관청에서 하는 것처럼 옥사를 제 멋대로 처결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차마 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결코 왕실에서 자세히 알 수 없으니 결국 모든 원성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신들은 몹시 애통하게 여깁니다. 더구나 성스러운 조정에 경사가 넘쳐 왕족이 번창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잘못을 답습하는 폐단이 많아져

98) 임금의 가족이라 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수는 순(舜)임금의 아버지로, 천자의 아버지 고수가 살인죄를 범했을 경우 법관인 고요(皋陶)는 어찌해야 하느냐는 도응(桃應)의 질문에 맹자가 “법대로 집행할 뿐이다.(執之而已矣)”라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孟子』「盡心 上」)

이루 다 바로잡을 수 없을 터이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우선 인색한 마음이 움트는 것을 없애고 공변된 도를 선 뜻 내보여서 광명하고 정대한 다스림이 중도를 세우고 표준을 세우는 마음에서 나오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야 공변된 도를 넓힐 수 있고 사사로운 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임진년 난리를 피하는 길에 준신 상하가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만약 항상 그러한 마음을 보존해 왔더라면 하늘은 예전에 벌써 마음을 바꾸어 재앙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깊숙한 궁궐 안에서 거처하면서 피난길에 겪은 고난을 지금도 잊지 않으시며 조정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전하의 근심을 잘 헤아리는 이가 있습니까? 옛사람의 말에 “재난이 많을수록 나라가 흥한다.”<sup>99)</sup> 라고 하였고, 또 “망할까 염려하는 것이 보존하는 길이다.”<sup>100)</sup>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를 유념하소서.

그 당시 박승중(朴承宗)<sup>101)</sup>이 대사헌으로 있었는데 차자(筴子)의 내용 중에 당시 권신이 싫어할 말이 있다하여 도중에 가로막고 아뢰지 않았다. 이에 오봉 선생은 사직서를 바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 4. 대인관계

### 1) 선현(先賢)

임진란기(1592~1598)를 포함하여 1500년대 초부터 1600년대 초까지 100여 년 동안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퇴계학맥의 중심에는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을 필두로 하여 시초에는 젊은 이황을 예안의 제자들이 스승으로 모셨고, 퇴계가 관직을 끝내고 저술과 제자 양성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면서 범 안동문화권으로 제자군이 넓게 형성되었는데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류성룡(柳成龍, 1542~1617)과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이다.

이후 퇴계학은 경상도 북부지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낙동강 중류까지 확대되면서 한강 정구(鄭述, 1543~1620), 여현 장현광(張顯光, 1554~1637)으로 대표되는 성주와 구미 지역으로 제자군이 형성된다.

99) 진(晉)나라 유곤이 원제(元帝)에게 “어려움 많을수록 나라가 흥하고, 걱정이 많을수록 성군을 만든다.”라고 하였다. (『晉書』 「元帝紀」)

100) 『주역』 「계사전 하(繫辭傳下)」에 나오는 말이다.

101) 박승중(朴承宗, 1562~1623) : 자는 효백(孝伯), 호는 퇴우당(退憂堂),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1586년 문과에 급제한 뒤 예문관 봉교, 홍문관 부제학, 병조 판서,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예안 지역을 포함하면 이황이 젊은 시절 이황이 예안에서 강학을 시작할 때는 주로 예안 지역을 중심으로 제자군이 형성되었다. 조목은 15살 때 38살의 젊은 이황을 스승으로 삼았고, 이후 예안 지역을 중심으로 퇴계 학단이 형성되었다.

산남 김부인(金富仁, 1512~1584), 후조당 김부필(金富弼, 1516~1577)을 비롯한 5형제와 성재 금난수(琴蘭秀, 1530~1604) 간재 이덕홍(李德弘, 1541~1596)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은 혼맥과 학맥으로 엮힌 인적관계를 형성하였고 퇴계 사후 이들은 월천 계열, 또는 예안 학단으로 지칭되면서 퇴계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經) 공부와 심성론에 침잠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류성룡과 김성일이다. 입문은 김성일이 빠르는데 19세 때인 1556년 퇴계 문하에 나아갔다. 그리고 류성룡은 21세 때인 1562년 퇴계 문하에 입문했다. 이때 형 류운룡(柳雲龍, 1539~1601)과 함께 도산에 가서 수 개월간 『근사록(近思錄)』을 수업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성리학에만 전념하겠다는 강한 일념을 가졌으면 이황은 이러한 제자에 대해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sup>102)</sup>

류성룡은 25세 되던 해에 과거에 급제하면서 도학 공부보다는 치국(治國)에 전념하는 경세가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다. 19세에 입문한 제자 김성일에 대한 이황의 평가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행실이 높고 학문이 정치하니 내 눈 속에 그에 비길 만한 인물을 보지 못했다.”라는 평가는 이황이 김성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제자에게 이황은 입문한 후 10년 뒤인 29세 되던 해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병명(屏銘)」을 건네주었다. 오봉 신지체는 당대에 누구나 선현(先賢)으로 받드는 퇴계 이황과 그의 수제자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스승으로 모셨고 선현들의 사상이 구국 운동과 실천 정신으로 발휘됨은 물론 간접 제자인 오봉의 의병 활동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었다. 그 내용은 오봉의 의병 활동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 (1) 서애 류성룡(1542~1617)

류성룡과 신지체는 나이도 20년 차이가 있었고 관직은 더 큰 차이가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임진란을 전후하여 먼저 류성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1589년 류성룡은 대사헌, 병조 판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하고 다시 예조 판서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이때 정여립 사건으로 류성룡은 스스로 사퇴를 청하였고 탄핵을 원했다. 그러나 선조는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조 판서에 임명한 다음 1590년

102) 이상호, 「임진란기 안동지역 유학의 철학적 특징과 실천정신」,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22~42쪽.

우의정으로 승진시켰고, 1591년 이조 판서 겸임, 다시 좌의정(이조 판서 겸임)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선조의 왕세자 문제로 서인 정철의 처벌이 논의되자 온건파인 남인에 속하여 강경파인 이산해(영의정)등의 복인과 대립하였다. 1598년 정인홍 등 복인들은 류성룡이 일본과 화친을 주도했다는 누명을 씌워 탄핵하였다.

관직을 삭탈당한 류성룡은 억울하게 고향 하회로 내려갔고 비용이 없어 거처할 공간도 없었다. 이후 누차 소명으로 1600년 복관되어 영의정에 복직되는 등 조정의 거둬들인 부름이 있었으나 모든 벼슬을 사양하였다. 1601년 8월 아내 상을 당하였고, 1603년 부원군 임명, 1604년 임진왜란을 회고한 『징비록』과 『서애문집』의 저술을 마치고 안동 풍산으로 돌아왔다.

서애선생과 오봉 신지제의 직접 대면은 오봉이 과거 시험을 볼 때 서애 선생이 감독관으로 있었을 때였다. 류성룡은 1588년 12월 대제학에 임명한 뒤 이때까지도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가 “이번 시험에 장원한 사람은 그 문장이 어떠하였기에 이토록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라고 묻자 류 선생이 “그 사람의 됬됨이를 평가하면 아마 문장보다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오봉은 마지막 겨울 한 철을 류성룡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 (2) 학봉 김성일(1538~1593)

19세에 입문한 제자 김성일에 대한 이황의 평가는 그의 행실, 학문 태도, 김성일이 기록한 이황의 언행록(言行錄)등 여러 곳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학봉 김성일은 임진왜란기 나라가 매우 위급한 최전선 영남우도에서 초유사와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구국 활동에 헌신한 대표적 인물이다. 당시 성리학이 만개된 사회에서 퇴계 이황, 남명 조식, 율곡 이이 등의 학풍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 중 김성일은 안동 임하현 출생으로 퇴계의 수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승문원, 예문관, 춘추관, 경연관 등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특히 영남 사림의 숭상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오봉 신지제 선생은 학봉의 문하에서 수제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임진란 초기 학봉의 의병 지원 활동은 직접·간접으로 예안 현감 신지제의 의병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었다.

정계에서 동인의 수장격인 위치에 있었던 학봉은 통신부사로 일본에서 돌아온 후 성균관 대사성 겸 승문원 부제조에 임명되었다. 1592년 봄 형조 참의에 특배되었고 다시 4월 11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임진란이 발발하자 통신사 일에 있어 정세 보고를 잘못된 건으로 김성일 55세 때 나명(拿命)이 우역편(郵驛便)으로 전해지자, 창원에서 스스로 한양으로 가던 중 충청도 직산에서 갑자기 경상우도 초유사(招諭使)<sup>103</sup>로 임명되었다.

한편 학봉의 수제자 오봉 신지제는 1589년 4월 과거 급제, 5월 무공랑 사삼시 직장, 11월 선무랑 1590년 4월 승훈랑, 5월 승의랑, 1591년 2월 성균관 전직, 사헌부 감찰, 6월 예안 현감에 제수되었다. 예안 현감은 오봉이 연로한 아버이를 편히 모시기 위하여 고향이 가까운 고을에 부임하기를 자청한 것이었다. 학봉 선생이 안타까워하며 “이제 막 벼슬길에 나왔는데 어찌 그리 서둘러 외직으로 나가려 하는가? 조정에서 자네를 병조의 낭관으로 천거하려고 논의 중인데 어찌하여 조금 기다리지 않는가?”하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벼슬길이 트이고 막히는 것은 운수에 달려있고, 무엇보다 고을이 고향집과 가까워서 찾아뵙고 살피기에 편합니다.”라고 하였다. 오봉의 한 구석 마음에는 존경하는 퇴계의 고향(도산서원)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오봉의 스승인 학봉이 1593년 4월 경상우도 관찰사가 된 뒤 진주성에서 세상을 떠나 학봉 선생의 운구가 안동 가수네(佳樹川, 안동 와룡 서지리)로 돌아와 장례를 치를 때 오봉이 직접 가서 제사를 올렸는데, 다음과 같은 제문이 남아 있다.<sup>104)</sup>

#### 학봉 김 선생을 애도하는 제문[祭鶴峰金先生文]

아! 공은 56년 동안 세상을 사셨는데 생전에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사후에도 부끄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몸가짐과 일처리가 푸른 하늘의 밝은 해처럼 흰하 밝아 삶과 죽음이나 영광과 치욕으로 그 뜻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참되고 미더우며 독실하고 신중한 언행이 늘 몸에 배어 있어서 오랑캐 땅에서도 행하였고, 위난이 닥쳐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절개를 바꾸지 않고 기필코 나라를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아! 5월에 노수(瀟水)를 건넌 제갈량(諸葛亮)이 출정하여 아직 승리하지 못했는데 어찌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까. 황하를 건너라고 세 번 외쳤던 종택(宗澤)이 뜻을 미처 이루지 못했는데 하늘은 어찌 급히 앗아갔습니까. 시대가 그리해서입니까. 운명이 그리해서입니까. 우리 공께서 또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 세상의 불행입니다.

아! 대장부로 태어나 이와 같이 살다가 이와 같이 죽었으니 또한 사업을 잘 마무리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 행운과 불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그것으로 공의 사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르고 굳센 기상이 하늘에서는 북두성이 되고 땅에서는 우주가 다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 나처럼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이 문하에 드나든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높은 산처럼 우러르고 공경하며 따랐는데, 어지러운 풍진 속에 얹어져서 오늘 같은 불행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아 길을 잃었으니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영령이시어! 부디 와서 흠향하소서. 아 슬픉니다.

103) 초유사(招諭使) : 조선 시대 임시관직으로 난리가 일어났을 때 백성을 불러모아 타일러 안정시키는 책임을 맡았다.

104) 『오봉 선생 문집』 2권, 176~177쪽.



### (3) 퇴계 이황(1501~1570)

오봉 신지제(1562~1624) 선생이 가장 한스럽게 생각한 것이 퇴계의 문하에 들어가 직접 배우지 못한 사실이다. 그가 9살 때 퇴계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계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고 과거 시험을 멀리했던 유일제 김언기(1520~1588) 선생에게 대신 가르침을 받았다. 김언기가 안동 북쪽 고을인 가야곡(佳野谷)에 은거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학을 양성하여 그 문하에 출입하는 이가 수 백 명이었는데 오봉도 백형 지효(之孝)와 함께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1576년에는 아우 지신(之信)이 뒤따라 와서 함께 수학하였다. 가야곡에서 동학 70여명이 땀감 당번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고를 친 일은 전술한 바 있다. 이 때 같이 간 친구 두 사람은 권태일(1569~1631)과 박의장(1555~1615)이다. 권태일은 1599년 문과에 급제한 뒤 이조 정랑, 호조 참의, 전주 부윤, 형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고, 박의장은 1577년 무과에 급제한 뒤 경주 부윤, 안동 부사,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호조 판서(증직)를 역임하였다.

오봉은 1591년 7월 예안 현감에 부임하면서 도산서원에 가서 퇴계 선생의 사당에 참배하였다. 오봉은 뒤늦게 태어나 도산의 문하에서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여겼는데 고을에 부임한 뒤로 매달 서원에 들러 사당에 참배하고 선생의 유적을 둘러보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흥의 뜻을 붙이고 당시 퇴계 선생 문하에서 직접 배운 원로들을 상대하였다. 월천 조목, 설월당 김부륜, 간재 이덕홍, 성성재 금난수와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며 경전의 뜻을 강론하였다. 임진왜란으로 군사를 징발하고 민생을 돌보느라 한시가 급박한 중에도 왕래를 멈추지 않았다.

월천 조목(1524~1606)은 1552년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문과에 응시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벼슬이 내려왔으나 사양하였다. 일생을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김부륜(1531~1598)은 1555년 사마시에 합격한 뒤 동북 현감, 봉화 현감을 역임하였다. 이덕홍(1541~1596)은 사옹원 직장, 영춘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금난수(1530~1604)는 1561년 생원시에 합격한 뒤 1579년 이후 시평 현감, 봉화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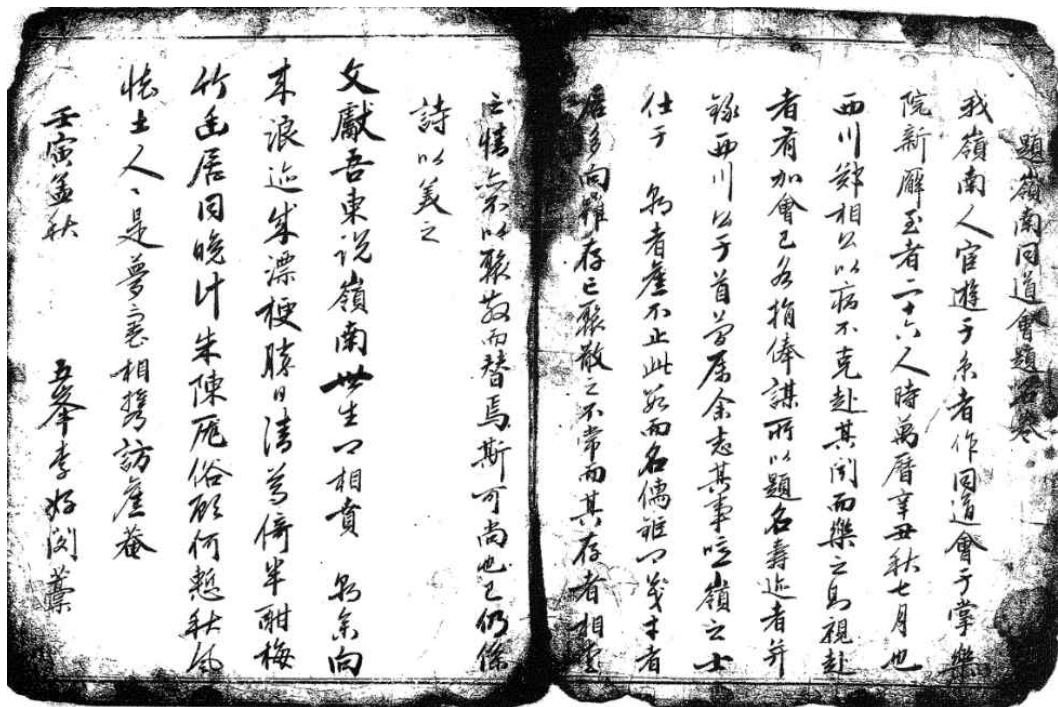
퇴계 이황은 4번의 사화가 끝나고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던 시기에 사림을 대표하는 학자로 이름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학문이 성숙되던 시기에 도덕 정치를 표방하면서 죽어갔던 선비들을 직접 보았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있어서 아버지나 스승과 같았던 이해(李滉, 1496~1550)의 희생을 목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황은 죽음을 무릅쓰고 도학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던 이들을 기리고, 그들의 철학을 주자학 내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임진란기 안동 지역에 있어서 퇴계학의 전승은 류성룡과 김성일의 양대 산맥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오봉은 학봉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퇴계의 살아있는 원로 제자와 교류를 통하여 전수되었다. 특히

임진란과 의병 활동의 연계는 신지제가 몸소 실천하였는데 이것은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 2) 교유 인사

오봉 선생의 인맥 또는 대인관계는 관리로서 중요한 시기가 1590년대 임진·정유왜란과 겹치기 때문에 의병 동지와 일반 동지를 구분하여 따로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여기서 의병 동지는 이 논문의 후반부 오봉의 의병 활동 부문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예안, 안동 지역의 인사들 가운데 일반 인사들은 직간접으로 퇴계와 관계된다. 이것을 제외하면 23세 결혼 이후 처가 쪽의 함안 조씨와 퇴계 학과와 쌍벽을 이루는 남명학과와도 활발한 교유를 하고 있었다. 오봉은 1601년 7월에 영남 출신 인사들과 장악원(掌樂院)에서 동도회(同道會)를 설립하였고 27명의 이름을 기록한 책 『영남동도회제명첩(嶺南同道會題名帖)』을 만들었는데 회원 총 27명의 관직과 이름, 출신지 등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8〉 영남동도회제명첩(嶺南同道會題名帖)



이 책은 이호민(1553~1634)이 시를 짓고 아울러 서문을 썼다. 이호민은 1584년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 병조 좌랑, 좌승지, 예조 판서, 홍문관 제학을 역임하였고, 호는 오봉(五峯), 저서로는 『오봉집(五峯集)』이 있다.

퇴계의 문인록을 처음 작성했던 사람은 퇴계의 직전제자(直傳弟子)와 학봉의 학통을 계승했던 권두경(1654~1726)인데 그는 『계문제자록(溪門諸子錄)』을 편찬하여 100여 명의 퇴계 문인들을 수록한 바 있다. 그 후 퇴계로부터 6세인 이수연(1693~1748)이 약 60여 명의 문인을 추가하였고, 이수향이 다시 10명 추가, 9세손 이야순이 수십 명을 추가하여 260여 명의 사가본(四家本)을 완성했다. 퇴계 문인들의 완성본은 1854년 갑인본(309명)이다. 퇴계 문인들을 분석해 보면 진성 이씨(진보 이씨), 영천 이씨, 안동 권씨, 안동 김씨, 봉화 금씨 등 안동과 예안 인근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한양 출신도 50명에 이른다.

오봉 신지제의 대인관계는 그의 문집 가운데 수창시로서 주고받은 시(詩), 죽음을 애도하는 시, 제문 등을 보면 그의 인맥과 교유 인사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 기탁된 오봉 종가 고문서의 자료는 고서 5점과 고문서 85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영남동도회제명권(題嶺南同道會題命卷)』은 1601년 7월에 한양에 있는 영남인이 장악원에 모여 친목회를 가졌는데 이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재경영남향우회이다. 이때 오봉 신지제를 포함하여 모두 27명이 참여하였다. 인명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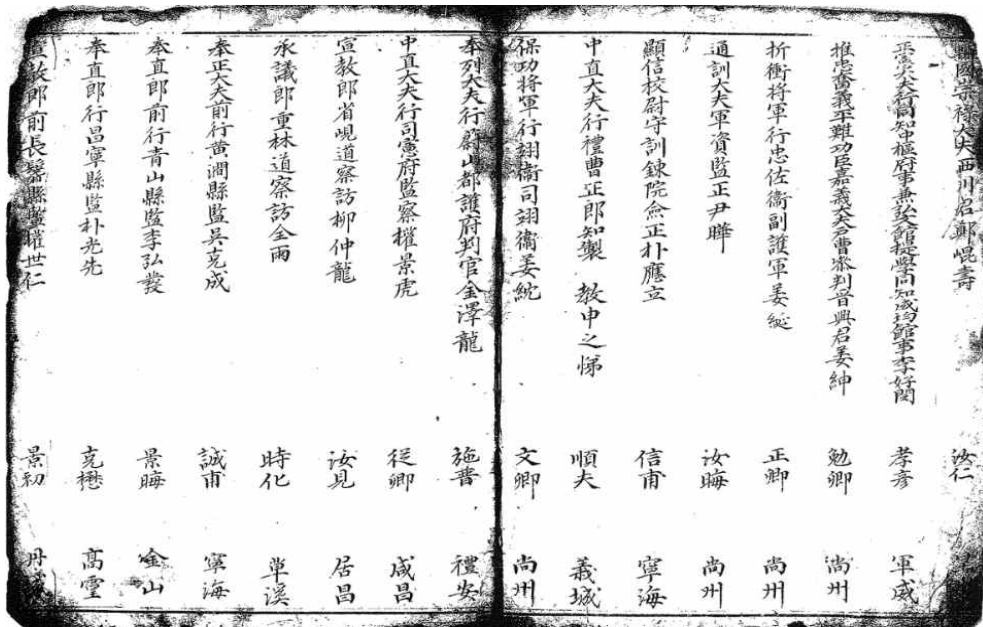
정곤수(1538~1602)	권경호(1546~1609)	김 혜(1566~1624)
이호민(1553~1634)	류중룡(1558~1635)	노도형(1571~1615)
강 신(1543~1615)	전 우(1548~1616)	이민성(1570~1629)
강 연(1552~1614)	오극성(1559~1616)	권 체(1548~1612)
윤 엽(1546~1604)	이홍발	신경익(1548~1613)
박응립(1517~1582)	박광선(1562~1631)	이민환(1573~1649)
신지제(1562~1624)	권세인(1548~1608)	조 정(1555~1636)
강 담(1559~1637)	권 순(1564~1622)	조우인(1561~1625)
김택룡(1547~1627)	권 주(1576~1651)	남복규(1559~1615)

위의 인사들을 출신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상주 9·함창 4·군위 3·단성 2명의 순이고, 예안·영해·초계·거창·고령·의성·성주·금산·안동은 각 1명이다. 상주와 함창 지역의 출신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기록 순서를 보면 오봉 신지제는 전체 27명 가운데 비교적 빠른 순위인 7번째로 등재되어 있다.

순위는 품계 순위 아닌 행수법(行守法)에 의한 관직 순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지제의 품계는 종3품인 중직대부(中直大夫)였으나 행직은 종5품인 예조 정랑이다. 반면에 박응립의 품계는 종5품인 현신교위(顯信校尉)였으나 수직(守職)은 종4품인 훈련원 첨정(訓鍊院僉正)이다. 그리고 행직이 같은 경우에는 품계가 높은 사람을 먼저 기록하였다. 강담의 경우 신지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품계는 종3품인 보공장군(保功將軍)이고 행직은 정5품인 익위사 익위(翼衛司翼衛)이다. 행직은 같은 정5품이나 품계에 있어서 같은 정3품이라 하더라도 서반인 보공장군보다 동반인 중직대부의 품계가 앞선다.

〈자료9〉 영남동도회제명첩(嶺南同道會題名帖)의 명단



## 5. 관직 은퇴 이후의 생활

### 1) 의성 구미리(龜尾里) 정착

1618년 3월 오봉은 창원 부사를 마지막으로 관직을 떠나 7월 고향 구미(龜尾)로 돌아왔다. 경상북도에는 구미라는 지명(동명)이 세 곳이 있다. 선산 구미, 의성 구미, 안동 구미이다. 선생은 하천(下川) 오동산(梧桐山) 북쪽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자호를 오봉(梧峯)이라 하였는데 오동산은 필자의 외가 동네인 오산(梧山)의 뒷산 이름이기도 하다. 구

미에서 새 거처를 마련하였고 또 호를 ‘구로(龜老)’라고 하였다. 창원에서 돌아올 때 행장에는 서적 몇 상자가 있을 뿐이었는데 대나무 숲 속의 새 거처 초가집에서 산수에 흥취를 부쳐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근심을 달랬다. 일찍이 지은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05)</sup>

새로 널찍하게 터 잡은 구미 별장  
 앞엔 푸른 시냇물 뒤엔 푸른 산 있네  
 힘써 밭 갈면 주린 배 채울 수 있고  
 집은 작아도 추위와 더위 견딜 만하네  
 대와 매화 심어서 오랜 정분 간직하고  
 갈매기 해오라기 불러 즐거움 나누네  
 이로부터 할 일 없이 노년을 보내니  
 세상사 험난하단 말 믿을 게 없네

1623년 2월 오봉은 구미에서 의성 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개울 건너편 천동재사(泉洞齋舍)에서 우거하였다. 이 곳 천동은 임진란 초기에 백형 신지효가 일본군에 의하여 살해된 곳이다. 재사는 천동의 선영 아래에 있으며 집과는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선생은 천동 골짜기가 조금 깊숙하여 병든 몸을 요양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고는 마침내 이곳에서 잠시 우거하였다. 재사 앞에 오래된 작은 연못이 있는데 선생이 정비하여 연꽃을 심고 그 사이에서 노래 부르고 시 읊으며 세상의 시름을 달렸다고 한다. 오봉을 비롯한 의성 아주 신씨의 본거지(귀파)인 구미에 대해서는 이에 앞서 신정주(1764~1827)가 쓴 『구장지(龜莊志)』에서 여러 구석, 곳곳을 이름 붙여 자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지명이 모두 한자로 되어 있고 우리 말 발음대로 부르다 보니 표현이 다르고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었다.

신정주가 쓴 구장지 산천(山川)조 에서는 쌍천(雙遷)이 기록되었는데 금산서원 건너 길 옆 암벽에 “쌍천”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4차선 도로 확장 공사와 함께 부서져 버렸다.(1997) 구장지에서는 구미촌 백호석에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에 쌍천이란 큰 두 글자가 구동공(龜洞公)의 필적으로, 그 아래에는 큰 길이 동쪽은 의성현과 서쪽은 도리원으로 뚫려 있다고 하였다. 쌍천은 그 글자가 새겨졌던 아래는 청송에서 발원하여 흘러온 남대천(長川, 구장지)과 춘산(氷山)에서 발원한 쌍계천(下川, 구장지)이 합류하여 구미리 앞 섬개들을 이루는 곳으로 지형의 의미를 상징하였다. 구미와 도리원은 2km거리인데 그 중간에 험한 낭떠러지의 벼랑바위가 있는데 대구와 안동간의 국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점의 바위를 폭파시켜야 한다. 아주 옛날에는 가파른 바위 언덕이 있고 그 밑으로 쌍천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구한 말 이후 편도 2

105) 『오봉 선생문집』 권2, 388쪽.

차선의 한 길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1954~1957) 이곳은 도리원을 향하여 왼쪽 언덕 아래가 깊은 물속이고, 그 속에 깨진 바위들이 있었고, 특히 여름에는 물속에 자라·잉어·가물치가 거닐고 있는 모습을 한 길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한 길옆의 가로수는 키가 큰 포프라 나무였는데 이곳은 물이 가까운 쪽으로만 아릅드리오래된 아카시아 나무가 띄엄띄엄 가로수로 서 있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그렇게 굵고, 크고, 나무 중간기둥에 썩은 구멍이 나 있고 그 속에 사나운 벌들(땡땡)이 사는 것은 여기에서만 볼 수 있다. 구미에서 도리원 초입의 봉양중학교는 걸어서 다니고 있었는데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하나는 장날 아카시아 나무 벌집을 작은 모래자갈 한 움큼 쥐고 벌집을 건드려 놓고 50m~100m 도망을 가서 도랑에 숨어 있으면 트럭에 장사꾼과 상품을 함께 신고 달려오는데 벌집 주위에 나와 돌아다니던 벌들(지상 2m)이 트럭 위의 장사꾼을 따라가며 공격하면 난장판이 되고 만다. 다른 또 하나는 장날 점심시간은 모두 시장에 가서 부모에게 국밥을 얻어먹고 있느라고 정시 수업이 되지 않아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학생들을 찾아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연 부락으로 의성 구미는 500여 년 전부터 아주 신씨의 집성촌으로서 마을의 규모가 100여 호가 넘는 큰 동네가 형성되고 있었다. 근대 개화 이후 현대식 초등학교가 처음 생길 때 봉양면의 유일한 학교가 구미의 마을 앞에 설립되어 동네 아이들은 그 만큼 쉽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나의 외증조부가 그 전에 문경 군수에서 봉양 면장으로 와서 학교는 장터(도리원)보다 옛날 선비촌인 구미에 장소를 정한 것이었다.

## 2) 구미보(龜尾洑) 축조

### (1) 조선 시대의 수리 시설

#### 가. 조선 시대 벼농사 기술과 논농사 이앙법 도입<sup>106)</sup>

농경 시대의 가장 획기적인 기술 진보인 철제 농기구는 4~6세기경에 널리 보급되었다. 통일신라기는 철제 농기구와 우경(牛耕)의 확산, 고려 시기에는 연작상경법(連作常耕法)의 보급, 조선 중기에서는 이앙법(移秧法)의 보급이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킨 주요한 기술 진보였다. 11세기 중엽에는 2년마다 한 번 씩 경작하는 일역전(一易田) 모든 경지의 중간 등급이었고, 1430년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은 농업 기술이 선진적이던 삼남 지방의 농법을 정리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농법은 논과 밭 모두 연작상경법이

106) 이현창, 한국 경제사 강의안(2019) 중에서 일부 인용

었다. 고려 중기에는 소규모의 연못(堤堰)이 곳곳에 만들어졌다. 12세기 이후 저습지의 개간을 위해 방과제를 만드는 하거(河渠) 공사가 이루어지고 방천(防川), 방조제(防潮堤)가 수축되었으며, 간척지 개간과 황무지 개간법이 조선 후기에도 활발하였다.

조선 전기 농가 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면작(棉作)의 보급이었다. 1364 문익점에 의해 전래된 면화는 섬유 제품의 우수성과 국가의 장려책에 힘입어 널리 재배되었다. 『농사직설』에서는 벼의 재배법으로 수경법(水耕法), 건경법(乾耕法), 삽종법(插種法)을 들었다. 앞의 두 가지는 논에 볍씨를 바로 파종하는 직파법(直播法)이며, 삽종법은 모판 양기(秧基)에서 기른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이앙법이다. 논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알아서 파종하는 수경법이 가장 상세히 기술된 것은 물이 벼의 생장에 긴요할 뿐만 아니라 염분을 씻어냄으로써 지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졌기 때문이다. 한반도에는 파종하여 모가 자라는 4월~5월에 강수량이 적어 마른 논에 파종하여 흙 속의 수분을 활용하는 건경법이란 독창적인 재배법이 출현하였다. 『농사직설』에 의하면 이앙법은 ‘제초(除草)에 편리하지만 만일 큰 가뭄이 들면 손 쓸 바가 없으니 농가의 위험한 일’이었다. 모심기 철인 봄에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데다가 수리 시설의 보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선 초에 이앙법은 금지당하여서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가뭄에 취약한 이앙법의 보급을 위해서는 수리 시설이 정비되어야 했다. 조선 조 태종대부터 세조대까지는 폐기된 제언(堤堰)을 수축하거나 새로운 제언을 축조하는 수리 개발이 활발하였다. 1469년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에 의하면 제언이 모두 769개에 달하였다. 제언의 개발이 한계에 달하자 16세기에는 천방(川防), 곧 보(淤)의 보급이 확산되었다. 제언은 산골짜기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모아서 이용하는 것이고, 보는 하천의 물을 막고 끌어서 관개에 활용하는 것이다. 제언인 즉 수원(水源)이 천로(淺露)한데 공역(功役)이 많이 들며 천방은 수원이 넉넉하여 공(功)이 적어도 이익이 많다.(『문종실록』) 문종의 유서(諭書)에서 알 수 있듯이 보는 효율적인 수리 시설이었다.<sup>107)</sup>

임진·정유 양란 직후에는 인구가 격감하여 김매기 노동을 대폭 절감하는 이앙법의 보급이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16세기에 경상도를 중심으로 도입되던 이앙법은 17세기 후반에는 남부에 널리 보급되었다. 17세기에는 가뭄에 대비하여 물을 담지 않은 모판에 모를 키우다가 여름에 수량이 풍부해지면 이앙을 하는 건양법(乾秧法)이 개발되어 수리가 불안정한 지역에 보급되었다. 이앙법, 곧 모심기 법은 ‘사반공배(事半功倍)’라 할 정도로 노동력을 절감하면서도 수확량을 높였다. 이앙법은 김매기[中耕除草] 노동을 대폭 절감하고, 직

107) 이태진, 『16세기 천방(川防) 보(淤) 관개(灌溉)의 발달』, 『한국사학회 연구』, 지식 산업사, 1986, 198~205쪽.

파법은 적어도 4차~5차의 김매기가 필수적이었으나 이양법은 2차~3차로 족하였다.

조선 중기에 논 1마지기 두락(斗落)을 김매기 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직파법은 8.5명, 이양법은 3명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1마지기는 벼 1말을 파종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10)에 의하면 논은 평균 138평, 밭은 평균 187평이었다.

### 나. 수리 시설과 관리

경상도 수리 시설 가운데 못(제언)수는 1470년 721개, 1518년 800개, 1782년 1,522개였다. 이것을 1700년대 말 각 지역의 못(제언)수를 보면 안동 8·청송 4·영주 2·영천 187·예천 19·의성 92·군위 40·비안 38·의흥 10개였다.

조선 시대 양대 수리 시설은 보(洑, 천방川防)와 못(제언)이다. 보는 하천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못(제언)은 산골짜기 또는 개천 물을 막아 이용하는 것이다. 수리 행정의 변천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108)</sup>

조선 초기(태종) : 공조(工曹)의 삼관사(三官司)중 산택사(山澤司)

세종 :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주·군(州·郡)의 제언을 조사하게 하여 지방관 출척(黜陟)의 기준으로 삼고, 각 군의 제언수와 몽리 면적 대장을 만들어 일부는 공조, 일부는 궁중에서 보관

성종 12년(1476)에 제언사(堤堰司)라는 사무관청이 등장, 1483년에는 제언, 천방의 주관권을 관찰사에게로 이관

임진란을 계기로 국가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진언사 폐지. 그 이유는 제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해지고 지방제언은 토호(土豪) 권세가의 손에 들어가서 파괴.

인조 2년, 숙종 9년(비변사) 대책 발표

고종 2년 의정부에 귀속

### 다. 수리 시설과 전답의 관리

수리 시설 : 국유 - 국가에서 농민이나 군인을 동원해서 수축(修築)

공유 - 농민공동체(몽리계, 제언계, 보계, 수리계 조직)

궁방(宮房) - 궁중관리

사찰(寺刹) - 절에서 관리

개인 관리 - 극히 적음(토호, 사대부 소유)

토지와 함께 매매 가능

108) 이광린, 『이조수리사 연구』, 한국연구도서관, 1961, 104~120쪽.



국가 기관의 소유와 관리

관둔전(官屯田) - 지방 관아

국둔전(國屯田) - 관아의 경비 또는 군량미로 충당

진수(鎭戍)의 병졸(兵卒)

임란 이후 훈련도감을 비롯한 많은 영문(營門), 아문(衙門) 설치

많은 전지(田地)를 둔전(屯田)을 소유, 동시에 수리 시설 소유

#### 라. 18세기 말 수리 시설의 문제와 한계<sup>109)</sup> (정조)

각 지역의 큰 못(大堤)을 지목하면서 제언의 부실을 언급하자면, 제언이 무너지고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은 일단 자연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었다.

수리 시설을 새롭게 축조하였음에도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하나로 신구보(新舊淤)의 수리 다툼이 있었는데, 주로 구보(舊淤)의 주장에 따라 신보(新淤)를 훼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수리 시설의 이용은 신분, 계급에 따라서 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나 부농(富農)이 아닌 양인 농민은 수리 시설을 이용하는 기회의 측면에서 불리하였다. 이때 쟁수(爭水)의 문제가 발생한다. 촌락의 부강자가 자신의 논이 낮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물을 끌어 대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 수리 시설을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수리 시설은 자연재해 극복의 불안정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강우량과 강설량을 합한 강수량의 대소에 따라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수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인위적 요인 중의 하나가 화전(火田)의 성행이었다. 산화전(山火田)은 산허리의 초목이 사라지면서 수리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토사가 흘러내려 산 도랑을 메워 버리거나 하천(河川)의 하상(河床)을 높아지게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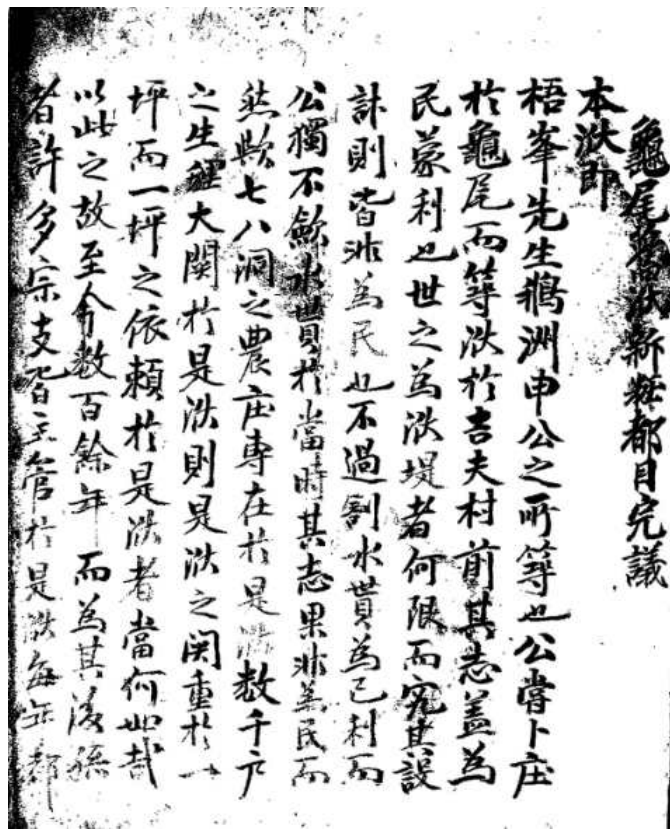
#### (2) 구미보(1610~1617)

오봉의 아버지 몽득 선생 때에 거처를 하천(下川, 풍리)에서 구미로 옮긴 것은 도리원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편의와 농사를 짓는 영농 조건이 풍리보다는 구미가 훨씬

109) 엮정섭, 『조선 시대 농업발달 연구』, 태학사, 2002, 346~354쪽.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 때 구미에는 지내(池內)라고 하는 큰 못과 동편 송월 지역에 작은 연못 2개가 있었다. 연못 하나는 공동 우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길, 개천 건너편에 있는 천동(泉洞, 샘골)에는 아래위로 큰 못이 2개 있었는데 이곳은 오봉 종가의 재사가 있었고, 임진란 때부터 백형 신지효의 가족들도 함께 살고 있었다. 오봉은 일찍부터 관직으로 나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살아본 경험은 부족하지만 지방 관원으로서 향촌의 수리 시설과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찰 경험과 영농 기법에 대한 생각이 깊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창원 부사로서 마지막 관직 생활을 염두에 두고 오래 전부터 구미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설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고, 수리 시설의 관리와 방법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료10〉 구미구보신장도목완의(龜尾舊泐新粧都目完議)<sup>110)</sup>



완의(完議)는 종중(宗中), 가문(家門), 동중(洞中), 계(契)등에서 제사, 묘위(墓位), 동중사(洞中事), 계 등에 관하여 의논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적어 서로 지킬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 입의(立議)라고도 한다. 구미 구보(龜尾舊泐)는 오봉 신지제(1562~1624)가 구미에 입향하여 세거하게 되면서 마을의 몽리답(蒙利畓)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할 뜻

110) 심수철, 「의성 조문국 박물관 소장자료 해제」Ⅲ. 오봉자료, 2018, 168~169쪽.

으로 길부촌(吉夫村) 앞에 축조하였다. 이 보의 완성으로 인근 7~8개 동의 농장에 관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의 관리는 아주 신씨 오봉과 문중에서 주관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도감(都監)하되 타성(他姓)은 허락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입역이나 수세가 전혀 없었으나 기유년 이후 오봉 문중에서 수세하게 되어 1두락 당 5량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 보 중에 있는 경작자들이 일제히 회합하여 구보 도목을 추심한 뒤 경술년 9월에 새로 조약을 만들었다. 원래 구미보는 오봉 선생이 중심이 되어 오봉 종택 개인 소유로 축조된 것이며 처음에 받은 수세는 일부를 임진란 유가족을 돕는데 사용하였다.

새 조약에 따라 오봉 종중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과 수세를 내도록 한다는 완의이다. 이 완의는 전체 2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에 완의하는 목적을 기록하고, 이어 상·중·하로 구분하여 보중의 작자와 경작 면적을 나열하였다. 머릿단에 답주를 쓰고 다음 단에 몇 배미 몇 두락지로 경작면적을 마지막 단에는 경작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이 경작자가 바뀐 부분은 첨지를 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 보(洑) 중의 상·중·하 전체 경작면적은 총 427두락 4승락지였다. 덧붙여 이 보를 지키는데 공이 있었던 천동(泉洞) 강세원(姜世元) 증조(曾祖)의 업적을 기록하였다. 즉 이 보 안에 어떤 경궁인이 새로이 축보하려는 것을 강세원 증조가 홀로 여러 차례 관에 상서하여 쌓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어서 조약절목(條約節目) 11조항을 기록하고 있다. 조약 내용은 보주인 신씨들도 각 마을의 여러 경작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역, 수세해야 하며, 도감은 타성에서도 뽑을 수 있으며, 송침방천(松浸防川)이 1년 중의 제일 큰 역인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송가(松價) 1전과 군정조 1전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 안의 두수 중 태반은 감고배(監考輩)들이 사사로이 낭비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고 상고는 5두락지 당 1명, 중고는 10두락지 당 1명, 하고는 15두락지 당 1명씩을 입역하도록 하였다. 입역할 때 두수에 차지 않는 1명에게는 가물(價物)을 준비하여 내도록 하되 백주(白酒)나 대전(代錢) 4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에는 7삽(鍤)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5삽이 되어 군정수가 25명이 됨으로써 두수가 전에 비하여 반감되었고, 백주도 5준이 되었는데 이를 대전 4전에 비겨 4분만을 내고 1분을 거절하면 관에 고하여 엄징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 보중에 양산금송(養山禁松)하여 방천에 쓰고자 하는데, 중간에 보법이 해이해져 간혹 양반이 이를 어기고 빼앗는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관에 고하여 엄처하는 일, 상하 작자 중에 이러한 조약을 어기는 자는 자답이면 관에 고하고, 반분작자는 답주에게 징계하도록 하여 해당 기간 휴역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여러 조약 끝에 관으로부터 서압을 받아 공증하였다.

### (3) 400년간 가동 중인 구미보

구미보의 역사 중에서 위에서 지적된 천동 강세원 증조의 보를 지킨 업적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수리 시설 중에서도 보(洑)의 축조를 강조하는 주장은 18세기 말에 경상 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거론되어 왔다. 특히 보가 보급됨에 따라 상보(上洑)와 하보(下洑)의 물싸움, 이른바 보송(洑訟)의 문제가 고질적인 폐단이었다. 보송이란 구보보다 하천의 상류 지역에 신보(新洑)를 축조하였을 때 두 보(洑)의 몽리 지역 주민들이 물의 사용 권리를 놓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이때 현실적인 수리조건에서 당연히 후에 만들어진 보는 이전의 구보의 수량(水量)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 간격을 지켜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었다. 제대로 거리 간격을 지키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향 관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간격에 있음에도 억지로 신보를 축조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보송(洑訟)은 수령의 판단에 의거하여 결판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구보의 편을 들어주어 수리 조건의 전반적인 개선이라는 측면은 현실화되기 일보 전에 무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수리 시설에 관한 사회문제는 심한 경우에는 민란(民亂)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1893년 충남 당진군 합덕리의 합덕지(合德池), 1894년 전라도 고부군 담내면 만석보(萬石洑)의 동학란은 수리 문제와 과중한 수세 징수가 문제된 것이다.

구미보는 필자가 구미에서 농사 많이 짓고 과수원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향에서 다녔고 고등학교(1957~1960)와 대학교(1960~1964), 대학원 여름 방학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돕고, 보(洑)의 부역을 다녔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선 구미보의 길이에 대해서 오봉 선생 문집에서는 4km라고 되어 있는데 실체는 7~8km이다. 전술한 신정주(1764~1827)의 『구장지(龜莊志)』에서도 20리(里)라고 하였고 구미보가 끝나는 쌍천 바위 지점에서 시작하여 길천동(길부동)을 지나 보가 시작되는 지점까지는 옛날 축조 때에 옛 길을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구미동은 동네보다 수리 시설을 위하여 마을 앞으로 전선이 먼저 들어왔고, 양수기는 전기의 힘으로 밑에 있는 개울물을 퍼 올릴 수 있었다. 이때가 1960년대 중반인데 물은 원래 구미보의 붓도랑을 이용하고 별도로 그보다 조금 높은 지역에 새 물길(붓도랑)을 만들어 이중으로 물을 끌어 올렸다. 초등학교 때부터 보의 부역을 위한 통보 방법은 목소리가 좋은 타성(他姓)의 동네 분이 긴 마을을 네 차례 옮겨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보에 오소, 보에 오소, 아침 일찍이 오소, 애들 보내면 안됩니다 어른이 오소.”

초등학교는 학급 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자기 아버지 목소리 흉내내고 다니는 남자 친구를 자치회에 고발하여 혼내 주라고 하였다. 대학교 여름 방학이면 보의 부역을 다니는데 문제가 많았다. 우선 집에서 아침 먹고 출발하는데 현장까지 도착하면 11시 30분이 지나고 있다. 더워지기 전에 일을 하는데 일이 전혀 능률적이지 못하다. 개울물을 도랑을 만들어(50~60m) 끌어와야 하는데 진흙 또는 찰흙을 자갈 속에 넣어(그 때는 비닐이 없었음)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물이 붓도랑 시작 지점으로 끌어 오기 힘들고 설사 끌어 온다고 해도 그 물은 그 부근의 논으로 가고 7km~8km 떨어진 우리 동네까지는 오지 않는다. 매일 비능률적인 행사에 동원되고 있는데 보의 도감을 맡고 있는 아주 신씨 족친은 고집이 세고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한번은 부잣집에서 머슴(일꾼 2명)을 보내지 않고 일 못하는 대학생을 보냈다고 쫓아내려고 했다. 사실 일의 성격상 머슴이 하던지 대학생이 하던지 전혀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개개인에게 일을 할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와 사정이 같은 친구(신경렬)도 있어서 대학생이 시비 대상이 된 것이다. 보통 1시 30분 경 점심 먹고 그늘에서 잠자다가 오후 4시 30분경 일어나 일을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문흥 양조장에서 막걸리 먹고 집으로 오는 것이다.

한번은 나와 친구 대학생 2명이 쫓겨나는데 이유가 장가 안 간 애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30살이 넘는 결혼 못한 노총각도 함께 문제되었다. 그 때 노총각의 형님이 대성통곡을 하며 “돈이 없어서 동생 장가 못 보냈는데 여기서 이런 설움을 당하고 있다.”라 하고 울고 있으니 주위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고 대학생들은 웃지도 못하고 뒤돌아서 있었다. 결국 앞으로 이 일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보에 일하러 다닐 때는 간혹 상류에서 물(신보) 때문에 우리와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다. 서로 얼굴을 잘 아는 사이인데 양쪽의 도감이 대표로서 물속에서 목을 잡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자칫하면 큰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치고 박는데 다른 동료들은 개입하지 않는 것과 같다.

구미보의 중점인 우리 동네의 붓도랑에는 가을이면 미꾸라지 풍년이다. 오래된 붓도랑이고 진흙이 쌓여 있고 붓도랑에는 항상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어서 미꾸라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양수기로 개울물을 퍼 올릴 때는 중지하면 도랑도 물이 마르고 고기가 살 수 없지만 전통적인 붓도랑에는 사정이 다르다.

### 3) 향년(享年) 63세

#### (1) 이조참판 증직

필자는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오봉 선생과 관계되는 수많은 인사들의 생존 기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소 건강과 주량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시작(詩作)과 술을 비교할 때 평소 술은 좋아하신 것 같았다. 선생은 1623년(62세) 2월 천동재사에 우거할 때부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지병은 풍비(風痺)를 앓고 있었다고 한다. 풍비는 찬바람이나 습기가 몸에 침투하여 생기는 병으로 팔다리와 몸이 마비되고 쓰시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 만년에 오봉 선생은 높은 덕망과 흰한 풍모로 세상의 추증을 받았고, 조정에서는 정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인조반정의 초기에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임명되자 친구들이 모두 벼슬에 나가기를 권하였는데 선생은 겨우 비안현에 이르러 사직 상소를 올리고 돌아왔다. 훗날 경정 이민성 공이 오봉 선생에게 올리는 제문에 “왕명 출납의 탁월한 재주를 장차 새 조정에서 시험하려 했는데 공은 세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1623년 10월 어머니 오부인이 하천에 있는 아들 지경(之敬)의 집에서 병들어 누워있는데 천동에서 달려가 모셨는데 12월에 어머니 약시증을 들다가 지병이 덮쳐서 들것에 실려 구미 본가로 돌아 왔다. 점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자제들이 물러가 쉴 것을 청하였으나 선생은 듣지 않다가 기진맥진하여 인사불성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다. 선생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오히려 어머니가 무엇을 드셨는지 자주 물었다. 그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는데 이때 선생은 이미 병이 위독하여 의식이 없었다. 시험 삼아 사탕을 입안에 넣으니 더 삼키지 못하고 다만 목구멍에서 가느다란 소리로 “이것을 어머님께 드렸느냐?”라는 말만 들릴 뿐이었다. 선생은 비록 숨이 끊어질 듯한 가운데서도 늘 어머님 병환이 어떠하냐고 물었는데 정월 8일에 세상을 떠났다.

선생은 3월 17일 의성현 신평면 중울(中栗) 산 86번지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 장례 이후 선생과 관계되는 주요 연보는 다음과 같다.

- 1646(인조 24년) :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 좌부빈객 증직
- 1669.5(현종 10년) : 장대서당 오른쪽에 사당을 세움
- 1702.4(숙종 28년) : 서당이 서원으로 승격
- 1706.7 : 묘소 앞에 비석을 세움

오봉의 사후 많은 인사들이 오봉 선생 행장(行狀) 뒤에 빠진 일을 기록하고 추모하는 글을 남겼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11)</sup>

## (2) 제문(祭文)

### 가. 이민성(李民晟)<sup>112)</sup>

아, 공이 처음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득히 만 리 밖에 있어서 꿈에서도 혼을 만날 수 없었고, 장례를 치를 때 상여 끈을 잡고 장지까지 가서 곡하지도 못했으며, 첫 기일이 되었을 때 케연이 제자리에 없어서 또 직접 잔을 올려 정성을 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 슬쁩니다. 확고하여 꺾기 어려운 지조와 의연하여 범접하기 어려운 기색과 널찍하여 포용력 있는 도량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사헌부에서 일할 때 절개가 끝나는 이름이 있었고 어려운 고을을 다스릴 때 유능한 지방관이라는 명성이 자자했으니,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분명 이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명 출납의 탁월한 재주를 장차 새 조정에서 시험하려 했는데 공은 세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구미동 초가와 학록(鶴麓)의 이끼 낀 정자에서 바둑 두고 술 마시며 즐겁게 시 읊던 것이 벌써 옛 일이 되었습니다.

아! 애통합니다.

### 나. 이민환(李民奐)<sup>113)</sup>

오직 영령께서는 우주의 특별한 기운을 받고 명산대천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일찍 과거에 급제하니 사람들이 모두 한 조각의 옥임을 믿었고 천직(淸職)을 두루 역임하니 세상에서 모두 한 조각 얼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차례 고을 수령으로 부임하니 백성이 왜 이리 늦게 왔나며 다투어 칭송했고, 만년에 승정원 승지에 임명되어서는 왕명 출납에 탁월한 재능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병마가 침범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까. 성상께서는 원로를 잃어 애통해하고 사람은 현인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아! 슬쁩니다. 단정하고 중후한 용모와 바르고 곧은 기상과 넓은 도량과 효성스럽고 우애로운 행실 그리고 박식한 학문과 정치적 재능을 다시는 볼 수 없으니, 하늘은 어찌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까. 공이 병들었을 때 누이가 먼저 죽고 어머니가 이어서 세상을 떠났으며 공도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으니 이 모든 일이 한 두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참혹한 일이 있겠습니까. 선한 이는 복을 받고 어진 이는 장수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복을 받지 못했고 어진 사람이라고 반드시 장수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

111) 이하로 본고에서 인용한 원문의 번역은 『오봉선생문집』(한국국학진흥원, 2019)을 참조한 것이다.

112) 이민성(李民晟, 1570~1629) : 호는 경정(敬亭), 자는 관보(寬甫),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1597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정자에 임명되었다. 1601년 승정원 주서·예조 좌랑·병조 정랑·홍문관 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경정집』·『조천록(朝天錄)』이 있다.

113) 이민환(李民奐, 1573~1649) : 자는 이장(而壯), 호는 자암(紫巖),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1600년 문과에 급제한 뒤 병조 좌랑·영천 군수·형조 참관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자암집』이 있다.

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대를 이을 외아들에게 공의 품모가 있고 영특한 손자의 골상이 비범한 점이니, 하늘의 보답이 마치 문서를 맞춘 듯이 티끌만큼도 차이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공(于公)의 솜을 대문에 고관의 수레가 드나들고 장씨(張氏)의 후손에게 벼슬자리가 끊이지 않으니<sup>114)</sup> 어찌 홀륭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 번 죽다 살아난 끝에 아직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는데 공은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자람을 채워 줄 이가 없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할 이가 없다는 생각에 술잔을 들고서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 앉습니다.

아! 옛 사람들은 천년을 거슬러 고인을 벗 삼기를 늘 간절히 바랐습니다. 더구나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같은 고장에서 살았으며 게다가 혼인을 통해 좋은 인연까지 맺었으니, 우러르고 슬퍼하는 마음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 무덤에 벌써 풀이 우거지고, 대상(大祥) 기일이 급히 돌아와 췌연을 곧 거두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한바탕 통곡하니 세상만사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근래 들어 갈수록 이가 빠지고 머리가 세며 눈앞이 어른거리고 귀가 딱딱하니, 이승에서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공을 따라 영원히 지하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은 이를 아십니까. 이것으로 말을 마치니 또 한바탕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아! 슬픔니다.

#### 다. 김종일(金宗一)<sup>115)</sup>

아! 공이 아름다운 덕과 홀륭한 행실과 큰 재주와 넓은 도량을 세상에 다 펴지 못하고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한 집안의 슬픔일 뿐만이 아닙니다. 사문의 불행으로 인하여 우리 공을 잃기에 이르렀으니 개인적인 슬픔에 더욱 간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이나 이 슬픔이 가시겠습니까.

아! 이 조카(小姪)<sup>116)</sup>는 타고난 운명이 기구하여 겨우 아홉 살 무렵에 문득 아버지를 여의고서 무지몽매하기가 양 치는 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난 번 무신년(1608)에 문하에서 수학할 때 공께서 저를 아들처럼 보살펴 주시고 밤낮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비록 학문의 방법을 알지 못하여 가르치는 뜻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지금 말단 기예에 종사하면서 이름자를 대략이나마 알고 있는 것은 실로 공 덕분입니다.

겨우 두어 해 배우고 나서 문득 하직인사하고 돌아왔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왕래가 또 뜸했기 때문에 옆에서 오랫동안 모시지 못한 것이 늘 한스러웠습니다. 하늘이 보살피지 않아 마침내 한없는 슬픔을 품게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공이 세상을 떠날 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공이 영영 떠나던 날에 몸이 아파 장지에 곡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아! 슬픔니다.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대상 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벼슬에 매인 몸이라 곡하러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114) 우공(于公)의……않으니 : 조상의 음덕으로 가문이 흥성하고 후손이 출세함을 말한다. 장(張)씨는 한나라 사람으로 자손이 계속 이어져 큰 벼슬을 지낸 이가 10여명이었다.

115) 김종일(金宗一, 1597~1675) : 자는 관지(貫之), 호는 노암(魯庵), 본관은 경주이다. 김경룡(金慶龍)의 아들이고, 신지제의 문인이다. 1625년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사간원 정언·상주 목사·울산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노암집』이 있다.

116) 조카(小姪) : 아버지의 친구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지금 변변찮은 제물을 갖추어 감히 미천한 정성을 고합니다. 아! 슬픕니다.

### (3) 만사(輓詞)

#### 가. 이호민(李好閔)<sup>117)</sup>

예로부터 영남 땅에 인재가 많지만  
공처럼 풍모가 노성한 이는 없었네  
도성에 머무르며 고단한 객지살이  
산마루에 핀 매화가 향수를 달래 주네  
은대에 임명하는 왕의 부름 사양했는데  
남쪽에서 부음이 들려와 크게 놀랐네  
이 몸도 금년에 몹시 늙고 병들었으니  
머지않아 저승길에서 웃으며 반기겠지

#### 나. 장현광(張顯光)<sup>118)</sup>

어질고 착한 성품은 본디 천성에서 나왔고  
몸과 마음에 원래부터 한계를 두지 않았네  
온화하고 공손한 도량은 억지 꾸밈이 아니고  
즐겁고 화평한 진심은 본래 타고난 것이었네  
세상에 처하여 귀퉁이에 감춰짐 꺼리지 않았고  
백성을 대할 때 새매의 뜻 적다는 비난 무릅썼네  
당시에 큰 복 누리지 못한 것을 어찌 한하랴  
남은 경사가 응당 훌륭한 아들에게 나타나리

#### 다. 호계(虎溪) 신적도(申適道)<sup>119)</sup>

타고난 바탕이 후덕하니 품성이 절로 참되고  
일찌감치 과거에 급제해 조정에서 벼슬했네  
사헌부에서 총마 탈 때 위엄과 명성 대단했고

117) 이호민(李好閔, 1553~1634) : 자는 효언(孝彦), 호는 오봉(五峯)·남곽(南郭)·수와(睡窩),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1584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전직·병조 좌랑·좌승지·예조 판서·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오봉집』이 있다. 시호는 문희(文僖)이다.

118) 장현광(張顯光, 1554~1637) : 자는 덕회(德晦), 호는 여현(旅軒),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1583년에 향시에 합격한 뒤 보은 현감·공조 좌랑·의성 현령·사헌부 장령·형조 참관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저서로는 『여현집』·『역학도설(易學圖說)』 등이 있다.

119) 신적도(申適道, 1574~1663) : 자는 사립(士立), 호는 호계(虎溪),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1606년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킨 공을 인정받아 상운도 찰방에 제수되었고, 병자호란 때 척사를 주장한 공로로 제릉 참봉·건원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의성 단구서원(丹邱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호계집』이 있다.

고을 수령으로 부임해 정치와 교화 새로웠네  
 효우의 가업을 전수하여 조상의 공적 빛내고  
 겸손한 몸가짐은 고을 사람의 본보기 되었네  
 신선되어 천상으로 돌아감을 어찌 차마 보라  
 특별히 사랑받은 이 몸 수건에 눈물 한 가득

라. 류진(柳珍)<sup>120)</sup>

남을 대하는 마음에 의심과 시샘이 없었고  
 고상한 기풍은 속된 마음 가시게 하였네  
 남쪽 고을 다스려 유능한 솜씨 인정받았고  
 한림학사<sup>121)</sup>로 명을 받들어 뛰어난 재주 펼쳤네  
 한바탕 나비 꿈에서 깰 줄 누가 알았으랴  
 영혼이 잡초에 묻힌 사실 믿지 못하겠네  
 벼슬에 몸이 매여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고  
 애도하는 글 짓고 나니 슬픔 가누기 어렵네

(4) 오봉문집 관련

가. 문집 뒤에 쓰다[文集後識]

아! 우리 고조부 오봉 선생은 높은 덕과 지극한 행실로 세상의 사표가 되었고 문장은 여사일 뿐이다. 집안에 유집 약간권이 전하여, 옛날에 나의 선친이 징사(徵士)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樟, 1625~1701) 선생을 찾아가 교정을 청하였으나 선생이 다 마치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시 대가의 교정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보관해 왔다.

병신년(1736)에 불초 손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선조가 세상을 떠나신 지 이제 백여 년이 흘렀는데 먼지 쌓인 상자 속 문집이 아직 세상에 간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우리들의 수치이다.”라고 개탄하며 비로소 재력을 끌어 모아 간행할 방도를 모색했다. 1737년 봄에 당제(堂弟) 하구(夏龜)가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鄰)<sup>122)</sup> 공을 찾아가 편차와 서술을 부탁하였는데 마침 공이 뜻밖의 탄핵을 받고 삼가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고를 안고 헛걸음으로 돌아왔다. 얼마 안 되어 조공이

120) 류진(柳珍, 1582~1635) : 자는 계화(季華), 호는 수암(修巖),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류성룡의 아들이다. 1610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세자익위사 세마·봉화 현감·형조 정랑·청도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수암집』이 있다.

121) 한림학사(翰林學士) : 국왕의 문헌(文翰)을 담당한 관리를 말한다. 신지제는 1604년 지제교(知製教)에 제수된 뒤 왕명에 따라 이광악, 고희 등에게 내릴 교서를 지어 올렸다.

122) 조덕린(趙德鄰, 1658~1737) : 자는 택인(宅仁), 호는 옥천(玉川),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1691년 문과에 급제된 뒤 시강원 설서·강원도 도사·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725년 당쟁의 폐해와 노론의 득세를 비판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가 종성(鍾城)에 유배되었고, 1737년에 다시 1725년에 올린 상소와 연관되어 노론의 탄핵을 받고 제주로 유배 가던 도중 강진(康津)에서 세상을 떠났다. 저서로는 『옥천집』이 있다.

끝내 탐라에 유배되어 가던 도중에 죽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듬해 1738년(무오년)에 온 고을의 유생들이 장대서원에 모여서 “선생의 도가 담긴 글을 제때에 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모두의 뜻이 일치하여 물자를 모아 추진하였으니 이는 자손으로서 참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근세 문학에 뛰어난 선비가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높은(訥隱) 이광정(李光庭)<sup>123</sup> 천상(天祥)씨만 남아 있었다. 그 해 겨울에 하구에게 유고를 가지고 먼저 부탁하게 했고, 1739년 봄에 내가 또 이어서 찾아가 천상씨와 함께 석천정(石泉亭)<sup>124</sup>으로 가지고 가서 반복해 토론하고 드디어 교정을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족질 치운(致雲)으로 하여금 판각본을 정서하여 장대서원에 보내고 각수에게 보내 새기게 하였다. 오랜 세월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야 이루고 나니 어찌먼 길이 전하는 일이 오늘에야 이루어지려고 기다려 왔던 것인가. 다만 남긴 글을 다 수습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탄식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점만 맛보아도 온 술의 고기 맛을 알 수 있는 법이니, 어찌 꼭 많아야만 하겠는가. 삼가 현 손 생원 진구(震龜)가 삼가 기록하다.

#### 나. 오봉 선생 문집 발문(梧峯先生文集跋文)

오봉 선생 신공이 세상을 떠난 지 116년 만에 유문 몇 권을 수집하여 편찬하고 묘지명과 행장을 덧붙여 읽는 사람들이 공의 큰 인품을 사모하게 하였으니 후학에게 참 다행스런 일이다. 예로부터 영남에 큰 학자가 많았지만 유독 융경(隆慶)과 만력(萬曆)연간이 퇴계 이 선생의 시대와 아주 가까워 규모와 기상이 절로 달랐다. 공이 직접 퇴계 문하에서 경서를 가지고 공부하지 못했지만 선성(宣城 예안) 현감을 지내는 동안 도산서원과 역동서원(易東書院) 사이를 오가며 문하의 원로들과 선생의 지결을 강론하여 밝힌 것이 거의 6~7년이었으니, 얻은 바가 또한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는가.

공은 평소 아름다운 덕과 뛰어난 행실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을 바쳤으며, 자신을 엄히 단속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또 권세가의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으니, 당시 선진들이 모두 진심으로 인정하여 입이 닳도록 칭찬하였다. 만일 조정의 중임을 맡겨 평소의 경륜을 펼치게 했다면 덕업과 공렬이 우뚝하여 볼 만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년에 혼란한 시대(광해군)를 만났고 만년에는 밝은 조정의 은총으로 발탁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한탄스럽고 애석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저술한 문장은 분명하고 유창하며 수려하고 빼어난 데다 진부한 말을 쓰지 않았고, 시를 두고 말하면 격조가 맑고 높으며 의취가 전아하고 순정하여 세상의 속된 기운이 없었으니, 모두 후대에 전할 만한 것이었다. 문소(聞韶 의성)의 유림이 공의 후손들과 문집을 간행하여 서원에 보관하기로 뜻을 모으고 나에게 그 일을 기록해 주기를 부탁했다. 삼가 생각건대, 나는 용렬한 데다 글솜씨가 졸렬하여 이 문집에 대해

123) 이광정(李光庭, 1674~1756) : 자는 천상(天祥), 호는 높은(訥隱),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1699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719년 문과 초시에 합격하였다. 여러 차례 천거를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저서로는 『높은집』이 있다.

124) 석천정(石泉亭) : 1535년에 권동보(權東輔)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지금의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西谷里)에 지은 정자이다.

서 무어라 평가할 인물이 못된다. 다만 대대로 교유가 매우 두텁고 평소에 선생을 사모하던 터라 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 없었기에 삼가 책 끝에 쓴다. 1739년 6월에 안동 권상일(權相一)<sup>125</sup>이 삼가 발문을 쓰다.

간기(刊記) : 1740년 2월에 장대서원에서 처음 간행하다.

#### 다. 오봉 선생 별집 발문(梧峯先生別集跋文)

나는 평소 오봉 선생의 풍모를 듣고서 사모해 마지않았다. 1741년 여름에 마침 영남에 갈 일이 있어서 잠시 말고삐를 돌려 선생의 옛집을 방문하였는데, 주변을 거닐며 둘러보니 오랜 세월에 대한 감회가 일었다. 이에 공의 현손 상사(上舍) 진구(震龜)<sup>126</sup> 씨가 책 1질을 내게 주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 선조의 유집으로 이미 간행을 마친 것입니다. 다만 시문 중에 흩어져 없어진 것들을 근래에 꽤 수습하여 별도로 기록해 두었고, 또 연보 1통을 베껴서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곧바로 이어서 간행하려고 하는데, 그대가 교정하고 한 마디 말을 덧붙여 이 일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거절을 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마침내 정중히 받아서 돌아와 끝까지 읽어 보았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sup>127</sup>고 했는데 이는 믿을 만한 말이다. 추가로 모은 시문을 살펴보니 모두 후대에 전할 만한 것이었고, 정수를 가려 뽑은 것이지 단순히 많이 모은 것이 아니었다. 상사가 또 “마침내 내가 주제 넘는 지도 모르고 몇 수를 뽑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아! 현포(玄圃)에 쌓인 야광주(夜光珠)를 모은 것이니<sup>128</sup> 버려졌다 하여 보배가 아니라고 해서 안 된다. 연보도 넉넉하고 충실하여 일을 기록하는 체제를 잘 갖추었기에 약간만 다듬어서 돌려주었다. 공의 우뚝한 행실과 올바른 출처와 뛰어난 문장에 대해서는 이민환(1573~1649)의 행장과 김응조(1587~1667)의 비문과 이광정(1674~1756)의 서문과 권상일(1679~1759)의 발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내가 또 무슨 말을 덧붙이겠는가. 1742년 5월 5일에 선성(예안) 김이만(金履萬)<sup>129</sup>이 삼가 쓰다.

125) 권상일(權相一, 1679~1759) : 자는 태중(台仲), 호는 청대(淸臺), 본관은 안동이다. 1710년 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 부정자·병조 좌랑·양산 군수·봉상시 정·형조 참의·우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청대집』 등이 있다.

126) 신진구(申震龜, 1680~1754) : 자는 문수(文叟), 호는 죽애(竹厓),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1710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728년에 향시에 합격한 뒤 서울로 올라가던 중 이인좌의 난리 소식을 듣고 의병을 일으켰으며, 1736년에 영남 유림의 소수(疏首)로 활약했다. 오봉 신지제의 현손이다.

127) 덕이……한다 : 『논어』 「현문(憲問)」에 보인다.

128) 현포(玄圃)에……것이니 : 문장이 뛰어난 것을 비유한 말로, 현포는 곤륜산(崑崙山) 위에 있다고 전해지는 신선의 거처이다. 진(晉)나라 갈홍(葛洪)이 육기(陸機)의 문장을 평하여 “육기의 문장은 현포에 쌓인 옥과 같아서 야광주가 아닌 것이 없다. [機文 猶如玄圃之積玉 無非夜光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晉書』 「陸機傳」)

129) 김이만(金履萬, 1683~1758) : 자는 중유(仲綏), 호는 학고(鶴皋), 본관은 예안(禮安)이다. 1713년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 전적·병조 좌랑·양산 군수·사헌부 집의·첨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학고집』이 있다.

### 라. 『별집』을 개편하고 뒤에 쓰다(別集改編後識)

옛날 선조의 문집을 간행한 뒤에 종조부 상사공(上舍公)이 산일된 원고 약간 편을 뒤 이어 수습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연보 1통을 작성하여 청전(靑田) 김이만(1683~1758)에게 발문을 구하고 다시 이어서 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후에 공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 해 뒤 1782년에 내가 종숙부【상사공 신진구의 막내아들로 이름은 도하(道河)】의 명을 받아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공이 소장하던 일고를 꺼내어 차례대로 편집하고 정리하여 별집 1권을 만들었다. 이어서 연보의 초본 안에서 두루 찾고 자세히 뽑아서 사실대로 수정한 다음 『별집』과 합쳐서 1책을 만들었으니 대략 편집 체계가 갖추어 졌다.

대개 일찍이 종질(宗姪) 신정옥(申鼎沃, 1741~1783)【신지제의 7세손】과 함께 줄곧 이 일을 힘썼는데 얼마 되지 않아 정옥이 갑자기 원통하게 죽고 종숙부도 세상을 떠났다. 정옥이 숨을 거둘 때 그 아우 정오(鼎五)에게 “내가 죽으면 자네가 내 뜻을 이어서 오직 선조를 위한 일에 힘을 다하도록 하게.”라고 당부하였다. 정오가 그 형을 장사지내고 나서 다시 별집을 다 검토하고 정본을 만들어 주기를 청하였다.

내가 병들고 노쇠한 탓에 미루다 보니 지금껏 손을 대지 못했는데 올해 봄에 정오가 또 간절히 청하였다. 내가 비로소 병든 몸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나 구본(舊本)을 찾아내어 다시 글자를 교감하고 베껴 써서 완성본을 이루었다. 대개 일고에 실린 것은 본디 상사공(上舍公)이 모은 것을 저본으로 하되 직접 새로 찾은 여러 편을 함께 엮었다. 예컨대 계해년(1623)에 쓴 ‘승지를 사직하는 소(辭承旨疏)’는 우리 선대 할아버지 만년의 큰 절개임에도 원집에 수록되지 못하고 빠져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실리게 되었다. 다만 연보의 초본은 논의해 봐야할 대목이 없지 않고 규모와 형식도 부득이 확장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에 비추어 다듬고 윤색하였다. 마침내 주제넘는 줄도 모르고 조목을 나누고 강령을 세워서 큰 글자로 표제(標題)를 쓰고 표제마다 두 행으로 세주(細註)를 써넣었는데, 옛 체제를 조금 바꾼 것이 유감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바로 상사공의 초본을 받들어 그 일을 마무리하고 종숙(從叔)과 종질(宗姪)의 뜻에 부응하여 유감이 남지 않게 하려던 것이니 결코 별도의 본을 만든 적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초본에 실린 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어서 책 끝에 김이만의 발문을 붙여서 후인들이 상고할 것이 있고 이 사실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 한다. 1789년 1월 정축일에 6세손 신체인(申體仁, 1731~1812)이 삼가 쓰다.

### 마. 전 형조참판 이민환(1573~1649)<sup>130)</sup>

예안 현감 때 임진란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렸는데, 공이 있는 힘껏 구제하여 매일 한 말의 곡식을 나누어 주며 “인정이란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쓰기 마련이니 다급할 때에 돕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으니, 그 덕분에 고을 백성이 구령

130) 『오봉선생문집』 권2, 215~227쪽.

텅이에 텅구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에 원근에서 떠돌며 빌어먹는 자들이 모여 들었는데 공이 모두 구휼해 주며 “이들도 모두 나라의 백성인데 어찌 피차를 구분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그리하여 목숨을 보존한 이가 매우 많았다.

오봉이 근시재 김해(金垓)와 1589년 증광시에 함께 급제했는데 임진란 중에 공은 본 고을의 수령으로 있고, 김해는 의병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로 교류하여 우의가 몹시 돈독했는데, 말이 시사에 미칠 때마다 서로 개탄해 하며 “우리는 마음을 합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처자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김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의 가족이 모두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자 공이 이를 가엽게 여겨서 어린 아이를 관아에 데려다 두었는데 비쩍 말라 뼈만 앙상한 물골이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었다. 부인이 공의 당부대로 직접 빗질하여 이를 잡고 때를 씻어 주고는 급한 대로 우선 멀건 죽으로 빈속을 달래어 주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밥을 먹여서 살아날 수 있었다. 저승과 이승 사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공의 높은 의리는 옛사람에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할 만하다.

1606(병오년) 가을에 통제사 종사관에 제수되었을 때 행장을 비롯한 여러 물품이 다 해지고 닳아 있었다. 어떤 이가 통제영은 여러 장인이 모여 있는 곳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닳고 해진 것입니까? 라고 묻자 공이 “내 일찍이 통제사가 안팎으로 요구하는 물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적힌 물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어찌 차마 그 사이에서 이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종가의 조카를 딱하게 여겨 사당에 올리는 제물과 제사에 쓰는 도구를 반드시 직접 마련해 주었으며, 자신의 토지를 나누어 조상을 받드는 데 보태어 주었고, 제사 지낼 때는 반드시 기일에 앞서 목욕재계하여 슬픈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늙고 병든 뒤에도 오히려 조카와 손자들을 가르치느라 조금의 여가도 없었다. 자제들이 병환 중에 무리하지 말라고 청하자 공이 곧바로 물리치며 “어찌 차마 죽은 형의 자손들이 금수가 되게 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공은 성품이 근검하고 후덕하였으며 의지가 굳세고 지조가 있었다. 평소 묵묵하게 자신을 감추고 자랑하지 않았으며 남의 선행을 듣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치려 힘썼다. 항상 일찍 일어나서 머리에 갓을 벗지 않고 허리에 띠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사람들도 공의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평생 화려한 옷을 몸에 걸친 적이 없고 늘 무명옷을 입으며 “이 옷이 내게 무척 편하다.”라고 하였다. 평소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어서 관청에 있을 때에도 낮에는 공무를 보고 밤이면 늦도록 등불을 밝혀 책을 읽었다. 부인이 “베옷을 벗고 벼슬길에 나간 것이 벌써 오래되었는데 어찌 하여 이토록 고생을 자처하십니까?”라고 하니 공이 웃으며 “글을 읽는 것이 어찌 입신양명을 위한 것일 뿐이겠소.”라고 하였다.

항상 자제들에게 훈계하기를 “내가 초야의 선비로서 외람되이 과거에 급제하였다. 너희들은 부디 십분 삼가 남을 홍보지 말고 누군가 혹 자신을 비방하더라도 절대 따지지 말라.”라고 하였다. 내외 친척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이가 있으면 몹시 딱하게 여

겨 힘닿는 대로 도와주었으며, 친한 하인들 중에도 춥고 배고프거나 병든 자들을 모두 구제해 주며 “이들도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내게 목숨을 의탁한 자이다.”라고 하였다. 은혜와 사랑이 지극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얻었다.

고을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한 기운이 넘쳐서 부모가 있는 이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효도로 봉양할 것을 가르치고 형제가 있는 이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애를 힘쓰게 하였으며 유생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독서하기를 권하였다.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같이 정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고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다.

조정에서 벼슬 할 때에 지조가 확고하여 나아가고 물러남이 공명정대했고 몸가짐이 청렴하고 신중하며 대체를 지키는 데 힘썼다. 항상 “관직에 있는 자가 파직될 것을 두려워한다면 남에게 굽히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벼슬하여 정사를 펼칠 때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평범한 편지도 일절 한양에 보내지 않았다. 평생 동안 권세가의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일찍이 한양에 있을 때 인척인 어떤 선비가 찾아와 “아무 재상이 그대를 아껴 만나 보려 하니 그대는 꼭 찾아가서 보시오.”라고 했으나 공은 답하지 않았다. 훗날 또 찾아와 말했는데, 공이 “초야의 빈한한 선비가 어찌 감히 권세가의 집을 찾아 가겠습니까.”라고 하니 그 사람이 발끈 화를 내고 가 버렸다.

이웃에 사는 조정의 인사가 한창 권신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공의 거처를 찾아와 묵으며 “어떤 재상이 그대를 언급하며 무척 만나보려 하니 그대는 가서 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몹시 꾸짖으며 그대와 내가 모두 빈한한 선비로서 외람되어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이것만 해도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더구나 벼슬길이 트이고 막히는 것은 천명에 달려 있으므로 출세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되니, 나는 결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대는 부디 신중하게 처신하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유배를 갔다.

#### 바. 장대서원<sup>131)</sup> 묘우 상량문(藏待書院廟宇上樑文) - 이당규(李堂揆)<sup>132)</sup>

선현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계도하는 본보기를 남겼으니, 후학이 사당에 제향하여 높이 받드는 방도를 감히 늦출 수 있겠는가. 순식간에 우뚝한 집이 완성되니 제비가 즐겁게 모여들어 축하하도다. 살피건대 문소(聞韶, 의성의 옛 이름)는 큰 고을로 본디 문헌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졌도다. 문소의 땅은 화산(花山, 안동의 옛 이름)과 접하여 산이 병산(屏山)의 빼어난 기운을 당기고,<sup>133)</sup> 물은 낙동강으로 이어져 물줄기가

131) 장대서원(藏待書院) : 1610년 신지제가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지금의 의성군 봉양면 장대리에 지은 장대서당의 후신이다. 1669년에 사당인 경현사(景賢祠)를 짓고 1672년에 위판을 봉안할 때 이민성(李民歲)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702년에는 서원으로 승격되고 김광수(金光粹)와 신원록(申元祿)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132) 이당규(李堂揆, 1625~1684) : 자는 기중(基仲), 호는 퇴촌(退村),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1668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의성 현령·홍문관 수찬·이조 정랑·동부승지·대사간·함경도 관찰사·이조 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33) 병산(屏山)의……당기고 : 신지제가 류성룡(柳成龍)의 문하에서 수학한 것을 뜻한다. 병산은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에 있는 ‘병산서원’으로, 류성룡과 그의 아들 류진(柳軫)의 위패를 봉안했다.

천곡(川谷)의 연원에 머물렀도다.<sup>134)</sup> 맑은 기운이 성대하게 모여들어 많은 인물을 길러 내었도다. 기개와 충의가 넘치는 선비로서 이따금 임금 위해 목숨을 바친 이가 어찌 없었겠는가. 공명과 문화를 다룬 신하로서 역사에 뚜렷이 드러난 인물도 있었도다. 앞뒤로 이름을 드날린 사람이 많지만 사표라고 할 수 있는 이를 꼽으면 누구이겠는가.

삼가 생각건대, 오봉 선생은 집안에서 효성과 우애가 깊었고 향당에서 예의와 범절이 발랐도다. 스승을 찾아가 학문에 더욱 힘써서 정원에 뿌리를 깊이 내렸고, 가업을 일으키려는 뜻이 늘 간절하여 집안의 보배라 일컬어졌도다. 여덟 살 때부터 이미 온갖 행실의 근원을 깨달았으니, 집안에 전해지는 충효의 가풍을 이어 조상을 욕되게 하지 않았고, 여막에서 슬퍼하고 예를 다함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잘 알아서 했다. 관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서는 조정에서 큰 공렬을 드날렸으니, 사헌부 관리로서 거침없는 필치가 부월(鈇鉞)<sup>135)</sup>보다 매서웠고, 밝은 해와 가을 서리 같은 기백이 간악한 귀신의 간담을 깨뜨렸도다. 도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 여유가 있었고, 내직과 외직을 두루 맡아 모두 잘 다스렸도다. 조무택(祖無擇)이 고을을 다스리니 금세 학교가 지어졌고, 문옹(文翁)이 고을에 부임하자 문득 유학의 교화가 이루어졌도다.<sup>136)</sup>

임진년 병란이 일어났을 때 안진경(顔眞卿)이 의리에 분기한 전례<sup>137)</sup>를 본받았고,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부필(富弼)이 굶주린 백성 구제한 일<sup>138)</sup>을 다시 보았도다. 오직 밖으로 드러낸 것이 여유로웠던 것은 또한 본성을 기른 것이 깊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성인의 도를 기뻐하였으니 어찌 북쪽으로 배우러 간 진량(陳良)<sup>139)</sup>을 논하겠는가. 늘 자신이 뒤늦게 태어난 것을 한스럽게 여겼으니 동방의 주자(朱子)보다 뒤에 태어났도다. 독실하게 실천함이 이와 같으니 조예의 깊이를 알 수 있도다. 고요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sup>140)</sup>을 걱정하느라 도리어 제 몸에 병이 깊은 줄도 몰랐고, 서산에 해가 지는 것<sup>141)</sup>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피로가 겹쳐 목숨을 잃었도다.

134) 천곡(川谷)의……머물렀도다 : 신지제가 정구(鄭逵)와 장현광(張顯光) 등과 교류하며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다. 천곡은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에 있던 영봉서원(迎鳳書院)의 후신 천곡서원으로, 1623년에 정구(鄭逵)를 1642년에 장현광(張顯光)을 배향하였다. 정구가 이천(伊川)의 '천'과 운곡(雲谷)의 '곡'을 따서 이름을 고쳤다.

135) 부월(鈇鉞) : 임금이 신하에게 병권의 상징으로 내려준 도끼로, 주로 출정하는 장군이나 큰 임무를 띤 장수에게 정벌과 생사여탈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주었다.

136) 조무택(祖無擇)이……이루어졌다 : 신지제가 고을 수령으로 부임하여 학교를 세우고 교화를 펼친 것을 말한다. 조무택은 송나라 인종(仁宗) 때 원주 자사(袁州刺史)로 부임하여 학교를 세우고 문풍을 진작시켰고(『古文眞寶』「袁州學記」), 문옹(文翁)은 한(漢)나라 경제(景帝) 말기에 촉군 태수(蜀郡太守)로 부임하여 성도(成都)에 관립 학당인 문옹석실(文翁石室)을 세우고 교화를 펼쳤다.(『漢書』卷89「循吏傳·文翁」)

137) 안진경(顔眞卿)이……전례 : 당나라 현종(玄宗) 때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평원 태수(平原太守) 안진경이 사촌 형인 상산 태수(常山太守) 안고경(顔杲卿)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다.(『舊唐書』「顔眞卿傳」)

138) 부필(富弼)이……일 : 송나라 사람 부필이 청주 자사(青州 刺史)로 있을 때 공사의 집 10여만 채를 가려서 유랑하는 백성 50여만 명을 거쳐하게 하고 국가의 식량을 지급하였다고 한다.(『宋史』「食貨志」)

139) 북쪽으로……진량(陳良) : 맹자가 진량을 평하여 “진량은 초나라 출신이다. 주공과 중니(공자의 자)의 도를 좋아하여, 북쪽인 중국에 와서 공부하였다.[陳良 楚產也 悅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라고 하였다.(『孟子』「滕文公上」)

140) 고요한……것 : 부모의 신변에 문제가 생김을 비유한 말로, 여기서는 신지제의 계모 오씨(吳氏)가 병든 것을 말한다. 주(周)나라 사람 고어(皐魚)가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은 모시려고 해도 아버지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韓詩外傳』卷9)

141) 서산에……것 : 죽음이 가까워짐을 비유한 말로, 여기서는 신지제의 계모 오씨가 위독한 것을 말한다. 진(晉)나라 이밀(李密)이 임금의 부름을 사양하며 쓴 「진정표(陳情表)」에 “조모 유씨(劉氏)의 병이 해가 서산에



풍속을 돈독하게 만들고 인륜을 밝힌 것은 백대의 사표가 될 만했고, 목숨을 버리면서 효를 실천했으니 구천에서 다시 무슨 여한이 있으랴. 생전에 이미 지극한 행실이 있었고, 사후에 높은 명성이 더욱 드러났도다. 꽃다운 향기 맡으니 존경심이 일어나고, 남은 빛 우러르니 마음에 잊히지 않도다. 모든 사람이 다투어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하물며 고을 유생들의 흠모하는 마음이겠는가. 교화에 감화되어 아직도 국그릇과 담장에 보이는 것 같건만,<sup>142)</sup> 자취가 점점 사라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어찌하랴. 이른바 향선생이 죽으면 제사를 지낸다<sup>143)</sup>는 경우라고 사대부들에게 물어보니 마땅한 일이라고 했도다.

이에 현인을 높이 받드는 정성을 다하여 영령을 편히 모실 방도를 의논하던 중에, 이곳 장대의 땅을 둘러보니 바로 가속이 있던 자리였도다. 옛 서당 규모를 그대로 따랐으니 바로 평소 선생이 소요하던 곳이고, 새로 편액을 걸게 되니 옛 현인이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준 것<sup>144)</sup>이로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목소리를 내고 원근의 선비들이 뜻을 모아 함께 힘을 보탰도다. 땅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소를 내어 주었으니 아무 강과 아무 언덕이며, 떳떳한 본성을 가진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달려왔도다. 선비들은 책을 내려놓고 일을 도왔고 서민들은 공역에 달려와 유품을 받들었도다.

…중략…

삼가 원컨대, 들보를 올린 뒤로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고 선비들이 의귀할 곳을 두어, 창문을 열고서 본보기가 멀리 있지 않음을 생각하고 저기 마룻대와 처마를 바라보며 높은 산처럼 더욱 우러르리라. 비워 두었다는 비난<sup>145)</sup>을 사지 말고 마루에 올랐다는 비유<sup>146)</sup>를 받도록 힘쓰라. 단청이 더욱 아름다우니 성인의 도와 함께 빛나고, 문물이 다시 새로워지니 이름난 터와 함께 무궁히 전하리라.

지려는 것처럼 숨이 끊어지려고 하니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 아침에 저녁 일이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劉日薄西山 氣息奄奄 人命危淺 朝不慮夕〕”라고 하였다.

142) 국그릇과……갈건만 : 죽은 이를 간절하게 사모함을 말한다. 요(堯)임금이 죽은 뒤에 순(舜)임금이 3년 동안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앉아있을 때면 요임금의 그림자가 담장(牆)에서 어른거리는 듯하고 밥을 먹을 때면 요임금의 얼굴이 국그릇(羹) 속에 비치는 듯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後漢書〕「李固傳」

143) 향선생(鄉先生)이……지낸다 : 한유(韓愈)의 「양거원 소윤을 전송하는 서문〔送楊巨源少尹序〕」에 보인다. 고향 출신 인물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지방 교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다 죽으면 사당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함을 말한다.

144) 옛……것 : 장현광이 ‘덕을 쌓고 때를 기다린다.〔藏修以待〕’라는 뜻으로 ‘장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이 「연보」에 보인다.

145) 비워 두었다는 비난 :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다.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인인 사람이 거처할 편 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이 가야할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살지 않으며 바른 길을 버려두고 가지 않으니 슬프구나!〔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 曠安宅而弗居 舍正路而不由 哀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46) 마루에 올랐다는 비유 : 학문을 닦아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이르는 말로, 『논어』 「선진(先進)」에서 공자가 자로의 경지를 두고 “마루에는 올랐고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다.〔升堂未入室〕”이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 V. 임진란과 의병 활동

### 1. 임진란의 성격

#### 1) 임진란의 성격

1592~1598년에 전개되었던 임진왜란은 역사상 많은 희생과 영향을 끼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의 발발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전쟁 피해국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건국 후 200여년 만에 발생했던 민족의 일대 수난기였으며 동시에 사회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시 되어야 하지만 특히 국제 질서의 변동이라는 대외 관계사의 측면, 조선왕조의 지속성 문제, 임진왜란의 성격, 시대 구분론 문제가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쟁터였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은 승전도 패전도 아닌 미증유의 국난이었다. 이에 전쟁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가 문제일 뿐이었다.<sup>147)</sup>

일반적으로 ‘임진란’이라고 하면 2차 침입인 ‘정유재란’까지 포함시켜 말한다. 이 왜란(倭亂)을 일본에서는 ‘분로구(문록文祿)·케이조(경장慶長)의 역(役)’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만력(萬曆, 明明 신종의 연호)의 역(役)’이라고 부른다. 전후 7년간의 왜란은 끝났으나 이 전쟁이 조선, 명, 일본 등 3국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다. 조선은 연산군 이후 문란하기 시작한 사회가 임진란을 계기로 완전히 붕괴되어 경제적 파탄과 관료 기구의 부패로 나타났으며, 전화(戰禍)에 따른 인명의 손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국적으로 논밭이 황폐화되었다. 인구 감소와 농지 축소는 바로 세수(稅收)의 격감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도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어 전후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부담이 소요되었으며, 한편 사회적으로 서얼 문제, 노비의 방랑(放良), 병사의 면역, 향리(鄕吏)의 동반직(東班職) 취임 등 신분상의 제약이 많이 해이해져 갔다.

또한 임진란을 통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애국심이 고취되었고 자아반성의 계기가 마련 되었으며, 성현의 학문을 공부한 문화 강국으로서 오랑캐라는 왜(倭)에 대한 재인식과 적개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명(明) 나라에 대해서는 원군 파병으로 승명사상이 더욱 굳어져서 신흥 강국인 청(淸)을 배척하여 두 차례의 호란(胡亂)을 부른 원인도 바로 임진란의 후유증 중의 하나이다.

147)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 운동』, 해안, 2001, 11~25쪽.

## 2) 임진란 전의 국내외 정세

### (1) 국외 정세

임란 전 16세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임란은 직접적으로 조선, 중국, 일본의 국제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므로 먼저 중국(명)과 일본의 정세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황제의 국가 권력이 중앙과 지방을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완비하였다. 이러한 정치 조직을 바탕으로 하여 본토의 지배에만 국한되었던 황제의 국가 권력이 주변 제 국가에 대해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황제의 절대권에 의탁한 소수의 인물 또는 집단이 그 권력을 대행하는 형태가 발생하였다. 16세기 이래 정권을 장악한 자는 황제의 사적 자문기관이던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의 수석이나 내정에 봉사하던 환관 등 고급 관리였다. 특히 환관은 이후 중국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여진족의 통제는 점차 약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여진족의 세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sup>148)</sup>

일본의 경우에는 전국 시대라는 오랜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통일 국가를 수립하였다. 즉 족리막부(足利幕府)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각지에서 호족들이 활거하며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전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세력이 지배층으로 등장하는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되고 있었다. 일본의 호족들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을 더욱 철저히 장악하여 새로운 질서로서 가신과 양민들을 통제하였다. 이들은 또한 자기의 영역, 즉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평지에 성을 쌓았는데 이러한 평지성 전술에도 변화를 가져와 보병집단 중심의 전술을 일반화시키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유럽인과의 접촉을 통하여 새로운 문물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총(銃)의 수입이었다. 이 총은 전국 시대의 지속적인 전투를 통해 급격히 보급되게 되었다. 이 시기 전국시대 혼란을 극복하고 일본의 통일 사업을 완성한 것은 풍신수길이었다. 그는 오랜 전국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을 완성하였지만 급격히 늘어난 무사 집단과 병사는 그의 정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러한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풍신수길은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① 토지와 농민을 일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종의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지(檢地)'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농민들은 토지를 버리고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것이 금지 되었다.

148) 경상북도, 『경북의 병사』,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1990, 179~180쪽.

② 농민들로부터 칼, 창, 활, 총 등의 무기를 거두어들이는 ‘도수령(刀狩令)’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은 농민을 토지에 긴박시키고 무기를 회수함으로써 농민의 저항을 사전에 억제하면서 다른 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책만으로는 통일 후 과잉 상태로 있던 세 호족들의 군사력과 불만 호족 세력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국내의 정치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풍신수길은 조선의 침략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의 조선 침략 계획은 1586년 이전부터 계획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지리와 각종의 사정을 염탐하기도 하였다.

## (2) 국내 정세

16세기 조선 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여러 현상 가운데 왜란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군역과 군사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149)</sup> 15세기 초 조선 왕조가 성립되면서 소위 이인위본(以人爲本)을 바탕으로 하는 병농일치제적(兵農一致制的) 군역 제도가 마련되었다. 비록 병농일치제적 군역 제도라 하지만 토지 제도와 철저히 일치되는 소위 이지출역(以地出役)의 제도가 되지 못한 이 제도는 당초부터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양정(良丁) 중심의 병역의무자들이 토지 경제를 바탕으로 하며 편성되지 못하고 봉족(奉足), 즉 인적 보조만을 근거로 하여 편성된 결과 군사력이 유지될 기반이 확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제도는 벌써 15세기의 시행 당초부터 불합리성이 노출되었지만 그때마다 견제력 즉 토지 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군역 제도의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봉족제 범위 안에서의 대책만이 강구되었다. 따라서 책정된 군역 의무자의 수만 증가되었으며, 그 만큼 농민층의 부담만 가중되고 그 결과 군역을 대신 지게 하는 일과 기피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피역(避役)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피로운 군역을 피하기 위하여 남의 종이 되거나 종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일정한 거주지를 가지지 않은 채 유랑하는 농민들이 많아졌으니, 군역 제도의 문란이 큰 원인이 되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군역 문제는 또 관리들의 부정의 온상이 되어 갔다. 관리들이 농민의 현역복무를 오히려 막고 대신 그 대가를 받아 착복하는 소위 방군수포(放軍收布)가 유행하게 되었는데 대가액이 너무 높아서 정부가 공정가를 정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1541년(중종36)에는 지방관이 관할 내 군역 의무자의 변상가(番上價), 즉 현역복무 대신 내는 대가를 일괄적으로 포(布)로 징수하여 중앙 정부에 보내면 병조(兵曹)에서 이것을 다시 각 지방의 군사력이 필요한 곳으로 나누어 보내어 그것으로 군인을 고용하게 하는 소위 군포제(軍布制)가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군포제가 실시된 후 군포 수입이 모두 군사의 고용비에

149) 상동, 180~182쪽.

쓰여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군비가 약화되어 임진왜란 초기의 관군의 패전을 가져왔지만 어쨌든 16세기에 있어서 군포제의 실시는 오위(五衛) 제도를 근간으로 짜여진 조선 초기의 개병제적(皆兵制的)인 현역 복무제가 무너지고 오영(五營)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 후기의 용병제(傭兵制)와 의무병제의 혼합체 형태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군역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군사 조직 또한 군역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조선은 국초 이래 영(營), 진(鎭)을 중심으로 하였던 지방 군사 조직이 세종대(1455)에 이르러 진관 체제(鎭管體制)로 재정비되었다. 진관 체제는 초기의 영·진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 체제를 보완하여 연해(沿海)지역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도 거진(巨鎭) 등을 설치하고 그 주변의 제읍(諸邑)을 분속시키되 그 체제는 서북변(西北邊)의 군익조직(軍翼組織)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침을 맞아 연해 지역의 진이 무너지더라도 내륙 지역이 무인지경의 상태로 되지 않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의 각 도를 몇 개의 군익도(軍翼道)로 세분하고, 각 군익도를 다시 중·좌·우의 3익(三翼)으로 편성하였던 것이다. 이후 군익도 체제는 세조 3년(1458) 10월 모두 진관 체제로 개편되었다. 즉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좌·우익체제로 편성된 군익도 조직은 중요한 지역을 거진(巨鎭)으로 하고 그 주변 지역의 병렬적 제진(諸鎭)을 거진에 소속케 하는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조직에 따른 경상도의 방어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50)</sup>

### 〈경상도의 진관 조직〉

경주진 : 청하, 흥해, 영일, 장기, 영천, 밀양

안동진 : 풍기, 영천(榮川, 영주의 옛 이름), 봉화, 의성, 예안, 진보, 청송, 군위, 비안, 영해, 영덕

울산진 : 기장, 동래, 양산, 언양

창원진 : 김해, 고성, 웅천, 칠원, 함안, 진해, 거제

대구진 : 영산, 창녕, 현풍, 인동, 의흥, 신녕, 하양, 경산, 청도

진주진 : 사천, 곤양, 하동, 남해, 단성, 산음, 의령, 함양, 삼가, 안음

성주진 : 초계, 합천, 거창, 고령, 지례

상주진 : 선산, 계령, 금산, 함창, 용궁, 문경, 예천

진관 체제는 전국을 방위 지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위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비효율성이 드러나 그 기능을 잃어갔다. 여기에는 군사들의

150) 상동, 181쪽.

경제적 기반 취약의 가속화와 군사 지휘권을 가진 문관 수령의 통솔 무능에도 큰 요인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병(正兵)의 도망·유리 현상이 만연됨으로써 을미왜변 때에는 비군사층(非軍士層) 까지도 동원하는 이른바 제승방략(制勝方略)이란 응급적인 분군법(分軍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제승방략체제는 운용상에 있어서 사실상 진관별(鎭管別) 자전자수(自戰自守)의 원칙을 포기하고 잔여 가용 병력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 체제로서 전선이 무너지면 후방이 수습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전략상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승방략체제는 소규모 국지전에는 절용될 수 있어도 대규모의 광역전에 대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승방략적 분군법에서는 수령에게 군령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수령의 역할은 군령권자에게 군사를 인솔해 넘겨주는 것 뿐이었다. 요컨대 제승방략이란 진관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조선은 이처럼 허약한 방위 체제를 가지고 임란을 맞게 된 것이었다.

〈표1〉 경국대전 경상좌도의 진관 체제

구분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경주 진관	경주 부윤	울산 군수, 양산 군수, 영천 군수, 흥해 군수	경주 판관, 청하 현감, 영일 현감, 장기 현감, 기장 현감, 동래 현감, 언양 현감
안동 진관	안동 대도호부사	영해 부사, 청송 부사, 예천 군수, 영천(영주) 군수, 풍기 군수	안동 판관, 의성 현령, 봉화 현감, 진보 현감, 군위 현감, 비안 현감, 예안 현감, 영덕 현령, 용궁 현감
대구 진관	대구 부사	밀양 부사, 청도 군수	경산 현령, 하양 현감, 인동 현감, 창녕 현감, 현풍 현감, 의흥 현감, 신녕 현감, 영산 현감

## 2. 전란 속의 당쟁·당파

### 1) 국론 분열과 정국

임란 전의 조선 사회 변화는 제도적 변화만이 전개된 것이 아니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운영하고 유지하던 지배 세력이 분열하여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던 것이다. 알고 있듯이 사화와 당쟁으로 불리어진 정쟁은 이 시기에 극심하였고, 이러한 정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었다. 지배층의 분열은 결국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여 민심을 크게 이반시키고 있었음은 필연의 이치였다. 명종 연간 황해도에서 극성을 떨쳤던 임궽정 등의 활동과 선조 11년(1578) 경상도 감영의 군인 난동 사건 등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국가 기강의 문란에서 오는 지배층의 가렴주구는 백성들의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것은 이른바 유민화(流民化)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백성들의 유망은 국가의 근본이 붕괴되는 것으로 인식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당시의 급박한 사정을 퇴계와 율곡은 국왕에게 설명한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을 정도였다.

- 어찌 임금이 되어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질병이 극에 달하고 기한(飢寒)이 절박한데도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고, 치료할 약이 없는데 나라에서는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인정(仁政)을 어기고 백성을 핍박하고 찍어 눌러 물과 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오늘날의 사람들은 태평세월에 젖어가지고 아무도 나라가 흐트러지고 망하는 화근이 백성들의 원한이 엉킨데서 연유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 오늘날 국가를 개혁하고 분기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를 보전 할 가망이 없습니다. 이미 시대말적 징조가 나타나서 인심은 해이되고 동요의 빛을 보이니 이때에 한 가지 폐해도 개혁하지 못하고 안일을 일삼는다면 앉아서 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에까지 확대된 당쟁은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었다. 선조 초부터 시작된 조신간(朝臣間)의 편당싸움은 지방의 동족 또는 향교나 동계학과 유생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당쟁은 전국적으로 뿌리박고 있어서 정계는 불안정하였고 일개 말직 무관의 임명에도 사정(私情)이 좌우하였다. 이러한 사정과는 반대로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 시대에 양성된 군사와 조총의 보급, 전술의 개발 등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공공연히 명에 대한 침략을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급박한 사정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을 파견하여 정세를 살피게 하였는데 두 사람의 시찰 보고는 서로 상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재까지 모든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다.

임진란의 중심지가 되어왔던 영남 지방은 중소 지주적 기반 위에서 성장한 영남사림파(嶺南士林派)의 근거지로서, 특히 16세기 이래 이황(李滉)과 조식(曹植)의 학문적 업적을 토대로 성리학적 향촌 질서의 확립이 두드러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제자들 단계에 이르러 강좌(江左)·강우(江右)의 분열을 보여 사론(士論)이 둘로 나뉘고 중앙 정계에서

는 당쟁의 시초 동인과 서인에서 남인과 북인이라는 세력의 분기로 나타났다. 즉 선조 연간에는 학연이 봉당 형성의 요인이 되었는데, 이황은 학문으로 서로 숭상하고 조식은 절의(節義)로서 서로 높이게 되어 학문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임진왜란의 전쟁 속에서 중앙 정국은 남인의 류성룡이 서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또 이러한 정국의 흐름에서 교유와 학연으로 연결되면서 당시 조정은 크게 보아 동인과 서인의 대립 속에서 작게는 임진왜란 전부터 나타나고 있던 정인홍과 류성룡의 대립, 즉 남인과 북인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문하를 동시에 출입한 중도적 성향의 김면(金沔)<sup>151</sup>이 경상우도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정국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임진란에서 순수 의병 활동을 할 경우에도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당쟁과 무관하게 처신하기가 어려웠다. 위에서 언급한 김면은 물론 광재우도 결국 친 남인적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경상우도의 북인은 일본군의 직접적인 침략에서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합천에서 창의한 정인홍은 임란 이후 정국을 주도한 북인의 영수였다. 여기서 의병대장 가운데 당파에 가담한 인사는 다음과 같다.

- 충청도 의병장 조헌(趙憲)-서인
- 전라도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서인

임진왜란 전후의 시기는 전쟁 수행 과정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이 남인에서 북인으로 전환되어 나간 시점이다. 이러한 정국 변환 요인은 전쟁의 추이, 의병 운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봉당 정치는 봉당화 자체가 학파의 종장(宗長)이 이룩해 높은 학문의 본질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외형상 행적이 집착하는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봉당 사이에 참여한 대립을 보였던 시기였다.

〈표2〉 봉당 성립기의 당색

봉당	동인	서인
이름	김효원, 류성룡, 김성일, 이산해 정유길, 정지연, 우성전, 이발, 김응남 송응개, 송응동, 박근원, 정대연 윤승훈, 김귀영, 노수신, 정극례 백유양, 노식, 노직, 송언신, 이호민 홍예순, 남이공, 이원익, 이흥로, 정운 정개청, 기자현, 류영경	심의겸, 이이, 성훈, 박순, 김계휘 정철, 황혁, 윤두수, 최황, 심충겸 구사명, 이항복, 홍성민, 신응시, 백유함 박신, 이해수, 구봉령, 조헌, 고경명 양산수, 구성, 조흡, 송익필, 이귀 황신, 여우길, 정엽, 신경진, 신흙 이시연, 이시발, 조수익, 민유경, 이현영

151) 김면(金沔, 1541~1593) : 자는 지해(志海), 호는 송암(松庵), 본관은 고령이다. 합천 군수, 장악원정(掌樂院正), 경상도 도의병대장(慶尙道都義兵大將),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로 임명되었다.



〈표3〉 임진왜란 전후의 당색

붕당	남인(대 서인 온건파)	북인(대 서인 강경파)	서인
인물	류성룡, 이원익, 김명원, 이덕형, 이수광, 윤승훈, 이현국, 류근, 이광정, 한준겸, 정경세, 김홍철, 정구, 정탁, 김응남, 김수, 김득, 우성전, 김성일, 이경중, 정근수, 허성, 윤국형, 이성중, 최권, 김순명, 조정립, 정곡, 이호민, 김의원, 이심	이산해, 류영경, 기자헌, 박승조, 류몽인, 홍여순, 임국로, 정인홍, 최영경, 이발, 남이공, 김개국, 문경호, 문홍도, 오여은, 박사제, 박이장, 강익, 채겸길, 남이홍, 정영국, 이경전, 홍식	이항복, 김상헌, 신희, 박동설, 박동망, 이현영, 황신, 윤선, 이경함, 이시언, 이정구, 김상용, 이흥위, 정엽, 이성록, 조수익, 구성, 이흠, 이상길

선조 연간의 정치는 한 마디로 붕당 정치의 성립기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동인과 서인이 심의겸의 처리 문제로 붕당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던 ①붕당 모색기, 동인과 서인이 정여립 사건을 전후하여 첨예하게 대립했던 ②혼전기, 임진왜란으로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왕이 정치를 주도했던 ③국왕 주dog기, 임진왜란의 지속으로 종전을 위한 회담이 제기된 ④남인 주dog기 임진왜란의 종전 이후 전쟁 책임문제를 통해 정권을 주도한 ⑤북인 정권 성립기로 구분할 수 있다.

## 2) 주화론(主和論)과 주전론(主戰論)

임진란 기간 중에 화의론(和議論)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경상우도에서는 곽재우를 위시하여 임란 당시 책임지고 전쟁을 수습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인사들을 한결같이 화친하면 적이 침입할 수 없으며, 그동안 우리의 군사를 기르고 백성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실리 외교적인 입장에서 화의론을 제기하였다.<sup>152)</sup>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화의론은 전쟁 초기부터 주장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남인으로 류성룡의 주장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전쟁을 주장하는 것은 옳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분법적인 이해는 옳지 않다. 특히 임진왜란 중 국토의 황폐화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임진왜란 후기의 주전론자와 주화론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2) 김강식, 전계서, 256~261쪽.

〈표4〉 주전론자와 주화론자

구분	성향과 분류	봉당
주전론자	남명학파 정인홍과 문인	북인
주화론자	퇴계학파 류성룡과 문인 남명학파 내의 남인계 인사 중도적 입장의 인사 명나라 인사	남인·서인

사실 임진왜란 초기에는 모두가 주전론을 주장하였지만 전쟁 후기에 나타난 남인의 화의론은 현실적 고육책이었다. 문제는 종전에 임박하여 북인들이 이 문제를 쟁점화시켜 나간 점이다. 그렇지만 임진란 중 일본과의 강화 주장은 난후의 정국 장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되었으며, 강화 회담의 찬성자는 죄인으로 취급되기까지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이 상차(上劄)하기를

국가가 일본군에 대해서는 만세토록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있을 뿐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 없으니, 강화의 설은 삼척동자도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류성룡은 수상의 신분으로 먼저 화의를 주장하여 인심을 풀리게 하고 국세를 약화시켰으니, 이는 실로 종사의 죄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성상께서 통촉하시고 공론을 격발함에 힘입어 명분을 바로잡고, 죄를 정하여 국시가 다소 안정되었는데, 영의정 이원익이 연경에서 돌아오는 즉시 상차(上劄)하면서 류성룡을 위해 변론했으므로 공론이 일제히 분노하며 분통을 터뜨리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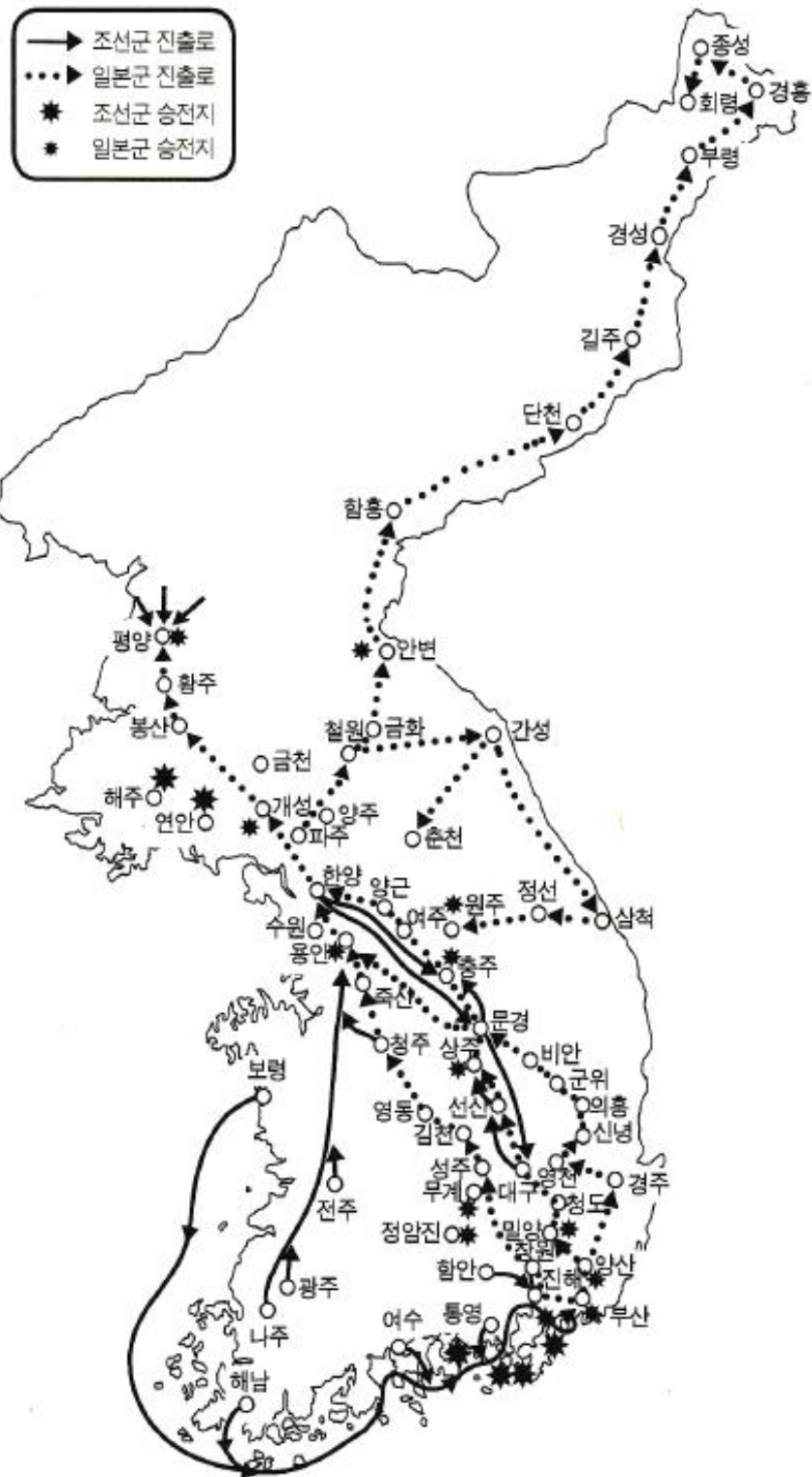
라고 하였다. 이처럼 북인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남인들은 화의론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았다. 광재우도 역시 화의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화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의 태도에 따라 화친을 맺어서 스스로 힘을 길러 적에 대비하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 중시의 실리 외교였다. 이처럼 화의론은 임진왜란 당시의 정국 담당 세력이었던 남인의 일치된 주장이었으며, 이것은 난 후에 책임을 추궁당하는 요인이 되었다. 광재우의 화의론은 난 후에도 이어졌다. 그렇지만 북인의 명분론적 주전론은 광해군 시기에 명나라로부터 후금(後金) 정벌을 위한 원병 요청을 받았을 때 자주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입장은 주자(朱子) 성리학을 절대시하면서 재조지사(再造之思)의 입장에서 사대적인 친명 외교를 주장한 서인과 차별성을 갖게 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임진왜란 중에 경상우도 민(民)의 바람과는 달리 광재우는 김면(金沔)의 사망 후에 경상우도의 병사에 임명되지 못했으며, 그가 선무공신(宣武功臣)에 들지 못한 점은



<지도1>

임진왜란 1기(1592. 4~1592. 6) 주요 전투 및 조선군, 일본군 진출로



(자료: 박희봉, 『5800 진주성 결사대 이야기』, 논형, 2019.)

體察使)로 삼아 제장(諸將)을 독찰케 하였다. 한편 경상도 순찰사 김수(金睟)는 적변의 보고를 받고 즉시 제승방략(制勝方略)의 분군법(分軍法)에 의하여 각 고을에 통첩을 보내 각각 소속 군대를 거느리고 대구를 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상주 목사 김해, 함창 군수 이국필, 문경 현감 이원길 등은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주에 도착하여 감사의 지휘를 받아 대구로 향하였으나 석전(石田)과 금호(琴湖)에 이르러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주하고 말았다. 이 같은 사정을 조정(趙靖)의 임란일기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구를 지키던 부사 윤현(尹峴) 또한 지키지 못하고 군인을 거두어 공산성(公山城)에 퇴진하여 적의 예봉을 피할 뿐이었다. 4월 21일 대구를 점령한 왜적은 24일 상주, 26일 문경을 넘어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다.

적과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흩어지고 만 병사들은 모두 대오를 이탈하여 피난민과 더불어 산골짜기로 숨어 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경상도 일원은 백성들은 물론 군사도 없는 텅 빈 무인지경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형편에 순변사 이일, 종사관 윤섬과 박호, 군관 60여 명을 거느리고 23일 상주에 들어왔을 때는 오직 권길 만이 성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들은 겨우 800여명의 군사들을 모아 적에게 대응하였는데 조정은 임란일기에서 안타까운 사정을 적고 있다.

한양을 점령한 후 일본군의 장수들은 조선 팔도를 다음과 같이 분담키로 협정하였다.

- |                      |                    |
|----------------------|--------------------|
| ○ 경기도 : 우희다분가(宇喜多分家) | 충청도 : 복도정칙(福島正則)   |
| ○ 경상도 : 모리휘원(毛利輝元)   | 전라도 : 소조천용경(小早川隆景) |
| ○ 평안도 : 소서행장(小西行長)   | 함경도 : 가등청정(加藤清正)   |
| ○ 황해도 : 흑전장정(黑田長政)   | 강원도 : 모리길성(毛利吉城)   |

이상과 같은 왜군의 침입으로 특히 왜군의 상륙지이며 교두보인 경상도는 수일 내 좌도 우도의 연락이 두절되고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왜적은 4월 중순 이후 경상북도 방면에 다음과 같이 약 3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였다.

- 문경 : 장승아부원친(長승我部元親)등 3천명
- 금산부근 : 입화통호(立花統虎)등 4천명
- 개령 : 모리휘원(毛利輝元)등 2만명
- 상주 : 도엽정통(稻葉貞通)등 4천명

주장 모리휘원(毛利輝元)은 안동, 예안, 문경, 무계 등 여러 곳에 그의 부대를 파견하여 지키게 함으로써 조령을 통하는 후방 보급선과 낙동강을 이용하는 수로선(水路線)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었다. 주로 개령과 진을 치고 있던 모리휘원은 침략지 민정을 본국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조세를 징수, 장기 침략을 모의하였는데 이 때 모리휘원이 분담한 경상도에서 징수해야 할 석수(石數)는 2,887,790석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일본에서 대기 중이던 후속 제 부대들이 차례로 한반도에 상륙하였는데 10월에 접어들자 일본은 경상도 방면에 그 당시 부산에서 한양까지에 이르는 주요급로를 좌·우도에 하나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각 로(各路)에 20여 톤을 설치하여 각 둔의 병력은 수백 명에서 1천여 명을 가지고 있었다.

- 경상좌도 : 부산(8천명), 동래·양산·밀양(1,500명), 청도·대구(1,500명).
- 경상우도 : 창원(5천명), 부산(4천명), 개령(1만명), 선산(1,500명), 상주(4천명), 문경(2천명)

위의 계산을 보면 경상도 방면에만 4만 명의 병력을 분산 배치한 결과가 된다. 왜적은 부산에서 평양까지 중간에 충분한 후방 부대를 배치하여 후방 경비와 병참 업무까지 겸하게 하였던 것인데 1592년 8월부터 1593년 초까지 병력은 약 6만여 명이었고 그 중 4만 명이 경상도에 배치시키고 있어서 그만큼 경상도가 작전, 군사, 교통 등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임진왜란에 참여한 일본군은 지역별로 동원된 군사였다. 풍신수길(豐臣秀吉)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서 중앙집권적 인민 군사 체제를 수립하였다. 전란 중에 동원된 3국의 군사 수는 다음과 같다.<sup>153)</sup>

〈표5〉 조·명·일의 전투 병력

국별	임진왜란	정유재란	계	병력 수	각국 인구 수
조선군	60,000	37,600	97,600	20만(극소수)	600만-700만
명 군	74,000	117,000	191,000	50만(319만)	6,000만
일본군	197,000	141,000	339,100	33만	1,000만-1,400만

임진왜란에 3국이 동원한 군사 수는 모두 100만명 규모로 엄청난 숫자이다. 이러한 많은 군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터였던 조선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임란 초기에 경상우도의 미 점령지는 피난민의 증가, 계속된 전투수행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임진왜란기의 일본군 편성은 다음과 같다.

153) 김강식, 전계서, 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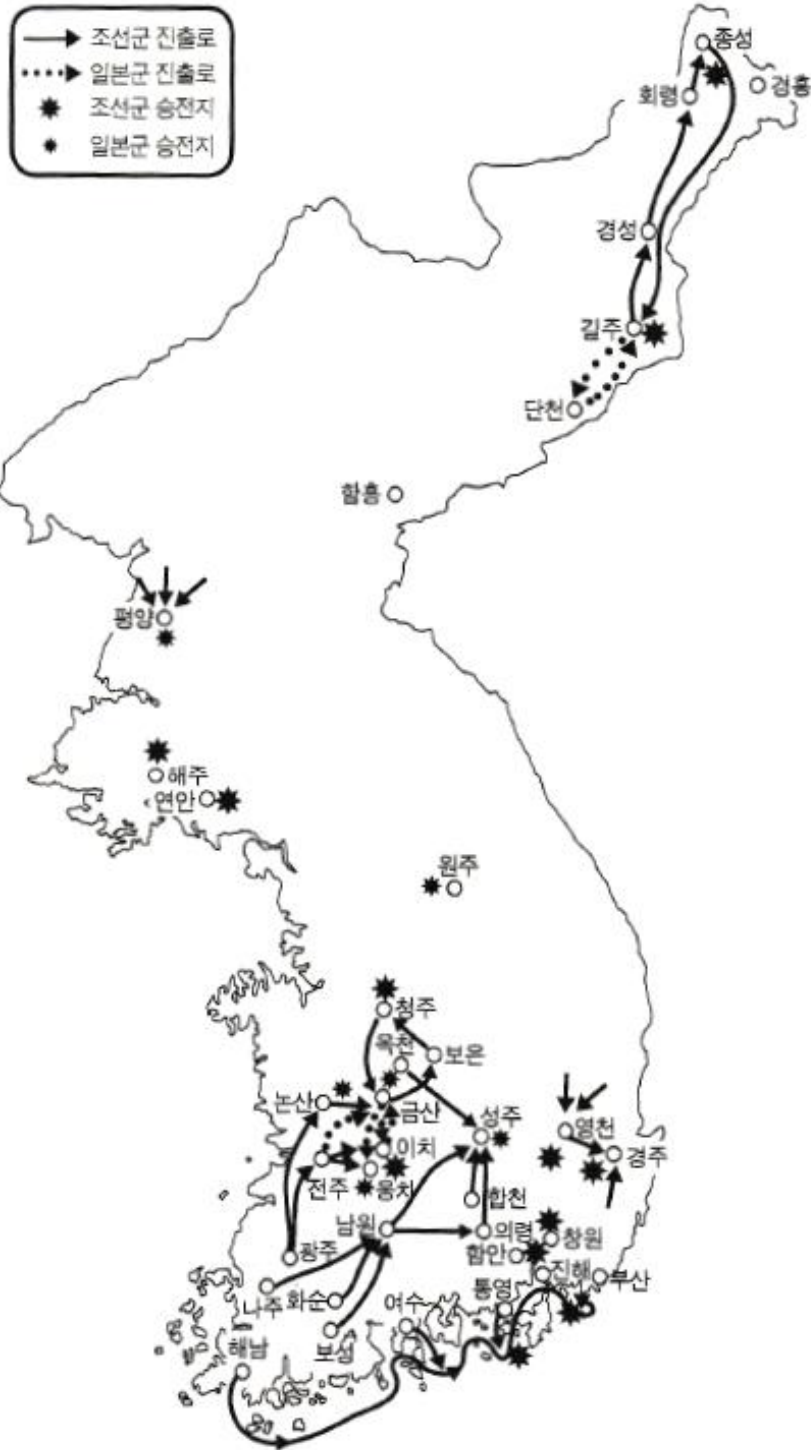
〈표6〉 일본군의 편성

제1군	소서행장(小西行長)	구주(九州) 지방	18,700
제2군	가등청정(加藤清正)	구주(九州) 지방	22,800
제3군	흑전장정(黑田長政)	구주(九州) 지방	11,700
제4군	모리길성(毛利吉城)	구주(九州) 지방	14,700
제5군	복도정칙(福島正則)	사국(四國) 지방	25,000
제6군	소조천용경(小早天隆景)	구주(九州) 지방	15,700
제7군	모리휘원(毛利輝元)	중국(中國) 지방	30,000
제8군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	중국(中國) 지방	10,000
제9군	우시수승(羽柴秀勝)	근기(近畿) 지방	11,500
수 군	등당고호(藤堂高虎)	근강(近江) 지방	9,200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들어 온 일본 군사는 17만 여 명이였다. 일본군은 한양후퇴 이후에도 경상우도에 많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 한양 후퇴의 결정적 이유는 군량미의 부족 때문이었다. 1594년 초에 일본군의 잔류 병력은 서생포 6,400명, 임랑포 2,500명, 기장 2,000명, 동래 6,000명, 부산 6,000명, 김해 6,000명, 가덕도 2,800명, 안골포 700명, 웅천 10,000명, 거제도 8,000명 모두 43,000명이었고 이후 1595년경에는 2만 여명이 부산 인근에 잔류하였다. 임진란 휴전 중에도 경상우도 지역은 계속해서 일본군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철수했던 일본군은 강화회담이 결렬되자 육군 115,000명, 수군 7,200명을 파견하고 조선에 잔류하고 있던 2만 여명을 합해 14만 여명의 군사를 편성하여 정유재란을 일으켰다.

<지도2>

임진왜란 2기(1592, 6~1592, 10) 주요 전투 및 조선군, 일본군 진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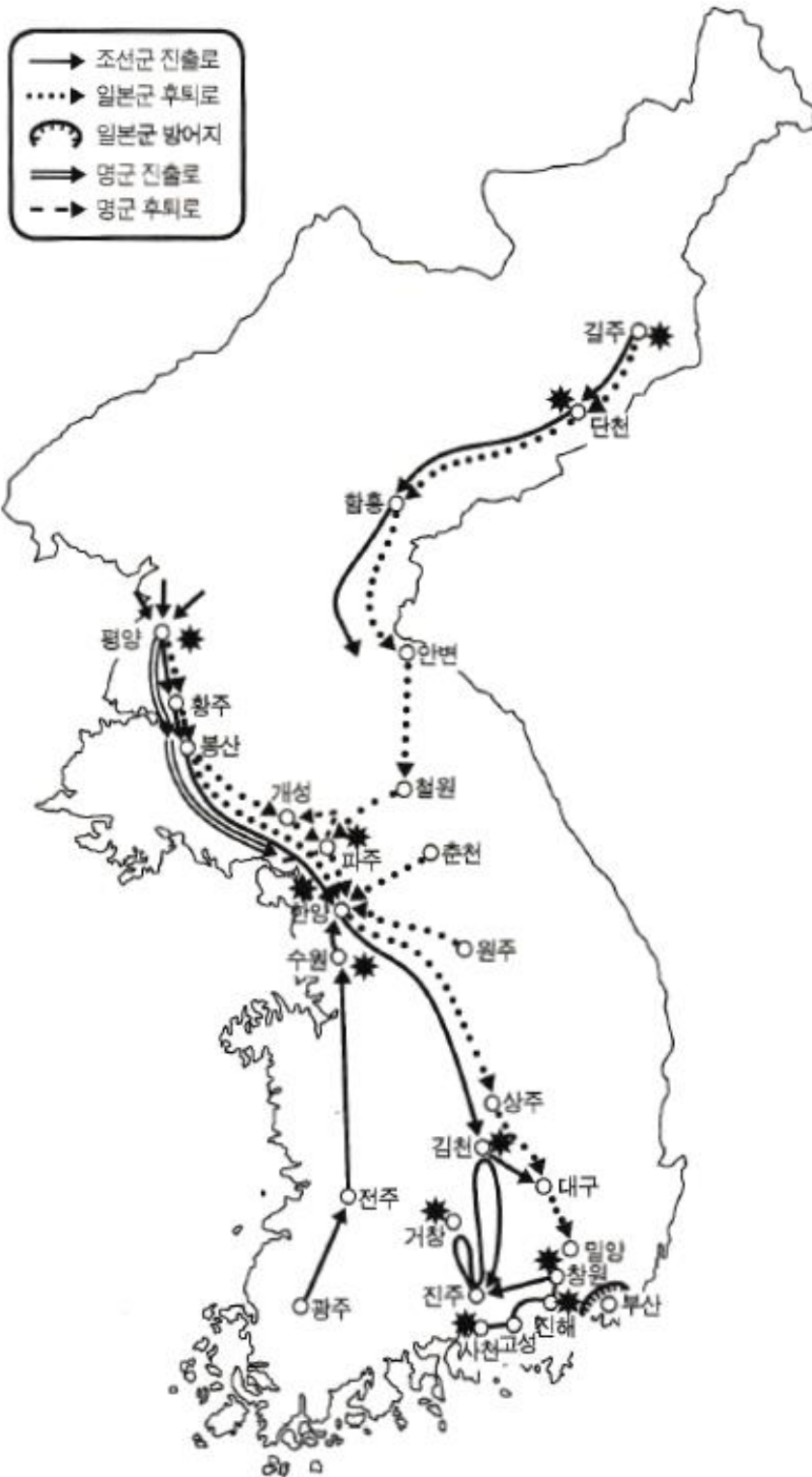


(자료 : 박희봉, 상동.)



<지도3>

임진왜란 3기(1592. 10~1593. 6) 주요 전투 및 조선군, 일본군 진출로



(자료 : 박희봉, 상동.)

<지도4>

임진왜란 4기(1593. 6~1596. 5) 주요 전투 및 조선군, 일본군 진출로



(자료 : 박희봉, 상동.)

## 2) 임진란의 시대 구분

제1기 : 1592.04~1592.06 → 지도 1

제2기 : 1592.06~1592.10 → 지도 2

제3기 : 1592.10~1593.06 → 지도 3(명나라 군사 진출·후퇴)

제4기 : 1593.06~1596.05 → 지도 4

미증유의 전란인 임진왜란 초에 민중의 전위부대로 일어난 의병은 처음부터 관군과 대립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평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전시에 국사를 그르쳤던 관군의 지휘자인 방백·수령들은 모두 국적(國賊)으로 단정하여 이들을 먼저 처단하려고 의구시하였다. 그러므로 점차 의병장을 통제하고 관군에 흡수시키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군관이 붕괴된 전쟁 초기에는 오직 의병이 왜군을 막았으며 또 실제 그들의 힘으로써 국가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명나라 군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군의 진용도 점차 정돈됨에 따라 전쟁의 주도권이 명나라 군대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년 동안 경상도 지방의 의병은 대개 초야에 일어난 의병, 수령이 모군한 의병, 조관이 소모관의 명칭을 띠고 기병한 의병으로 구분되며, 또한 승려 의병(승군)도 있었다. 의병의 대표적인 세력은 초야에서 의병으로 관의 소모(召募)를 기다리지 않고 자진하여 창의한 민중의 용사였으며, 그 지도자인 장수는 대개 유생 또는 유생 출신의 전직 관료들이었다. 임진란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경상도 지역은 임진란 제3기(지도3)까지 왜군에게 점령되었다가 회복된 지역도 있었지만 전쟁 시작 이후 1년 남짓하게 왜군에게 점령당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의병 활동에 있어서 의병과 관군의 알력 및 대립에 대해서는 전에 언급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관권과의 알력이었다. 의병을 주도한 재지사족(在地士族)과 지방 수령과의 사이는 원만하지 못했다. 그것은 관군의 거듭되는 패전으로 인하여 수령이 신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수령 또한 재지사족의 의병 활동을 통해서 향촌지배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데 불만이 있었다. 특히 재지사족은 패전의 원인을 수령의 탐학에서 결과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임란초기 영남지방 수령들은 대부분 성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수령과 의병의 알력을 일부 정부가 조장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잘못된 장계(정보 등)를 믿고 탐학하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간 지방관을 두둔하거나 도리어 승진시키고 있었다.

〈표7〉 경상도 왜군 점령·미 점령 현황(1593년 6월경)

지역	좌우도	왜군점령지역	왜군미입경지역	비고
경상도	좌도	경주, 안동, 대구, 밀양, 울산, 동래, 인동, 청도, 예천, 영천, 흥해, 양산, 경산, 의성, 하양, 용궁, 언양, 현풍, 군위, 비안, 의흥, 신녕, 영산, 창녕, 기장	영해, 청송, 풍기, 영덕, 영천(영주), 봉화, 청하, 진보, 예안, 연일장	선조실록에 상주 및 산청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우도	창원, 상주, 진주, 성주, 김해, 선산, 거제, 섬천, 초계, 성안, 금산, 고성, 개녕, 삼가, 익녕, 칠원, 진해, 문경, 성창, 지례, 고령, 사천, 웅천	거창, 하동, 곤양, 남해, 안의, 산청, 단성	
관 읍수	67	48	19	

(자료 :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 항쟁』, 국학자료원, 2004, 564쪽.)

### 3) 조선군의 대항과 의병조직

#### (1) 임란 직전 향촌 사회의 실정

임란 직전까지 제도의 혼란이나 지배층의 분열은 단순히 그 자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층 백성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었고, 어려운 형편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여기서 전란 피해지역의 중심에 있었던 경상도의 몇몇 사정만 살펴보기로 한다. 검토 대상은 충청도 단양군과 경상도 언양현의 경우이다. 두 지역의 보고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sup>154)</sup>

단양 : ① 1557년 군수 황준량 보고서 진민폐십조(陳民弊十條)

② 1579년(선조12) 군수 황응규의 보고서 단양군진폐소(丹陽郡陳弊疏)

언양 : 1567년(명종22) 현감 임훈 보고서 언양진폐소(彦陽陳弊疏)

154) 경상북도, 『경북의병사』, 185~191쪽.

### 단양 ①의 보고 내용 요약

- 오늘날 피폐함이 극에 달해 생계가 어려워지고 공역(供役)으로 파리해진 백성이 40호도 차지 않고 있다.
- 한 집이 100호의 부역을 부담하고 한 장정이 1백 사람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어……
- 단양 고을은 풍년이 들어도 반쯤은 콩을 먹어야 하고, 흉년을 만나면 도토리를 주워 연명
- 본 군의 병역은 26명입니다. 오늘날 겨우 13명이 남아 있으나 단정(單丁)이고 보솔(保率) 봉족(奉足)이 없어 13명 모두 변상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빈 장부만 걸어놓고 있습니다.
- 도망간 자의 공역(供役)은 일족(一族)에게 황전(荒田, 공물)은 없는 이웃에게 나누어 책임을 분담시켜 부세를 징수하여 기필코 그 수를 채우려 하니 10묘의 농사로 어찌 배를 채우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단양의 인구가 40호에 불과할 정도로 피폐되었는데 1450년 경의 단양의 호수는 235호(『세종실록지리지』)인데 100년 사이에 200호가 도리어 감소하고 있다.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병역 의무인 군역(軍役)과 토지세인 전세(田稅), 각종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물(貢物) 환곡 등이 가장 큰 것이었다.

언양의 경우에는 수군(水軍)인데 원래 책정된 996명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은 507명이었다. 이렇게 군정이 감소한 이유는 군역 부담자의 사망과 도망 때문이었다. 왜구는 이상과 같은 상황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를 침입해 오자 관군은 일시에 붕괴되고, 우리 강토는 초토로 변하였다. 이로 인하여 적은 10일 이내에 부산에서 언양, 경주, 영천 등지를 거쳐 충주에 이르러 침략 행위를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거의 항전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 (2) 조선군의 군사적 상황

임진란 직전 경상우도의 군사 제도는 전국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방어 체제는 진관 체제(鎭管體制)에서 을묘왜변 이후 제승방략체제(制勝方略體制)로 전환되었으며, 인구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역은 감소하고 있었다. 조선 전기의 진관 체제는 세조 연간에 거의 정비되었다. 경상도의 경우 내륙 지방과 연해 지방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육군의 경우 경상우도는 상주, 진주, 김해진관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러한 진관 체제의 특징은 군사방어 조직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상도에서는 낙동강의 좌도와 우도의 지리적 조건을 중시하여 군사 체제

가 마련되었으며 경상우도 안에서도 지리적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진관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진관 체제가 제승방략체제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8〉 경상도의 진관 체제

직책	관할구역	소재지	관할진관	관할지역
관찰사	경상도 전역	상주		
좌병사	경상좌도	울산	경주진관	울산, 양산, 여언, 흥해, 청하, 영일, 장기, 기장, 동래, 언양
			안동진관	영해, 청송, 예천, 영천, 풍기, 의성, 봉화, 진보, 군위, 비안, 예안, 영덕, 용궁
			대구진관	밀양, 청도, 경산, 하양, 인동, 현풍, 신녕, 영산, 창녕
우병사	경상우도	창원	상주진관	성주, 선산, 금산, 개령, 지례, 고령, 문경, 함창
			진주진관	합천, 초계, 함양, 곤양, 거창, 사천, 남해, 삼가, 의령, 하동, 산음, 안음, 단성
			김해진관	창원, 함안, 거제, 칠원, 고성, 웅천
좌수사	경상좌도	동래	부산포진관	두모포, 감포, 해운포, 칠포, 포이포, 오포, 서생포, 다대포, 염포, 축산포
우수사	경상우도	거제	제포진관	옥포, 평산포, 지세포, 영등포, 사랑, 당포, 구조라, 적량, 안골포

조선 전기에 군정(軍政) 면에서 나타난 방위 체제의 변화로 발생한 지휘 체계의 혼란을 들 수 있다. 조선 전기의 방위 체제는 전시와 평화시를 막론하고 진관 체제에 의해 지방군이 국방을 담당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방군수포(放軍收布)와 대립(代立) 현상으로 군사 수의 감소가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전략보다는 현실적 군사 운영 방식인 제승방략(制勝方略)이란 체제를 도입하였다. 사실 이 제도는 포납화(布納化)로 인하여 군사 수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되자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실적인 방어 체제였다. 그러나 제승방략 체제는 진관별(鎭管別)로 하던 자전자수(自戰自守)의 원칙을 포기하고 가용 병력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 체제였기 때문에 전선이 무너지면 후방이 일시에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류성룡도 제승방략이 경상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시정되지 못하였다. 그는 제승방략이 여진 토벌 같은 국지전에서는 이미 지역 실정을 고려한 분군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방어 지역이 넓은 영남에서는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다. 그의 우려대로 일본과의 전면전에서 제승방략체제의 폐해를 가장 먼저 당한 곳은 경상도였다.

군역제의 변동으로 인한 군사 수의 감소를 반영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종래 경상도는 김해, 대구, 상주, 안동, 진주 등 6개의 진관이 적과 대치하고 있어 한 진이 무너지면 다른 진이 대신하여 싸움으로써 일시적인 붕괴의 위험은 적었다. 그러나 군역의 포납화(布納化)와 지방 수령들의 부패로 방군수포(放軍收布)와 대역납포(代役納布) 현상이 일반화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림(士林)들은 납포제(納布制)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포(布)의 불법적인 징수와 피역(避役)으로 인한 모순 때문에 선조 연간에 이르면 군사는 편제상에만 존재하고 실병력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병란을 통해서도 총체적인 군정의 문란을 지적할 수 있으며, 군사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 ① 군사를 군사 목적 외에 사용하는 문제 - 자신의 집을 짓는데 군사를 이용
- ② 수군을 개인 연못(제연)을 축조하는데 동원
- ③ 군사 운영상의 문제로서 번상(番上)의 거리가 먼 것으로 인한 고통, 불편
- ④ 조선 전기 수군(水軍)의 과다

경상우도의 경우 연해안 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수군의 숫자가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 지역을 지키기 위한 영진군(營鎭軍)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다. 이것은 육전(陸戰)에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조선 전기의 방어 체계가 북쪽의 여진 토벌과 남쪽의 왜구 침략에만 대응하여 편성한 결과 때문이다. 이것은 육지에서 전면전이 전개될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 (3) 군사 수의 감소

조선 전기 전국의 군역 자원은 성종 연간에 정군(正軍) 13만 명, 봉족(奉足) 33만 명 합계 50만이었다. 급속한 군사 수의 증가는 세종·세조대의 군사제도의 정비 때문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였기 때문에 양인 이상은 모두 군역 부과 대상이었다. 그러나 조선 전기의 군사 수는 1509년 301,280명이었다가 임진왜란 직전에는 199,407명으로 축소되었다.

〈표9〉 조선 전기 전국의 군사 수 변화

구분	정군(正軍)	잡군(雜軍)	봉족(奉足)
1477	134,970		332,746
1509	177,322	123,958	
1523	186,091	125,074	
1525	186,691	125,071	
임란전	145,620	53,787	

이것은 15세기의 보법(保法)에 따른 군역제의 근본적인 변경 때문이었다. 노비, 승려로 인한 병역 감소, 양인들의 유리·도망으로 인한 군역 자원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방어상 전체 군대를 유지하려 하였고 이에 번가(番價)의 징수를 위해 족징(族徵), 인징(隣徵)이 적용되면서 군역 체제는 붕괴 직전에 있었다. 조선 전기 경상우도의 전체 정군은 1454년에 11,408명이었다. 그중에서 영진군(營鎭軍)은 1,323명뿐이며, 선군(船軍)이 8,336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경상도가 해안 방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군사 편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상좌도와 우도의 군사 수는 1454년에 11,287명과 11,408명으로 합계 22,695명이었다. 1477년 경상도의 정군은 35,517명, 봉족 94,810명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종 연간에는 10여만 명의 군사 중 2만여 명만 파악되고 있다. 이것을 당시 방어해야 할 33개소에 3교대로 나누면 1개소에 겨우 100명씩만 할당될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실제 군사 수는 8천여 명뿐이었다. 이처럼 실제 군사 수와 국가에서 파악한 군사 수는 1/10에 불과하였다. 한편 선조 초년 경상도의 정호(正戶)는 7만, 술정(率丁)은 20여만으로 파악되었지만 문제는 허수가 여전히 많았다는 점이다.

군역의 허수로 인한 징수 때문에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민의 발생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처럼 군역의 허수는 실제 군사 수의 허실을 초래하였다. 군역이 각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백성들의 도망 때문이었다. 경상좌도 언양현의 경우를 보면 1454년 시위군(侍衛軍) 7명, 영진군(營鎭軍) 44명, 선군(船軍) 156명으로 207명의 군사가 있었으며, 1567년에는 원호(元戶) 249호에 원정(元定) 996명이었으나 실제 507명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군역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국지적 현상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지방 군·현의 호구와 군역이 감소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망자의 쇄환(刷還)을 강행하였지만 선조대로 내려갈수록 군적은 더욱 허구화되었다.



## 4. 임진란과 의병

### 1) 의병의 의미

일반적으로 의병이라고 하면 국난에 즈음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적과 싸운 민병(民兵)을 말한다. 그러나 기존의 민병에서는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에 대해 광의의 민병이라는 개념보다는 협의의 충의군(忠義君)으로만 이해해 왔다. 조선 시대 16세기의 과도기성을 이해한다면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은 의병 운동에 참여해 활동한 상하 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민병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의병의 개념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진란 시기의 의병은 정규군인 관군 이외에 승군(僧軍)등을 넓은 뜻으로 의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병장을 중심으로 양반, 상민 또는 천민으로 구성되는 의병과는 구별·호칭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155)</sup>

사전적 어의로서 의병의 개념은 의병은 폭도를 금하고 난리를 구하는 자이며 관병이 아닌 지방민이 단결하여 무기를 스스로 조달하고 관의 봉록(俸祿)을 받지 않고 국토 방위를 맡은 자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서 이러한 의미의 의병 개념이 뚜렷해진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였다. 그 이유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성리학(性理學)이 학문으로 뿐만 아니라 민간 생활에 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실제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 성리학의 이념에 충실한 성리학자들 주도로 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임란시기 의병 운동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병의 자발성(自發性)과 자립성(自立性) 활동목표, 창의동기(倡義動機)를 검토해야 한다.

① 의병의 자발성과 자립성의 측면이다. 의병과 관군을 나누는 기준은 자발성이 중요하였다. 의병은 관권에 의하지 않고 자모(自募)에 의한 것이었고, 관군은 수령의 조발(調發)에 의한 것이었다. 의병은 관군이 아닌 의병장의 지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관군에 비하여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편 의병은 소모(召募) 방법에 따라 자모의병(自募義兵)과 소모의병(召募義兵)으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임란 시기에는 초유사(招諭使)<sup>156)</sup>에 의한 소모 의병도 많았으며 소모(召募)에 의한 강제성을 띤 경우도 간혹 있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전자의 경우가 본래의 의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병들은 원칙적으로 무기와 군량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며,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② 의병의 활동 목표나 창의 동기의 측면이다. 이런 입장에서 의병은 향토를 중심으로

155) 최영희, 「임란의병의 성격」, 『사학연구』 8집, 1960.

김강식, 전계서, 147쪽.

156) 초유사(招諭使) : 조선 시대 임시 관직으로 난리가 일어났을 때 백성을 불러 모아 타일러 안정시키는 책임을 맡았다. 임란 초기 학봉 김성일은 초유사로서 활약이 매우 컸다.

한 지역 방위에 목표를 둔 향병(鄕兵), 한성 수복 및 실지(失地) 회복에 목표를 둔 국가 방위적 성격을 띤 충의군(忠義君)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영남지방과 함경도의 의병 활동을 지적할 수 있고, 후자는 호남 지방의 의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일본군의 직접적인 침입을 받으면서 기병(起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임란시기의 의병은 해당 지역의 사정에서 일차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형성·활동한 지역 방위군, 즉 향병이었다. 그 단적인 예는 의병 운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경상도와 함경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경상우도는 일본군의 최초 침략지였지만 어느 지역보다 의병 운동이 빨리 일어나고 적극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의병 운동을 선도하고 국난 극복에 기여하였던 지방이다. 아울러 경상우도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성리학이 보급되어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의 향당적인 기반이 광범하게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경상우도의 의병 운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임란 의병 운동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함경도는 왕조로부터 지역차별을 받았던 지방이지만 의병 운동이 전개된 것은 지방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의병과 개념의 차이가 약간 있는 향병(鄕兵)의 역사적 유래와 조선 시대의 향병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로 한다. 임란 시기의 향병은 중국사의 향병이란 개념과 차이가 있었다. 조선은 중국(송나라)과 같이 상시적인 제도로서의 향병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조선 후기에 향병이 지방에서 번상하는 군병(軍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향병과 관련하여 주목 할 사실은 류성룡이 군제 개혁에서 향병제의 실시를 주장한 점이다.

## 2) 전국의 의병장

왜군의 속전속결 침략 전쟁으로 선조 국왕이 도성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에 전국은 혼란 속에 빠지고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대항했다. 그동안 손쉽게 조선 관군을 격파했던 이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의병들로 인하여 조선 정복의 꿈을 쉽게 이룰 수 없었다. 이때 국왕은 의병장의 전공에 따라 벼슬을 주고 격려하였고, 전란 수습과 동시에 공신 책봉에 나섰다. 호남의 고경명(高敬命), 김천일(金千鎰), 영남의 광재우, 정인홍, 호서의 조헌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이에 관군과 의병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고 수신(帥臣)들이 거개가 의병장과 화합하지 못했는데 다만 초유사 김성일이 중간에서 요령있게 잘 조화시켰기 때문에 영남의 의병이 그 덕분에 대우를 받아 패하여 죽은 자가 적었다.

국왕이 도성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호남 의병장 김천일이 의병을

거느리고 북상하였다. 3도의 군사가 무너진 뒤로부터 도성으로 향하는 주변에는 완전한 살육과 노략질을 당했는데, 적에게 붙좃아 도성에 들어간 자도 많았다.

김천일이 의병 수천 명을 규합하여 도성을 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국왕은 그를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임명하는 동시에 창의사(倡義使)라는 칭호를 내렸다. 김천일의 의진이 수원에 이르러 독산고성(禿山古城)에 웅거하여 적에게 아부한 간민(奸民)을 잡아 목을 베니 돌아와 따르는 기호 지방의 사민(士民)들이 많았다.

곽재우(郭再祐)는 의주와 제주 목사를 지낸 곽월의 아들로써 일찍이 과거 공부를 그만 두고 19세부터 지혜를 익히고 병서에 통달했다. 27세 때 아버지를 따라 중국을 다녀왔고, 41세 때 임란이 일어나 의병 활동을 시작하였다. 46세 때 정유재란이 일어나 방어사의 직을 띠고 창녕의 화왕산성을 지켰으며, 48세 때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에 부임했다. 62세 때에는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전 이조참의 이정암이 황해도에 의병을 일으키니 왕세자가 그를 초토사로 임명하여 연안성을 지켰다. 왜병과 싸운 전공으로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제수되었다.

전 동래부사 고경명(高敬命)은 광주(光州)에 살다가 적이 도성에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류팽노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라도 사람에게 격문을 보내었다. 당시 60세의 연로한 문관이었으나 주위의 추천으로 의병장이 되어 의병 6천명을 모집했다. 전라도 지역 여산, 진산, 금산으로 진영을 옮겨가며 왜병과 전투를 벌였다.

조헌(趙憲)은 처음에 수십 명의 유생과 뜻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뒤 공주와 청주 사이에서 장정을 모집하였으며, 순찰사와 수령이 관군에게 불리하다고 반대하는 것을 설득하였다. 청양 현감 임순, 공주 목사 허욱이 영규대사로 하여금 승군을 거느리고 조헌을 돕게 하였다. 조헌은 청주, 온양, 서원, 금산 등지에서 전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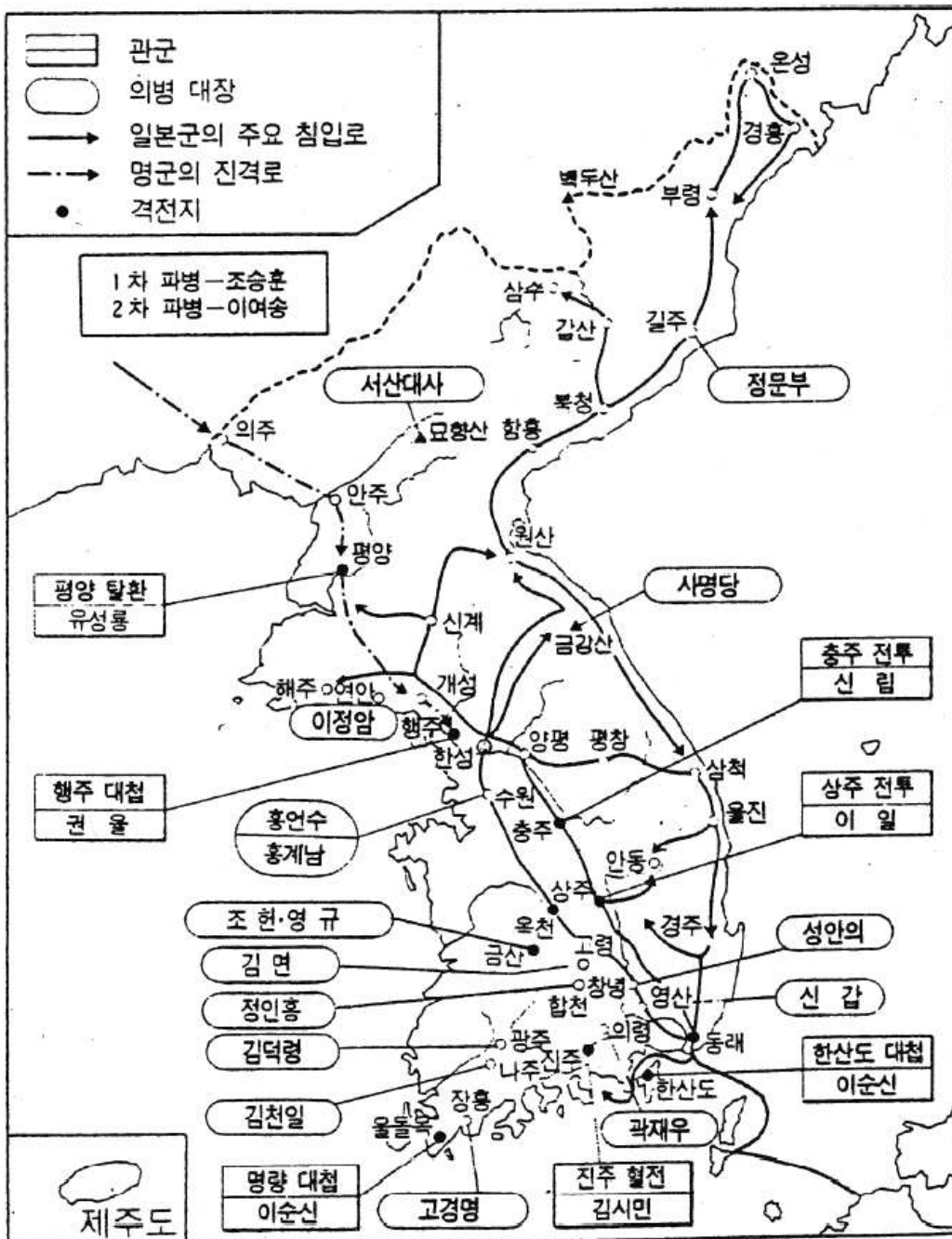
임진란에 있어서 비록 전과는 올리지 못했지만 관군으로 충주 전투 신립, 상주 전투 이일, 진주 혈전 김시민, 행주 대첩 권율, 평양 탈환 류성룡, 명량 대첩·한산도 대첩 이순신의 공적을 거론할 수 있다. 임진란 제3기에는 명나라의 참전으로 왜병들이 남해안으로 물러났다. 의병장들은 함경도 길주의 정문부, 금강산의 사명당(승군), 창녕의 성안의, 영산의 신갑, 광주의 김덕령, 고령의 김면, 수원의 홍언수, 홍계남, 묘향산 서산대사(승군) 활약이 있었다.

### 3) 관직의 제수와 통제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의병장들은 초기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직을 제수 받고 관군이 되었다. 임진란이 경과되면서 전쟁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국가의 통제

를 받지 않는 의병이 문제시되었다. 봉건 왕조의 입장에서는 단일 통솔권의 확립이 절실한 과제여서 이것이 의병의 관군화로 나타났다. 임진란의 의병장들은 대부분 관직을 제수받았고 그 시기는 1592년 전쟁 초기부터 1598년까지이다. 초기에는 국가에 의한 의병 장려책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후기에는 의병 통제 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지도5> 왜적의 침략 경로와 각지 의병의 봉기 지역



(자료 : 박희봉, 상동.)

〈표10〉 전국의 주요 의병장

이름	기병처 (起兵處)	창의(倡義) 시기와 직역	창의 후의 제수 관직(부임 시기)
곽재우	의령	1592.4 유학(幼學)	유곡 찰방(임진 6), 형조 정랑(임진 7), 절충장군 겸 조방장(임진 10 부임), 성주 목사 겸 조방장(계사 12), 진주 목사(을미), 방어사(정유)
김면 (金沔)	고령	1592.5 전 좌랑	합천 군수(임진 6), 장악원정(掌樂院正, 임진 10), 경상우도 병사(임진 11 부임), 의병도대장(계사 1)
정인홍 (鄭仁弘)	합천	1592.5 전 좌랑	진주 목사(임진 6), 제용감정(濟用監正, 임진 7), 성주가목(星州假牧, 임진 8), 의병대장(계사 9), 성주 목사(을묘 9), 향병장(鄉兵將, 정유)
권응수 (權應銖)	영천	1592.5 전 훈련봉사 (訓練奉事)	경상도 병마사 겸 방어사(임진 10 부임), 밀양 부사(병신)
고경명 (高敬命)	광주	1592.6 전 부사(府使)	공조 참의 겸 초토사(招討使, 임진 8 부임)
김천일 (金千鎰)	나주	1592.6 전 부사(府使)	장례원 판결사(掌禮院判決事) 겸 창의사(倡義使, 임진 8 부임), 의정부 좌찬성(계사, 추증)
조현	옥천	1592.6 전 제독관(提督官)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 임진 8 순절), 가선대부 공조 참판 겸 동지경연 춘추관 의금부사(임진 12 추증)
정문부	종성	1592.7 전 제독관	북도병마평사(北道兵馬評事, 임진 7 부임), 길주 부사(계사 1)
이정암	연안	1592.8 이조참의	해서 초토사(海西招討使, 임진 8 부임), 해서 순찰사(임진 9)

(자료 :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 운동』, 해안, 2001, 182쪽.)

주요 의병장들이 관군이 협조·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직접적으로 관직에 제수되고 난 이후부터였다. 이러한 모습은 의병장들의 출신 지역과 의병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랐지만 대부분의 의병장들은 관직 제수를 거부하지 않았다. 의병에 대한 관군화 조치가 있자 김면, 최경희 등 상당수의 의병장들이 관직을 수용하였으며, 휘하의 의병들도 관군에 편입되었다. 1594년 4월에는 여러 도의 의병을 없애고 김덕령에게 익호장(翼虎將)이란 호(號)를 주어 의병을 일괄적으로 소속시켰다. 이후 의병의 독자성을 상실되었고 김덕령에게 소속시킨 의병의 수는 수천에서 수백 명으로 감소되었고, 이것도 군량의 조달이 불가능하여 많은 수의 의병을 강제로 귀농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무엇보다도 의병이 반란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의병장에게 관직을 제수한 시점이 소모의병(召募義兵)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1592년 6월 이후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치가 초기 순수 의병 운동을 근왕병(勤王兵)으로 변질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생존을 우선시하면서 의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병의 하층부는 의병 집단에서 점차 이탈하였다. 의병장과는 달리 의병의 주축이었던 의병 하층부민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아 반침략 운동에서 반관(反官)적 운동으로 방향이 바뀌고 1594년부터 1596년 사이에 각지에서 전개된 반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의병 해체에 앞서 의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의병에 대한 국왕(선조)의 부정적 평가이다. 의병을 외침 극복위한 동력으로 파악하던 입장에서 불과 반년 만에 봉건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초기 의병장들은 각 도 또는 군·읍에서 명망 있는 인물로서 향촌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졌으나 후기에 이르면서 의병을 사칭하고 우후죽순처럼 의병을 일으키고 사리를 채우는 사이비 의병장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임란 당시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비변사(備邊司)의 대신들도 의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항복(李恒福)은 의병을 관작이나 탐내는 무리라고 극단적으로 평가하였다.

의병 해체를 위한 첫 번째 조치는 1592년 11월 남방의 의병을 우성전(禹性傳)으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고, 이어서 1593년에 경기·충청·전라도의 의병을 권율에게 예속시키거나 각 순찰사로 하여금 통솔하자는 논의가 거듭되었다.

#### 4) 관군과 의병의 갈등과 조정

임진란은 우리 민족이 당한 가장 큰 국난이었다. 이 국난을 극복한 주체는 그 당시 정규군인 관군과 구원군인 명군보다도 민중의 의용군인 의병이었던 것이다. 임란이 시작되면서 국방을 담당하던 관군은 쉽게 붕괴되어 전국토가 왜병의 점령 하에 들어가게 되니 지방 의사들이 솔선하여 창의(倡義)하고 백성들이 이에 호응하여 왜병 정벌에 앞장서서 침략군을 물리치고 국토를 보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학봉 김성일은 임란기 나라가 매우 위급한 최전선 영남우도에서 초유사와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구국 활동에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퇴계의 수제자로서 안동 임하현 출신이다. 그는 승문원, 예문관, 춘추관, 경영관 등 요직을 역임하였고 특히 영남 사람의 숭상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의병 봉기에 힘이 되었고 관군과 의병간의 대립에 있어서 융화·화합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정계에서 그는 동인(東人)의 수장적인 위치에 있었다. 통신부사로 일본에서 돌아온 김성일은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선조 25년 임란직전에 형조 참의에 특배되었고, 4월 11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임

란이 일어나자 통신사 일에 전세 보고를 잘못된 건으로 55세 때 나명이 우역편으로 전해 지자 창원에서 스스로 한양으로 가던 중 충청도 직산에서 갑자기 경상우도 초유사로 임명되었다.<sup>157)</sup>

임진왜란 발발과 함께 관군이 맥없이 붕괴되고 흩어지자 각지에서 창의 거병한 의병진이 왜군 격퇴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따라서 의병장들의 활약이 커지자 지방의 군수권을 가진 감사와 병사(兵使)가 서로 의병진을 시기하고 견제하려는 갈등이 없지 않았다. 경상우도에서 침예하게 대립된 것은 의병장 곽재우와 감사(監使) 김수(金睟)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의병장 곽재우는 전쟁이 일어나자 4월 24일 의령에서 전국 최초로 거병하여 많은 공로를 세웠다. 무엇보다도 의령에서 낙동강의 정암진은 막아 왜군이 곡창지대인 호남 지방으로 진출 못하게 한 것은 임란기의 큰 공로라 할 수 있다.

경상 감사 김수는 경상도의 병권을 장악하고도 왜군을 맞아 피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열읍에 공문을 보내 의병장에게 예속된 군병을 많이 빼앗아 갔다. 그래서 의병진이 붕괴할 지경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곽재우는 공문을 보내 김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이 격문을 받아 본 감사 김수는 주저하다가 자구책으로 곽재우는 역적과 다름없다고 정부에 보고하였다. 의주에 가 있던 비변사의 관원들은 경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알 수가 없었고 오히려 곽재우를 의심하기도 했다. 국왕 선조는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김성일에게 조정하도록 했다. 김성일은 양자에게 서신을 보내어 서로 화의하기를 강력하게 권했는데 이 때 김수는 근왕(勤王)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기도 용인까지 갔다가 패배하자 그에 대한 분노가 한층 높아졌다.

김성일은 장계를 올려 곽재우에 대한 의심을 풀게 하고 김수는 즉시 근무지 영남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결국 두 사람은 화해가 되었고, 이어서 곽재우는 김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을 격퇴할 수 있었다. 조정에서는 의병장 정인홍은 제용감정으로, 김면은 함천 군수, 박성은 공조 좌랑, 곽재우 유곡 찰방으로 제수하여 전공을 표상하였으며, 판관 김시민을 발탁하여 진주 목사로 임명하였다.

157) 여기에는 좌의정 류성룡과 대간 최현 등의 적극적인 해명이 작용했다.

## VI. 오봉의 의병 활동과 지원

### 1. 오봉의 충효사상과 구국정신

#### 1) 효제충신(孝悌忠信)

오봉 선생의 부모와 동기 가족 등에 대한 효와 애정은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1569년 12월 선생이 8세 때에 어머니 박씨의 상을 당하면서 몸이 야월 정도로 슬퍼하는 것이 어른과 같았으며 태어난 지 겨우 10개월 된 어린 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직접 유모를 구해 젖을 먹였다. 남들이 힘들어 가기 꺼려하는 예안 현감 자리도 본인이 퇴계 선생에 대한 추앙심도 있었지만 그 인근에 고향과 부모가 계셔서 모시기 위함이었다. 임란 초기에 고향(의성 봉양 천동)에 살던 형님(신지효)이 일본군에게 살해된 후 어린 조카를 종손 대접하면서 성장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보살폈으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1607년 아버지 좌승지공(신몽득)의 상을 당하여 7월 비안현에 장사지내고 3년 동안 여막살이를 했다. 오봉은 1618년 7월에 구미에서 초가를 지어 거처를 마련했으며, 평소 본인이 풍비(風痺)를 앓고 있었는데 계모 오씨와 같은 시기에 병환이 심했으면서도 어머니의 병환을 걱정하였다.

오봉 신지제는 집안에 있을 때는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삼았고 몸가짐은 충신(忠信)을 위주로 하였다.<sup>158)</sup> 관직의 고저(高低)와 난편(難便)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가까이서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오봉은 스승 유일재 김언기의 사후에는 학본 김성일을 높은 산처럼 공경하고 섬기면서 따랐다. 이에 대한 부분은 학봉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과 「청량산유람록」(조사보고)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613년 창원 부사에 제수되어 5년 이상 역임하다가 1618년 체직되어 고향으로 귀환했고, 창원 부사 때에 지은 시(檜山雜詠)에는 창원 지역의 풍습과 백성들의 고달픈 삶, 그리고 군주에 대한 연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회산잡영」에는 오봉의 애민의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시가 매우 많다. 그 내용 중에는 추위 때문에 물도 못 길고 아침밥도 못 짓는 힘든 현실을 고발하면서 변방이라 왜구의 재침을 방지해야 하는 실정과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경감 없는 세금으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오봉은 이러한 현실을 대궐에 알려 구제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였다.

158)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 연구원, 2019, 179~211쪽.

『오봉 선생문집』 권2, 한국국학진흥원, 2019. 「오봉선생연보」 참조.



오봉은 재임 시에 세 사람의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가장 오래 재위한 선조 임금은 임진란 시기가 포함되었고, 오봉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켜 선조에 의해 공신으로 책봉되었고, 1609년 2월 선조가 승하하자 여막 문을 나가 서쪽을 바라보고 통곡했다. 광해군에게는 크게 따르지 않았지만 선조 사후 관직을 제수 받았다.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축출된 소식을 듣고 한양 도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직 인사를 하고, 예상했던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인조 즉위 때에도 승지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건강 때문에 사직 상소문을 보냈는데 일부에서는 광해군을 축출한 인조가 내린 벼슬을 거부한 것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忠臣不事二君]’이라는 전통적인 선비 정신과 비교하기도 한다.

## 2) 퇴계학에 몰입된 오봉의 구국 정신 실천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가 경상북도의 도내 9개 지역에서 개최한 학술 논문을 정리한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1절에 의하면 각 논고마다 일관되게 임진란을 극복한 원동력이 주자학의 실천 정신인 동시에 조선 유학 사승관계(師承關係)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sup>159)</sup> 16세기 중후반에 형성·전개되어 임진란을 극복한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퇴계학맥의 영남학과도 앞서 언급한 선대 유학에 연원을 두고 있다. 임진란기 퇴계의 직전제자(直傳弟子)인 류성룡은 영의정에 재직하면서 국정을 주도하였지만 특히 대부분의 신료들이 주장했던 선조의 명나라 몽진(蒙塵)을 극구 반대하여 관철시켰고, 명과 일본이 밀약한 대동강 기준 남과 북을 분할 점령을 막아냈다.

학봉 김성일은 초유사의 명을 받고 경상도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 의병 창의를 독려하여 의병이 봉기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술한 경상도 관찰사 김수와 의병장 곽재우 간의 대립을 중재·해결하였다. 안동 지역의 경우 퇴계학의 발흥지인데 퇴계학의 주리론적(主理論的) 사유(思惟)는 궁극적으로 도덕 실천의 기반이 되는 마음의 수양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실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퇴계학은 주자학에 비해 한층 더 심학적 경향(心學的傾向)을 가져서 마음 공부를 중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천에 목적을 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퇴계학을 이은 대표적 인물이 류성룡과 김성일이다. 이들은 출사한 이후 평생 관직생활을 통해 도덕정치를 구현하였으며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목숨을 건 실천 정신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실참여 보다는 성리학적 사유를 통해 심학(心學)에 침잠했던 예안 지역 제자들은 주로 목숨을 건 의병 활동을 통해 퇴계학의 실천 정신을 구현했다.

오봉 신지제와 류성룡 및 김성일과의 관계와 교류는 앞서 수차례 언급했다. 오봉은 이

159) 노진환, 「축간사」,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8, 18~23쪽.

두 사람의 선현을 통해 퇴계학을 배웠고, 또한 예안 현감 부임이후 임진란 기간에도 퇴계의 늙은 제자들과 교유 및 전시하에서도 빠짐없이 도산서원의 강학을 통하여 퇴계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 받았고 4년 7개월 동안 예안 현감을 연임하면서 이웃 안동 지역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오봉이 예안, 안동, 의성 지역을 중심으로 서애와 학봉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특히 예안을 시발점으로 하여 유학과 학맥을 이용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국난 극복에 앞장을 서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 의병 활동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 2. 군사적으로 본 예안(현감)과 안동(부사)

임진란이 국제 전쟁으로 확산되는 과정인 초기의 조선 침략 시기에서 보면 경상좌도 북부지역에 속하는 안동과 그 인근 지역은 일본군의 중요 침공로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안, 안동에서 의병 창 의가 활발하였고 일본 전국 시대 무장 중에서 최강이라고 언급되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주력이 울산으로 후퇴하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던 주요 군사 지역이었다. 일본군의 주력 중에 1군은 평안도, 2군은 함경도를 침략한 부대이다. 안동 지역에서 2군의 후방을 요격하지 않았다면 1군과 합세하여 경기도를 위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란의 와중에 안동도 참화가 비껴간 지역이 아닌 주요 격전지였음을 말해 주는 사례이며, 안동 지역의 임란사 연구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배경일 것이다. 임진란기 안동 지역에 대한 연구는 관군의 대응과 의병의 소모(召募) 및 전투양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임진란이 7년이라는 장기권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군대와 전투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쟁의 공간이었던 지역의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고 운영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임진란에서 경상도는 일본군이 최후까지 울산을 근거로 저항하다가 퇴각한 지역이다. 더욱이 명나라 군대까지 주둔하게 되면서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는 국제전을 치르는 양상까지 보이게 된다.

### 1) 진관 체제(鎭管體制)와 관방(關防)

안동은 조선 왕조의 개국기부터 대도호부(大都護府)로 경상도의 대표적인 행정, 군사 거점도시였다.<sup>160)</sup> 안동의 지역적 위상은 세조 2년(1457) 지방 군사 조직으로 진관 체

160) 이왕무, 「임진왜란기 안동 지역 지방관과 관군의 역할」,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8, 474~487쪽.

제를 정비하면서 재확인된다. 진관 체제는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가 관할하는 주진 아래에 첨절제사(僉節制使)가 관할하는 몇 개의 거진(巨鎭)을 두고 그 밑에 절제도위(節制都尉), 만호(萬戶)<sup>161</sup> 등이 관할하는 여러 진을 두어 유기적인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전국 행정 단위인 읍을 군사 조직 단위인 진(鎭)으로 편성해 그 크기에 따라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으로 나누어 각 읍의 수령이 군사 지휘관을 겸하는 것이다. 도마다 진관 조직 들을 갖추어 도내의 군사들을 가까운 진관에 소속시킨 다음 유사시에 각 진관의 수령이 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의 방어 체제가 무너지더라도 인접 지역에서는 대적견수(對敵堅守)할 수 있는 방어 체제이다.

한편 경상도는 1407년(태종7) 낙동강을 경계로 낙동과 낙서로 분도된 뒤 1436년(세종18) 도절제사가 파견되어 군권을 지휘했다. 경상좌도 병영은 1417년 경주에서 울산으로 옮겨진 뒤 존치되었다. 경상좌도의 병영은 조선 전기 내내 울산에 있었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경상도는 안동진을 비롯하여 경주진, 상주진, 진주진, 김해진, 대구진의 6개의 거진이 있었다. 안동진은 영해, 청송, 예천, 영주, 풍기의 5개 고을을 관할하였다. 안동 진관을 지휘하는 부사(府使)는 정 3품관으로 병마첨절제사가 겸임하였으며, 판관(判官) 1명이 보좌하였다. 진관의 군사는 번차(番次)에 따라 도성에 상경, 숙위(宿衛)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평상시에는 안동의 방어를 담당하는 유방병력(留防兵力)이었다. 안동 진관은 영해와 청송의 도호부(都護府), 예천·영천(영주 : 榮川)·풍기 등의 군(郡), 의성·봉화·진보·군위·비안·예안·영덕·용궁 등의 현(縣)이 소속된 체제였다.

조선 전기 세조 즉위 초에 안동이 관할하던 지역을 좌향으로 구분하였는데 중익은 의성·의흥·진보·예안·청송·용궁·비안이며, 좌익은 봉화, 우익은 순흥·예천·풍기·영천(영주)이었다. 1457년(세조3) 재차 진관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진관 체제를 갖추기 위한 시도였다. 안동진에는 풍기·영천(영주)·봉화·의성·예안·진보·청송·군위·비안을 속하게 하고, 상주진(경상우도)에는 선산·개령·금산·함창·용궁·문경·예천을 진관으로 배속시키는 조정이었다.

군제 개혁이 활발하였던 세조대의 지방군은 장기적인 훈련을 시행하였다.<sup>162</sup> 1월과 11월에 행하는 진법 훈련과 무예 훈련, 활·화살·갑주 등 병기의 제조와 정비, 관할 지역 안의 읍성과 수축이었다. 이에 따라 안동 부사는 지방군의 무예를 훈련시키고 진법을 훈련시켜야 했다. 조선 정부에서도 임진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안동부를 비롯한 일본군의 공격 방향이 될 수 있는 경상도 각지의 읍성들을 수축하고 방어 시설을 구축하였다. 특히 당시 안동부는 내지(內地)로서 성이 없었다. 경상도 내지에서 성이 없는 곳은 안동

161) 종4품의 무관, 만호·천호·백호 등은 본래 그 관령하는 민가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고려 때부터 마련된 벼슬, 병마만호와 수군만호가 있다.

162) 이왕무, 전계 논문, 476~477쪽.

부 이외에도 대구부, 청도군, 상주목, 성주목, 삼가현, 영천군, 경산현, 하향현이었다. 안동부의 성은 민간인들을 징발하여 수축하였고, 전쟁 발발 1년 전에 관 주도로 읍성이 갖추어지고 외침에 대비하였다.

## 2) 초기 전황과 행정조직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1585년 7월 일본의 최고 권력자로 등장하였고 1587년 일본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하면서 100여 년간의 전국시대를 마감하였다. 동시에 조선의 복속과 명나라 정복의 구상까지 진척시키면서 대마도 번주(藩主)에게 조선 국왕의 알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선을 공격할 것을 통보하였다. 임진란이 1592년 4월 14일 발발하고 경상도 좌우 병영의 군사들이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 소집될 때 안동부에서도 군대가 동원되었다. 안동 진관 소속의 군사들이 신속이 동원되어 4월 17일 저녁에 선발대가 영천을 지나 경상좌병을 향하여 이동하였고 18일에는 본대가 후속하였다. 특히 안동 진관에서 출동하였던 군사들은 석전군(石戰軍)이라 불리는 투석(投石) 전문의 정예 부대로서 1555년(명종10)에 발생한 을미왜변에 동원되어 큰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조선군의 방어 계획은 경상도 자체 병력으로 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횡적으로는 조령을 중심으로 죽령-조령-추풍령을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종적으로는 이일-신립-류성룡으로 이어지는 방어 전략이었다. 안동부는 이런 전황 속에서 일본군 정예 부대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군 제2군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부대는 4월 21일 대구를 점령했다. 이들은 양산-언양-경주-영천-신녕-군위-비안-용궁-문경-조령 등으로 이동하여 26일에 풍진(豊津)을 건너 제1군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합류하여 결국 침공 20여일 만인 5월 3일에 도성을 함락시켰다.

이러한 전쟁 참화의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안동부에서는 부사 정희적(鄭熙績)이 안동 읍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상좌도에서는 정희적만이 아니라 경상좌병사 이각(李珪) 수사 박홍(朴泓), 방어사 성응길(成應吉), 조방장 박종남, 변응성 등이 모두 근왕(勤王, 왕을 보위)을 핑계로 진을 버리고 도망갔다. 정희적은 처자를 거느리고 함경도 길주까지 도망쳤고, 조방장 박종남은 의성으로부터 사잇길로 해서 안동 풍산으로 후퇴하면서 창고를 모두 불사르고 갔다. 이일과 신립이 상주와 충주에서 각각 일본군에게 참패한 소식을 듣고 4월 30일 선조가 도성을 떠나 북으로 피난을 떠나자 지방 관원이 동요하며 자리를 뜨면서 초유의 행정 공백과 마비를 가져왔다.

안동 부사 정희적이 도망간 상황에서 부내 관원들이 동요하여 정부는 예안현을 지킨

신지제를 1592년 5월 안동 부사를 겸하게 했다. 부사가 도망가면서 성내 창고들의 군기와 곡식들을 분배하여 적을 상대할 군병의 모집도 수비 할 군기를 갖추어 여력이 없었다. 특히 군량이 분탕된 실정에서 일본군을 상대할 물력이 없어서 결국 안동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안동 인근 예안 현감 신지제가 군병을 인솔하여 일본군을 상대하면서 안동의 군병이 합세하였으나<sup>163)</sup> 패하였기 때문에 인근 군현의 관군도 안동을 응원할 형편이 못되었다. 일본군의 전격적인 이동은 안동을 비롯한 경상도 전체가 정상적인 행정망을 동원하여 군대를 모집하고 적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적의 주력은 한양으로 향하고, 안동, 예안은 소규모 분견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신지제는 예안, 안동의 관민을 중심으로 의병을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왜적을 몰아내는 작전을 세울 수 있었다.

### 3. 신지제의 의병 대책 건의문 -1593년 경상좌도 관찰사 한효순-

임진란이 일어남과 거의 동시에 전국적으로 의병 조직과 활동이 전란 초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시기적으로 빨리 의병장이 아닌 지방 행정 관리로서<sup>164)</sup> 직접 예안현과 안동부를 지키면서 의병 조직을 이끈 신지제는 문무양면으로 직접 현장 경험을 한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의병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경상좌도 관찰사에게 직접 건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었다. 그 내용은 오봉문집에 실려 있다.

관찰사에게 올리다[上方白書], 계사년(1593)

삼가 아뢰옵니다. 겨울이 다가도록 적의 군대가 물러나지 않아 신민의 고통이 이미 극에 다다랐습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왜 이리 더딥니까. 사람들은 대세가 이미 기울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마련한 시책이 부적절했던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저처럼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비루한 소회를 짧게 진달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윗자리에 있는 분이 어찌 이를 분명하게 몰랐겠습니까. 다만 일찌감치 정책을 바꾸지 못해서겠지요. 게다가 고을 수령이 관찰사를 대할 때 저대로 체모가 있어 무례를 범하기 어렵기에 선뜻 말하지 못하고 주저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처리한 것을 보지 못해 성세(聲勢)가 갈수록 무너지고 줄어들고 있으니, 진실로 체통을 잃지 않으려고 가슴 아픈 일을 느긋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아래에다 하나하나 열거하겠습니다.

첫째, 포상이 분명하지 못하여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하는 점입니다. 생각하건대 병

163) 상동, 484쪽.

신해진 역주, 『향병일기(鄕兵日記)』, 역락, 2014, 15쪽 이후 참조.

164) 『오봉 선생문집』 권2, 336~341쪽.

사들이 어찌 꼭 오학(烏獲 : 전국시대 중국 진(秦)나라 역사(力士))처럼 천 균(勻)의 무게를 들어 올릴 힘이 있고 신공인 궁예(窮羿 : 중국 하(夏)나라 사람)처럼 네 화살을 모두 정곡을 맞추는 솜씨가 있어야 날랜 병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든 스스로 분발하여 저마다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한다면 절름발이 병사라 할지라도 몽둥이를 만들어서 적의 단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상대하여 쳐부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조정에서 내린 사목(事目)을 보니 수급 하나를 벤 이는 급제의 자격을 하사하고 둘을 벤 이는 6품을 하사하며, 셋을 벤 이는 당상관에 임명하고, 왜군 장수를 벤 이는 가선대부에 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널리 알리자 군졸과 백성이 몹시 감동하여 분발하는 기상을 보였고 중앙의 관군과 지방의 병졸이 모두 분발하여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리를 조금 아는 사대부들이야 물론 관직과 포상을 기대하지 않으리란 걸 알지만 저 우매한 백성들은 어찌 모두 임금을 친애하고 상관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알겠습니까. 그저 공을 바라고 포상을 구하는 마음에 격양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사이 나라에서 공로에 보답하는 일이 전에 내린 사목의 취지와 너무 달라서 백성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대열을 수행하던 수령에게는 금띠와 옥관자의 명예가 돌아가지만 창과 칼을 맞으며 싸운 군사들에게는 미관말직의 은총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 장수의 공이 참으로 크지만 조정에서는 장수의 공만 알고 군졸들의 수고를 모릅니다. 공이 없는 사람이 위에 있고 공이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으니, 이에 군졸과 백성이 크게 실망한 데다 의욕마저 사라져 전혀 힘쓸 방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군사를 지휘하는 자가 “정예병을 얻을 수 없고 적의 군세를 감히 당해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입니다. 널리 알리자 군졸과 백성이 몹시 감동하여 분발하는 기상을 보였고 중앙의 관군과 지방의 병졸이 모두 분발하여 모집에 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리를 조금 아는 사대부들이야 물론 관직과 포상을 기대하지 않으리란 걸 알지만 저 우매한 백성들은 어찌 모두 임금을 친애하고 상관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알겠습니까. 그저 공을 바라고 포상을 구하는 마음에 격양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래에 영남 사람으로서 행재소에 달려간 이를 보았는데 선비에게는 관직을 제수하고 시골의 천민에게는 부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귀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니, 은총과 포상이 사람을 격동시킬 수 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적을 토벌하는 일이라고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께서는 이런 사정을 조정에 상세하게 아뢰었습니까? 아니면 조정에는 아뢰었지만 시행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까? 얼핏 듣기로는 관서지방에서 과거를 크게 실시하여 무예가 뛰어난 인재를 3,300명이나 선발한다는데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굳이 이런 식으로 할 것 없고 바로 전날에 정한 포상 규정대로 군졸의 노고에 보답한다면 과거 시험이 이처럼 구차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민심을 잃지 않으면 군졸들은 명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서로 격려하여 일어날 것이니, 정예병을 얻기 어렵다고 근심할 것이 없고 적의 형세를 당할 수 없다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관작은 중요한 기물이어서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된

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때에 어찌 관작의 경중을 따지겠습니까. 옛 사람이 출정할 때 성난 개구리를 보고 경의를 표한 것이 어찌 미물이 공경할 만하다고 여겨서 이겠습니까. 사기를 북돋우는 방법은 요컨대 이와 같을 뿐입니다. 병가의 말에 “후한 포상 아래 반드시 용맹한 장부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였으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둘째, 군율이 공정하지 못해 사람들을 승복시킬 수 없는 점입니다. 군령은 엄격함을 중시하여 죄가 가벼우면 장을 치고 무거우면 목을 뽑니다. 이는 군대를 출정시키거나 군사를 동원할 때 부득이 무거운 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군율은 지엄한 것이어서 죽어도 각오해야 함을 알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결국은 장수가 그때 사정에 맞게 완급을 조절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용궁(龍宮) 전투 때 달아나가거나 무너진 병사들은 군법으로 논한다면 다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유독 병사들의 죄일 뿐이겠습니까. 부산에서 패한 뒤로 장수와 병졸들 중에서 후퇴하거나 달아났다는 죄명으로 처형된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무지한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아무 장수와 아무 사람은 아무 곳으로 달아나 숨었는데도 처벌이 없었다고 하고서 이것을 예사로운 일로 여깁니다. 적을 마주쳐 다급할 때에 장수 가운데 간혹 불리함을 알고 일단 후퇴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병졸들은 “장수가 이미 물러났으니 우리도 달아나야겠다.”라고 하며 마침내 예전의 습성을 답습하여 까마귀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니 그 죄는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 정상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만약 한두 명의 목을 베어 군중에 효시한다면 군문의 위엄이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70여 명이 한꺼번에 중벌을 받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생기면 차라리 군율을 잘못 집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군졸과 백성에게 상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감사께서 그들의 죄명만 알고 아직 실정을 살피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굳이 논한 것 없습니다. 지금 여러 고을이 군대를 물린 뒤 저마다 책임자를 가두는 탓에 젊은 장정들은 전장에 나가고 노약자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남은 사람이나 출정한 사람이나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부모나 자식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부모나 자식이 없는 경우는 아내가 옥에 들어가고 남편이 변경에 출정하고 나면 집을 지킬 이가 없어 살림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날마다 사정을 호소하고 간혹 원망을 토로하여 모두가 “왜구에게 죽지 않으면 굶주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잠시 윗사람을 원망하는 말이겠습니까. 인정과 도리를 헤아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백성이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병사를 어디에서 차출하겠습니까. 비유하면 나무뿌리가 병이 들면 가지와 잎이 절로 시들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아무 소용없을 것이니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줄 수 없습니다. 현감이 일전에 이러한 뜻을 두어 차례 아뢰었는데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감이 그 폐단을 범범하게 여겨 상세하게 전달하지 않고서 오래도록 끌며 결단하지 않아서이니, 현감의 죄가 그야말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비장(裨將)<sup>165</sup>이 불필요하게 많은 점입니다. 대개 순찰사의 임무가 전투에

165) 비장(裨將) :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견외(遣外) 사신을 따라다니며 보좌하던 무

직접 참여할 수 없으니 군무를 점검하고 군영을 단속할 때 그 사령이 10여 명만 있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굳이 어리석고 흐리멍덩한 무리로 구차히 그 숫자를 채울 것 없으니 적을 토벌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창고의 곡식만 축낼 뿐입니다. 그 중에 어찌 용감하고 강개한 사람이 없겠습니까마는 적군 하나를 베거나 수급을 하나 바치는 이가 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구애되는 바가 있어서 아직 계책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각 역참은 인부와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고을은 군량 제공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여 무수한 정예병이 쓸모없게 되었고 그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사가 처음 모집할 때 마음이 어찌 이와 같이 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겠습니까.

넷째, 군비 확충을 늦추어선 안 되는 점입니다. 대개 여러 고을의 군장(軍裝)이 한번은 병화에 불타고 다시 전쟁 중에 흩어졌습니다. 다급히 다시 갖출 것을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인데, 지금 특별히 신칙하는 명령이 없고 무기고에 남은 수가 많지 않으니, 한번 거사한 뒤에 활과 화살이 거의 바닥나면 추후에 다시 거사하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 고을에서 또한 모두 성심을 다해 조달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나무와 부레풀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건대 대나무는 해변의 고을로 하여금 베어서 실어 나르게 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부레풀도 다른 도에 공문을 보내면 혹 구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일입니다.

아! 난리 초기에는 이 왜적을 여름에 토벌하지 못하면 가을에는 반드시 섬멸할 것이라고 여겼고, 가을이 되어서는 겨울이 되면 반드시 물리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가 저물었는데도 아직 서로 대치하여 결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들의 흉악한 모략과 은미한 자취는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에 계획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저들은 장구한 계책을 강구하는데 우리는 늘 임시방편으로 대충 넘기고 있으니 또한 계책이 가볍고 알지 않습니다. 지금 용궁과 예천지역에 매복을 설치하고는 느긋하게 세월을 보내고 소탕할 계책 없이 수고롭게 시일만 허비하고 있는 탓에 병사와 군량이 모두 피폐한 실정입니다. 장차 공무를 담당하려는 자가 모두 하나같이 “명나라 군대는 언제 오고, 서쪽의 적은 언제 돌아가려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명나라 군대가 오고 서쪽의 적이 돌아갈 기약은 없는데 병력이 고달프고 군량이 부족한 것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 앞으로 몇 달이 가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무익한 매복을 둘 것 없이 여러 군진의 병마를 크게 모아 결전을 벌인다면 이것이 상책이니 부로들은 지금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만일 아군의 역량을 살피고 적군의 형세를 헤아려 보건대 강약이 서로 같지 않아 쉽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책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좌도 중에 그나마 온전한 곳은 이 몇몇 고을뿐이니, 오는 봄에 유린당할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강 모집한 병사가 다시 흩어져 모으기 어렵고 힘들게 모은 군량이 거꾸로 도적을 먹이는 데 보탬이 되고 말까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험고한 지형을 선점하여



미리 대비할 장소를 마련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를테면 소백산(小白山), 청량산(靑涼山), 주왕산(周王山), 팔공산(八公山)등의 지역은 그 험고함이 거점으로 삼을 만한 곳입니다. 이때에 미처서 그 형세를 살피고 무기를 준비한 다음 근처의 군량을 이곳에 모아 끝내 범할 수 없는 형세를 구축해 놓고서 각 진으로 하여금 그 험한 곳을 나누어 지키고 서로 도움을 주며 때를 기다렸다가 거사하는 것도 혹 한 가지 방법인 듯합니다.

아! 국난이 몹시 다급하고 죽을 날이 닥치기에 졸렬함을 무릅쓰고 함부로 이와 같이 장황하게 말씀드렸으니 참으로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 4. 의병 조직 및 지원 활동

오봉 신지제(1562~1624)는 임진란의 의병과 관련하여 두 개의 공신, 즉 선무원종공신 1등과 호성원종공신 2등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다른 의병장(표10 참조)처럼 지명도가 높지도 않고, 기록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오봉 선생의 임란 공적이 『선조실록』 등에 실려 유명해진 것은 예안 현감 겸 안동 부사라는 관직에 있으면서 직접 의병장의 위치에 있을 수 없었고, 임란 전사하에 계속해서 예안과 안동일대에서 전시 행정, 즉 관군 통솔·의병 창의·지원·성곽 수축·주재 명나라 군사 지원 등 일상 업무가 임란전쟁과 직접 관련되고 있어서 따로 언급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임란 직후 경상좌도 북부 지역에서 예안, 안동을 중심으로 직접 의병 조직과 지원에 앞장을 섰고, 특히 예안의병 조직 직후 이웃 안동은 한 달 늦게 의병 조직화에 관여하였다. 물론 그 당시(1592.5) 공석중인 안동 부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안동은 안동별읍향병(安東別邑鄉兵)이라고 하여 의병 연합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안동 지역의 의병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열읍(列邑 또는 別邑)의 의병들이 8월 20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안동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인근 지역, 즉 예안·안동·의성·의흥·군위·비안 등지의 인사들이 안동 일직에 모여 의병조직을 연합화하고,<sup>166)</sup> 본진을 안동에 두기로 한 것이다. 오봉 선생이 직접 의병 전투에 앞장 선 것은 필자의 조사로는 용궁 지역 비안현·다인현, 의성, 군위 접경 지역 등 최소한 3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임란 직후 의병의 전투 활동은 6개월~10개월 기간이었는데 대부분은 안동별읍향병이 인근 지역(영천, 경주 등)까지 출전하였다. 이 지역의 의병 활동은 예안 현감으로 임란 기간 중 4년 7개월 근무한 신지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여기서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166) 1592년 9월에는 연합 분위기가 확산되어 영천, 함천 등의 의병진과도 합진하기로 했다. 안동진은 위에서 열거한 지역 이외에도 봉화·영주·풍기·청송·진보·영해·영덕을 포함한다. 이들 지역은 진관 체제상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학문적으로도 안동문화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 1) 예안의병의 조직

20만 대군을 이끌고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 바다에 도착한 왜병들은 4월 25일 상주를 함락하였고 또 4월 28일 신립 장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전사함에 따라 선조 임금은 도성을 비우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상주가 왜적의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안동 부사 정희적(鄭熙績)은 영천(永川)에서 도망을 오다가 조방장(助防將)을 만나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관인을 버리고 도망갔다.(1592.5.14.) 이 소식을 접한 안동 인근의 수령들은 죽음이 두려워 성(城)을 비우고 도망을 쳐서 행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sup>167)</sup> 그러나 예안 현감 신지제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을 지키며 치안 유지에 진력하였다. 임진란이 일어난 1592년은 선생의 나이 31세이었고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문안하고 수연(잔치)을 베풀고 있었는데 왜구들이 갑자기 침입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안 관아로 돌아갔다.

선생은 고향에서 왜구의 변란 소식을 듣고 아우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난리를 피해 고을 동쪽 공곡(孔谷)에 숨게 하였다. 이곳은 현재 의성군 사곡면 공정리에 있는 골짜기로 임란 당시 피난민들이 산속 깊숙한 이곳에 숨어들면서 마을이 생겼다. 선생이 급히 예안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서는 데 갑자기 예안 백성이라고 하는 건장한 병사 수십 명이 나타나 “원님을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하였고 임지에 도착한 뒤에도 늘 따라 다니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선생이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바로 지난번에 풀어주었던 강도 무리들이 목숨 바쳐 은덕에 보답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다.<sup>168)</sup>

1592년 6월 1일 신지제(申之悌)·배용길(裴龍吉)·김용(金涌)·김륵(金玊) 등이 의병 모집을 논의하고, 6월 11일 예안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는 안동 의병 보다 한 달 가량 앞선다. 의병은 예안의 사족(士族)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들은 근시제(近始齊)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다음과 같은 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 대장 : 김해
- 격문 작성, 쫓기 촉구 : 이숙량
- 도총사(都總使) : 금응훈
- 정제장(整齊將) : 김택룡, 김기(金圻)
- 부장(副將) : 김광도, 김광적
- 군량 : 이영도
- 군관 : 김강, 채연, 김평

167) 황만기, 「임진란기 예안의 유학과 학맥」,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168) 『오봉 선생문집』 권2, 363쪽.

- 장서(掌書) : 금경
- 유사(有司) : 류의, 박몽담
- 기병(騎兵) : 황진기, 우성적 외 53명
- 보병 : 김사순(金士純), 김지(金址) 외 365명
- 식량 공급 등 : 조목, 금응협, 김부륜, 서천일, 이숙량 외 41명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예안의병에 참여한 구체적 인사로서 황만기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sup>169)</sup>

(1) 중심인물

〈표11〉 예안 의병에 참여한 인물

	성명	생존기간	과거/거주지	가족관계 사승관계	활동사항
1	권현수 (權賢秀)	1564~1592	안동		류종개의 종사관, 춘양 살피현 전투에서 순국
2	금경 (琴憬)	1553~1634	생원/예안	금난수의 아들 조목의 문인	예안의병과 안동열읍향병에서 장서 정유재란 때 객재우 진영에서 활약
3	금난수	1530~1604	생원/예안	퇴계의 문인	예안의병 군량 지원
4	금응훈	1540~1616	생원/예안	금응협의 동생 퇴계의 문인	예안의병 도총사 안동열읍향병 예안지역 모의사
5	김기 (金圻)	1547~1603	예안/오천	김부인의 아들 퇴계의 문인	예안의병 전제장 선무원종공신 3등
6	김강 (金岡)	1558~1595	생원/예안	김부신의 아들	예안의병 군관 안동열읍향병 장서
7	김약 (金瀾)	1553~1617	예안		상중에도 예안의병 결성시 군량제공 안동의병 남부주장(南部主將) 안동열읍향병 본진 정비장
8	김의원	1551~1624			김해의 휘하에서 활약
9	김택룡	1547~1627	문과/예안	조목의 문인	예안의병 정제장, 선무원종공신 2등
10	김평	1563~1617	생원/예안	김부신 아들 김강 동생	예안의병 안동열읍향병의 군관

169) 황만기, 전계 논문, 419~422쪽.

132 • 梧峯 申之梯의 생애와 임진란 의병활동

	성명	생존기간	과거/거주지	가족관계 사승관계	활동사항
11	김해	1555~1593	문과/예안	김부의 아들	예안의병대장 안동열읍향병 대장
12	김일봉			김광춘 아들	예안의병과 안동열읍향병에서 중군(中軍)으로 활약
13	박몽담 (朴夢聃)	1541~	예안	박사희 아들	예안의병 유사(有司)
14	배용길	1556~1609	문과/안동	김성일의 문인 류성룡, 조목에게 사사	예안의병, 안동의병, 안동열읍향병 결성 당교전투 적장생포
15	손흥제	1544~1631	상주	손흥효 동생 퇴계 문인	
16	손흥효	1541~1629	상주	퇴계 문인	예안의병 창의 문경 모곡리, 군위 우보, 팔공산 전투 참전
17	신흙 (申洽)		영해	조목과 교유	화왕산성 진지에서 활약
18	류종개 (柳宗介)	1558~1592	문과/ 봉화, 예안	조목의 문인	예안의병 조직 봉화, 춘양 살피골 전투에서 순국
19	윤흙		파평		류종개와 같은 전투에서 순국
20	이경리	1556~		이숙량의 조카	예안의병 창의 결성 안동, 진주 전투 출전 화왕산 회맹 참가
21	이경유	1574~1653			김면 휘하에서 활약
22	이광승	1540~1604	예안		화왕산 전투 참가
23	이덕흥	1541~1596	예안	퇴계 문인	
24	이번	1568~1597	예안		예안의병 창의 선무원종공신 3등
25	이사경	1563~1628	문과/예천		팔공산에서 창의
26	이사순	1552~	예안		예안의병 보병장, 김해 휘하에서 도목 이숙량, 김부륵과 활약 문경(당교), 안동전투에서 공헌
27	이숙량	1519~1592	진사/예안	퇴계 문인	예안의병 창의시 격문작성, 배포
28	이영도	1559~1637	예안	퇴계 손자	예안의병 창의 군량총(軍糧摠) 선무원종공신 2등

	성명	생존기간	과거/거주지	가족관계 사승관계	활동사항
29	이운 (李芸)	1568~1638	예안	이현보의 증손	도산서원의 서적·제기·위패 등을 청량산·소수서원 등지로 피난시킴
30	이의유		안동		김면 휘하에서 활약
31	이종도	1535~1602	진사/예안	퇴계의 손자	김해의 부장(副將)으로 활약
32	임흠 (任屹)	1557~1620	생원 봉화, 예안	조목 문인	예안의병 창의 선봉장 적골현 전투에서 적군 대파 류종개 등과 전투 참가
33	조목 (趙穆)	1524~1606	예안 부포	퇴계 문인	예안의병 결성에 활약
34	조우 (趙祐)	1548~1605	예안 부포	조목 동생	화왕산성 전투 활약
35	조정 (趙禎)	1551~1633	예안 부포	조목 동생	화왕산성 전투 활약
36	최기복		강릉		예안의병 참여 경주 전투에 참가

1592년 6월 11일 예안에서 의병이 창의(倡義) 기병(起兵)하였는데 여기에 가담한 병력은 다음과 같다.<sup>170)</sup>

- 기병(騎兵) : 양반 : 23  
                  평인·중인 : 32            계 : 55
- 보병(步兵) : 양반 : 18  
                  평인 : 226  
                  노비 : 123            계 : 367

예안 현감 겸 안동 부사 신지제는 두 지역 의병 조직의 중심이 되면서 예안의병대장 김해가 안동열읍향병의 대장까지 겸하게 한 것은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 때문이다. 두 사람 중 누가 전쟁으로 죽을 경우 살아남은 사람이 상대의 가족을 책임지기로 맹세하였고 신지제가 김해의 병사(1593)후 실제 그 약속을 이행하였다. 여기서 신지제의 의병 파트너 김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김해(金垓, 1555~1593)

- 명종 10년(1555) 안동 예안 오천리에서 출생

170)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 임란 당시 38세, 예안의병대장, 안동열읍향병 대장으로 활약
- 난중일기·향병일기 남김
- 학업 : 퇴계 이황·조목·김성일·류성룡 문하에서 수학  
퇴계문집 수정 작업(병산서원)
- 1588 : 사마시 합격
- 1589 : 증광시 합격
- 관직 : 승문원 정자, 예문관 검열, 한림.
- 정여립 사건과 관련하여(정여립 생질에 의하여 천거) 파직, 곧 신원되었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 연구 중 임란이 일어남.
- 예안의병 창의 논의  
신지제 현감  
안동의 진사 배용길, 퇴계 사위 한림 김용(金涌) 가담.  
안집사(安集使) 김륵(金玊) 황명으로 예안 방문  
6.11 : 예안에 모여 창의·거병(300명 모병) 횃불을 올림(향병일기 6.11)

## (2) 예안의병 창의문

예안의 향인이 분의하면서, 서로 일러 말하기를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는데 우리들이 어찌 궁산에 숨어 엎드려 군부의 위급함을 앓아 보고만 있겠는가. 그래서 중의가 전 한림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삼고, 진사 이숙량(李叔樑)에게는 글을 맡기고 생원 금응훈을 도총사로 삼고 글을 지어 별읍(別邑)에 포고토록 하였다. 전 군수 조목, 전 현감 금응협, 김부륵 등은 쌀을 바쳐 군량에 쓰도록 했다. 전 학유(學諭) 류종개(柳宗介), 생원 임흘(任屹)이 춘양현에서 의병을 창기했다.

## (3) 『연려실기술』 제 17권, 「선조조 고사본말조(宣祖朝故事本末條)」 영남의병

○ 예안 사람 전 한림 김해가 의병을 일으켰다. 종개가 죽음을 당한 후에 사람들은 모두 의병 일을 두려워하였다. 초유사가 격문을 띄워서 국은을 잊었음을 책망하고 의병에 나갈 것을 격려하였으며 안집사 김륵이 또한 통문을 내었다. 이에 영천(영주) 풍기 선비들과 전 한림 김해, 생원 금응훈, 진사 임흘 등 여러 사람이 모두 호응하여 잇달아 일어나니 군사가 만여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김해의 결제를 받았다. 김해는 본래 인망(名儒重望)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였다.

좌도의 의병이 일직현(一直縣)에 모여서 맹약할 때에 김해를 대장으로 추대하였는데, 뒤에 김면(金沔)이 본도의 대장이 되었음을 듣고 의병 문서를 강을 건너 김면에게 보내

었다. 김면이 열람하여 보니, 모두 유생들로 부대가 편성되었으므로, “이것들이야말로 참된 의병이다.”라고 하였다. 계사년에 김해는 명나라 군사를 따라서 경주에 있다가 병으로 죽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찬에 증직되었다.

○ 본관이 함안(咸安)인 전 현감 조종도(趙宗道)는 전 직장 이로(李魯) 등과 함께 서울에 있다가 왜변의 소식을 듣고 즉시 본도로 돌아가며 약속하기를, “마땅히 의병을 일으킬 것인데,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동지와 함께 물에 빠져 죽을 것이지 의리상 적에게 욕을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려서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그 통문에 “죽음이 비록 싫기는 하지만 천지에 적들이 그물처럼 둘러싸서 도망가 살 곳이 없으니, 비록 살기를 도모하여 개·돼지처럼 치욕을 참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차라리 의리에 죽을지언정 감히 살기를 바라겠느냐? 인(仁)을 위해 생명을 버리겠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 뒤 정유년에 종도가 황석산성(黃石山城) 전투에서 죽으니, 사람들은, “그 문구의 말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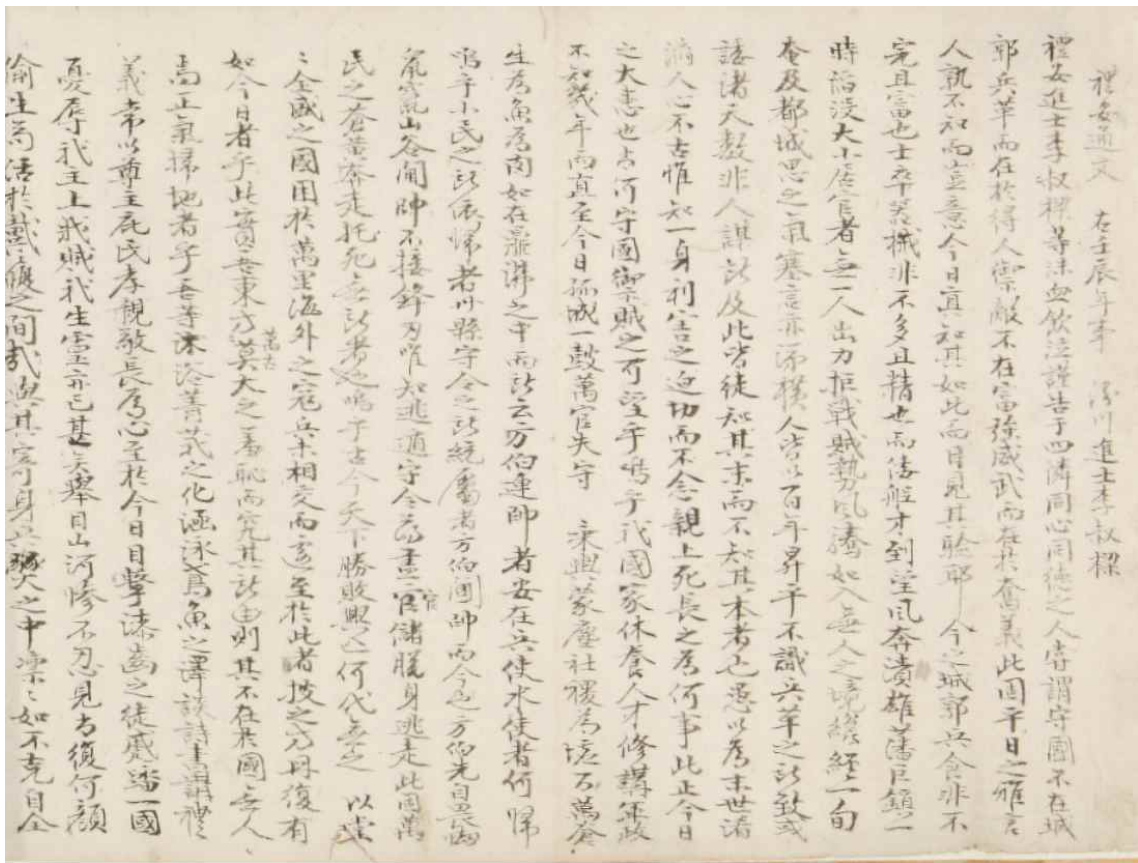
○ 금산(金山) 사람 박사 여대로(呂大老)와 권응성(權應星) 등이 군사를 모아서 적군 토벌을 도왔는데, 응성이 임시로 대장이 되어서 김면과 지례(知禮)·금산의 적군을 협공하였다. 그 뒤에 적군의 습격을 당하여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 창녕 사람 생원 신방즙(辛邦楫)·충의(忠義) 성천희(成天禧)·정자(正字) 성안의(成安義)·유학 곽찬(郭贊)·보인(保人) 조열(曹悅) 등이 군사를 모아서 적군 토벌을 도왔다. 천희 등이 군사 십여 명을 거느리고, 창녕의 적군을 포위하고 종일토록 교전하여 본읍의 군수라고 자칭하는 적을 쏘아 맞추자 3일 만에 적군이 성책을 불지르고 도망갔다.

#### (4) 이숙량의 격문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성곽과 병갑(兵甲)에 있지 않고 사람을 얻어 적을 방어하는데 있으며 부강과 위무(威武)에 있지 않고 의기를 떨치는 데에 있다. …… 이른바 수령 방백은 어디 있으며, 병사(兵使), 수사(水使)는 어디 갔는가. 백성이 의탁할 곳은 수령이요, 수령을 통솔할 자는 방백이거늘……흥기한다는 것은 승첩에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고향을 지키면 일읍을 가히 보존할 것이요, 이를 본받는다면 열읍이 가히 안전할 것이며, 미루어 일국이 모두 이와 같다면 국가가 튼튼할 것이다.……능히 한다고 하는 자는 충신·효자인 것이요, 토적을 게을리 하는 자는 불충·불효한 사람이다. 바라건대 제공(諸公)은 그 또한 생각할지어다.

〈자료11〉 이숙량의 격문 등초본(騰草本) 전반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5) 신지제의 첫 전투 참전

예안의병의 중심을 이룬 사족들은 위의 36명의 구성을 보면 안동 권씨 1명, 봉화 금씨 3명, 광산 김씨 4명, 예안 김씨 1명, 의성 김씨 1명, 순천 김씨 1명, 강릉 김씨 1명, 경주 손씨 2명, 영천 이씨 8명, 진성 이씨 3명, 풍천 임씨 1명, 횡성 조씨 3명이었다. 예안 지역의 토착 세력은 봉화 금씨, 광산 김씨, 영천 이씨, 진성 이씨, 횡성 조씨이며 의병 결집에 있어서도 이들이 다른 문중에 비하여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한편 예안 현감 신지제는 관군과 급조된 예안의병을 이끌고 용궁 전투에 나섰다가 패전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sup>171)</sup> 이는 갑작스럽게 조직되어 군사 조련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오합지졸의 의병들이었기에 필연적인 전세였다.

이 전투에서 배용길의 종제(從弟)인 배인길이 참전하여 수많은 왜적의 수급을 참획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접한 아내 경주 이씨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전란 후 200여년이 지나 배인길의 충절각과 그 아

171) 황만기, 전계 논문, 423쪽.



내의 정려각이 내려졌다. 많은 이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6월 22일 안동, 7월 1일 예안이 왜적의 수중에 들어갔다. 예안 현감 신지제는 왜적이 용궁에서 한양으로 향한다는 말을 듣고 두 고을의 군대와 백성을 모아서 적의 길목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용궁 지역에 들어섰을 때 규합한 병사들이 적의 기세에 놀라서 모두 흩어져 도망쳤다. 선생이 홀로 말을 타고 서 있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하마터면 벗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문득 어디선가 건장한 병사 70여 명이 왜적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와 선생을 호위하여 빠져 나왔다. 당시 함께 포위를 당한 관아의 하인 아이 하나가 선생의 말 뒤꽂무니를 부여잡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병사들이 칼을 뽑아 내리치는 바람에 곧장 땅에 엎어지고 말았다. 관아로 돌아 온 뒤에야 선생은 이들이 전에 풀어 주었던 강도 무리임을 알고서 “너희들의 뜻은 참으로 가상하나 도리어 사람을 해쳤다. 이전의 과오를 고쳤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병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며 “피해를 입은 것은 작고 지켜 낸 것은 큼니다.”라고 하고서 하직하고 떠났다. 선생은 늘 관아의 하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여워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 (6) 『향병일기』<sup>172)</sup>, 예안의병, 신지제 현감

- 1592.4.14 : 안동 판관 윤안성이 군사를 모아 거사하려고 3일 동안 종을 쳤으나 사람들의 호응이 없어 도망쳤다. 신지제 만은 달아나지 않으니 관아의 아전들이 감히 제 마음대로 어지럽힐 수 없어 그를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 6.1 : 신지제가 안동에 온 안집사 김륙을 만나 예안으로 오게 하여 예안의 노인장 선비들과 함께 군사(거병)모의를 도모했다. 그러나 이때 군사들의 명부가 완전 텅텅 비어 있어서 정비하여 배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생들을 이장(里將)으로 삼아 각자 거주하는 마을에서 군정(軍丁)을 점고하고 일으켜 왜구를 막도록 했다.
- 6.11 : 예안의 고을 사람들이 의기를 떨치며 서로 이르기를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들이 어찌 궁벽한 산속으로 달아나 숨고서 임금의 위급함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으랴.”하였다. 그리하여 중론에 따라 전 한림 김해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생원 금융훈을 도총사로 삼았다. 진사 이숙량이 격문을 짓고 여러 고을에 널리 알리니, 각 고을에서 차출한 젊은이와 공사노비 300여 명이 활쏘기와 전투를 익혔다.
- 6.15 : 예안 현감 신지제가 용궁에서 패하고 안동의 사인(士人) 배인길 전사.
- 7.1 : 왜적이 예안으로 쳐들어갔다.

172) 신해진 역주, 『향병일기』, 역락, 2014, 15~70쪽.  
입진왜란 당시 영남북부지역 의병들의 전투일지이다.

- 7.9 : 예안으로 쳐들어갔던 왜적이 안동으로 돌아왔다.
- 7.17 : 배용길이 예안 현감의 공문을 가지고 임하현으로 나가 북쪽으로 구린촌을 향하면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각 고을에서 젊은이들을 뽑아 대정(隊正)에게 200여 명을 나누어 배정하였다.
- 10.20 : 예안에서 합진(合陣)하였는데 영병장(領兵將) 심지(沈智)가 약속 날짜에 오지 않았다.
  - 10.21 : 아침에 예안의 군대가 왔다.

## 2) 안동 지역의 의병과 연합편성

### (1) 안동 지역의 임란 초 상황

안동진은 안동을 위시하여 예안·의성·군위·의흥·비안·봉화·영주·풍기·청송·진보·영해·영덕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들은 진관 체제뿐만 아니라 정치·문화·학문적으로도 안동문화권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임진란 의병에서 경상도 지역 의병 활동은 경상우도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경상좌도의 의병 연구는 취약하였다. 이것은 경상우도 지역이 임란 초기 일본군의 침략을 받지 않아 신속한 의병 조직이 용이하였지만 좌도 지역은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에 위치하여 의병 조직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의병은 일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었다. 당시 의병 활동을 개관한 『징비록(懲毖錄)』에서 류성룡은 경상도의 중요 의병장으로 그동안 널리 알려진 광재우(1552~1617), 김면(1541~1593), 정인홍(1535~1623)등과 함께 예안의 김해(金垓)를 지목하고 있다. 이는 임진란 당시 김해의 의병 활동을 경상우도의 다른 의병장 활약과 동일하게 높이 평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왜적의 침략 소식은 동래가 함락된 4월 14일 관보를 통해서였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심은 흉흉하고 관리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하였다. 더욱이 상주가 함락되고 국왕 선조가 한양을 떠나면서 민심의 동요는 더욱 심하였는데 그 중에서 관리와 양반들의 동요가 매우 심하였다. 임진년 5월 15일 안동 읍내 척석인(擲石人)<sup>173)</sup> 500명이 모여 토적하고자 하나 주장(主將)이 없고 전일에 부사 정희적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관가 창고문을 열어 미포(米布), 군기(軍器)등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여 각 고을마다 창고의 곡식이 일시에 텅 비게 되었고 군기 또한 분탕되었다. 지금 비록 군병은 조발(調發)하고자 하나 고을이 온통 비었고 군량미 또한 마련할 길이 없으니 부사 정희적의 죄는 죽여

173) 척석인(擲石人) : 전쟁 중에 돌을 잘 던져 싸움하는 병사.

마땅하다. 또한 향소(鄕所) 등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막아 구하지 아니하고 모두 도망가 숨어 나오지 않았으니 통분한들 어찌하랴.

한편 4월 25일 상주를 함락시킨 왜적은 상주성을 거점으로 주위 군현에 출몰하고 있었는데 신지제의 용궁 전투도 이때 일어난 것이다. 결국 왜적은 6월 22일 안동, 7월 1일 예안까지 들어왔다가 9일 안동을 거쳐, 19일 구담촌으로 퇴각하였다.

## (2) 안동진 지역 의병부대 조직

한편 예안지역 의병 결성에 자극을 받아 그 직후시기에 춘양·영주·예천·의성·영해·청송 등지에서도 대거 창의를 하였다. 이들 지역의 주동자들은 다음과 같다.

- 춘양 : 전 학유 류종개(柳宗介), 생원 임홀(任屹)
- 영주·풍기 : 김대현, 곽수지
- 예천 : 전 현감 이유, 진사 이광옥, 권욱
- 영해 : 찰방 조현, 생원 이함, 유학 백견룡
- 의성 : 신흥도(申弘道)
- 의흥 : 이인호
- 군위 : 진사 이영남, 홍위
- 청송 : 민근효, 권계창, 어린

안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있어서 본격적인 의병조직은 경상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그것은 이들 지역이 왜적의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 가산을 보존할 수 있어서 의병을 일으켜 도리어 왜적의 화를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들 지역의 사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토적의 대열에 나오게 한 것은 초유사 김성일의 초유문(招諭文)과 안집사 김득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김성일의 초유문이 이곳에 전해 진 것은 8월 5일이었고, 이후 예안과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의병의 창기가 본격화되어 결국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鄕兵)으로 발전하여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북부지역의 의병을 총괄하게 되었다.<sup>174)</sup>

초유사 김성일의 초유문을 받아 본 배용길은 즉시 안동 전지역 사람에게 전하면서 여강서원(廬江書院)에 모여 창의를 의논하기로 했다. 8월 9일 여강서원 임하현, 송정 등지에서 모인 사람들은 우선 김용과 배용길을 의병 창기를 위한 소모유사(召募有司)로 삼아 본격적인 창의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3일 임하에서 안동 인근의 사우(士友) 수백 명이 기약도 없이 모이게 되어 그 때 바로 의병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때 구성된 의

174) 경상북도, 『경북의병사』,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237~244쪽.

병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대장(大將) : 생원 김윤명(金允明, 3일 뒤 이정백(李庭栢)으로 변경)
- 부장(副將) : 진사 배용길
- 정제유사(整齊有司) : 김윤사(金允思), 이형남(李亨男)
- 장서(掌書) : 이응타(李應陔), 남우, 권태일, 김득기
- 향군도감(餉軍都監) : 김득연, 유복기
- 동부주장(東府主將) : 권눌(權訥)
- 서부주장(西府主將) : 권기
- 북부주장(北府主將) : 권익형
- 남부주장(南府主將) : 김약(金濶)
- 안동부 수성장(守城將) : 한림 김용(金涌)

이상과 같은 정연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병사는 모아지지 못했다. 각 지역의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간의 연대가 절실하였다. 지역 간의 연대 논의는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었는데 7월 15일 의성 출신 우경충(禹景忠)과 의흥의 박연(朴淵)이 안동과 주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의병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안의병의 경험이 있는 신지제 현감(안동 부사 겸임)이 중심이 되어 예안·의성·의흥·군위 등지의 사람이 일직에 모여 동맹하고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이정백과 배용길을 좌우부장(左右副將)으로 삼아 병호(兵號)를 “안동별읍향병(安東別邑鄉兵)”이라 한 연합 의병부대를 창설하였다. 이 조직은 안동을 본진으로 삼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연합부대는 수시로 합진하여 활동하였는데 9월에 일직의 운산역(雲山驛)에서 우선 합진하고 나아가 하도(下道)의 의병진과도 합진하고자 하였다. 운산역에서 합진한 이들은 군기를 험하고 하고 장교를 엄선하여 풍찬노숙하면서도 위용을 자랑하였다. 이때 영주의 박록(朴瀾) 의병부대, 비안의 조단(趙端) 의병부대가 함께 동맹하기를 맹서했으며, 참여 못한 진보등지에서는 격문을 보내 의병 창기를 고무하여 점차 안동 인근의 전 의병부대가 연합하게 되었다. 안동별읍(열읍)향병은 20여 일간 여기서 군사를 조련하고 조직과 대오를 정비하였다. 이때 마련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 (3)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鄉兵) 조직(추천된 날짜)

- 대장(大將) : 김해(金垓) 8월 20일



예안 금응훈(琴應薰) 9월 4일

선산 노경심(盧景仁) 9월 4일

- 장서(掌書) : 김강(金岡) 9월 5일  
 금몽일(琴夢駟) 9월 5일  
 김윤안(金允安) 9월 5일  
 금경(琴憬) 9월 5일  
 권강(權杠) 9월 5일  
 정조(鄭澡) 9월 5일  
 신경립(辛敬立) 9월 5일  
 권득가(權得可) 9월 5일
- 군관(軍官) : 김평(金坪) 9월 5일  
 최료(崔料) 9월 5일  
 이적(李適) 9월 5일
- 도군관(道軍官) : 류복기(柳復起) 11월 5일  
 김윤사(金允思) 11월 5일
- 병색군관(兵色軍官) : 김태(金兌) 9월 5일-총리군부책임(總理軍簿責任)

이외에 전 현감 권춘란 쌀 10말, 소 한 마리, 전 도사 안제(安霽) 쌀 5말, 전 좌랑 이홍 전마(戰馬) 1필, 큰 소 한 마리, 군량 2섬, 장서 권강(權杠) 쌀 바침. 위의 조직은 경상도 북부의 전 지역을 망라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사족적(士族的) 규모에서 연합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합적 의병부대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지역이 왜적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또한 왜적이 계속해서 주둔하지 않음으로써 연락과 정보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퇴계를 연원으로 한 학문적인 일체감과 당시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동인(東人)의 본산이었던 관계로 관권과 마찰이 없었으며 오히려 관권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 (4)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鄉兵)의 활동(1592.10~1593.5)

1592년 9월 중순 김성일(金誠一)의 적극적인 증채로 인해 안동의 의병 활동이 조정의 공인을 받게 되고 관(官)의 지원을 받으면서 10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전투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대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0월 23일 5위(衛)로 구성된 부대를 3위(衛)로 개편하면서 중위장(中衛將)에 안동정제장 김윤사(金允思)를 임명했다. 3위로 부대를 축소하는 것은 그 이전 다소 느슨한 형태의 연합부대에서 단일 체제의

부대로 개편된 것이다. 부대 개편과 함께 소규모 부대를 각 처에 보내어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도록 『향병일기』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75)</sup>

- 북병장 이선충과 조전장 권호인이 관군 8명과 정병 130명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감(10월 23일)
- 군관 이적(李適) 최산두와 우부장 이정백이 북병하기 위해 출발함, 장서 신경립(辛敬立)이 용궁현 북산(北山)에 북병을 배치함(10월 25일)
- 북병장 이선충이 용궁현 교동(校洞)으로 들어온 일본군을 추격하여 물리침
- 북병장 이선충과 조정장 권호인이 결사대를 거느리고 반암의 일본군을 기습하여 말 2필을 빼앗음(10월 27일)

일본군에 대한 소규모 공세에 착수함과 동시에 10월 25일 대장 김해는 본진을 안동에서 일본군의 출현이 잦은 서쪽으로 옮겨 예천의 노포에 진을 쳤다. 11월 3일 부장(副將)을 보내어 의성군 단밀과 문경군 반암 지역 등으로 나아가 관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안동 향병들의 중요 활동을 날짜별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sup>176)</sup>

1592.10.22 : 행군하여 풍산에 주둔

23 : 안동정제장 김운사를 중위장으로 삼음.

5위를 3위로 개편, 본진을 예천으로 옮김.

24 : 노포로 진을 옮김.

30 : 우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단밀로 향함.

11.02 : 우부장이 반암으로 진을 옮김.

03 : 군위별장 장사진의 승첩이 도착

우부장이 단밀천을 향하다가 적을 만남, 관군이 패주하여 퇴각함.

04 : 좌부장이 모병을 전령함. 대장이 순찰사를 만남.

05 : 김운사, 류복기를 도군관(都軍官), 우인경·권복원을 연병장(練兵場)으로 삼아 장병을 선발

06 : 대장·좌부장이 순찰사와 도사를 만남, 예안현에 돌아옴

07 : 대장이 군관과 장서를 거느리고 의성에서 감군(監軍)하기로 함.

11 : 좌부장이 의성에서 돌아옴

12 : 대장 예안으로 가면서 장서 신경립을 대동하고 순찰사와 회의함

군위별장 장사진 전사, 장사진은 왜구 천여 명이 현의 경계를 침범하자

175) 노영구, 「임진란기 봉화 소천(小川) 지역 전투와 항쟁활동」, 『경북지역 임진란사』 2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458쪽.

176) 경상북도, 『경북의병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240~243쪽.

- 정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적진에 들어가 적장의 목을 베고 추격하다가 전사
- 13 : 군사를 3위(衛)로 나누어 휴식하게 함. 병마사가 화살 제조금으로 300금을 지원함
- 14 : 대장이 돌아옴. 병마사가 포수를 파견하여 화포를 시험 발포함
- 12.27 : 대장이 풍산에서 진천뢰(震天雷)를 가지고 옴
- 28 : 의성 정제장의 비첩(秘牒)이 옴
- 1593.1.01 : 북병장 이선충이 적진을 야습하여 왜적을 사살하고, 칼, 창을 노획  
이때 진천뢰를 사용하여 큰 성과를 얻음
- 05 : 대장이 의성에 도착, 향교에서 정제장 김사원·신흥도, 우위장 신심을 만남
- 07 : 대장이 의성에 주재함
- 09 : 대장이 순찰사와 상의하여 권응수, 신심에게 인동의 왜적과 싸우게 작전 지시
- 2.23 : 신선(申仙), 신담(申潭)등이 왜동(倭洞)에 설복하여 5급을 참하고 칼 2자루를 획득
- 4.21 : 의병도대장 김면이 향병을 의성으로 출진시켜 인동의 왜적에 대비할 것을 요청함
- 29 : 명군의 선봉이 당교에 도착
- 5.02 : 북병장 김사권이 상주 송현에 설복하여 적장 1명 생포  
- 대장이 군사를 이끌고 밀양으로 이동  
- 진양, 양산 등지로 이동하여 적을 토벌  
- 적을 쫓아 경주에 이르러 이산회와 합세하여 적을 대파함  
- 경상좌도 의병은 안동 향병장의 절제(節制)를 받게 함
- 6.19 : 안동 향병장 김해 경주 진중에서 병사함.  
그 이후 금응훈(琴應堧)이 대신 향병을 지휘하게 함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안동 향병의 조직은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북부지역 대부분의 의병을 망라하는 의병연합체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체적 조직을 이용하여 합동작전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 의병과 활발한 공동작전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활동은 여타의 의병과 마찬가지로 매복, 야습 또는 소규모의 게릴라식 전법을 주로 사용했다. 안동 향병은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동쪽 지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었고, 주목되



는 것은 관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전시 체제를 주도하던 정치 세력이 안동을 본산으로 하는 남인이었다는 점 이외에도 안동은 전시 체제 아래 경상도 감영이 설치된 곳이어서 감사(監司), 병사(兵使), 순찰사 등과 빈번한 접촉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아래서 안동 향병은 관군과 잦은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고, 특히 관군으로부터 당시 최신식 무기 진천뢰를 지원받아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낙동강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안동 향병은 명군의 남하와 왜군의 퇴각과 더불어 활동 근거지를 밀양, 진주, 경주 등지로 옮기고 있었다. 안동 향병장이 안동 지역을 벗어나 경상좌도 의병을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력과 전공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동 향병이 연합조직이었지만 때로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술할 소천(小川)의 류종개(柳宗介) 의병 활동, 군위 경계지역 인동(仁同) 전투의 장사진 의병이었다. 안동 향병의 작전 지역은 밀양, 양산, 경주, 감포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김해의 안동열읍향병은 1593년 5월에 밀양지역에 주둔하면서 일본군의 공격을 견제하였고 양산 등을 구원하러 출동하였다. 그 이후에도 일본군의 공격이 경주에 계속되자 향병부대를 경주로 옮겨 이광휘(李光輝) 부대와 함께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당시 경주에는 도원수 김명원이 일시 머무르며 지휘하고 있었고, 경상좌병사 고언백, 방어사 김응서, 별장 권응수 등이 경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아울러 경상좌수사 이수일도 각 진의 변장을 이끌고 경주 인근의 감포(甘浦)에 주둔하면서 일본군의 북상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김해도 경상좌도 모든 의병부대를 총 지휘하여 일본군을 저지하고 압박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병환으로 6월 19일 대장 김해는 진중에서 사망하였다. 1593년 6월 중순 김해의 사망 이후 전란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관군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향병은 광취무과(廣取武科)를 통하여 관군으로 편입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전후 복구 사업에 종사하였다.

### (5) 의병의 군율

임란 시 각 지역의 의병 조직과 활동에는 특히 전투 시 관군에 준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었고, 안동열읍향병에서는 통일된 군율이 있어야만 했다. 군율은 의병 조직 및 창의 때에 규정하고 있는데 각 의병 조직마다 내용은 거의 비슷했다. 영천지역 의병 군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sup>177)</sup>

177) 이육, 「임진란 초기 영천지역 의병항쟁과 예천성 복성(復城)」, 『경북지역 임진란사』 1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112쪽.

- ① 적을 두려워하면서 겁을 먹고 어지러운 말을 하는 자는 목을 벤다.
- ② 적을 보고 다섯 걸음을 물러난 자는 목을 벤다.
- ③ 맡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여 장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목을 벤다.
- ④ 전투에 임하여 대역을 이탈하는 자는 목을 벤다.

### 3) 용궁(예천), 문경, 상주, 봉화

문경과 예천 지역은 퇴계학의 발흥 이후 퇴계학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임진란이 일어나 문경은 의병 운동의 격전지였고, 예천은 많은 의병 운동 참여자를 배출 한 곳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의 의병 활동을 다루는 이유는 문경, 상주가 경상우도에 속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 안동열읍향병 조직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들 지역 주둔 왜군들이 안동, 예안 등지로 출몰하고 있었다. 문경 지역은 영남과 한양을 잇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특히 상주의 문화적 자장 안에 들었다. 이에 비해 예천은 안동이나 예안과 바로 접하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안동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퇴계학의 전개와 의병 활동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임진란에서 왜군들은 처음 부산을 상륙하여 수도 한양으로 북진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쳐 가는 요충지인 상주와 문경 지방은 전투가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 문경 지역은 천혜의 요새인 조령(鳥嶺)과 교통상으로도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당교와 입점하였으므로 임란 시 양쪽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선조 임금이나 류성룡도 조령을 지키지 못하면 충주를 지킬 수 없고, 충주가 왜적 수중에 들어가면 바로 수도 한양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사령관 신립 장군은 과거 여진족과 싸운 경험 때문인지 조령을 포기하고 충주 탄금대 부근에 배수진을 치고 항거하다가 참패하여 도성까지 잃고 말았다. 조선 왕조 때 도로망은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의 X자 형태가 기본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었고 문경 유곡역이 포함된 영남로는 중심축의 하나로 수도 한양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남부지방의 간선 도로 구실을 하였다. 또한 조선 초기부터 대마도가 왜구의 소굴이 되면서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과 한양을 연결하는 보다 넓고 빠른 대로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었다.

#### (1) 당교 전투(唐橋戰鬪)

당교는 문경 지방 남쪽 지역인 함창 근처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곳은 일찍부터 군사적으로나 교통상으로 중요하여 큰 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당교는 현재 문경시 남쪽으로 상주시 함창읍과 경계한 곳이다. 당교 일대는 전통적으로 육상교통의 중심지이었

고 또한 수상 교통이 편리하여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교 부근 여러 고을에서 거두어 들인 세곡, 진상품, 조세 물품을 이곳 조창에 보관했다가 도성으로 운반했다. 왜적들은 비안 다인(多仁) 지방에서 하풍진을 건너 함창과 용궁 땅으로 전진하여 당교에 진을 쳤다. 이들은 중로(中路)인 상주 북천 전투에서 승리한 왜군 주력 부대가 북상하던 때에, 영천과 신녕 그리고 의성을 거쳐 온 다른 부대 왜적들은 하풍진에서 낙동강을 건너 당교로 와서 진을 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왜군들도 당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각 지방을 거쳐 온 왜적들도 여기를 중간 기착지로 삼고 장기간 체류하려고 했다. 따라서 우리 측 관군과 의병들도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다.

당교의 왜적을 공략하기 위해 정예군 2천명을 선발하여 권응수 장수에게 야간 기습작전을 펴게 하고,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북부지역 향병들도 당교 주둔 왜적들을 토벌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10월 22일 안동열읍향병들은 당교로 출진하기 위해 풍산에 도착한 뒤 다음 날 예천군 진지에 이르렀다. 10월 27일 북병장 이선충과 조정장 박호인이 결사대를 이끌고 당교 근처에 있는 반암으로 들어갔다. 이날 향병 대장은 당교 왜적 진영 목책(木柵)을 파괴하고 다수의 적을 사살, 무기노획을 하였다. 평소 당교에서 주둔하고 있던 왜군들이 안동, 예천 등 부근의 여러 고을을 노략질하고 있어서 안동 향병들도 이들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의 일부 수령들은 산속으로 도망갔지만 예외적으로 변란 초기 문경 현감 신길원(申吉元)은 항복 않고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용궁 현감 우복룡도 관군을 이끌고 용감하게 전투하여 그 공덕으로 승진하여 안동 부사로 나갔다.

## (2) 상주 의병 조직과 활동

왜군이 상주에 들어오기도 전에 상주 목사는 이미 그 가족과 더불어 고을 서북쪽 산속으로 도망치고 말았다. 목사가 없는 상주 고을에 왜군이 쳐들어온 것은 1592년 4월 24일 경이었다. 이때 순변사 이일(李鎰)은 함창에서 들어와 목사 대신 고을을 지키고 있던 관관 권길을 독려하여 군대를 모았으나 천명도 되지 않은 부실한 군졸이었다. 이들을 인솔하여 읍성을 버리고 북천(北川)에서 왜적과 싸웠는데 우리 측의 열세가 그대로 나타난 졸렬한 전투였다. 상주 북천 전투에서 승리한 왜적들은 병력의 일부만 상주에 남기고 대부분 북상하였다. 이들 잔류한 왜군들은 읍성과 당교 등을 거점으로 계속 상주에 주둔하면서 약탈과 횡포를 일삼아서 이것이 상주 지역 의병 결성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상주는 조선 초기 경상도 감영(監營)이 소재한 행정 중심지로서 도로망도 정비되었고, 넓고 비옥한 토지를 가진 운택한 고을이었다. 특히 고을 동쪽을 관류하는 낙동강은 수상 교통에도 유리하여 남해안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다.

상주 지역은 임진란이 발생하기 12년 전인 1580년 서애 류성룡이 홍문관 책임자로 있다가 상주 목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힘을 기울여 추진한 시책은 향교 교육진흥에 주력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향교에 나가서 유생들을 가르쳤는데,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의 강의 그것이었다. 이때 그의 문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뒤 임란 때에 의병 봉기에 앞장서거나 고관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정우복, 이창석, 전사서 등이 대표적 인물이고, 이 지역에 아무나 행정책임자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은 예안 현감처럼 오래전부터 조정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었다. 1592년 7월 30일 황령사에서 상주 지방의 의병조직이 정식으로 갖추어 지게 되었고 그 진용은 다음과 같다.<sup>178)</sup>

- 의병장 : 이봉(李逢)
- 중위장 : 이천두(李天斗)
- 좌막 : 전식, 송광국, 조광수, 조정(趙靖)
- 장서 : 채천서, 홍경업, 조정(좌막 겸임)

위의 상층부 구성 이외에 상주와 함창에 거주하고 사족과 민인(民人)들이 다수 참가했다.

- 신문숙, 김경추, 신추백, 권여림, 이사회, 이사광, 권종경, 정경세
- 의병장은 청주에서 궁수 18명을 데리고 와서 창의군에 가담
- 상주, 함창 사족 40여명
- 청주 32명
- 선봉장 : 이축, 사족으로서 무예에 뛰어남
- 의병부대 총보군 : 1592.8.16. 조직
  - 의병장 : 김홍민
  - 중위장 : 이제경
  - 좌막 : 장천뢰, 노대하, 조익
  - 장서 : 김홍미, 조익(좌막 겸)
  - 상주, 청주, 보은 등지 유신(儒紳) 70명, 사족 60명(상주인사, 보은인사)
  - 집결장소 : 속리산 자락

임진란 때 왜군들은 상주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상주 읍성과 당교 등지에 잔류병을 주둔시켰다. 이 지역에 대한 침탈이 계속되자 이 고을 사족들을 중심으로 의병을 조

178) 김호중, 「임진란기 문경지방의 항왜활동과 당교(唐橋) 전투」, 『경북지역 임진란사』 2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445~458쪽.

직하여 향토를 지키는 한편 인근 지역 안동열읍향병과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왔다. 상주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결성된 의병 진영은 창의군과 충보군, 상의군 3진영이었다. 상주 의병의 특징은 충청도의 의병진(청주, 보은, 황간, 영동)과 서로 협력이 잦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두 지역 간의 접근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안동열읍향병 조직과는 서애 류성룡의 상주 목사 역할, 퇴계학 등의 학문적 영향에 의한 기본 바탕이 서로 연계되고 있었다고 믿을 수 있다.

### (3) 상주 의병 군율

- ① 적을 만났을 때 물러서는 자는 참(斬)한다.
- ② 후일을 약속하고 물러가기를 피하는 자는 참한다.
- ③ 명령을 어겨 기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참한다.
- ④ 쓸데없는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케 하는 자도 아울러 군율로써 단죄한다.

### (4) 봉화지역 소천(小川) 전투

임진란 초기 안동 부사(정희적)와 판관(윤안성) 울산으로 가다가 부사는 가족을 데리고 멀리 함경도 쪽으로 도망갔고, 판관은 안동으로 돌아와 군사를 모으려 하다가 안 되어 풍기 지역으로 도주하고, 다만 예안 현감 신지체만 자리를 지키고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함에 따라 안동 지역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sup>179)</sup> 한편 상주를 점령한 일본군 제 2군의 일부가 군위, 비안을 거쳐 4월 27일 예천의 다인현(多仁縣)에 주둔하였다. 이 다인현은 현재 의성의 다인면이다. 이 일본군은 가토 기요마사 휘하의 부대로 그는 영천과 신령을 점령 후 부대를 2개 부대로 나누어 북상했다. 그중 한 부대가 안동부를 점령하려고 풍산으로 이동했으나 풍산에는 좌방어사 성응길의 조선군이 저지하고 또한 유명한 안동의 투석군이 막았다.

경상좌도에서 예안의 신지체처럼 초기에 봉화 지역에서 의병을 조직한 사람은 류종개이다. 그는 전직 전적(典籍)으로 예안 출신이었는데 홀로 향병 수백 명을 모아 험준한 태백산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지켰다. 경상좌도 북부지역의 의병은 다른 지역과 달리 초기부터 관군과 갈등이 적었고 상호 협조와 연합 작전이 원활하여 이 지역에서는 의병과 관군의 명목이 혼용되기도 했다. 안동 지역에서 조선군의 대응이 본격화되자 6월에 들어와서 일본군의 안동 지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고 6월 5일에는 용궁과 예천에 일본군이 출현했다. 6월 14일 일본군은 경상좌도 동북부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이동 명령을 받고

179) 노영구, 「임진란기 봉화 소천(小川) 지역 전투와 항쟁활동」, 『경북지역 임진란사』 2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193쪽.

두 개의 병력이 합세(길견원퇴吉見元賴 부대와 모리원강毛利元康 부대) 17일 상주를 거쳐 다인, 비안, 도리원, 의성을 지나 22일 안동으로 들어와 수일동안 안동 일대를 약탈하였다. 이들 병력이 도리원과 구미를 지나면서 건넌마을 천동에서 신지체의 형님 신지효(응암)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왜병의 칼에 목숨을 잃었다.

일본군 제 4군은 강원도를 담당했고 함경도까지 북진했다가 명나라 군대의 참전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동해 지역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1592년 7월 상순 삼척에 도달하고, 계속 남하하여 평해와 울진, 8월에는 경상도 영해부에 도달하였다. 일본군은 울진에서 부대를 나누어 한 부대는 서진하여 태백산맥을 넘어 예안 일대로 들어왔다. 류종개의 의병부대는 이 일본군과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조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태백산 피난지를 지키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그의 부대에는 능력 있는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 부장(副將) : 임흘(任屹)
- 김종청, 윤흠신, 윤흠도 형제, 김인상, 김철(김성일의 조카)

류종개는 1579년(선조12) 진사시에 합격, 1585년 식년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교서관 정자와 전적(典籍)을 역임하고 향리에 돌아와 있던 중 임진란이 일어났다. 그의 가계에는 다수의 무반 출신이 있었다. 그의 의병부대는 규모는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16조목의 약속과 7조목의 군령을 정하여 군율을 통해 엄정한 군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16조목의 약속 가운데 현재 알려진 것은 다음의 10가지이고, 나머지 6조목은 군중의 체모와 관련된 것이었다.<sup>180)</sup>

- ①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 ② 놀라서 움직이지 말고
- ③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 ④ 해괴하게 장난하지 말고
- 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지 말고
- ⑥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능멸하지 말고
- ⑦ 공을 자랑하지 말고
- ⑧ 어려움을 사양하지 말고
- ⑨ 뜻이 다르고 같음으로써 즐거움과 노여움을 삼지 말고
- ⑩ 즐거움과 노여움으로써 향하거나 등지지 말 것이다.

180) 상동, 201~202쪽.

## 〈7조목의 군령〉

- ① 북소리를 들으면 나아가 싸우고 징소리를 들으면 그쳐야 한다.
- ② 북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전진은 있을지언정 후퇴는 없으며, 함부로 후퇴하는 자는 벌 것이다.
- ③ 징소리가 두 번 들린 연후에 후퇴할 것이요, 후퇴함에 뒤지는 자는 벌 것이다.
- ④ 군중의 기밀을 누설하는 자는 벌 것이다.
- ⑤ 모이는 기한에 늦게 이르는 자는 벌 것이다.
- ⑥ 사사로이 민간의 물건을 취하는 자는 비록 그것이 작더라도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 ⑦ 군령을 따르는 자는 상을 줄 것이고, 군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3천여 명의 왜적이 강릉, 삼척 등지를 거쳐 한 부대는 평해를 거쳐 경상도로 향하고 나서 소천, 재산(才山)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의병장 류종개는 이들 적을 막으려고 했는데 안집사 김득은 일부 병력을 보내어 류종개를 지원하였으며, 장서(掌書)인 윤흠신과 흠도 형제는 류종개의 막하에 종군하면서 적을 막았다. 이때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일본군 주력은 울진 서쪽 태백산을 넘어 봉화쪽으로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병은 봉화현 동부지구 산림지대에 잠복하였다가 급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척후병과 보초들의 잘못으로 위치가 폭로되었고 류종개는 힘 모아 싸웠으나 증원이 안 되고 류종개와 윤씨 형제는 전사하고 말았다.

## (5) 매년 7월 28일(음력) 의병 추모제

소천 지역 전투에서 전사한 분들에 대한 조선 조정의 국가적 예우를 보면 류종개 의병장에게 예조 참의에 증직, 같이 전사한 윤씨 형제, 김인상 등에게 포증(褒贈)했으며, 삼강행실(三綱行實)에 이들의 전(傳)을 수록하고, 별전(別傳)을 지어 정문(旌門)하라고 한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보인다. (『광해군일기』 92권)

그 뒤 구한말까지 류종개 의병대장을 비롯하여 무명의 의병들의 고혼을 달래기 위하여 관원 1인과 산직(山直) 12인을 배치하여 영혼을 위로했다. 경술국치 이후 관에서 제사를 받들지 못하자 민간 차원에서 일제의 삼엄한 감시 하에서도 소천면민(小川面民)들이 몰래 합동 분향을 해왔으니 그 정신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었다. 해방 후 소천면 단위 행사로 매년 음력 7월 28일을 기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1985년 12월 봉화군과 봉화문화원이 합동으로 임진란 의병 전적 기념비를 건립하고 군민의 정성으로 적석탑(積石塔) 7개를 쌓아올려 매년 음력 7월 28일 추모제를 지내다가 정부 차원에서 소천면에 충렬사(忠烈祠)를 건립하여 군(郡) 주관으로 매년 추모제를 올리고 있다.

## 4) 의성(비안), 군위(의흥)

경상좌도 북부의 남은 지역은 의성현, 비안현, 군위현, 의흥현 등 4개의 현(縣)을 포함하고 있다. 각 현은 독자적으로 소규모의 의병조직이 있었지만 안동열읍향병이 조직될 때 조직에 가담하였다. 임진란과 관련된 기록이 각 현이 일본군의 중요 진출로였기 때문에 일본군의 통행과 주둔, 노략질은 피할 수 없었다. 의흥, 군위, 비안은 임란시작과 동시에 좌로(左路)로서 ……울산-경주-영천-신녕-의흥-군위-비안-용궁-문경-조령-충주……중간 지점이었고 의성은 의흥에서 탑리를 지나 의성으로 들어온 왜군은 바로 안동으로 향할 수 있었다.

의성, 비안, 군위 지역은 안동과 인접해 있고 특히 예안 현감과 안동 부사를 겸한 신지체가 양쪽의 의병을 이끌고 이들 지역으로 출진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임진란 자료는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에서 의성군 당국의 비협조로 관련 연구와 세미나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특히 의성과 비안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임진란 지역 의병 조직의 선구자 오봉 신지체 선생의 고향으로 부모와 가족이 살고 있는 의성현에 대한 기록·자료가 너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앞에서 누차 언급하였다. 특히 의성현·비안현·군위현·의흥현 4곳의 임란 피해와 항왜 의병 활동에 대한 연구가 현재 의성·군위의 행정 당국의 비협조로 이곳 출신의 필자로서 위의 봉화 지역 임란 연구(『경북지역 임진란사』 2권) 기록을 보면서 한심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다. 임진년 1592년 5월 중순 이후 조선 각 지역을 일본군이 장악하자 이들에게 부여하는 조선인들의 노략질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면서 경상좌도 여러 곳에서 초기적인 형태의 의병이 일어났다. 5월말 일본군이 의성과 군위 일대를 약탈하자 품관(品官)<sup>181)</sup> 신씨(申氏)가 마을의 대소인(大小人)을 이끌고 일본군을 막기로 하고 소수의 정병을 거느리고 가서 일본군 선발대의 의성 일대 진입을 막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군 본대의 공격으로 의성 지역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sup>182)</sup> 경북 북부 일대에서 최초로 조직화된 의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① 먼저 안동 부근 예안은 현감 신지체가 6월까지 고을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사족들이나 품관들이 일본군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여 적극적으로 의병을 조직하기 어려웠던 것과는 여건이 달랐다.
- ② 4월에 경상도 안집사(安集使)로 임명된 김륵(金玊)이 5월에 안동지역에 도착하여

181) 품관(品官) : 품계(品階)를 가진 관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182) 노영구, 전계 논문, 447쪽.



의병 초모(招募)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안 현감 신지제에게 안동 부사를 겸하도록(1592.5)하고 김해(金垓)를 안동열읍향병 대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6월이 되면서 안동 지역 여러 의병부대 사이에 연합 전선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③ 경상좌도 북부지역의 의병은 초기부터 관군과 상호 협조, 연합 작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조선군의 대응이 본격화되자 6월에 들어 예천·용궁·안동 등지에 일본군이 나타나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안동 일대로 침입한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 안집사 김륵은 6월 15일 예안 현감 신지제와 용궁현감 우복룡(禹伏龍)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다인(多仁, 당시 상주에 편입)과 의성의 일본군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조선군은 패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조선군의 패배로 백성들이 흩어져 예천의 동쪽 마을들이 모두 텅 비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선조가 임진란이 일어나자 김륵을 경상좌도의 안집사로 임명한 것은 영주 출신으로 퇴계의 문인으로 지역 사정에 크게 밝다는 것이었다. 1592년 5월 중순부터 김륵은 도착 즉시 선조의 선유문(宣諭文)을 베껴서 각 고을에 배포, 창의를 도모하였다. 김륵은 관할 각 지역을 순시하면서 지역책임자 수령의 업무 독려와 가장(假將)의 임명이었다. 민심 안정과 지역 재건을 위해 수령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김륵은 수령이 도망간 예천·풍기·안동·의성·의흥 등은 학식이 있거나 품관인들로 가장(假將)을 삼아 지휘하게 했다. 예로서 안동은 전 도사(都事) 안제, 전 검열 김용(金涌), 풍기는 교서 박사 황서(黃曙), 의성 훈련권지 권희순, 예천 전 현감 이유, 의흥 품관 박연(朴淵), 군위 품관 장사진(張士珍)을 임명하여 관서업무를 담당하고 군사를 모집하게 하였다. 이들 지역은 모두 안동 진관에 속한 곳이다.

1592년 6월 초에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조정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사람들의 전언) 용궁·예천·풍기·영주·예안·봉화·안동·청송·진보·영해·영덕·청하·홍해·하양 등 14곳 고을은 아직 난리를 겪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 수령 중에 용궁 현감 우복룡, 예안 현감 신지제, 봉화 현감 황시 외에 나머지 수령들은 산골에 숨기도 하고, 간 곳을 알지 못하고 있다. 안집사 김륵이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다인과 의성으로 척후를 보낸 병력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봉화·영주·풍기 등에 군사를 보내 일본군을 소탕하려 했는데 중과부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6월 초에 일본군이 용궁과 예천 경계를 난입하여 침범하자 김륵은 봉화·예안·영주 수령에게 군사를 이끌고 용궁과 예천 반면으로 가게 했다. 그 이유는 의성·다인·예천 등지를 쳐들어온 일본군을 그 곳에서 막아야만 안동을 비롯해 영주·풍기·봉화 지역에 진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예천 방면으로 진격한 4명의 수령 중에 용궁 현감 우복룡과 예안 현감 신지제만이 퇴각하지 않고 진을 치면서 일본군을 기다렸다가 6월 15일 예상치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군의 급습을 받아 아군의 인명 피해를 많이 낸 채 간신이 살아서 돌아왔다. 안동부에서 일본군이 철수한 시기는 7월 18일 무렵이고 이들은 풍산으로 후퇴, 7월 23일 구담으로 옮겨 갔다. 8월 초 상주로 물러났다. 이와 같이 일본군의 퇴각, 이동은 7월 25일, 28일 영천성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전한 여파이며 일본군의 군위·의성·안동·예천 등의 고을에 진을 치고 있다가 영천에서 섬멸당한 뒤로 군위에 있던 병력은 철수해서 개령으로 향하고, 의성·안동·예천의 일본군도 풍산으로 물러났다.

### (1) 의성지역 사족(士族)의 의병 지도부 구성

안동·예안 지역에 인접해 있던 의성과 군위는 학문적으로 안동의 퇴계 이황의 학맥을 그대로 이어받고 직접적인 영향권 속에 있었다. 퇴계는 관직생활을 일찍 끝내고 저술과 제자양성에 집중하였으며, 안동지역과 범 안동문화권으로 제자군이 넓게 형성되는데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조목, 김성일, 류성룡 등이다. 월천 조목은 15살 때 38살의 젊은 이황을 스승으로 삼았고, 이후 예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단이 형성되었다.

김부인(金富仁, 1512~1584), 김부필(金富弼, 1516~1577)을 비롯한 오천 5형제와 금난수(琴蘭秀, 1530~1604), 이덕홍(李德弘, 1541~1596)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훈맥과 학맥으로 엮힌 인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퇴계 사후 월천계열 또는 예안학단으로 지칭되면서 퇴계학의 중심이 되어 왔다. 학봉 김성일은 19세 되던 1556년 퇴계문하에 나아갔고, 서애 류성룡은 21세 되던 해인 1562년 퇴계문하에 입문했다. 선배들이 월천계열 학인들에 비해 입문 시기가 늦었지만 이후 이들은 출사를 통해 퇴계학의 실천 정신을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려고 했다.

이후 퇴계학은 경상도 북부지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낙동강 중류지역까지 확대되면서 한강 정구(鄭述, 1543~1620), 여헌 장현광(張顯光, 1554~1637)으로 대표되는 성주와 구미지역으로 제자군이 형성된다. 의성지역의 퇴계학맥과 류성룡, 김성일의 문하생들이 안동지역과 구별 없이 과거급제와 성리학자를 배출하면서 의성지역 제일의 명문사족으로 자리를 잡는다. 조선후기인 1700년 초부터 1894년 과거제도 폐지 때 까지 서인의 장기집권으로 남인이 대부분이었던 영남지역은 과거 급제자 수가 현저히 줄었다.

조선 중기까지 의성지역의 명문사족은 안동 김씨, 아주 신씨(鵝洲申氏), 영천 이씨 등이고 이들이 의성지역과 안동열읍향병의 지도부 위치에 있었다.

〈표12〉 의성지역의 성씨별 과거 급제자와 성리학자 수

성씨	과거 급제자	무과 급제자	사마시 급제자	성리학자
안동 김씨	12		27	3
아주 신씨	11	2	22	8
영천 이씨	8		13	4
함양 박씨	4		10	3
의성 김씨	3			
영양 남씨	3	3		
경주 김씨	2			
밀양 박씨	2			
파평 윤씨	2			
영일 정씨	2			
순천 장씨		5		
광산 김씨		2	8	
선산 김씨			5	
비안 박씨		2		

## - 의성지역 유명 유학자(31명)

- 아주 신씨 8명 : 신우, 신원록, 신지제, 신적도, 신달도, 신열도, 신봉석, 신체인
- 영천 이씨 4명 : 이희발, 이민환, 이광준, 이민성,  
    군위지역 세거, 이광준(강원도 관찰사) : 의성 금성 산운으로 임  
    진란 때 이주, 3부자 대과 급제
- 안동 김씨 3명 : 김사원, 김광수, 김종덕
- 의성 김씨 3명 : 김용하, 김응하, 김엽

## - 의성(의성, 단밀, 비안) 문과 급제자 69명, 유명 성리학자 30명

## - 의병 지도부

- 안동열읍항병 : 의성 정제장-김사원(金士元), 신흥도(申弘道)  
    비안 정제장-조단(趙端)  
    군위 정제장-이영남(李榮男)  
    별장-장사진(張士珍)

전향유사-홍위(洪瑋), 권행가(權行可)

의흥 정제장-강충립(康忠立), 박문윤(朴文潤), 이호인(李好仁),

홍경승(洪慶承)

군위 모의사-이보(李輔)

안동열읍향병(김해부대)에 참여한 인사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명망 있는 사족이었다. 의병장 스스로 진정한 의병은 사족 내지 유생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경상좌도 의병의 명단을 의병도대장(義兵都大將) 김면(金沔)에게 보고하였을 때 경상좌도의 의병이 모두 유생으로 편성된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참 의병이다.'라고 했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이들은 학통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황의 제자이거나 이황의 직전제자인 조목, 류성룡, 김성일의 문인들이었다. 또한 김해부대의 안집사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복(金勃) 역시 이황의 문인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학문적인 일체감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도 겹치는 밀접한 사이였다. 안동지역 의병들이 관군과 큰 마찰 없이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김해부대의 경우 안동·예안·의성·군위·비안·내성·선산 등 상당히 광범한 지역에 거치고 있다. 또 『난중잡록』에 따르면 예천·청송·영해의 의병장도 김해의 지휘를 받았다고 한다. 『향병일기』에 의하면 김해의 지휘를 받고 실제 전투에 참여한 부대는 안동·예안·봉화·영주·예천 의병이었다. 의성과 그 이남 군현의 의병은 대체로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데 치중했다. 위에서 언급한 의성지역의 능력 있는 사족들은 대부분 의병 조직과 활동에도 앞장을 서고 있었다. 점곡 사촌 안동 김씨 김사원, 김사정 등 3형제, 아주 신씨의 신심(申心)·신흘(申屹) 형제, 신광도·신상도·신홍도 집안 그리고 지방 수령이었던 오봉 신지제와 그의 숙부 신몽필(申夢弼), 백씨 신지효(申之孝), 안동 권씨 권신국, 권희순, 건마산성 전투에서 순절한 의성 김씨 형제들도 사족 출신들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개별 소개를 하기로 한다.

## (2) 의성지역의 항전·전투<sup>183)</sup>

여기서 의성지역은 현재의 의성읍, 비안읍(면), 다인, 단북지역을 포함한다. 가등청정(加藤清正) 부대가 영천·의흥에서 군위·도리원·비안지역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의흥에서 탑리·의성·안동·영주·죽령 코스와 더불어 부분적인 전투와 저항이 있었다. 임란직후 상주의 왜병들이 비안·도리원·구미·의성으로 움직여 안동으로 들어간 기록이 보인다. 지금까지 작은 충돌을 포함하여 6번 전투가 있었는데 드러난 것은 세 곳으로 건

183) 『의성의 임란사와 호란사』, (사)의성 향토사 연구회, 2015, 16~41쪽.

마산성(의성 단촌편과 점곡면 경계) 전투, 금뢰(金磊, 봉양면) 덕은동 전투, 단밀전투는 『의성군지(義城郡誌)』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건마산성(乾馬山城)은 경상좌도 문소군(의성) 점곡면 송내리와 단촌면 병방리(并方里) 경계에 소재한 건마산에 쌓은 성으로 일명 병방성(并方城)이라 하며 이곳 주민들은 성재라고 부르고 있다. 건마산성 전투에는 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고, 김치관이 전투 상황을 기록한 『종형건마산사절시사(從兄乾馬山死節時事)』에 의해 전투상황과 피해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조정에서 내려온 안집사(安集使) 김륵(金玊)의 통솔을 받은 권희순이 크게 승리를 거둔 덕은동 전투는 단편적인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김륵의 지휘를 받은 김희는 비안현을 거점으로 활약하다가 단밀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 이외에 예안 현감 신지제가 의병과 관군을 이끌고 의성에 있는 적을 토벌한 것, 군위와 의성 경계지역에서 전투, 용궁과 예천에서 의병이 다인을 공격한 것은 구체적인 전투 기록이 없다.

### 가. 건마산성 전투

건마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김응주(金應周, ?~1592)의 아들인 김치관(1569~1661)이 김치중(金致中, 1550~1592) 등 1숙5종반(一叔五從班)이 전사(숙부 김응주와 치중·치화·치홍·치강·치공)하자 그 시신을 장례 지낸 후 전투상황을 『종형건마산사절시사(從兄乾馬山死節時事)』에 남겼다. 임진란이 나던 해 7월 1일부터 연 4일간 의병과 왜군이 각각 100여명의 인명 피해가 난 치열한 전투로 그 전투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다.

의성이 왜군에 의해 유린되고 4월 30일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몽진(蒙塵)<sup>184</sup>의 길에 오르자 안동부 서쪽 회곡리에서 고향인 의성 중사촌(점곡면 중리)으로 돌아온 김치중은 숙부인 응주의 격문을 돌리고 동지를 규합하니 권희순·김덕기 등 여러 명이 모였으며 숙부인 응주의 건마산을 요새로 할 것을 제의한 대로 건마산에 돌과 흙으로 산성을 축성하고 왜군을 몰아낼 것을 준비하였으며 노약자는 병암정사(屏巖精舍)로 피신하게 하였다.

군위읍 길은 왜군이 왕래하는 중요한 통로임을 알고 김치중·김덕기·장춘우 등과 더불어 백 명도 되지 않은 병력으로 적라산(赤羅山) 허리 부근에 왜군이 오기를 잠복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왜적이 오지 않아 건마산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1592년 6월 그믐에 왜적이 우리 부(府)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비와 군량미 등 준비를 갖추었다. 7월 1일 왜적의 선봉 400여 명이 후평(後坪) 들판을 따라 돌입하자 일시에 뿔 나팔

184) 몽진(蒙塵) : 임금의 난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감.

을 불며 접전하여 무기와 갑옷 등을 다수 노획하였으나 안철수가 앞장서서 활로 적을 쏘아 죽이기를 그치지 않다가 왜군이 쏜 조총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튿날에도 또 다시 적이 공격해 왔고 3일째에도 전투가 계속되었으나 격파하였다. 4일째 되는 날 인근에 있던 왜군까지 합세하여 건마산성으로 밀고 들어왔으나 치열한 전투로 100여 명을 사살하였다. 승세를 타고 성문을 열고 투격하던 중 잠복해 있던 적에 의해 패하였고 응주가 순절(殉節)하고 치홍·치협·김덕기·장춘우 형제 등 많은 의병들이 전사하였다. 김치중은 절벽에 몸을 던졌으며 김응하는 분을 이기지 못해 탄식하고 자결하는 등 의병도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 - 건마산성 전투 의병간부 사망자(의성 김씨)

- 김덕기(金德驥) : 향리 선비로서 김치중과 함께 전사.
- 김응하(金應夏) : 류성룡과 이종(姨從)사이, 김치중의 백부(伯父), 자결.
- 김응상(金應商) : 김응하의 아우, 임란 때 김치중과 함께 분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절사(節死)
- 김치중(金致中, 1550~1592) : 서애 류성룡 문하, 서애 셋째 아들 류진(柳珍)은 김공에게 수업 받음, 선비 권희순, 김덕기 아우 치화, 종제 치강, 백부 응하 등 100여 명의 인원으로 창의
- 단촌 후평 들판에서 4일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고 100여 명을 사살하였으나 안철수(安鐵壽), 김치하 등 100여 명이 전사했다.
- 김치윤(金致潤) : 김치중의 동생으로 건마산성 전투에서 전사
- 김협(金挾) : 김치중의 아들로서 전투에서 전사
- 김치홍(金致弘, ?~1592) : 김치중의 종제, 건마산 전투에서 전사
- 김치화(金致和, ?~1592) : 김치중의 동생, 건마산 전투에서 전사
- 김치강(金致剛, ?~1592) : 김치중의 종제, 건마산 전투에서 전사
- 김치공(金致恭, ?~1592) : 김치중의 종제, 건마산 전투에서 전사
- 박종연(朴宗淵) : 향리 선비로서 창의하여 건마산성 전투에서 전사
- 손대효(孫大孝) : 건마산성 전투에서 전사
- 신광도(申光道) : 건마산성 전투에서 전사
- 장계우(蔣桂友) : 장춘우 동생, 건마산성 전투에서 전사
- 장춘우(蔣春友) : 장계우 형님, 건마산성 전투에서 전사
- 조정원(趙正遠) : 마음 사람으로 김치중과 함께 전 참가, 전사

### 나. 금뢰(金磊, 봉양면)면 덕은동(德隱洞) 전투

1592년 7월 건마산성 전투 후 권희순 등이 결사대 500여 명을 조직해 금뢰면(현 봉양면) 덕은동에서 적을 크게 무찌른 전투로 이에 대한 기록된 것이 적어 전모를 밝힐 수 없다. 전투를 주도한 권희순 공이 12월에 안동 관관에 체수되었다가 이듬 해 장기(영일만 모서리) 현감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덕은동 전투는 1592년 7월 이후 12월까지 시기에 전투가 있었고 이때부터 의성군 동부지역은 다소 평정된 것으로 보인다.

권희순(權希舜, 1548~1595)의 아버지는 청산 현감(靑山縣監)을 지낸 권상의(權尙宜)이며 단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처가가 있는 의성 사촌마을에 낙향하여 은둔하였다. 천문·지리·병법·산수 등에 널리 통달하였고 젊은 나이에 향시에 세 번이나 합격하였고, 1583년 무과에 급제하여 문무겸재자(文武兼材者)로 칭찬이 자자하였다. 1584년 정로장(定虜將)과 선전관을 거쳐 1585년에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 1586년 훈련원 정내금위별시(訓練院正內禁衛別侍)에 체수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안집사 김륵(金玊)의 천거로 의성수성장(義城守城將)으로 김치중공과 건마산 전투에 참전하였고 김치중이 전사하자 제(祭)를 올리고 결사대를 조직하여 덕은동 전투에서 적의 수급 23급을 베는 등 군공을 크게 세워 비안, 의흥까지 평온을 되찾았다. 1592년 안동 관관을 거쳐 장기 현감(長鬐縣監)으로 백성을 구휼하였고 1595년 2월에 왜선 수십 척이 연일만(延日灣)으로 침공하는 왜적을 맞아 정예장사 300여 명을 인솔하여 전투 중 유탄에 왼쪽 겨드랑에 맞으면서도 지휘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병창(病瘡)으로 귀향하니 읍민들이 송덕비를 세워 공훈을 기렸다. 그 후 조정으로부터 1596년 훈련판관, 임진란이 끝나던 해인 1597년 훈련 도총부(訓練都摠府)등을 체수 받았으나 부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1598년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덕은동 전투의 왜병은 선방산(船放山) 넘어 군위읍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으로 판단된다. 덕은동에서 멀지 않은 장대, 삼산(오산, 고산 등)의 전투 및 약탈도 군위 주둔 왜병이었으며, 덕은동 뒷산을 넘으면 행정적으로 군위지역이고, 지보사 사찰도 군위읍 상곡리 산79에 소재하고 있다. 권희순 공과 팔공산 회맹(會盟)부터 자별(自別)했던 사이인 박무선(朴茂先)이 엮은 행장(行狀)이 전해온다. 권희순의 묘는 점곡면 운암3리(지곡)에 현존하고 있고 후손이 1974년 2월에 묘소에 빗돌을 세워 관리(음력 10월 2일에 제사)하고 있다.

덕은동 전투에서 공을 세운 또 한 사람은 권희순의 서종숙(庶從叔) 권신국(權信國)이다. 그는 1592년 권희순이 조직한 결사대에 합류하여 왜적 23명을 베는데 공을 세웠다.

### 다. 단밀(丹密) 전투

이 지역의 전투는 단밀면 소호 4리이고 선산 구미사에서 넘어오는 왜적을 이 지역에서 맞아 전투가 있었으며 지금도 이 마을에 군량터가 있다. 왜군의 주된 통로인 단밀 지역은 다인·단북·비안·안계 지역과 더불어 상주·낙동·문경·예천·조령·충주로 연결되는 곳으로 일본군의 전략적인 주둔지였다. 단밀지역은 김희(金喜, 1564~1592)의 병장으로 치열한 전투 끝에 전사한 기록 이외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김희는 고려 말 충신 김제(金濟)의 후손으로 군자감직장(軍資監直長)을 지낸 아버지 김예복(金禮復)의 비안면 서부 2리(박연)에서 태어났다. 고을에서는 박학다식하여 추앙을 받았으며, 임진란이 일어나 의병장 김해(金垓)가 잇는 안동열읍향병 소속 비안 의병장으로 활약 하다가 단밀 전투에서 28세로 장렬히 순국하였다.

목 없는 시신이 돌아오자 부인 안강 노씨(安康盧氏)도 남편 따라 목숨을 끊었다. 임란 후 조정에서 호조정랑(戶曹正郎)에 증직되었다. 동생 철(喆)이 왜군에게 잡히게 되자 칼로 자결하였으며 아내 남양 홍씨도 자결하였는데 일본군이 철수한 뒤 집안사람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회생하였다. 김희 공이 일찍 순국하여 후사가 없어 막내아우 김계(金啓)의 맏이인 옥(鉦)으로 대를 이었는데 그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비안의병장으로 출전하여 순국하였다. 묘는 비안면 장춘리에 현존하고 있다. 김희의 의로운 순국의 뜻을 기려 박연(朴淵)마을 큰길가에 1981년 순천인 박노선(朴魯善)이 비문을 지어 세웠다.

### (3) 임란과 관련된 의성의 각 마을<sup>185)</sup> 성(城) 등

임란으로 각 마을은 왜군에 의해 약탈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특히 왜군의 주 통로인 다인, 단밀 등의 의성군 서부지역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동부 쪽인 옥산·산곡·춘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으로 보이며, 난리 통에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초토화되기도 하였으며 농지도 황폐화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은 임란과 관련된 마을은 2002년 의성 문화원에서 펴낸 『의성지명 유래』·『의성군지』·『의성읍지』·『향교지』 등이 참고 되었다.

#### - 의성읍

○ 후죽(幘竹) 1리, 성상동(城上洞)

읍성은 토축(土築)으로 둘레가 4720척인데 폐했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적혀 있다. 북부면 지역으로 성상도·성하동·성문동·북원을 합하여 1914년

185) 상계, 『의성의 임란사와 호란사』, 109~124쪽.



후죽이라 하고 의성면에 편입되었고 읍성이 있어 군영으로 병사 훈련시키는 활터였으며, 사포(射布)로 둥근 과녁에 대나무로 만든 화살을 쏘는 곳이라 하여 과녁 후(幟)자와 대 죽(竹)자를 취하여 부르게 되었다.

○ 후죽 2리 성문동(城門洞)

조선조에 성이 축된 터로 의성 초등학교에서 팔성리(성동)에 뻗친 성의 문이 마을 입구가 되고 지금의 신선당 근처에 있었기에 성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 팔성 3리 성동(城洞)-성산산성터(城山山城址)

성동에 있는 성이 있었던 터로서 임진란 때 쌓았다고 함

○ 철파리(鐵坡里), 역마(驛馬)·화주배기

임진란 때 주민들이 쇠붙이와 같은 굳은 정신을 방패로 하여 왜적을 막아 내었다고 철패(鐵牌)라고 부르다가 철파가 되었다.

○ 봉양면 삼산리(三山里), 고산(高山)

조문국 시대부터 하천면으로 기와조각이 출토되었고, 1595년경 의성 김씨, 동래 정씨, 김해 김씨 3성이 임진란 피난 적지로 개척하여 고산이라고 불려왔다.

○ 구산 2리, 덕은동

밀양 박씨와 아주 신씨의 집성촌으로 입향 시조는 아주인 신몽필 공이 입향하였고, 그의 아들 신지행(申之行) 공은 아버지와 임란 시 많은 재물을 바쳐 그 덕이 칭송되어 덕은(德隱)이라고 하였다.

○ 산성(山城)과 사찰(寺刹)

의성군의 여러 곳에 산성이 산재해 있으나 임진란과 관련된 것은 여섯 곳으로 나와 있다. 안계면의 고수성(古穗城), 금성면의 금성산성, 단촌의 건마산성, 봉양리 산성지(안계면), 의성읍의 치선리성지(致仙里城址), 비안면 화장산성(花藏山城)이 있다.

○ 단촌면 구계리 고운사(孤雲寺)

신라 신문왕 원년 681년 창건, 임란 때 사명대사가 승군을 지휘한 전방기지로 사용. 식량비축, 부상 승병의 뒷바라지를 하던 사찰, 대곡사(다인면), 빙산사지(춘산면), 수정사(水淨寺, 금성면)는 임란 때 승병들의 보급기지 역할을 했으며, 사명대사의 영정이 있다.

○ 치선리 성지(致仙里城址)

치선리 산성은 대구-의성 간을 잇는 국도 동쪽에 해발 230m 산 정상에 위치하며 남대천(南大川)이 동에서 남서쪽으로 에워싸듯이 흘러 적의 움직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적을 방비하기에 좋은 곳이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산성은 전체 둘레가 약 700m로 성안에 망루, 건물터, 봉수터, 문터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의성현지(義城縣誌)』에 의하면 선조 30년(1597)에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수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임란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산성으로 볼 수 있다.

(4) 의성·비안의 의병장

의성현과 비안현의 의병 조직은 안동열읍향병의 연합체에 포함되고 있었지만 개별적인 의병 조직은 가지고 있었다. 안동 향병 조직에 이름이 올려있는 의성 출신 인사는 다음과 같다.

- 의성 정제장(整齊將) : 김사원(金士元), 신흥도(申弘道)
- 비안 정제장 : 조단(趙端)
- 우위장(右衛將) : 신심(申心)
- 1592년 4월말 현재 의성 의병장 2명
  - 박무선(朴茂先)
  - 김사정(金士貞)

<의성 의병 완의약조(完議約條)<sup>186)</sup>>

선비들이 협의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적을 토벌하는데 몸을 아끼며 회피하려는 자는 온 가족들을 변방으로 이주시킨다. 그 중에 더욱 심한 자는 나라를 배반한 법률로 논죄한다.

- 여러 고을의 정제향병(整齊鄉兵)<sup>187)</sup>들은 주장(主將)의 호령에 따라 의진에 합세 하되 기일은 마땅히 재 통보를 기다린다. 상인(常人) 가운데 숨거나 회피하는 자는 모두 찾아내어 빠뜨림이 없게 한다.
- 각자가 강약을 판단하여 궁수 1오(伍)<sup>188)</sup>, 검·창병 1오, 기병 1오, 보병 1오로 구성하고 오(伍)에 각각 오장(伍長) 1인을 정하고 각 오에 별도로 대장(大長) 2인을 정한다.

186) 국역 『만취당선조실기(晩翠堂先祖實記)』, 안동김씨 도평의공파문중, 2017, 74~77쪽.

187) 의병 조직에서 각 소속 고을별로 독립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군수물자와 무기의 보급 관련 업무를 맡았다.

188) 오(伍) : 군대 5명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

- 대장(隊長)과 25인이 대(隊)이다. 여장(旅長)은 4대(隊)가 여(旅)이다. 각각 정하며 대가 오를 통솔하고 여가 대를 통솔한다.
- 계획과 구상이 있는 사람은 나이에 제한 없이 진소(陣所)에 모여서 좋은 계책을 진술한다.
- 향중의 부로(富老)들이 군량에 넣고자 하는 것들은 한 곳에 두고 편의대로 수송한다. 허약하여 전장에 나아갈 수 없는 자는 건강하고 날랜 노비를 대신 넣는다. 자원해서 곡물을 바치려는 자는 1석(石)으로 수량을 정하고 거두어 한 곳에 두었다가 전시에 상납자가 스스로 옮기게 한다. 부자에게는 수량을 늘리고 빈자에게는 수량을 줄이되 빈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공론을 따르며 감히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 상인(常人)이 상납하는 것도 받는다.
- 군량을 수합하는 유사는 각 고을에 두 사람을 정하되, 한 사람은 향리에서 수합하고 한 사람은 군영에서 활용한다.
- 군기(軍器)는 직분에 따라 정비한다. 적진에 나아가지 않는 자가 군기를 가지고 있으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준다.
- 각 고을은 진을 치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 조약을 어기는 자, 기한을 놓치는 자, 대오를 이탈하는 자, 떠드는 자, 장난치고 게으른 자는 각각 경중에 따라 군율(軍律)로 다스린다.

#### - 『문소지(聞韶誌)』<sup>189)</sup>의 김사원 소개

김사원은 일사 김광수(金光粹)의 증손으로 일찍이 이황의 문하에서 유학하여 음양오행과 청수의 학설을 배웠다. 베풀기를 좋아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원근에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 만약 부녀자들이 와서 구걸하면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바르게 앉아 그들을 구휼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규합하여 대장 김해에게 나아갔으니 그 충위가 이와 같았다.

1592년 11월 7일 안동열읍향병 대장 김해가 군관과 장서를 거느리고 의성 의병진에 도착하여 감군(監軍)을 임명하였다. 11일 좌부장 이정백이 의성 전황을 보고하였으며 12월 28일 의성 정제장 김사원은 비첩(秘牒)을 대장에게 발송하였다.

1593년 1월 5일 김해 대장이 의성에 도착하여 향교에서 의성 정제장 김사원·신홍도, 우위장 신심등과 왜적 토벌에 뜻을 같이 하기로 회맹(會盟)을 가졌다. 6일에는 의성 정대남 집에서 의흥 정제장 박윤문 이호인과 군위 정제장 이영용과 상론하였으며, 비안 정

189) 문소(聞韶)는 의성의 옛 지명이며, 『문소지(聞韶誌)』는 지금의 『의성군지(義城郡誌)』이다.

제장 조단은 의병 20명을 거느리고 합진하였고, 군위의 모의사 이보, 전향유사(典餉有司) 홍위 등이 도착하여 9일에 인동(仁同) 지역 왜병을 토벌할 것을 약정하였다.

의성 의병진은 상주 함창(咸昌) 당교(唐橋) 전투에 4읍(의성·의흥·비안·군위) 향병들을 출전하기로 계획했으나 흑한과 굶주림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만취당 김사원은 1601년 6월 18일 63세로 별세하였다. 1592년 4월 말 초기 의성 의병대장의 한 사람 김사정(金士貞)은 김사원의 동생이다. 그 역시 안동김씨 집성촌 의성 점곡 사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서애 류성룡의 외가가 이곳이고 류성룡도 외가에서 출생했다. 1592년 4월 임진란이 일어나자 당시 41세인 그는 형과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의병을 모집하고 경주 등 다른 지역 의병진과 연계하였다.

### ○ 김사정(金士貞)

1552년 3월 14일 의성·점곡·사촌 마을 안동 김씨 집성촌에서 태어났고, 김사원의 둘째 동생이다. 임진란으로 의성 정제장인 백형은 경주 의진으로 향했고 곽재우 의병이 의령 신반에서 점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형과 함께 달려가서 합병하였다. 의령 정진에서 목책을 세우고 곽재우와 함께 대항했으며, 정유재란 때 곽재우가 화왕산성으로 의진을 옮겼을 때 후송재 김사정은 여러 의병들과 쉴을 쌓아놓고 불을 지피 패하면 함께 죽을 각오로 대비하였다. 만년에 김사정은 고향 옆자리에 초당을 지어 후송재(後松齋)란 편액을 걸고 수양과 학문연마로 교육에 힘썼다.

### ○ 김사형(金士亨, 1541~?), 김한(金澣, 1583~1652)

본관 안동, 자 도겸(道謙), 호 독수헌(獨秀軒), 배(配) 순흥 안씨. 1573년 과거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성균관 박사(정7품)에 임명, 유생을 지도하였다. 김사정의 형으로 상주 당교 회맹에 의성 의병의 대표로 참여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 때 동생 사정(士貞) 아들 한(澣)과 곽재우 화왕산 의진에 참여하여 활약하였다. 특히 군량미 지원에 힘썼다. 김한은 김사정의 둘째 아들이었으나 김사형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15세에 아버지를 따라 곽재우 의진에 의병으로 참여하였다. 『화왕성동고략』에 이름이 올라있다.

### ○ 김회(金淮, 1578~1641)

본관 안동, 자 거원(巨源), 호 경암(敬菴)이다. 15세에 임진란이 일어나 아버지 후송재 김사정을 따라 의병에 참여하였으며, 진주 축석루에 올라 비분강개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1612년(광해군)4년 문과에 급제, 161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조천일록(朝天日錄)』을 남겼다. 1627년 동경교수(東京教授) 임명, 1632년 형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임금을 호종하고자 문경새재까지 갔으나 청 태종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돌아와서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하다가 64세로 고향인 사촌마을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 ○ 김태(金兌, 1561~1609)

본관 안동, 자 사열(士悅), 호 구담(九潭), 명종 신유년 5월 풍산읍 소산리에서 태어났다. 임란이 일어나자 김해 대장이 이끄는 『안동열읍항병』에 군관으로 참여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도 36세로 분연히 창을 들고 일어나 창녕 광재우 의진에 참여, 구국의 격문으로 의병을 모아 출전하였으며 『화왕산성 제현 창의록(火旺山城諸賢倡義錄)』을 지어 당시에 참여한 151명의 인적 사항을 적었다.

서애 류성룡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났으며 우복 정경세(鄭經世) 등의 여러 제현들과 교류하였고 임란 후 여러 차례 천거되었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고 사후에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에 증직되었다.

#### (5) 의병 간부 신흥도 · 신희 · 신심 등

예안 현감 신지제의 의병 창의에 영향을 받고 아주 신씨 읍파에 속하면서 나이와 항렬이 비슷한 다음 3인이 의성 의병의 주요 간부로서 안동열읍항병 조직에도 가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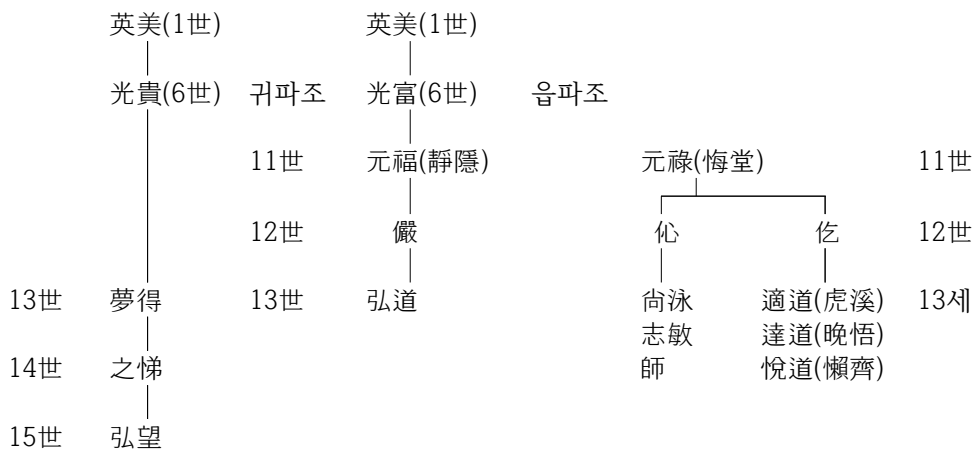
#### ○ 신흥도(申弘道, 1558~1611)

본관 아주(鵝洲), 자 대중(大中), 호 정봉(鼎峰), 1592년 임진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1592년 예안현에서 신지제와 김해가 의병을 창의할 때 동참하였다. 전란 초기 첨사(僉使) 배경남이 패주를 거듭하며 도망치자 그의 죄상을 순찰사에게 알리고 장사진(張士珍)으로 교체를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1598년 명나라 유격장군 섭방영(葉邦榮) 부대의 주둔지가 안동에서 의성으로 옮기면서 병졸들의 횡포가 심하여 고을의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흩어졌다. 이때 섭방영에게 편지를 보내 보급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그들의 횡포를 진정시켰다. 1600년 관찰사가 유일(遺逸)로 천거하였으나 사양한 뒤 선암사 아래에 은거하며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 신심(申心, 1547~1612), 신흘(申屹, 1550~1614) 형제

신심 : 본관 아주, 자 희지, 호 흥계·성헌 어려서 재주와 효행이 뛰어났다. 성장함에 따라 장현광·서사원과 도의를 맺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 신흘과 함께 경상도 안동부 일직현에서 안동 의진 병영의 영남 의병대장 김해(金垓) 정세아(鄭世牙), 류종개(柳宗介)와 더불어 적을 토벌할 것을 결의하였다. 고을에 큰 흉년이 일어나자 사재를 털어 백성들을 구휼하였다. 사헌부 감찰(監察)을 역임, 경상좌도 내에서 왜적 토벌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의성지역 감찰 신심, 군위지역 장사진, 밀양 김태허, 함안 안신갑, 성주 도서, 울산 장오석, 고성 최강 등이다.

계보(系譜)



○ 신상도(申尙道, 1570~1615)

본관은 아주, 자는 언유(彦由)이다. 할아버지는 신원록이며, 아버지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신심(申心)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학업에 충실하였다. 임진란 때 창의하여 왜군 토벌에 앞장섰으며, 관직은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에 올랐다. 묘소는 의성읍 치선리 산47에 있다.

○ 신몽필(申夢弼, 1542~?)

본관은 아주, 자는 은경(殷卿)이다. 오봉 신지제의 숙부로 임진란 때 거액의 전 재산을 군량미로 쓰도록 관청에 헌납하였다. 임란 7년 동안 각 고을의 군량미 조달 실태와 의병들의 활동 상황을 알리고 조정에선 대책을 세우도록 한양에 와서 조카 신지제에게 알렸으며 아울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읍면리 동 단위 비밀 군량미 창고

조성이 되었고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 공로로 사후에 평민임에도 선조(宣祖)로부터 증 자헌대부 한성판윤(贈資憲大夫漢城判尹), 배위(配位)엔 정부인고창오씨(貞夫人高敞吳氏) 교지(教旨)가 내려졌다. 유훈(遺訓)으로 군량미를 비롯하여 군수품 준비를 게을리 하면 왜병에게 다시금 짓밟힐 날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자료12〉 왜군에게 화를 당하는 장면



## ○ 신지효(申之孝, 1561~1593)

본관은 아주, 자는 달부(達夫), 호는 응암(鷹巖)이다. 아버지는 몽득(夢得), 오봉 신지제의 형님이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8세 때 향교의 임원이 되고, 25세에 향인(鄉人)의 추천에 의해 향교의 교장이 되었다. 임란 때 왜군이 쳐들어와서 계모 오씨를 모시고 천동 바로 인접지역 하천(下川)의 암혈사이에 숨어 있는데 왜군이 가까이 들어오니 활로 쏘아 죽여 물리쳤으나 다시 적이 오자 같이 있던 어린아이가 울어 노모에게 화가 미칠 것을 걱정해 데리고 피신 중 왜적에게 왼쪽 어깨에 큰 상처를 당하였다.

당시 선성(宣城, 예안의 옛 지명) 현감으로 있던 아우 신지제에게 혈서로 “내가 해를 당한 것은 명(命)이라 할 것이나 노모는 다른 동생이 있으니 군은 오직 충성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침이 옳을 것이다. 난리가 나 어수선하니 혹 화를 입어 전사를 당하더라도 그 유골을 찾지 못할까 염려되니 군은 발바닥에 ‘선성(宣城)’이란 두 글자를 써서 표적이 되게 하라.” 한 뒤 며칠 후 향년 32세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부인 함창 김씨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다. 『응암실기(鷹巖實記)』가 전해지고 있다.

## (6) 신흘(申佺, 1550~1614) 『난적휘찬(亂蹟彙撰)』

이 자료는 위의 책을 신해진 교수(전남대)가 2010년 역주를 붙여 번역 간행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신흘은 위의 계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주신씨 11세손 신원록(申元祿, 悔堂)의 아들 형제 신심(申心)과 그의 동생으로 태어나 형제가 임진란 의성 지역의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난적휘찬(亂蹟彙撰)』은 1603년 편수청에서 찬집한 임진왜란 경상도 사적에 대한 조사 기록서이고, 당시 방백이자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에게 올렸던 편지 전문으로 그때 이 편지를 받아 본 이원익은 “근거가 넓으면서 정밀하고, 글의 이치도 전아하며 깊이 체득할 만한 기사로 갖추어졌으니 진실로 좋은 사관의 자질이다.” 하였다고 한다. 이 보고서 또 편지는 신흘 선생의 『성은선생일고(城隱先生逸稿)』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 내용 중에 오봉 신지제 선생과 관련되거나 예안·안동·의성·군위 등 오봉의 의병 활동 지역에 관계되는 것을 발췌하여 적어 보기로 한다.

## ① 1592년 5월 29일

왜적이 군위(軍威)를 불태우고 약탈하다 의성의 봉양면 쌍계천(雙溪川) 마을(장대리)은 사망자가 거의 70명이었다. 품관(品官) 정태을(鄭太乙)의 처(朴氏)는 자신의 두 딸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는데 부자와 부부 사이라도 서로 돌아볼 수가 없었다. 들판이 시체로 덮이자 개들이 그것을 찢어발겨 먹으니 시신이 온전한 곳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박씨의 개는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지



키면서 못 개들이 달려들면 사납게 으르렁거리 쫓고, 까마귀와 솔개 떼들이 달려들면 역시 똑같이 쫓았는데 태율이 2일 만에 비로소 돌아오니 박씨의 시신만 온전하였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이 일이 있기 전 같은 마을에 사는 품관 신씨(申氏)는 마을의 대소인을 이끌고 왜적을 방어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날 일찍이 왜적이 장대리를 향하니 신씨와 두서너 명의 정병(精兵)들이 쫓아가면서 활을 쏘아댔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두 왜적이 말을 타고 다가오자 신 품관도 서로 간의 거리는 겨우 10보 정도였다. 왜적이 칼자루를 잡고 곧장 달려들어서 신 품관을 향하여 던지니 신 품관이 겨우 피했고, 왜적이 또 작은 칼을 뽑고서 머리를 숙이고 곧장 달려드는 지라 신 품관이 활을 쏘았다. 그러자 왜적은 땅에 꺼꾸러졌다가 곧 일어나서 조금 전에 던졌던 칼을 집으려고 하였다. 신 품관이 또 활을 쏘니 왜적의 가슴에 명중되어 왜적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나머지 왜적은 마침내 군위로 도망갔는데 이 마을에서 20리 정도 거리였다.

안집사 김륙이 도망간 지역의 수령 등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켰는데 안동 수성장 전 검열 김용, 훈련 봉사 권희순을 의성 수성장으로 박사 황서를 풍기 수성장, 전현령 이유를 예천 수성장, 유학 박연을 의흥 수성장으로 임명하였다. 반면에 자리를 굳건히 지킨 용궁 현감 우복룡, 영천 군수 이알, 봉화 현감 황시, 예안 현감 신지제 등을 파견하여 각 읍의 군병을 거느리고 예천에 주둔케 하였다. 이때 이알과 황시는 병이 나서 본래의 직책으로 돌아갔고, 우복룡과 신지제만 군사를 거느리고 변고를 기다렸다.

## ② 6월 15일

용궁 지역에서 만난 왜적에게 패하여 군사 대부분이 죽다. 우복룡과 신지제등은 매우 위태로웠으나 요행히 화를 면했다. 다음날 왜적은 예천과 안동 등지를 쳐들어갔고 오래 되지 않아 예안을 밀고 들어갔다. 군위가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의성은 이전에도 왜적이 늘 오가며 불태우고 약탈하였다. 의성의 선비 김치중은 왜적이 의성현으로 쳐들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서 활을 쏠 줄 아는 자들을 불러 모아 매복시켜 방어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왜적이 그 마을로 돌진해 오는 것을 보더니 사방에서 피리를 불게 하여 동시에 추격하고 활을 쏘도록 하자 왜적은 깃발을 버리고 달아났다.

- 의성에 사는 손몽각의 딸은 군위에 사는 훈도 김광우의 처인데 광우가 왜적에 의해 죽자 손씨도 곧장 물에 투신하여 자살했다.
- 좌도에 순찰하는 왜적이 주둔한 곳은 의성·군위·인동·영천·대구·밀양·경주·창녕·현풍·부산·동래 등의 지역이다. 우도는 선산·상주·당교·개령·웅천·진해·고성 등지이다. 이 중에서 부산·김해 등이 왜적의 소굴로 가장 확고하고

오래된 근거지였다.

- 의성 전 감찰 신심(申心)이 향병(의병)을 결성하여 군위에 있는 왜적을 토벌하고자 열흘 사이에 수백 명을 모으고, 사유를 갖추어 초유사에게 서찰을 올렸다.(1592.6)

③ 1597년 1월

통제사 이순신은 얼마 전까지 수군이었던 까닭에 서인(庶人)으로 폐해졌지만 백의종군(白衣從軍)하고 원균(元均)은 이순신을 대신해서 한산도에 진을 쳤다. 원균은 평소 이순신에게 유감이 있었던지라 그의 마음은 이순신이 실패하면 흐뭇하게 여겨서 매사에 이순신이 한 것은 반드시 반대만 하다가 휘하 장수들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체찰부사(體察副使) 한효순이 순시하러 한산도에 도착하였는데 세 도의 수군장(舟師將)이 울부짖고 온 진(陣)이 와서 하소연하니, 삼도절도사(三道節度使)가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그 후에 순찰사 종사관(巡察使從事官) 신지제(申之悌)가 한산도에 들어가 그 실정을 자세히 살피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원균은 여러 장수들의 마음을 크게 잃어 군대의 형편이 모두 어그러져서 위급한 때에 전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은 서찰을 체찰사 막하(幕下)에 올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니옵니다.”라고 했다 한다.

④ 9월 10일

금오산성과 공산성 두 산성은 군량을 쌓아둔 곳인데 일시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만 보고도 간담이 떨어졌다. 왜적의 일진은 금산(金山)에서 성주를 거쳐 김해로 돌아갔고, 다른 일진은 상주에서 의성을 거쳐 도산으로 돌아갔는데 지나가는 곳마다 서로 교전을 하지 않았다. 의성현에서 류경춘(柳景春)의 미망인 강씨(康氏)가 3명의 왜적을 만났는데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며 협박하여 데리고 가려했지만 강씨가 따르지 않자 죽였다.

⑤ 1598.3

명나라 군사 유격장 섭사충(葉思忠)이 예천에서 의성으로 군대를 옮겼다. 4월 의성 사람들이 그를 위해 나무 기념비를 세워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선정에 감사하며 문왕이 쉬었던 감당(甘棠) 나무를 자르지 않았던 것과 같은 뜻을 나타냈다.

⑥ 신흙의 생애와 『난적회찬』

『난적회찬』은 400여 년 전에 경상좌도 의성의 재야 유학자이며 의병장이었던 성은 신

홀 선생이 임진란 기간 중 경상도 지역에 있었던 사적(事蹟)을 정리한 야사이다. 그는 1550년(경술년) 9월 9일 의성향교 앞마을에서 부친 신원록(申元祿)과 모친 숙부인 벽진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어머니를 모시고 황학산으로 피난하였다가 선조 임금의 파천 소식을 듣고 형님 홍계 신심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는데 따르는 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그는 형님 신심을 맹주로 추대했고 당시 의병 활동을 하던 김해, 류종개, 정세아 등과 일직현에서 만나(안동열읍향병) 왜적에 대항했으며 근방의 4~5개 읍(邑)을 보전하는 데 공헌하였다. 다음해 모친상으로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당대의 유학자 장현광, 서사원 등과 경전을 강론하였다.

1603년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을 찬집하였고 1608년에는 경상좌도 유생들의 영수로 당질 정봉 신흥도(申弘道)와 함께 회재 이언적의 억울한 일을 변명하는 상소를 올렸고, 1611년 광해군에게 퇴계를 비방한 정인홍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 (7) 이탁영(李擢英, 1541~1610) 『정만록(征蠻錄)』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자수(子秀), 호는 효사재(孝思齋)이다. 의성읍 상리리 현재 충효당(忠孝堂) 터에서 태어났으며 공의 아버지가 17세 때 객사하시자 홀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셔 효성이 자자하였다. 임란 때 51세로 경상도 순찰사 김수(金睟), 초유사 김성일과 같이 체찰사 류성룡 체찰부에서 의병 모집, 군량 조달, 전략 수립 등에 진력하였다. 임란 후 옥산면 금학리 성골에 피난 가 있던 눈 먼 어머니를 다시 모셔와 지극 정성으로 효도하였고, 나라에서 내린 벼슬자리를 사양하였다.

1592년부터 7년간의 난중일기인 『정만록(征蠻錄)』은 임란의 실상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역사적 사료로 가치가 커 1986년 보물 제880호로 지정되었고 한국 국학진흥원에 보관되었다가 의성 조문국 박물관 개원 때에 전시하기도 하였다.<sup>190)</sup> 숙종 때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通政大夫 僉知中樞府事)에 증직되었고 임금의 사곡(賜穀) 은전(恩典)도 하사 받았다. 충효사 등 2008년 충효로 도로 개설과 함께 국고 보조금으로 축대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하였으며 ‘효사재 이 선생 사적비’가 2003년에 세워졌고 후손들의 뜻으로 경재 왼쪽에 ‘충효박물관’ 터를 마련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묘는 의성읍 여시계(餘時計)에 안장되어 있다.

#### 가. 해제(解題)<sup>191)</sup>

이 역주(譯註) 『정만록』의 원본은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 의성 향리(鄉吏) 출신인 영리

190) 『의성의 임진란사와 호란사』, (사) 의성 향토사 연구회, 2015, 78~79쪽.

191) 이호응(李虎應), 『역주 정만록(征蠻錄)』, 의성문화원, 1992, 17~24쪽.

(營吏)로서 관찰사 김수(金睟)의 막료였던 이탁영이 8년간의 전투상황을 정보차지(情報次知)의 직책으로 견문한 바를 기술한 전란 일기이다. 역주자는 원본의 형태면과 내용면에 대하여 살펴면서 약간의 고증을 시도하고 가치성에까지 다소 언급해 보기로 한다.

#### - 원본의 실태에 대한 고찰

여기에 우선 원본의 체제와 서체(書體) 및 문체(文體) 등 형태적 실태와 사실(史實)로서 실상(實相)을 살펴보기로 한다.

- 체제 : 건곤(乾坤)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본은 가로가 23.5cm, 세로가 31.7cm이다. 건권(乾卷)은 149쪽이고, 곤권(坤卷)은 186쪽이므로 총 335쪽이며, 종이는 관아의 폐기 문서를 뒤집어 그 이면을 사용하였으니 초고본(草稿本)임을 증명한다.
- 문주(文主)와 필체, 문체 : 문주는 제자 이탁영(李擢英)이나 건권(乾卷) 말미는 다른 서자(書者)를 시켜 쓴 것이 보인다. 필체는 화려한 행초(行草)로서 행초체의 교본이 될 만하다. 문체는 서두(書頭)에 『임진변생후일록(壬辰變生後日錄)』이라 일기 문체임이 틀림이 없으나 이두문체(吏讀文體)는 장계(狀啓)와 공문서에 많이 보이고, 순한문체(純漢文體)는 격문(檄文)과 명장(明將)에게 보내는 패문(牌文)에 나타난다.
- 작성된 년대 : 일록(日錄=日記)은 선조 25년(1592) 3월 9일에서 선조 32년(1599)까지의 일기이다. 건권(乾卷)은 임란이 끝나고 곧 성책(成冊)이 되었으나 곤권(坤卷)은 수년 후에 후일을 위하여 본도(本道)에서 수발된 장계나 공문서 중 중요한 것만 가려서 정서하여 가정(家藏)하고 함부로 남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서문(序文)에 적고 있다.

#### - 원본에 대한 내용면의 고찰

저자는 임란 시 영리(營吏)로서 총명·비범하였기에 관찰사 막료(幕僚)로서 문장과 기략(機略)에 뛰어나서 임진 3월 9일부터 경상감사(慶尙監司), 병마절도사 김수(金睟)를 수행하여 경상좌도로부터 우도열읍(右道列邑)의 군비를 순시·점검하던 중 진주에서 3월 13일 왜군이 침입한 것을 이틀 후인 15일에야 알고 상사로 하여금 왜군을 영남에서 저지 결멸할 것을 건의하고 밀양에서 거창에 이르는 동안 방어에 진력하였으나 왜적의 주력부대가 조령(鳥嶺)을 넘어 북진하므로 근왕군(勤王軍)을 일으킬 것을 모색하여 상사로 하여금 전라·충청병(忠淸兵)을 합세하여 3도 통합 근왕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전

주로 갔다. 전라군과 공주에서 충청군을 통합하여 6만 대군으로 수원 근처 독산성(禿山城)까지 퇴주(退駐)하여 초전에 양호군(兩湖軍)이 패퇴(敗退)하게 되어 부득이 본도로 회군하였다. 임진년 9월 이후는 좌우도로 분도가 되어 도순찰사(都巡察使)를 따라 기획, 헌책(獻策), 기사(記寫)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교서(敎書), 이문(移文), 통문(通文), 격문(檄文), 공문 등도 거의 재록(載錄)되었다. 도체찰사 류성룡과 체찰사 이원익 막하와 긴밀한 연락으로 전세의 추이와 왜적의 동향과 동원의 완급과 운량방법(運糧方法) 등을 협의하여 시행하였고, 민중의 심리를 깊이 파악한 실기(實記)이자 일기(日記)이다.

#### - 원본의 가치성에 대한 고찰

정사(正史)가 많이 수록된 정확한 일차 사료(史料)이다. 임란 기록 중에서 일기체(日記體) 사료(史料)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난중일기(亂中日記)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수군의 전투 상황, 그리고 둔전(屯田)과 명수군(明水軍)과의 협조 등은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나 내륙에 있어서 적의 동태에 대하여는 그리 소상치 못하다.
- ② 『약포 용사일기(藥圃龍蛇日記)』 좌찬성 정탁(鄭琢)이 임란 때에 선조대왕을 따르며 의주까지 호종(扈從)하고 분조(分朝)에서 광해군을 도와 정무를 담당하며 각 도의 장계와 대명관계(對明關係)의 문서를 다루었던 상세한 일기이다. 그러나 전후 부분이 결락되어 있고 북도(北道)의 기록은 비교적 상세하나 남도(南道) 실정을 너무 줄인 편이다.
- ③ 『징비록(懲毖錄)』은 임란 당시 영상(領相)이나 도체찰사였던 류성룡이 난중에 경험한 기록으로서, 후일을 경계하기 위하여 퇴관후(退官後) 쓴 회고록이다.
- ④ 『정만록』은 대명(對明), 대일(對日) 외교관계와 민정과 국세(國勢)를 정확히 파악한 실기(實記)이다. 임진왜란은 경상도에서 시작하여 종말도 본도에서 끝났는데 전란의 발단과 원인 결과를 분석하고 승부를 막론하고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신분과 지위에도 구애치 않고 사실대로 규명하였고 특히 수치적인 기술은 너무도 정밀하다. 또한 비참한 전란 중에서도 오로지 충효사상으로 일관된 실천적 효심은 후세의 경중이 되고 귀감이 되는 기록이다.

#### - 원본의 보존 경과

『효사재이탁영선생실기(孝思齋李擢英先生實記)』에는 임인·계묘(1602~1603)년 간에 도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이 경상 감사 이시발(李時發)에 명하여 영남지방의 임란사적

(壬亂史蹟)을 채집케 할 때 저자도 『정만록』을 수찬청(修撰廳)에 제출하였고 왕이 재가(裁可)하여 『정만록』이라는 서제(書題)를 붙였다고 하고, 인조 27년(1649)에 쓴 『둔산기사(菴山記事)』에는 서평대감(西平大監)의 지시에 따라 수찬청에 제출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둔산기사』는 저자의 둘째 아들인 이정훈(李庭薰)이 선고(先考)의 유사(遺事)등을 기록한 내용으로 효종 5년(1654) 별세할 때까지 『정만록』에 관한 추기(追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만록』의 계하(啓下)는 1654년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만록』의 사본은 친필 원고본 외에 몇 질(帙)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둔산기사』에 의하면 『정만록』을 수찬청에 제출하고도 본가에 소장한다 하였고, 경상 감사의 봉계(封啓)에도 감영(監營)에서 수장하고 있다고 한 것을 봐서 적어도 3질(帙)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손들이 『정만록』과 『계하정만록(啓下征蠻錄)』을 구분하는 것은 2질 중 수찬청에 환송된 것을 『계하정만록』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일본 식민지시기에 일본 경찰에 압수당할 때 초고본과 계하본을 함께 빼앗겼다가 초고본만 반송하고 계하본은 일본인들이 가져간 듯하다.

일본에서도 『정만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學) 부속 도서관 하합문고장본(河合文庫藏本) 『정만록』을 『조선학보』 제77집에 발표하였고, 일본 천리대학(天理大學) 도서관 금서문고장본(今西文庫藏本)인 『정만록』 곤권(坤卷) 1책(冊)은 『조선학보』 제76집에 영인 수록되었다. 일본에서 발표된 『정만록』은 그 대본이 『계하정만록』인 듯하다. 유출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의성본(義城本)이거나 감영본(監營本)이거나 또는 수찬청본(修撰廳本)일 것이고 현존 원본(초본)은 아니다.

이 『정만록』은 저자의 본손(本孫)등으로 충효당에 보관하여 왔으며 일제 시 압류되었다가 반환되고 6·25 동란에도 이우영(李宇榮)이 울산까지 대피시켜 무사히 보존하였다.

## - 저자의 생애

저자 이탁영(李擢英)의 자는 자수(子秀)이고, 호는 반계(盤溪)이며, 고을 사람들은 효사재(孝思齋)라 불렀다. 경주 이씨 소판공 거명의 24세손인 그는 중종 36년(1541) 1월 10일에 의성현 지곡리(芝谷里)에서 아버지 연년(延年)과 분성인(盆城人) 김철손의 따님인 어머니 사이에서 5대 독자로 태어났다. 선대는 경주를 거쳐 경기도 여주에 살면서 대대로 벼슬을 하였다. 고려 말 그의 5대조 양오(養吾)는 사온서(司醞署)의 직장(直長)이고 동생 존오(存吾)는 우정언(右正言)으로 신돈(辛旽)의 횡포를 탄핵하였다가 집안이 모두 화를 입었고 이때 어린 독자 봉(鳳)은 화를 피하여 정착한 곳이 바로 의성현 지곡리이다. 이탁영의 조부 건(健)이 호장(戶長)을 한 것을 보아 생계의 수단으로 강리(降吏)를 자칭하여 이적(吏籍)에 등재한 것 같다. 이탁영은 어릴 때부터 비범하여 신동이라

불리었다. 21세에 의성현의 향리가 되고 다음해 이방이 되고, 23세에 경상도 감영의 영리(營吏)로 발탁되어 출중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때부터 40여 년간을 영리로서 지방 행정업무를 관장하여 모든 영리들의 사표가 되었다.

학문에도 정진하여 그의 회고록인 듯한 『자성기(自省記)』 30여권도 임란에 잃었고, 지방행정 사례집인 『고사록(故事錄)』을 지어 감영에 비치하고, 그가 저술한 『해이록(解頤錄)』도 잃었는데 임진란의 기록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둔산잡기(菴山雜記)』와 『정만록』을 남겼으나 『정만록』 이외는 전하지 않는다.

임란 초기부터 관찰사 김수(金睟)의 막료로서 모병과 군량 조달, 정보의 수집과 분석, 작전 계획의 수립 등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계초(啓草)도 직접 작성하였다. 삼남(三南) 지방의 근왕병을 일으킬 때 주동적 참모로서 수원 지방까지 진격하였다. 초유사 김성일과 도체찰사 류성룡의 참모로서 7년간 참전하였다. 신분제도로 인하여 영리인 이탁영을 고위직에 등용할 수 없음을 한탄하였고, 보만당(保晩堂)도 충효와 재능을 겸비한 인재를 당대에 중용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평란이 되자 전공으로 면향(免鄕)하고 관직을 추천하려 하였으나 국난을 당하여 나라에 봉사함은 국민된 의무라 하여 굳이 사양하고 노모 봉양을 위하여 귀향함에 평생 복호(復戶)가 되었다. 그 후 향인들이 여러 차례 포상을 신청하여 자손들에게도 복호되고 마침내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에 증직되었다.

이탁영의 효성은 천부적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 회갑 일에 드리고자 청어를 가족 몰래 눈 속에 묻어 두었던 일이 있고, 15세 때 아버지가 기계(杞溪)에서 객사하자 사고무친(四顧無親)한 어린 몸으로 장례에 소홀함이 없었고, 그때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집안 일을 맡아 처리하였다. 그는 감영 근무를 마치고 본가에 돌아오면 반드시 가묘에 배례하고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린 후에야 집안일을 처리하였다. 집에 있는 동안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출타 중 견문한 바를 자세히 아뢰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드리고 어머니 봉양을 위하여 참외나 수박도 재배하고 못을 파서 언제나 붕어를 길러서 봉양의 걸목을 만들었다. 그의 일기에는 매일같이 사직(社稷)과 노모의 안녕을 기원하는 구절이 빠지는 날이 없었다. 노모가 오랜 피란살이에서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음을 알고 급히 휴가를 업어 근친하여 의사를 구해 치료하고 간호하였으나 끝내 광명을 찾지 못하자 “자식은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는 자식을 볼 수 없구나.”하고 통곡하였다. 어머니가 86세 때 이질(痢疾)에 걸려 눕게 되자 사탕과 빨래도 자수로 하였고 결코 집안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 끝내 노모가 별세하시자 기진맥진한 몸으로 여막 3년을 마치니 지극한 효성은 세상을 감동시켰다.

이탁영은 비록 시대적으로 중인(中人) 신분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대성하지는 못했지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부모를 섬기는데 지성을 다하여 충효의 귀감으로 만인의 존경을 받았다. 70평생을 살면서 이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기고 광해군 2년(1610) 1월 13일 그의 고택에서 서거하였다. 그는 5대 독자이면서 5남 6녀를 두었는데 그 후손들이 의성을 중심으로 7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 - 보물로 지정된 경위

- 1982년 8월 3일 이종주(李鍾周)가 서수생(徐首生) 박사에게 사적 가치를 감정 의뢰
- 1982년 8월 29일 문회(門會)에서 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결의
- 1982년 서수생 박사가 방송과 일간신문에 국보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임을 보도
- 1982년 9월 8일 경주 이씨 문중 대표 이종하(李鍾夏)로 문화재 지정 신청서 제출
- 1982년 9월 20일 지방문화재 심사위원 권영철 교수가 현장 조사
- 1982년 9월 27일 문화재 관리국 황천오 전문위원이 현지 조사
- 1984년 10월 30일 문화재 관리국 이정섭 전문위원이 현지 조사
- 1986년 10월 15일 보물 제880호로 지정

#### 나. 전란 관련 일지(日誌)-경상좌도 북부지역 중심

- 1592.03.09. : 의성(중가)를 떠나 청로·의흥·대구·현풍·창녕에 이른다.(3월 15일)
- 1592.05.08. : 4월 24일 의성을 지나오다가 피란처에 갔더니 가족은 모두 성동(城洞)에서 피란 중
- 1592.07.15. : 함양에 머물다. 청송에서 온 사람의 소식에 의하면 의성에 있는 적의 소식을 들으니 좌병사는 청송에서 군병을 모아서 의성의 적을 잡는다고 하나 성공여부가 불안하다. 의성현에 있는 적을 성동에서 잡았다고 한다.
- 1592.07.19. : 군위 윤응정의 편지를 보니 노모와 가족들은 성동에 계속 피난 중이고 현감은 궁사를 거느리고 방어하고 있다고 한다. 의흥 현감 남이공(南以恭)의 3형제는 모두 참수되었다고 한다.
- 1592.07.20. : 좌병사께서 청송부의 환상미(還上米) 7석을 보냈다고 하니 이것으로 열흘은 살겠구나. 생원 신지효(申之孝)가 피살되었고, 별감 박무선과 서호성 양가의 처녀들이 붙잡혀 갔다고 한다. 신지효는 예안 현감 신지제의 형님이라 우리 고을 사망자가 500명을 넘는다고 한다. 피장에 사는 한수(漢守)·산운(山雲)에 사는 김순학, 읍내의 안철수도 죽었다고 한다.



- 1592.07.22. : 종일 장계할 초본을 만들고 나서 올리고 달밤에 홀로 앉아 슬픔에 잠기니 천지가 망망하다.
- 1592.07.23. : 계속 함양에서 머물고 있다. 정승 류전(柳璣)의 부인과 가족은 남김없이 포로가 되고 아들 사인(舍人)은 자결하고, 정랑 류영순의 3형제 첨지 권종의 부자도 피살되었다고 한다. 참혹한 소식이 하루 세 번이나 들리니 오장육부가 타는 듯하다.
- 1592.08.01. : 선산·상주·인동(仁洞), 효령(孝令), 군위에 있던 적이 모두 성주에 모였다고 한다. 의성의 왜적은 지난 달 26일 군위로 물러갔다고 하는데 성주로 간 것 같다.
- 1592.08.05. : 초계(草溪)에서 머물다. 대구 부사도 접전에서 불리하고 좌병사도 경주성을 포위하였으나 역시 불리하여 아군들이 많이 죽었다고 한다.
- 1592.09.05. : 낙동 강변에 도착하니 우도(右道)의 사람들이 놀라서 모두 위험하다고 하였다. 밤중에 강을 건너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적진을 통과하였다.
- 1592.09.07. : 하양에 머물고 있다. 난리 중에 좌우로 감사를 나누어 두었다. 김성일은 우도 감사가 되고 좌도 감사는 영해 부사인 한효순으로 바뀌었다. 도순찰사 김수는 인심을 잃어 한성 판윤으로 체임(遞任)되었다고 한다.
- 1592.09.08. : 신녕에 왔는데 폐허가 되어 의흥에서 자다.
- 1592.09.14. : 신녕을 지나 팔공산 도와하세 이르니 좌병사 박진(朴晉)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 분은 순찰사의 군관으로서 근왕병을 일으켜 상경하였을 때 고생을 같이 하였기에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보는 듯 즐거웠다.
- 1592.09.17. : 새 좌도 감사가 의흥에 오셨다기에 가서 알현했다. 저녁에는 청로역에 와서 잤다.
- 1592.09.29. : 좌병사가 경주 왜적을 토벌하다가 불리하여 아군 사망자 2천여명에 이르고 의성현 사망자는 300여명, 우병영에서도 사망이 1,400여명 이라고 한다.
- 1592.10.02. : 좌도 감사가 안동에서 의성현으로 왔다.
- 1592.11.06. : 용궁에 있는 적이 예천을 치고 있다고 하여 감사가 의성현에 오지 않고 예안 방면으로 간다고 했다.
- 1592.11.18. : 안동에서 머물다. 도사(都事) 김홍진이 나를 불러 술을 내리고, 『정만록』을 올리라고 하였다.
- 1592.11.20. : 길안현에서 점심을 먹고 어두워서야 의성에 도착하여 2일을 묵었다.
- 1592.12.01.~12.02 : 의성에서 머물다. 순찰사는 운산을 거쳐 안동에 이르러 3일 동안 머물렀다.

- 1593(계사년) 1월

- 좌도 순찰사 한효순이 좌도의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인동에 있는 적을 토벌하려고 하였으나 적의 수는 많고 아군은 적어 끝내 접전하지 못했다.
- 1593.04.04. : 당교의 왜적이 용궁과 예천으로 쳐들어오고, 인동의 적은 의흥으로 쳐들어와서 살인·약탈이 심하였고 대구 부사(윤현, 尹峴)는 왜란이 일어나자 가족을 데리고 팔공산에 숨었다가 다시 습격을 받아 겨우 목숨만 살아남았다. 3월 21일 인동(仁同)에서 적의 습격을 받아 부인·딸·며느리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고, 자체 한 사람 노비 50여 명이 모두 죽었다 하니 참혹한 일이다.

- 1597(정유년) 09.20

순찰사 이용순은 의성 향교 북산에서 결진하고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왜적은 바로 공산성(公山城)으로 쳐들어가니 성안에 가득한 무순한 군기(병기)를 빼앗기고 공산성에 있는 몇 만석의 양식은 당초에 수송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즉 풍기·영주·청송·진보·안동 등 산군(山郡)의 허다한 곡식을 강제로 산성으로 옮기지 말고, 각 각 고을마다 깊고 험한 곳에 쌓아두었다가 위기를 맞았을 때 노약자들이 합심하여 내리게 되면 전장에 나아가는 장사들도 반드시 부모를 버리고 멀리 달아나지 않을 것이고, 부모·처자들도 이 양식을 믿고 매복하여 적을 잡을 것이라 하고 이를 상책이라 하였는데 드디어 크게 실패하니 이를 어찌할까?

- 1598(무술년) 4월

명나라 군사 46,000명이 불의에 남하하여 예천·안동·의성·의흥·신녕·영천·상주·선산·성주 등에 나누어 주둔하게 되었는데 경상좌도에 있는 양식은 겨우 한 달을 지탱할 뿐이고, 공사 간에 남음이 없어서 거국이 황황하여 좋은 계책이 없었다.

- 5월 명군 마제독(麻提督)이 다시 내려와서 안동·의성·의흥을 거쳐 14일 신녕에 있는 오충병(吳攄兵) 진중에 이르러 왜적이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회군하여 안동으로 돌아왔다.
- 10월 명조(明朝) 양안찰(梁按察)이 성주에 주둔하니 접반사(接伴使) 윤국형(尹國馨)이 뒤따랐다. 군량을 계속 대지 못하여 순찰사 정경세는 날로 아문(衙門)의 꾸지람을 받으니 민망하기 그지없다.

#### 다. 초유사(招諭使) 김성일 통문(通文) 끝 문장<sup>192)</sup>

조정의 상격(賞格)이 다음에 있으니 다같이 알게 하라. 상격은 적의 머리수로 규정하니 양반이나 잡류(雜流)와 공사천(公私賤)을 막론하고,

- ① 일수(一首)를 얻으면 등과(登科)로 하고,
- ② 이수(二首)를 얻으면 육품관(六品官)으로 쓰고,
- ③ 삼수(三首)를 얻으면 당상관(堂上官)에 올리며
- ④ 왜장(倭將)의 머리를 얻은 자는 훈신록(勳臣錄)에 올리고,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칭호를 내린다.

#### 라. 임진 7월 15일 장계문 일부

경상좌도의 여러 고을의 전황과 수령의 존부(存否), 왜적의 거처, 농사 형편, 버린 무기의 수습 군량 창고의 유무와 그 숫자 등을 듣고 보는 대로 급히 보고하라는 전령이옵기에 견문에 의하면 다른 군읍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경주·영천·의성·안동·비안·군위·인동·경산·영산·창녕·현풍·청도 등 군읍은 이미 분탕(焚蕩)되었다. 왜적은 방금 경주에 돌입하였고 부윤(府尹)은 기계현으로 피하였고, 영천 군수와 의성 현령들도 그 관내에 남아있다. 창고의 곡식 유무는 알 수 없고 본부(대구)의 창고는 11만석 중 5만석은 환상(還上)으로 나누어 주고 본창(本倉)은 왜적이 당초에 불 질러 태워 버렸다. 또한 하빈 등지의 3창고는 왜적이 지나간 후로 관내 주민들이 훔쳐갔고, 본부의 향교는 왜적이 차지하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노략질하고, 경산에 있는 왜적들도 분탕을 치고 있으므로 산골에 씨 뿌린 농민은 제초도 못하고 있다.

#### 마. 좌감사(左監司) 장계(狀啓)

경상좌도에서 6월 10일 후로는 흥해·청해·영덕·영해·진보·청송·안동·예안·봉화·영주(옛 지명 榮川)·풍기·예천·용궁 등 10여 읍은 적이 오지 않았으나 지금은 용궁·예천·안동·예안·봉화는 적이 침범하였고 또 강원도에서 들어온 적은 영해부를 함몰시켰으니 바닷가의 읍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진보·청송·영주·풍기 4읍은 아직은 무사하나 앞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개 30여 성(城)이 조금도 깨끗한 곳이 없으니 신이 강을 건너 좌도로 가더라도 받을 불일 곳이 없는데다 더구나 나리를 만난 백성들이 폐농한 채 산에 들어가 있으니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고, 들에 남아 있던

192) 이와 같은 조치는 실제 의병에서 천민, 노예 등을 동원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 선무원종공신 대상자 9천여 명 가운데 3,200여 명이 면천(免賤)되는 공사천민, 노예등이었다.

사람이 모두 살상을 당하였으며, 장정들 중에 겨우 죽음을 면한 사람도 군량과 군기가 없어 대책이 없습니다. 경산·하양·신녕·의흥·군위·의성의 왜적은 모두 가버리고, 안동에 있던 적은 풍산으로 옮겨 갔는데 병사 박진(朴晉)이 안동에 들어왔으나 병력이 약하여 아직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8) 의성 출신 관리로서 활약

### 가. 오봉 신지제(1562~1624)

본관 아주, 자 순부(順夫), 호 오봉(梧峯), 의성군 금뢰면 상리(현재 풍리)에서 출생, 28세 때(선조22, 1589년) 증광문과 갑과에 급제, 학봉 김성일의 문인, 31세로 임진란 때 예안 현감, 안동 부사로 의병을 모집하고 경상좌도 북부지역을 의병장 김해 장군과 지킨 전쟁공신(선무원종공신 1등, 호성원종공신 2등), 팔공산, 화왕산 등지에서 광재우 의병장과 협력하면서 국난극복에 매진하였다. 1593년 경주 진영에서 김해 의병장의 순절 이후 그 가족을 보살폈으며, 1613년 창원대도 호부사 재직 시 백성을 괴롭히던 명화적(明火賊)을 토벌한 공로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관리로서 퇴임말기(1610~1617) 고향 의성 구미의 구미보(龜尾洑)를 축조(8km)하여 벼농사에 혁명을 가져왔고 4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미보는 운영되고 있다.

오봉 신지제가 예안 현감 겸 안동 부사로 있으면서 본인의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의성지역의 의병지원과 왜군 격퇴에 큰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부터 10여 년 동안 관찰사, 순찰사, 체찰사의 종사관으로 큰 역할을 했다.

신지제는 문무겸비이었고, 육군뿐만 아니라 수군에 대해서도 관여했다. 1597년 임란 중 서애 류성룡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면사첩(免死帖)을 내릴 것과 수군통제가위복권과 수군에 대한 과거시(科擧詩)의 독자성 인정 등으로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몰려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sup>193)</sup> 그 뿐만 아니라 한산도에 들어가서 원균의 작전 실패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순찰사에게 보고하였다.

### 나. 윤국형(尹國馨, 1543~1611)

본관 파평(坡平), 자 수부(粹夫), 호 달천(達川)이다. 아버지 윤희렴(尹希廉)이 무오사화의 화를 피해 윤국형 공이 세 살 때 의성·가음·현리로 옮겨 왔다. 부인은 평양 조씨이다. 선조 무진년 25세 때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 영북인(嶺北人)이었으나 의성 봉양에 정착하였으며 명종 때 진사였다. 충청도 관찰사 재임 중 임진왜란이 일어남에 순찰

193) 『의성의 임란사와 호란사』, 60쪽.

사, 병조참판, 비변사 당상이 되어 장병을 지휘, 방어에 힘쓰며, 난 중에 두 번의 파직이 있었으나 난 후에 복직하여 한성 좌윤(漢城左尹),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역임하였으며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다. 공이 강학하던 옥계서당(玉溪書堂)은 뒤에 봉양면 길천리로 이진 되었다. 저서로 『기축청건저야언(己丑請建儲野言)』과 『문소만록(聞韶漫錄)』 등이 전해오고 있다. 특히 『문소만록』은 수필집으로 임란에 대한 내용도 다수 실려 있다. 옥계서당은 가음면 현리에 있었으나 1942년 봉양면 길천 1리로 옮겼다. 임진란 전후로 출사하여 판서직에 오른 달천 윤국형이 내려와서 의성 땅에 우거하면서 강학하던 곳이다.

#### 다. 이광준(李光俊, 1531~1609)

본관 영천, 자 준수(俊秀), 호 학동(鶴洞), 군위 내량(內良)에서 출생하여 금성면 산운리로 이거하여 입향 시조가 되었다. 31세 때 별시 문과에 급제 강릉 부사로 재임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 격문을 돌리고 흩어진 백성을 모아 전열을 가다듬었다. 임란 중에 왜의 향도인 왜차(倭差)가 양양(襄陽) 관노와 짜고 집에 몰래 숨어들었을 때 부인 평산 신씨의 기지로 적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중화 군수(中和郡守)때 난민을 구휼하였으며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수확량을 늘려 이재민을 정착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난 후에 강원도 관찰사 겸 수군절도사에 이르렀고 향년 79세로 돌아가자 왕이 칙사(勅使)를 보내 치제(致祭)하였고 사후에 예조 참판에 증직하였다. 맏아들 이민성은 임란 때 공을 세웠으며, 정묘호란 때 의병대장으로 활약하였다. 아우 이민환은 강홍립(姜弘立)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여 포로가 되었으나 풀려났다. 불천위(不遷位)로 모셔져 있으며 묘는 봉양면 신평리 하현에 있다. 2013년 후손들이 뜻을 모아 학록정사 바로 옆에 학동 선생과 민성, 민환의 비를 세워 삼부자(三父子)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 (9) 비안(比安)

비안현은 261년간 신라와 통일 신라, 고려 초기를 거쳐 1018년(고려 현종 9년) 단밀현과 더불어 상주목(尙州牧)에 30년간 이관되었다가 1423년 조선조 세종 5년 비안현(比安縣), 1895년 고종 32년 비안군으로 의성군과 함께 승격되었다.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영남중로를 통하여 한양으로 진격하던 가등청정의 주력부대는 비안현의 화장산성(花藏山城)에서 완강한 저항을 받아 그들의 진군행로를 바꿀 만큼 비안인들의 목숨을 내건 내 고장을 지킨 쾌거였다.

화장산성은 비안현 산제리에 위치하고 있다. 축조 시기는 조선 선조 1592년으로 추정된다. 이 산성은 흙과 돌로 쌓은 성으로 비안·안평·신평 등 3개 면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370m 능선을 이용하여 둘레가 약 4km로 깊은 산중에 위치하며 천혜의 지형을 잘 이용한 산성으로 아직도 돌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성안에는 큰 규모의 자연동굴이 있어 임진란 때 비안현 관아의 여러 공문과 기물을 이곳으로 옮겨 보존할 수 있었으며, 동굴 바로 위 멀지 않은 곳에 풍부한 물이 있어 의병과 피난민의 근거지가 되었다. 임진란 초기에 왜장 가등청정이 비안을 점령하고 이 산성을 점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북진 계획의 차질을 우려해서 물러났다고 하며 임란이 끝난 후 화장(花藏)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 가. 비안현 의병

임진란 때 의성과는 별도로 비안(比安)이 독립된 현(縣)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군의 직접적인 관통 코스가 되고 있어서 의성보다 피해가 컸고 왜군들의 내왕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병뿐만 아니라 전쟁·전란 상황에 대한 기록이 거의 보존되어 있지 않다. 왜병의 침략 경로는 경주-영천-신녕-의흥-군위-(도리원)-비안-상주……의 가운데 있는 평야지대였다. 비안 역시 안동열읍향병에 귀속되어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볼 때 상주, 예천, 문경 쪽으로 가는 길로 통하고 있었다. 임진란 초기 군사 상황은 다음 지역은 군관이 없었고 성을 지키는 소수의 수성군(守城軍)이 있었다. 의성 28, 신녕 19, 의흥 13, 군위 10, 비안 19, 용궁 14

#### <비안 향병일기>

- 1592.09.05 : 비안의 의병 조단(趙端) 등이 약속을 듣고 싶어 하며 격문을 전해와 그들과 함께 동맹하였고 조단을 비안 정제장으로 삼았다.(안동열읍향병)
- 12.23 : 권응수가 정예병 40명을 이끌고 비안에서 인동으로 가서 중과 양인 중에서 왜적과 교류한 놈 8명을 싸 죽이고 사내 3명, 계집 1명을 사로잡아 현장에서 목을 베었다.
- 1593.01.06 : 비안 정제장 조단이 2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모의사 이보와 회동

### 나. 의성의 향병일기<sup>194)</sup>

- 1592.04.14 : 안동 부사(정희적), 판관(윤안성)이 도망간 후 예안 현감 신지제 만이 달아나지 않으니 관아의 아전들이 감히 제 마음대로 어지럽힐 수 없어 그를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194) 신해진 역주, 전계서, 15~148쪽.

- 06.01 : 예안 현감 신지제 안동에 온 안집사 김득을 찾아가 회동
- 06.15 : 예안 현감 신지제가 용궁 전투에서 패하고, 안동 선비 배인길 전사
- 07.01 : 왜적 예안으로 침공, 9일 안동으로 물러감
- 07.17 : 배용길이 예안 현감 공문을 가지고 임하현 구린촌으로 가서 의병을 일으킴
- 07.20 : 안동, 예안 사람들이 의성, 의흥, 군위 사람들과 일직에서 회동하여 안동열읍향병을 조직(대장 김해)
- 09.02 : 운산역에서 합진한 의병들이 행군, 행렬이 10리가 됨
- 09.03 : 안동향병 연합체에서 의성 정제장 김사원·신흥도, 우위장 신심, 군위 정제장 이영남, 의흥 정제장으로 강충립·박문윤·이호인·홍경승을 임명
- 11.08 : 좌부장 배용길 군대를 점검하러 의성으로 출장
- 11.11 : 좌부장 의성에서 안동으로 귀환
- 12.21 : 병마사 의성으로 출발
- 12.25 : 순찰사 의성으로 출발
- 12.28 : 의성 정제장 신흥도의 비밀문서 도착, 밀봉된 상태로 대장에게 보냄
- 1593.01.05. : 대장이 선산 구미를 떠나 오전 의성 향교 도착. 정제장 김사원, 신흥도, 우위장 신심이 찾아와서 만남
- 01.06 : 대장이 의성 정대남 집에서 의흥 정제장(박문윤, 이호인), 군위 정제장(이영남)을 만남
- 01.07 : 대장이 의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순찰사, 도총, 군관, 정서 등이 모여 회동
- 01.09 : 인동 정세가 불리하여 권응수, 신심이 정예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갔으나 왜적의 복병에 걸려 후퇴
- 01.10 : 대장의 전령이 안동·예안의 향병이 인동지역으로 오는 것을 중지하라고 전달
- 01.15 : 순찰사가 안동을 떠나 의성으로 출발
- 03.06 : 안동 부사가 명나라 군사 뒷바라지에 관한 명령을 받기 위해 의성에 가서 순찰사를 만남
- 04.21 : 도대장(都大將)이 격문을 급히 돌려 향병을 의성으로 옮겨 진을 치도록 명령. 이것이 한양에서 왜병이 명군에게 패하여 남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비하기 위함
- 06.19 : 대장 김해가 경주의 진중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때 막하 군관 김태 등이 병들어 누울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옆에 지키고 있었는데 남긴 기록은 모두 분실, 다음의 절명시(絶命詩) 한 수가 전하고 있을 뿐이다.

나라에 보답하려는 평소의 충의로서	報國平生義
堂堂할사 홀로 철갑옷 입었다네	堂堂一鐵衣
응당 다시 싸우려고 남은 충혼만은	有魂應復戰
관에 싣고 돌아가는 나를 꾸짖으리	嗔我載棺歸

○ 김해(金垓)의 죽음에 오봉 선생이 곡하다.<sup>195)</sup>

근시제(近始齊) 김공은 선생과 같은 해에 급제하여 교분이 매우 깊었다. 이때에 이르러 김공이 의병장이 되었는데, 선생이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우리들이 마음을 합쳐 나라 위해 목숨 바쳐야 합니다.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처자식을 부탁합니다.”라고 개탄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김공이 경주(慶州) 진중에서 병사하자, 선생이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때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이 굶주려 죽을 지경이었는데, 선생이 힘닿는 대로 도와 그의 어린 자식들을 관아에 두고서 부인(夫人)으로 하여금 직접 빗질하고 씻기며 먹이고 길러서 온전히 살 수 있게 하였다.

○ 오봉이 김해를 애도하는 시<sup>196)</sup>

[1]

분분한 풍진 세상 자네는 어디로 갔는가	風塵擾擾子何歸
덧없는 옛 추억 옷 한 벌만 남겼네	舊事淒涼一薛衣
죽은 이 알리 없지만 남은 이 괴로우니	死者無知生者苦
들보 비추던 밝은 달빛 꿈에 선하여라	屋樑明月夢依稀

[2]

덧없는 세상 영영 돌아오기 힘든 객이 되었으니	邯鄲久作難歸客
장례에 곡하는 소리 끊임없이 들립니다	蒿里頻聞葬友聲
의로운 영혼은 지금도 죽지 않았으니	義魄至今應不死
북두성이 되어 행로를 비추겠지요	爲星爲斗照行旌

임진란으로 선조 임금의 관서지방으로 몽진(蒙塵)하여, 선생은 감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왜적들과는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다. 여러 고을로 격문을 보내어 동지를 규합하니 원근에서 호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김해 선생이 기록한 『향병일기(鄉兵日記)』에 의하면 경상좌도에서 최초의 조직적인 의병은 현감 신지제와 과거 시험 동기로서 예안 출신 김해의 의병 기의(起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5) 『오봉선생문집』 권2, 「오봉선생연보」

196) 『오봉선생문집』 권1, 「죽천자의 시에 차운하여 근시제 김해 달원을 애도하다(次竹川子韻 哀近始齋金達遠)」



예안의 향인(鄉人)들이 분의(奮義)하면서 모두 모여 서로 일러 말하기를 ‘나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깊은 산에 숨어 엎드려 임금님의 위급함을 앓아 보고만 있겠는가’하고는 자기 자제와 공사천(公私賤) 300여인을 내어 빈 땅에서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생원 금응훈(琴應薰)을 도총(都摠)으로 삼고 전 한림(翰林)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삼아 거사하고 진사 이숙량이 문장을 지어 여러 고을에 포고(布告)하였다. 전 군수 조목과 전 현감 금응협과 김부륜 등은 모두 쌀을 내어 군사들이 먹을 것을 도왔다.

예안의병을 조직한 다음 선생은 “내가 이미 의병을 모아서 거느렸으니 즉 추악한 오랑캐를 쳐 없애기를 기약하지만 군사가 적고 형세는 약하여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미리 요량할 수 없으니 불행하게도 지탱해 내지 못한다면 나는 오직 한번 죽음으로써 국가에 보답할 뿐이며 맹세코 구차하게 살지는 않겠다.”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자는 모두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용기가 더하여 기회에 따라 적군을 쳐부수니 성세(聲勢)가 크게 떨쳤다. 6월 11일에 신지제 현감과 김해 대장이 중심이 되어 최초로 예안의 의병 조직이 완수되었는데 김해 부대에 참여한 인사들 대부분은 이 지역의 명망 있는 사족(士族)들이었다.

대장 김해는 본진(本陣)을 안동에서 일본군의 출현이 잦은 서쪽으로 옮겨 예천의 노포(蘆浦)에 진을 치고 부장(副將)을 보내어 의성 단밀과 문경 반암 등으로 나아가 관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해의 안동열읍향병은 1593년 5월에 밀양으로 진을 옮겨서 일본군의 공격을 견제하면서 양산(梁山) 지방을 구원하러 출동하기도 하였다. 고향에 돌아와서 상장(喪葬, 부인의 장례)을 마치고 곧 말을 달려 진소(陣所)로 돌아오던 중 경주에 와서 발병하여 6월 19일 진중에서 별세하고 말았으니 향년 39세였다.

### (10) 군위(의흥)

예안의 의병 창의에 자극을 받아 그 인접 고을들이 대거 창의에 나섰는데 군위에서는 진사 이영남(李榮男), 홍위(洪瑋), 의흥 이인호(李仁好)가 일어났다. 안동열읍향병 조직에서는 군위 정제장 이영남, 군위 별장 장사진(張士珍), 의흥 정제장 강충립, 박문윤, 이호인, 홍경승 등이 가맹하였다.

의흥, 군위 지역은 앞에서 고찰한 왜병의 진출 경로로서 ……경주-영천-신녕-의흥-군위-비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왜병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군위, 의흥 지역 임진란 기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의성, 비안처럼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연구지역에서 누락되고 있어서 의병에 대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문헌상으로는 군위 지역 의병 전투는 군위와 선산의 접경 지역으로서 흔히 군위에 편입시켜 거론하는 곳이 인동(仁同)이고 여기서는 군위별장 장사진 의병을 꼭 서술하고 있다.

1592년 9월 경상도에 주둔한 왜적은 제3차 경주 전투로 경주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퇴각하는 등 우리 측에 유리한 전국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군위현의 교생(敎生)으로 있던 장사진(張士珍)은 의병을 일으켜서 훈련하고 군기와 군량을 정비하여 군성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이때 일본군은 대구부에 본진을 두고 있던 목하중현(木下重賢)의 850명과 남조원청(南條元淸)의 군사 1,500명이 인동 부근에 주둔하고 있어서 군위 접경까지 침범하여서 약탈과 살인 등 갖은 만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장사진은 분발하여 때때로 출격하여 왜적을 격멸하였다. 그는 항상 전투에서 선두에 서서 몸소 적진을 깨뜨리니 의병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싸울 때마다 필승하였다. 9월 20일 수백 명의 왜적이 그의 본진으로 쳐들어왔는데 그는 다만 수십 기의 정병을 거느리고 역습을 단행하여 적장의 목을 베어 적에게 보이니 적은 혼비백산 도망쳤다. 제1차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제2차인 9월 30일 전투에서 많은 병력으로 20일 전투의 보복전에서 포위되어 전사하였다. 적의 사상자도 많아서 이후에는 수비에만 전념하고 덤벼들지 못하여 군위 접경 인동부의 백성들은 안거 낙식하였다. 그 이후 장사진 동생 장사규(張士珪)도 전사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많은 전투가 있었다.

여기서 조선조에서 임진왜란 때 군위에서 순절한 장사진과 그의 종제 장사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재도 군위 지역에서 기념비가 있고 높이 추앙받고 있기 때문이다.<sup>197)</sup> 이들 형제는 성주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킨 재종형인 장봉한(張鳳翰)의 영향을 받아 왔다. 장봉한은 왜승 찬희(贊喜)와 찬숙(贊夙)을 생포하여 의병장 김면(金沔)에게 보내는 공을 세웠다. 또한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상주 판관 재종형인 장홍한(張鴻翰)은 상주 전투에서 순사하여 후에 장사진과 함께 일문삼절(一門三節) 또는 “삼의사(三義士)”라 후세인들은 칭송하였다. 그리고 20여 차례 제수한 관직도 거부하고 학문에 전념하여 성리학의 대가로 후에 영의정에 추증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은 종숙으로서 정의가 깊었으며 학문을 수학하였다. 그리고 진사 장잠(張潛)은 종조부가 된다.

조선 영남 명문 사족 가운데 하나인 인동 장씨 장안세의 후손인 장사진은 평소 훌륭한 선조들의 모습을 가슴 속에 새겨두어 충의가 있고, 용맹하고 담력이 있었다. 임진왜란 발발 후 자신의 고을 인근까지 침범하여 약탈과 살생을 일삼는 왜군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장사진은 1차 전투에서 종제 장사규를 잃었고, 2차 전투에서는 한 팔을 잃었으나 남은 외팔로 더욱 분격하며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장사진은 두문동 72현인 장안세(張安世)의 후손이다. 부친 장윤, 모친 창녕 조씨 사이에 3형제(장사림, 사진, 사

197) 「안동지역(의성, 청송, 군위 포함) 참여 후원회 위훈(偉勳) 인명사적(事蹟) 요약본」,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168~170쪽.

용)중 둘째 아들로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屏水里)에서 태어났다. 얼마 후 성동면 오천리로 이사하며 형제들과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문에 뜻을 두어 군위 향교에서 교생으로 공부에 전념하던 중(1592)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장사진은 동료 교생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고 인동 및 군위 등지에 격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킨 뒤 군위 지역까지 점령한 왜군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하고 의병진의 이름을 복수군으로 칭하였다. 많은 전공을 세운 장사진 의병의 기세에 놀라 이 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던 왜군은 1592년 9월 30일 복병을 숨겨 놓고 장사진을 유인하여 기습하였다. 이 전투에서 장사진은 한 팔을 잃고 외팔로 싸우다가 전사했다. 조정에서는 장사진을 특별히 절충장군(折衝將軍)의 품계와 함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에 추증하고 충열(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1753년(영조29) 군위 현감 남태보(南泰普)가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 장사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그의 행적을 새겨 넣은 “국상 증 수사 장사진 고리비(國賞贈水使張士珍故里碑)”를 세웠다. 현재 군위군 효령면 오천리에 장사진 당시에 만들었다는 장군천(將軍泉)이 있으며 효령면 인근 고을 사람들이 후손이 없는 장사진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충렬사(忠烈祠)를 세우고 매년 한식날에 제향(祭享)하고 있다. 장사진의 묘소는 충렬사 뒤에 있으며 수군절도사 제단비(水軍節度使祭壇碑)가 세워져 있다.

## 5) 영천

옛날부터 영천은 교통의 요충지였다. 역로와 봉수가 이곳을 경유했으며, 또한 전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군사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다. 교통로는 영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모량(牟良)을 거쳐 경주부, 남쪽은 압량을 거쳐 청도와 대구방면, 서쪽은 신녕·군위·비안·상주·신녕에서 의흥·탑리·의성·안동으로, 북쪽으로는 청송 방면으로 가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였다. 임진란 때 4월 21일 경주를 무혈 입성한 가등청정(加藤清正)의 2만여 왜군은 이틀 만에 80여리를 진군하여 경주에서 영천에 도착하였다. 이때 군수 원사용 후임으로 부임한 김윤국(金潤國)은 지레 겁을 먹고 단 한 번의 응전도 없이 기룡산 묘각사로 도주하게 된다. 나머지 군관과 백성들도 흩어져 영천성은 적에게 쉽게 함락되었다.

영천 지역에서 의병이 거론된 것은 5월 초였고, 여기에 가담한 인물은 정세아(鄭世雅), 정대임(鄭大任), 신녕의 권응수(權應銖) 등이었다. 정세아는 전형적인 유학자인데 이 지역이 왜군에게 유린당하자 5월 초 동료, 아들, 제자들과 함께 거병하여 900여 명의 의병들이 모였고 그가 이끄는 의병은 6월 5일 경주부 탈환을 맹약하는 문천회맹(蚊川會盟)에 가맹하였다. 정대임은 영천 북쪽 대전 마을 출신이고 정세아의 족제로 나이 40세

였다. 그 도의병 수백 명을 모아 정세아와 연계하였으며 5월 초 대동(大洞)에서 왜적을 격파했다. 권응수는 선조 17년 별시 무과에 합격한 무인이었다. 임진란 때 상관 경상좌 수사 박홍(朴泓)이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리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 신녕 화산에 돌아와 동생 3명, 종숙, 향리인 100여명과 함께 거병하여 왜적의 토벌에 나섰다.(『난중실록』 5월 20일)

권응수는 5월 6일 한천(漢川)에서 노략질하던 왜병을 격살하였는데 이들과 내통하고 있는 조선인 무리 200명을 소탕하여 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였다. 6월 박진(朴晉)의 좌병사가 되어 우도에서 좌도 청송으로 넘어와 합류했는데 이때 박진은 권응수를 조방장으로 임명했는데 그와 짝은 마찰로 신녕으로 돌아와 지속적인 의병활동을 했다.<sup>198)</sup> 임진왜란 영천 지역 전투에서 명기해야 될 사실은 영천 지역 의병장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관군과 의병이 협력해서 영천성을 수복한 전투이다. 영천성 복성(復城)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가 육지에서 거둔 최초의 승리였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의미와 영향력이 매우 컸는데 다음 몇 가지 사례가 있다.<sup>199)</sup>

- ① 영천성을 수복함으로써 일본군이 경주성으로 도망갔고 이로부터 신녕·의흥·의성·안동 등의 일본군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게 되어 경상좌도의 군읍이 안전해졌다. 이는 모두 영천 일전의 공이다.
- ② 영천의 승리는 1592년 7월에 있었다. 그때 경상도에 웅거한 일본군은 경주에서 안동까지 큰 뱀처럼 포진하고 있어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다. 그러나 영천의 일본군이 전멸하자 군위, 의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바람처럼 도망을 쳐서 3읍이 평안해졌다. 중로가 단절되자 안동과 경주의 일본군은 서로 호응하기 어려워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5읍이 회복되자 경상도 백성들이 희생할 수 있었고, 군대 사기도 점차 회복되어 매복 공격이 성공하였다.

①번 자료는 영천성의 복성에 대한 류성룡의 평가이다. ②번 자료는 최현(崔暉)의 설명이다. 영천성 복성으로 경상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상호 연락이 끊어져 전쟁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후퇴하였다.

- ③ 이순신의 명량해전과 영천성 복성전투가 임진란 중 가장 통쾌한 승리였다.

이 ③은 이항복(李恒福)의 평가이다.

198) 엄진성, 「임진란기 영천지역의 유학과 학맥」, 『경북 지역 임진란사』 1권, 2018, 30~45쪽.

199) 이육, 「임진란 초기 영천지역 의병항쟁과 예천성 복성(復城)」, 『경북지역 임진란사』 1권, 임진란 정신문화선양회, 2018, 100~103쪽.

- ④ 박진이 영남좌도에서 수복한 공로는 이순신의 공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영남좌도에 생기가 돌고 있다.

이 ④번의 자료는 『선조실록』의 기록이다.

임진란 때 영천을 점령한 가토군은 신녕·의흥·군위·비안을 함락시키고, 문경에서 고니시의 군대와 합세하여 조령을 넘어 충주로 갔다. 이와 함께 가토군은 영천이 영남 지방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기각지세(掎角之勢)<sup>200</sup>에 대단히 여겨 천여 명의 군대를 남겨 놓았다. 영천 지역 의병들은 초유사 김성일이 의병대장을 임명하여 지휘 체계가 확보되고, 명군이 참전하면서 전황이 유리해지고, 의병들의 승리로 사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영천 인근 지역의 의병부대가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영천성 수복 작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단일 군현의 연합 부대가 아니라 안동열읍향병을 포함하여 최소 10개 이상의 군현에 연락하여 영천성 탈환 전투에 참가할 것을 독려했다.

영천 읍성 수복을 위해 당시 군사를 소집한 날짜가 7월 24일이었으며 장소는 읍성 남쪽에서 멀지 않은 추평이었다. 왜냐하면 열읍 의병들이 이곳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천 의병 연합군은 박연 전투에서 돌아온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 권응수(영천성 의병대장) 의병진도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영천성을 탈환한 뒤 7월 28일 피해 상황을 살펴보니 아군 전사자 83명, 부상자 238명이었으며 적은 500여명이 사살되었다. 군마 200여필, 총통, 창검 900여 자루 그 이외 보안과 채단의 전리품이 있었다. 적에게 잡혀있던 양민 1,090명이 풀려났다.

의병대장 권응수는 무과 출신으로 훈련 봉사를 거치는 등 군사지휘 경험이 있어서 실전 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천성 작전 며칠 이후 8월 1일 적장이 군사를 이끌고 영천에서 신녕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의병대장 권응수는 정대임·정세아·조성·박연 등과 더불어 싸워서 크게 이겼고, 병기와 문서 등을 노획하였다. 영천 전투 이후 안동 이하 경상좌도에 머물고 있던 왜적들은 경주·영천·안동을 잇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상주 지방으로 철수하였고, 영천의 적은 경주로 후퇴하였다. 따라서 경상좌도의 수습 읍현이 보존되고 이 지역 백성들이 생기를 찾았다.

## 6) 경주

경주 지역은 경상좌도의 여러 고을 중 가장 큰 도회지로서 1592년 4월 임진란이 일어난

200) 기각지세(掎角之勢) : 한 사람은 뒤에서 사슴의 다리를 붙잡고, 한 사람은 앞에서 뿔을 붙잡는다는 뜻으로 앞뒤에서 적과 맞서는 태세를 이르는 말이다.

지 얼마 안 되어 일본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었다. 그러나 경상 좌병사 박진(1560~1597)과 경주 판관 박의장(朴毅長, 1555~1615)<sup>201</sup>이 이끈 조선군의 대규모 반격으로 그 해 가을 수복된 이후 일본군 최대 근거지인 울산 서생포의 일본군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였다. 박진은 영천성 전투에 이어서 경주 부근 노곡(奴谷) 전투에서 승리하여 용기를 얻게 되어 안강에서 경주성 수복 계획을 세웠다. 권응수를 군관으로 경주 판관 박의장을 선봉으로 하여 16읍 병사 만여 명, 의병장 정세아가 고촌에서 모아 온 병사 5천명과 계연에서 합류하여 40리 길을 야행, 1592년 8월 20일 날이 밝을 무렵 경주성에 접근하였다. 경주성 수복전에서 주력군 600여명이 전사하고 실패하여 안강으로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장손(李長孫)이 신무기로 제작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로 무장하고 9월 8일 전군이 경주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때 박의장은 왜적들이 밤낮으로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신무기의 위력에 놀란 왜군들은 전성을 버리고 서생포 쪽으로 후퇴하였다.

박진과 박의장이 경주성을 탈환하고 적들이 수송 못한 창고 곡식 1만여 점을 노획했는데 그 공으로 좌병사 박진은 가선대부로 승품하고, 경주부윤 윤인함은 판관 박의장에게 먼저 입성하여 수성치병(守城治兵) 토록 하였다. 임진년 1592년 6월 조선군의 지휘 체계가 정비되고 의병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조선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일본군의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6월 당시 경상좌도에서 일본군이 주둔한 곳은 의성·군위·인동·영천·대구·밀양·경주·창녕·현풍·부산·동래 등지였다. 부산·김해 등 주요 지역을 제외한 곳의 일본군은 대체로 소규모 보루를 설치하고 목책을 두르고 인접 고을을 노략질하여 병력을 시위하며 스스로 엄호하는 정도였다. 7월 초 한산도 해전으로 남해안 일대의 제해권이 상실되고 보급의 어려움이 나타나 각지에서 고립된 일본군의 반격이 7월 하순 개시되었다.

일본군은 보급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7일 한성에 주둔하던 병력을 경상도로 내려 보내고 명군의 참전과 조선군의 반격으로 (영천과 경주 탈환) 일본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명나라와 일본 간에 강화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동안에도 서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투가 있었고, 정유재란 때 피해는 매우 심했다. 경주 지역의 의병군은 1592년 6월 9일 문천회맹(蚊川會盟)을 통하여 결성되었다. 영남의 거진(巨鎭)인 경주 읍성은 4월 21일 왜군에게 함락되고 9월 8일에 탈환에 성공하기까지 일본군의 계속된 침공이 있었다. 경주의 문천회맹에 참여한 의병장은 전체 경상도 12고을에서 132명이 되었는데 이후 계속 늘어나서 340여명이 되었다. 이 가운데

201) 박의장(朴毅長, 1555~1615) : 신지제 선생과 서당 동기로서 땀감나무 당번 3인 중 하나이다. 그때 사고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다. 1577년 무과에 급제한 뒤 훈련원 봉사, 경주 판관, 부윤,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인동 부사 등을 역임. 임란기간 중 경주판관으로 경주 수성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호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경주 지역 안의 의병장 수는 43명이었다. 경주부의 의병 활동에서 특이한 점은 한 집안에 의병장이 여러 명 있었다는 사실이다. 전사한 의병장 또는 의병의 아내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아들이 다시 의병(장)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주성 복성 전투는 1차 전투(임진 8.21)에서 실패했는데 일본군은 언양 방면 주둔군으로 1만여 명이었고 조선군은 관군과 의병 합하여 37,000명이었다. 이때 조선군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표 13〉 경주 전투 조선군 책임자

직책	조선군	군사수·참고
경상좌병사	박진	10,000
군관	권응수	전 의병대장
경주관관	박의장	선봉장
의병장	정세아	5,000 영천의병
군사수		37,000

2차 경주성 복성 전투는 1592년 9월 7일~8일 경주 관관 박의장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1차전의 실패를 경험삼아 수시로 결사대를 조직하여 읍성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신무기 비격진천뢰를 이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박의장은 작전권을 가지고 지역 사정에 밝아 1,000명 단위의 결사대를 매복과 돌격대로 작전에 나섰다. 2차 전투에 성공하여 경주는 130여일 만에 우리 수중으로 돌아왔다. 경주성 복성 전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관관 박의장은 오랜 전투 경험과 공로를 인정받아 경주 부윤으로 품격이 올라갔고 무인으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경주성의 수복은 경상좌도 지역에서 조선과 명의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을 마련할 수 있었고, 반면에 일본은 임란 초에 구축해 놓은 언양과 울산 간의 연락망이 차단되어 통신 및 보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후로도 경주성을 둘러싼 주변에서의 공방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593년 3월 박의장은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대구 파잠(巴峯)에서 일본군 2천명을 격파하고 31급을 수급하였다. 또한 말 123필을 노획했는데 조정은 박의장을 통정대부(通政大夫)<sup>202)</sup> 관직을 제수하였다.

202)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시대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에게 붙여진 벼슬품계의 명칭 중의 하나

## 5. 명군(明軍)의 참전과 실체

임진왜란은 선조가 한양 도성을 버리고 의주(義州)까지 몽진하는 등 전 국토는 전쟁터로 변하고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다. 조선에 구원병을 파병한 명은 쇠락하고 도처에 민란이 발생하여 후금(後金)이 일어났으며, 일본은 전쟁 주범 풍신수길(豐臣秀吉)의 정권이 망하고 덕천가강(德川家康)이 집권하는 등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명은 조선에 8년간 구원군을 파견하면서 막대한 병력과 재정을 지원하게 되어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선은 임란 초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았던 임진강의 보루가 왜적의 공세로 무너지자 급박한 상황에서 왜적의 침입을 조선 나라 안의 적으로 여겼던 명 조정은 마침내 구원병을 파견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 국내에서는 도요내부론(渡遼內附論)<sup>203</sup>이 제기되었다. 도요내부란 일단 국경선인 압록강을 건너 요동(遼東)으로 가 명나라에 의탁하면서 국토를 수복한다는 것이었다. 풍신수길은 분열된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에 사신을 보내어 통신사의 파견을 요구하였다. 1591년(선조24) 3월 황윤길(정사), 김성일(부사) 등을 통신사로 파견하여 일본 군사들이 명나라로 침입하겠다는 답서를 받아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오랜 논란 끝에 집권세력인 동인(東人)은 김성일의 주장을 받아들여 왜침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우려했던 왜침이 현실로 나타나자 조선은 왜적을 조령, 죽령 등에서 차단하여 일단 경상도 안에서 막는 한편 전국에 근왕군(勤王軍)을 모집하여 반격군을 편성하고 왜적들을 격퇴하려고 했다.

기대를 모았던 순변사(巡邊使)<sup>204</sup> 이일(李鑑)의 패전 소식으로 도성에서 민심이 흉흉하였고 삼도순변사 신립(申砮) 군대마저 충주에서 참패하자 4월 29일 평양으로 파천을 결정하고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에 구원병을 요청하자는 안이 나왔으나 결정을 보지 못했다. 임진강 방어선이 무너진 5월 18일 이후 구원병 논란이 있었지만 6월 11일 조정은 정식으로 숙천에서 요청을 위해 대사헌 이덕형을 청원사 삼아 파견키로 했다. 6월 14일 평양성이 함락되었고, 구원 요청을 받은 명의 조정에서도 국내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 1) 명군의 임란 참여 동기

조선은 6월 11일에 자체 방어책을 버리고 서둘러 청원사 이덕형을 중국에 보내 명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명의 파병 이유와 명분으로 왜적이 조선을 점거하고 몰래 중국을

203)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262쪽.

204) 순변사(巡邊使) : 왕명으로 군무의 책임을 띠고 변방을 순검하던 목사로서, 대개 유사시에 임명하는 임시특사.



범하려고 피하여 조선의 군신이 종묘사직을 잃고 강변에 파천하였는데 우리 황상께서 공손한 속방을 붙잡히 여기어 장수에게 명해 군사를 일으켜 국경을 넘어 토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차로 요동광녕진수총병관(遼東廣寧鎮守總兵官) 양응훈(楊應勳)의 소속부대 조승훈(祖承訓) 1,000명, 왕수관 1,000명 사유(史儒) 1,000명, 가정달자(家丁獐子) 500명 등 총 3,500명이 6월 15일 조선에 파병되었다. 조승훈 군은 7월 17일 평양 탈환전을 전개했으나 장마에다 작전의 실패로 패전하였다. 명은 심유경(沈惟敬)을 급히 파견하여 평양에 주재하고 있던 소서행장(小西行長)과 56일간의 휴전을 맺고 병부우시랑(兵部右侍郎) 송응창을 경략(經略)으로 삼아 왜적을 방비하는 군사 책임을 맡겼다.

1592년 9월 영하(寧夏)의 변(變)인 발배(哮拜)의 난(亂)을 평정하자 천진·요동·영평·영전·해개·계주·산동·순천·보정·밀운 등 중국 연해의 여러 도(道)에 군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조선에 대병력 파병을 추진하였다. 명은 다시 경략 송응창,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 주사(主事) 유허상(劉黃裳) 찬획 원황(袁黃)으로 편성된 5만 병력으로 12월 25일 재차 파병하였다.

## 2) 명군의 활약과 추이<sup>205)</sup>

명나라 군사가 임진왜란으로 조선에 원병을 파병한 것은 1592년 6월 15일부터 1600년 10월 철군할 때까지 약 8년여 기간이었다. 조선에 파병된 명군은 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지만 다른 한편 조선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 명군의 참가 전쟁은 많았지만 특히 역할이 컸던 곳은 평양, 직산 전투였고, 반면에 패전한 곳은 벽제(碧蹄)·남원·울산의 도산(島山) 전투이다. 여기서 승전으로 평양 패전으로 도산 전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평양 전투는 1593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개되었다. 명나라에서 ‘영하의 난’을 평정하여 무장으로 최고 자리에 오른 제독 이여송은 1592년 12월 25일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출병하였다. 그는 류성룡에게 평양성의 지도를 얻어 작전 계획을 세우고 1월 6일 새벽 즉시 평양성을 포위했다. 이때 명군은 43,500병력을 3군(좌·중·우)으로 편성하고 조선군 1만여 명을 분속 배치하였다. 이에 반해 왜군은 1만 6천~7천명으로 평양성 북쪽 목단령에 2,000명, 성위 배치군 1만여 명, 성 수비 병력 4천~5천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명군은 그들의 장기인 대포와 화기를 앞세워 공격하였고 9일 아침 조명군은 평양성에 입성하였다. 전과를 보면 참수 1,285급(級), 말 2,585필, 기물 455건, 조선포로 1,015명을 석방시켰다.

205) 장유철(역), 『류성룡의 장비록』, 스타북스, 2015, 163~301쪽.  
최효식, 전개서, 283~288쪽.

울산에서 전개된 도산 전투는 임진왜란 마지막에 있었고 두 차례 전투에서 모두 명군이 패배하였다. 1차는 1597년 12월 22일부터 1598년 1월 4일까지이고, 2차는 1598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공교롭게도 기간이 각각 13일간이었다. 왜군 제2부대 가등청정(加藤清正)은 정유재란 중 충청도 직산(稷山)에서 패퇴한 후 거점 확보를 위해 도산성을 1597년 8월 20일 착성하여 12월 20일 경 조명군이 공략하기 직전 완성하였다. 도산은 울산 평야 태화강 변에 위치한 높이 50m 정도의 작은 산이다. 이 성은 증성, 신성, 학성, 신학성, 도산성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내성(內城)은 15m 석축위에 본성·제2, 3본성을 붙여 짓고 외성은 성 밖에 언덕을 만들고 그 위에다 생소나무를 베어다 3중의 목책을 만들었다. 이 성에서 태화강을 이용 왜군기지 서생포까지는 뱃길로 70리, 육로는 80여리로서 도산성은 왜군의 전초기지였다.

명군은 조선의 남해안에 웅거하고 있는 최강적 가등청정(加藤清正) 군을 치면 사천(泗川)에 주둔하고 있는 소서행장(小西行長)도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명군 3,600명, 조선군 11,500명이 합세하여 도산성에 있는 16,400여명의 왜군을 집중 공략하였다. 이를 위해 경주에 명군의 본부를 설치하고 군량을 공급하면서 대대적으로 도산성을 공격하였다. 명군은 도산에 500여 미터 근접한 고향성산(古鶴城山) 정상에 작전 지휘 본부를 두고 조명군은 도산성을 10중으로 포위하였다. 전투 결과는 일본군의 지원 병 도착, 명군의 전공 다툼, 한 겨울의 비와 추운 날씨, 명군 사기 저하로 명군은 스스로 철수하고 말았다. 2차 전투는 9개월 뒤에 전개되었는데 조명군의 규모는 3만 명이었다. 일본군은 성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응사하였으며, 사천성 전투에서 조명군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경주로 후퇴하고 말았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명나라 원군 중에서 육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연구되고 있지만 수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 필자는 이번 연구에서 명군 수군(水軍)의 숫자, 대장 이름, 소형 선박(500척)에 대한 기록을 본 기억이 있는데 수군 전쟁의 역사가 너무 이순신 장군에게 치우쳐서 명나라 수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본인의 능력과 연구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앞으로 전공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분발을 기대하는 바이다.

### 3) 조선과 명군의 알력과 갈등

임진왜란 중 명군이 내원(來援)하여 왜적을 물리치고 국토를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조선인들은 재조(再造)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양자 간에 갈등 또한 심각한 국면이 없지 않았다. 선조는 조선군에게 국토의

회복을 위해 명군과 연합하여 전투를 전개할 것을 명령하였다. 처음에 명군과 조선군 간에 작전명령 지휘권에 관한 논란이 있었지만 조선은 원활하고 활동적인 왜적 토벌을 위해 작전권을 명나라에 일임했다. 조선군은 평양성 탈환전부터 1만여 명이 명군과 합세하여 참전하게 된다. 그 중 정예 3,000명은 아예 명군의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선봉에 섰다.

명군 참전 첫 전투가 된 1592년 7월 15일 평양성 탈환 전투에서 장마 중에 3,500여 조승훈(祖承訓)군이 왜적 1만여 명을 공벌할 때 조선군 정예 500여 명을 명군 5개조에 100명씩 소속시켜 선봉을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명군은 우수한 병기인 대포, 철환(鐵丸)등을 믿고 정작 전투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조선군만 홀로 내몰아 싸우게 하는 등 계획 없이 적은 병력으로 공적만 세우려고 공격하였다가 패하고 말았다. 명군은 그 패인을 조선군과 장마철 절기에 떠넘기려 했다. 이여송 제독은 초기 강화론자 심유경을 죽이려 하였고 평양을 탈환한 다음 자신의 공덕을 과시하면서 조선에 대해 태만하면 탄핵하고 정법을 행하겠다고 위협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경략 송응창과 총병들은 왜적을 섬멸·공략하기보다 오히려 강화에 더 뜻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군은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으려고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항거가 거세졌지만 경략 송응창은 소위 금살패문(禁殺牌文)을 반포해서 격렬한 항왜 전선에 제동을 걸려고 하였다.

초기 명군은 평양성 탈환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명렬한 기세로 남하하여 1593년 1월 26일 벽제관(碧蹄館)에서 왜군 소조천용경(小早川隆景)의 1만여 군과 싸워 패한 다음 기세가 꺾이고 개성으로 회군하였다. 이여송 제독에게 평양으로 퇴병할 것을 강권한 총병 장세작은 조선군과 작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우리 순변사 이빈(李賓)을 발길로 차고 큰 소리로 꾸짖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명군은 조선측이 군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다고 우리 고관 관량관(管糧官) 지중추부사 김응남, 호조참판 민여경, 의주목사 황진(黃璣)에게 곤장을 때렸다. 조정은 김응남을 전 강원감사 류영길로 교체하고 명군 간부 애자신(艾自新)에게 뇌물을 주고 달래는 형편이었다.

1593년 6월 진주 혈전이 있었다. 조선군은 ‘진주 목사가 일본인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원수를 갚겠다.’고 전라도 지방으로 진군하는 왜군을 진주성에서 방어하려 하였다. 이때 조선군은 명군에게 화급한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명나라 장군 유정, 오유충은 대구, 참장 낙상지, 유격 송대빈은 남원, 유격 왕필적은 상주에 각각 주둔하고 있었지만 강화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았다. 명나라 유격 무승선(毋承宣)이란 자가 총병 유정의 막사에서 명일 간에 진행 중인 강화 교섭이 조선군의 활약으로 실패할까 염려하여 조선의 장군인 박진(朴晉), 곽재우 등 4명을 오라로 묶고 곤장까지 친 것은 양국 간에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어 국왕이 진노하였고 경략군문(經略軍門)에 게첩(揭帖)을 보내 항의하였다.

명나라 수병도독(水兵都督) 진린(陳璘)이 수함(水艦) 500여 척을 끌고 1598년 이순신과 합동 작전으로 많은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명군 중 진린의 횡포는 극에 달한 감이 있었다. 진린의 군사들은 조선의 수령(守令)을 때리고 함부로 옥보이기를 우습게 알았다. 찰방(察訪)<sup>206)</sup> 이상규(李尙規)를 오라로 묶고 목을 베어 죽였다. 1598년 10월 이순신은 진린 군과 함께 절이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는데 이순신은 왜적 71급(級)을 베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실적이 좋지 못했던 진린은 이순신으로부터 40급을 빼앗았고 계유격(季遊擊)이란 자도 5급을 또 빼앗아 갔다. 진린은 이순신에게 압력을 넣어 26급만 베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임진왜란 기간 중 명군의 횡포는 주둔지의 모든 수령들도 곤욕을 치루고 있었다. 경상좌도 북부지역인 안동·의성·영천·경주뿐만 아니라 문경·상주 어느 곳 할 곳 없이 거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1592년 7월 명나라 참전을 알리는 교지가 지방에 전해지고 일본과 명군이 협상이 지속되면서 일본군은 경상도 남쪽 지방으로 철수하고 그 자리에 명군이 주둔하게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날 때 까지 결전 없이 명군의 주둔 또한 장기간 이어졌다. 강화 교섭이 진행되면서 남하한 명군이 머무른 고을에서는 이들에 대한 접대와 지원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명군이 있는 고을의 인접 고을에서도 지원과 물자 배당을 함께 분담해야 되었다. 1598년 2월 조선에 온 명나라 병부주사(兵部主事) 정응태가 충주에 도착하여 지공(支供)이 부실하다고 매우 노하여 충청도 관찰사의 종사(從事)인 송영구에게 곤장 15판(板)을 쳤다. 문경에 이르러서 인부들이 모두 도망쳐서 주사는 더욱 화를 냈고 연기 현감 이문빈과 문경 현감 홍함을 잡아들여 가마를 메게 하고 비로소 출발하였다. 의성 현감과 비안 현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sup>207)</sup> 선조 때 의성 현감 홍유의(洪有義)도 명장실대(明將失待)로 나과(拿罷), 즉 명나라 장군을 잘 모시지 못해 파면되었다. 비안 현감도 선조 재임 중 파면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9명에 이르고 있다. 파면 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태과(怠罷) : 태만으로 인한 파직
- 경과(京罷) : 도성으로 파면 됨
- 폄과(貶罷) : 비리로 인해 파직 됨
- 대과(臺罷) : 대간인 사헌부나 사간원에 의해 파면
- 파(罷) : 파면 됨

206) 찰방(察訪) : 조선시대 각 도의 역에서 역마의 일을 맡은 중 6품의 관직이다.

207) (사)의성향토사 연구회, 「의성의 수령비」, 2010, 117~120쪽.

명군의 주둔지에서 가장 힘든 지원은 군량미 조달이었다. 전국 농토에 군량미를 부과·징수해야 하는데 병화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1결(結)에 3두(斗) 씩 징수하도록 했다. 백성들이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경이어서 조정은 명군의 유병(留兵)을 약 2개월로 원했다. 명군 1인당 지급해야 될 경비는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월량(月糧)으로 은 1냥과 은량(銀糧) 채소, 소금은 은 1냥 5전, 의혁대(衣草代) 3전, 고상(稿賞) 3전 등 모두 3냥 6전이 된다. 따라서 2만 명이 주둔할 경우 연간 1백만 냥이 되었다. 풍년의 경우 1년 세수가 쌀·콩·조 등 합쳐 23~24만 석이고, 쌀만 계산하면 14만 석이 약간 안 되는 형편이었다. 명군에게 지급해야 되는 쌀의 양이 12만 석이었는데 종묘사직의 제사 비용, 관원의 녹(祿), 온 나라의 전재(錢財)를 털어도 명군 먹일 재정이 안 되는 형편이었다.

#### 4) 정유재란 경상좌도의 명군 주둔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다녀간 이듬해인 1597년 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주력 부대를 다시 보내 전쟁에 돌입하였다.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제1군이 1597년 1월 14일 부산 다대포에 상륙했고, 이어 고니시의 제2군이 울천에 상륙하였다. 7월 8일 부산에 상륙하여 전라도를 수중에 넣었으나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11월 노량진 해전에서 이순신에게 패배하여 본국으로 퇴각하면서 전쟁도 막을 내린 것이 정유재란이다. 정유재란 때 영천은 명군의 주요 주둔지였다. 과거 영천과 신녕에 명군이 주둔한 적은 있었으나 주요 주둔지는 아니었는데 명이 일본과 강화 교섭이 진행되면서 1593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철군하여 1594년 9월 대부분의 병력을 요동지방으로 철수시켰다. 조선의 재출병 요청으로 1597년 5월 다시 출병하면서 영천은 명군의 주요 주둔지가 된 것이다.

1597년 10월 일본군은 경상도 고성·남해·창원·양산·울산·사천 등 해안 지역으로 퇴각해 왜성을 축조하고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조·명 연합군은 울산의 가토오 군을 먼저 공격하여 타격을 주기로 하고 울산에 집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천은 남하하는 명군의 경로이자 후방 기지 역할을 했다. 1597년 4월 명군 46,000여 명이 불시에 남하하여 영천·신녕을 비롯해 안동·예천·의성·의흥·상주·선산·성주 등에 나누어 주둔하였다. 이때 권응수가 명군의 군량으로 곡식 300곡(斛)을 바쳤다. 경상도로 간 명군이 36,600명인데 그 중 22,700명이 경상좌도에 주둔했다. 아래 표를 보면 안동 6,700명, 의성 6,100명, 영천 신녕 5,900명, 의흥 2,500명, 예천 1,500명이었다. 명의 오유충은 1597년 5월 군(軍) 및 원역(員役) 3,397명을 인솔해 다시 들어왔고 영천에 오기 전에 충주에 진을 쳤다.

〈표 14〉 1598년 3월 경상좌도 명군 주둔 상황

구분	주둔지역	지휘관	군사규모	계
경상좌도	안동	원임참장 왕등산	1,200	6,700
		대동유격 파새	2,500	
		진정도사 설호신	3,000	
	영천·신녕	남병부총관 오유충	3,900	5,900
		연수참장 왕국동	2,000	
	의성	유격 진잠	2,100	6,100
유격 진인		4,000		
의흥	선부유격 파귀	2,500	2,500	
예천	준화우영유격 진우문	1,500	1,500	
계			22,700	

※ 참고 : 경상도 전체 명군 주둔 36,600명

1598년 명군이 영천에 주둔하면서 민간의 부담과 피해가 커서 선조와 비변사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이전처럼 충주에 주둔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이들은 거부하고 경상도의 명군이 38,000여 명, 말 26,000필인데 영천·신녕·의흥·고령 등에는 쌓아 둔 곡식이 없다면서 인근 지역에서 군량을 빨리 실어 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명군의 주둔과 함께 정유재란 당시 영천에서 전투가 종종 벌어지고 있었다. 이때 경상도에서 활약한 조선의 주요 지휘관 도체찰사 이원익 부사(副使) 한효순, 도원수 권율, 순찰사(경상도 관찰사) 이용순이었다. 도체찰사 이원익과 도원수 권율은 영천에 머물렀다. 1597년 7월 1일 가토오 기요마사(加藤清正)가 팔공산을 침공하고 권율수 군대에게 크게 패하고 영천을 거쳐 서생포로 돌아갔다. 1597년 9월 29일에도 경주 부사 박의장과 여러 장수들이 영천에서 싸웠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1598년 1월 류성룡은 선조에게 올리는 장계에서 경상도 군사로서 싸움터에서 쓸만한 자는 울산·경주의 군사이며 그 다음이 영천의 군사라고 보고하였다.

## VII. 정유재란과 새로운 회맹(會盟)

### 1. 정유재란

도요토미 정권의 일본군이 임진왜란의 정전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재차 침공하여 1597년 8월 27일부터 1598년 12월 16일까지 지속된 전쟁이다. 초기에는 일본의 공세가 이루어지다가 명량해전을 변곡점으로 남해안의 왜성들에 틀어박힌 일본군에 대한 조·명 연합군의 공격 양상을 띠었다. 그러므로 정유재란 때 조선군은 대부분 공격 측, 일본군은 방어 측에 서게 되었고,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을 제외하면 조선군이 결정적 승리를 거둔 전투는 거의 없는 교착 전쟁의 모습을 나타냈다.

일본군은 보급이 제대로 안되고 전황이 불리하여 화의에 나섰고 명군도 벽제관 전투에서 패한 후 자국의 이해를 우선시하여 종전을 원했으므로 화의 교섭이 시작되었다. 조선의 왕과 신료들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화의를 반대하여 교섭에서 제외되었다.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 조정은 군사제도를 개편하고 의병부대를 관군으로 편입시키는 등 방비를 강화해 나갔다. 일본군은 남해안으로 철군하여 왜성을 축조하고 전투를 중단한 채 주둔하였다. 남해안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은 1597년 다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정유재란이었고, 이때 일본본국에서 새로운 병력 10여만 명이 와서 참전했다.

일본 수군은 이순신의 파직과 원군의 칠천량 해전의 대패로 남해안 대부분의 제해권을 장악하였고, 육군은 8월 15일 남원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일본군은 전공을 증명하려고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전리품으로 일본에 보냈고(귀무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구 잡아 서양에서 온 노예상에게 매각하였다. 일본군은 또 8월 19일 전주성 전투에서 조·명 연합군을 대파하여 전라도를 점령하고 충청도 직산까지 진격하여 명군과 대치하기에 이른다. 명군은 직산에서 왜군을 만나 몇 차례 전투했는데 이순신의 수군이 명량해전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시키자 보급선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육군은 직산을 끝으로 더는 진격하지 못했다.

1597년 12월 말에서 1598년 1월 초에 걸쳐 조·명 연합군은 울산 왜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고 일본군을 군량이 극심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고군분투하였다. 1598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쳐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으나 왜교성 전투, 울산성과 사천 전투에서 패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왜군은 이를 극비에 부치고 본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노량에서 철수하는 왜군을 쫓아 함대를 대파하여 승리했으

나 전투 중에 전사하였고, 결국 두 차례의 전쟁은 끝났다. 전쟁의 여파로서 일본은 정권이 바뀌었고, 명은 금나라로 주인이 변경되었다. 조선은 많은 전쟁 피해를 남기었다.

-경작지 66% 파괴

-문화재 소실(경복궁 등)

-역대실록 등 귀중한 사서를 보관했던 사고(史庫)도 전주사고만 남고 모두 소실

## 2. 대구 팔공산 회맹

### 1) 대구지역의 임진란과 의병

대구진(大邱鎭) 지역은 그 주변의 영산·창녕·현풍·인동·의흥·신녕·하양·경산·청도를 포괄하고 있어 대단히 광범하였다. 이는 진주진에 소속된 지역 10개 보다 적지만 안동진 9개 지역과 동수이다. 임진란 왜군의 북상 루트와는 중로와 좌로에 관련되고 있다. 중로는 동래-양산-밀양-청도-대구-인동-선산-상주로 이어졌고, 좌로는 동래-경주-영천-신녕-의흥-군위-비안-용궁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오봉 신지제 선생과 경상도 의병 관계는 본인이 근무한 예안·안동과 고향 지역 의성(비안)·군위(의흥) 다음으로 팔공산성, 팔공산 회맹과 깊은 인연이 있고 현장에서 2년 동안 산성을 지킨 경험이 있다.

임진년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 제1번대가 대구 성을 점령한 것은 4월 21일 이었다. 경상도 순찰사 김수(金睟)가 보고를 받고 각 고을에 통첩을 보내 소속 군대를 거느리고 목적지에 집합하여 한양에서 오는 장수를 기다리게 했다. 문경 이하 각 고을 수령들은 모두 자기 군대를 인솔하고 대구로 가서 냇가에 노숙하면서 순변사를 기다린 지 수일이 지났으나 순변사는 오지 않고 왜적은 점점 가까이 오니 놀라 당황하고 이때 큰 비가 내려 행장은 젖고 군량마저 떨어지게 되어 군병들은 달아나고, 수령들은 단기로 도망쳐 버렸다. 대구 진은 무려 10개의 부·군·현을 포괄하고 있어서 지역별 의병 조직을 일률적으로 서술하기는 어렵다. 영산·창녕·현풍 등에서 활발한 의병 활동을 수행한 것은 광재 우 부대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외 인동·의흥·신녕·하양·경산·청도에서의 전투도 주변의 대규모 의병 집단과 연계되고 있었다.

대구는 일본군 주력부대의 통과 지점인 동시에 후방 보급로로서 왜적의 최선봉인 제1번대의 통과 후에도 큰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서 의병을 조직하기는 어려웠다. 왜군이 대구에 왔을 때 부사 윤현은 관내 군민(軍民) 2천 여 명을 인솔하고 공산성(公山城)으로 들어가서 대구 읍성은 완전히 적의 소굴이 되었고 6월 말까지 대구에서 의병이 일어나지 못했다. 대구 최초 의병장은 서사달이었고 임진년 7월 그가 의병장이 되어 『초집의병문



『招集義兵文』을 지어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준비하였다. 서사달은 처음 대구 출신 유림으로 공산성에 피난 중인 자, 인근 군현의 사림들이 중심이 되어 창의 기병하였다. 실제 공산성(公山城)은 대구·의흥·신녕·하양·성주에 둘러싸여 있었고 성 주위는 1,358步 4尺이며 내부 넓이가 25結 5卜인데 샘[泉]이 2개, 소거(小渠)가 3개가 있었다. 대구 의병 활동은 출발이 늦었고, 주위 특히 경상우도의 광재우·김면·정인홍의 활동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대구 이북지역 안동·예안 등지의 유림이 중심이 된 의병을 모방하였다.<sup>208)</sup>

대구 의병은 임란 벽두부터 읍성이 일본군의 수중에 있어서 활동이 불가능하여 입성 피난했던 공산성 안에서만 가능했고, 1593년 5월 일본군의 남하와 동시에 부총병 유정(劉經) 등의 명군이 대구를 거점으로 성주를 왕래하며 적의 북상루트를 봉쇄하고 의병의 관군화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의병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식량부족으로 의병 유지 자체가 어려웠다.

## 2) 팔공산 회맹

팔공산은 대구부로부터 약 30리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1,192m 산으로 이 산 중턱에 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산성은 이미 후백제 견훤이 고려 태조 왕건과 전투를 위해 축성한 기록이 있다. 박물관의 발굴 팀원들이 즐겨 쓰는 말로서 “한 번 싸움터는 영원한 싸움터”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임진강 주변 군 주둔지의 관측 초소 등은 옛날 전쟁 때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팔공산성은 임진왜란 때 대구 읍성이 왜적에게 함락된 뒤 줄곧 의병군의 진지가 되어왔다. 통칭 공산성은 석성으로 둘레 1,560척·높이 4척·샘 2·거 3 등이 있다. 『대구읍지(大丘邑志)』에 의하면 성의 내부 넓이가 25結 5卜으로서 11만 5천 평의 경주 읍성보다 약간 작지만 대구·의흥·신녕·하양·성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요새지 였다.

의병장들의 팔공산 회맹은 세 차례 있었다. 그것은 영남의 중앙에 해당하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요새지인 점이 감안되었다. 제1차 회맹은 1596년 3월 3일에 있었다. 58개 읍에 총 422명이 집합했다. 특히 도체찰사(都體察使) 영의정 류성룡, 체찰사 이원익, 경상좌방어사 고언백, 경상좌병사 성윤문 등 고위 관직에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영남이 중심이지만 한양을 비롯한 남양·괴산·청주·충주·죽산·보성·나주·웅천 등 전국의 의병들이 동참하고 있다. 회맹록에 보면 류성룡과 이원익 등이 주맹(主盟)하였고 명·일간의 강화교섭이 순탄치 않았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8) 경상북도, 『경북 의병사』, 249~250쪽.

제2차 공산회맹은 6개월 뒤인 1596년 9월 28일에 있었다. 경주지방 의병장이 대구지방 왜적 침입 소식을 듣고 정병 800명을 이끌고 대구로 왔고, 김응생 의병장 등이 정병 1,000여명, 울산지방 의병장 정병 200여 명이 팔공산으로 향했다. 경주부를 중심으로 한 울산·영천·영일 등지의 의병 3,000여 명이였다. 이 대병은 9월 21일 팔공산에 도착한 다음 날 전투에 임하여 크게 승리한다. 이 회맹에 참여한 의병장들은 정유재란을 전제로 한 서사토적지(誓死討賊之)를 결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15읍 64명의 의병장이 회맹에 참여했다. 경기지역에서 3명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제3차 팔공산 회맹은 1597년 정유재란이 터져 왜군과의 결전이 한창인 9월 22일에 있었다. 정유년 1월에 바다를 건너 온 왜군은 서생포, 부산포 등 남해안에 포진해 있다가 7월 중순 왜군 주력부대가 부산 도착을 기점으로 다시 북진하기 시작한다. 먼저 이순신 대신 수군통제사가 된 원균을 패사시켜 제해권을 장악한 다음 전라도 진출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14만 병력으로 조선을 재침공한 정유재란이 터진 것이다. 팔공산 회맹은 1차·2차는 정유재란 전이고, 3차는 정유재란 개전 뒤에 결성된 것이다. 1597년 9월 22일에 결성된 3차 회맹은 29개읍, 30여 의병장에 의한 것인데 이 때 의병장의 참여가 많았으나 아마도 누락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3. 창녕 화왕산 회맹

오봉 신지제 선생은 의병 활동, 전투 참가(관군 통솔), 회맹 참여가 적극적이었지만 현직 관직에 있기 때문에 의병장 모임이 중심이 된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팔공산의 공산성 수성과 팔공산 회맹에 특히 적극적이었고 이어서 창녕의 화왕산(火旺山) 회맹으로 가서 곽재우와 합류하였다. 조정은 1597년 4월 곽재우를 방어사로 삼아 도체찰사에 소속시켰다. 정유재란이 발생하자 남해의 수군이 왜군에 의해 격파되었다. 왜군의 선봉이 영남우도로 집결되는 듯하자 영남좌도의 의병장들은 왜군의 북진을 막기 위해 낙동강의 요새지 화왕산성을 지키고 있던 곽재우 진영으로 모여 들었다. 화왕산성은 창녕현에서 동쪽 4리 지점에 있는 757m 화왕산 정상에 있는 석성으로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창녕현 조에 보면 둘레 1,217보, 샘 9개, 연못 3개 군창 등이 있는 신라 때부터 있던 옛 성이다. 여기에 왜의 재침략이 있기 직전 국가 방책으로 중창된 견고한 성으로 청야전(淸野戰)으로는 적격지였던 것이다.

경주에서 200여리 떨어진 화왕산성은 방어사 곽재우 군이 중점적으로 수비하고 있었다. 곽재우는 왜군이 울산·밀양 등지에서 전라도 방면으로 진격해 오자 밀양·영산·창

녕·현풍 등 4고을의 군사를 이끌고 이 산성에 들어가 사수하기로 하였다. 1597년 7월 9일 방어사 곽재우와 회맹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참여한 열읍의 의병장은 80여 명이었다. 7월 9일에는 30여 명, 7월 18일 40여 명이 회맹하였다. 7월 19일 날이 밝자 여러 의병장들은 각자 도락을 시험하였고, 20일에는 적병이 근처에 접근하였다. 이 내용은 이의온(李宜溫)의 『용사일록(龍蛇日錄)』에 적힌 내용이다. 회맹에 참여한 의병은 600~700여 명이었고 경주 출신들이 중심이었다.

의병과 관군은 회맹으로서 화왕산성 사수를 결의하였고 곽재우의 주도로 군사 배치가 완료된 뒤에 가등청정(加藤清正)이 이끈 왜병의 선발대가 도착하였다. 왜병의 기세에 놀려 성안의 군졸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는데 모두가 결사 항전을 결의하고 성이 함락되면 불을 질러 함께 죽을 것을 맹세했다. 의병진의 완벽한 수비에 놀라 왜병들은 화왕산성을 우회하여 거창을 거쳐 남원으로 진격하였다. 1597년 7월 21일 영남의 의병 150여명, 의병 700여 명이 화왕산성에서 목숨을 걸고 회맹을 결의한 결과는 일단 성공적이었다.

#### 4. 오봉의 군사 관련 관직과 활동

##### 1) 의병대장 곽재우와 협력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곽재우(1552~1617)를 지명할 수 있다. 그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재야에서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 41세로 경남 의령에서 창의 거병하며 정암진 전투를 비롯하여 진주성, 창녕 화왕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관군이 괴멸되어 국력이 쇠퇴할 때 의병진을 주축으로 경상우도를 지켜 왜군의 호남 진입을 막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곽재우는 경북 달성군 현풍면 대동리에 세거하는 대족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숙부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고, 명종 7년(1552) 8월 28일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외가에서 태어났다. 곽재우는 임진란 군공으로 7월 유곡찰방(幽谷察訪 5품) 첫 관직에서 2달 사이에 당상관이 되었다.

곽재우 의병부대 조직은 매우 정연했고 중추적 인사들은 부사·현감·훈련 관관등 전직관료·중소지주·자영농 출신으로 구성되었고, 의병은 85%가 관군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의병 간부는 의령·삼가·초계 등지의 토착인들로 유학적 교양을 지닌 사족·유생들이었다. 곽재우 의병군이 확고한 조직체를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초유사 김성일의 도움이 컸다. 의병수가 2천명에 이르러 그들에게 지급할 무기와 군량미 조달이 어려웠는데 처음에 관가에 방치된 것을 가져다가 의병에게 지급하였지만 이것으로 부족하여 무기 제조·군량미를 자가 부담 또는 관곡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큰 제약은 경상감

사 김수와 나쁜 관계였다. 광재우는 왜군의 침략 때 김수의 병사와 수장 등이 도주하여 감사를 공박했는데 감사는 광재우를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아 세웠다. 의병진은 한 때 해체 위기에 있었으나 초유사 김성일의 중재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중 광재우가 주도한 대표적인 주요 전투는 정암진의 승첩·현풍·창녕·영산의 수복전, 제 1차 진주전을 꼽을 수 있다. 정암진 전투는 임진년 6월이었고 상대 왜군은 경상도 담당 모리회원, 전라도 담당 소조천룡경(小早川隆景)의 부대였다. 정암진 전투의 승리로 낙동강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낙동강을 오르내리는 왜군선단을 격파하였다. 현풍·창녕·영산에 주둔한 왜군은 김해와 성주를 연결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7월 중순 정암진 승첩의 여세를 몰아 현풍을 위협하자 주둔한 왜군은 소문을 듣고 철수하였다. 이 지역의 확보로 경상좌도와 우도의 연락이 가능하였고, 왜적은 오직 대구, 청도를 연결하는 중로로 통할 수밖에 없었다.

광재우는 고위 관직으로 성주 목사·진주 목사·한성부 우윤·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고 1598년 정유재란 때에는 화왕산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봉 신지제는 이때 화왕산성(火旺山城)으로 달려가 광재우와 동맹하여 의병 활동을 하였다.<sup>209)</sup> 광재우가 경상좌도 방어사로 있을 때 정유재란에 대비하여 현풍지역의 석문산성(石門山城)에서 화왕산성으로 옮겨 의병을 일으켰을 때 오봉 선생이 급히 찾아갔고, 창의록인 『화왕입성동고록(火旺入城同苦錄)』에 이름이 수록되었다.

오봉 선생은 1613년 8월에 창원 부사에 체수되었는데 9월에 부임하였다. 남포(南浦)에서 오래간만에 뱃놀이를 하다가 신라 말 최치원 만년에 소요하였다는 정자 월영대에 올라가서 휴식하면서 수창시를 지었다. 그 다음해인 1614년 4월에 배를 띄우고 강을 거슬러 올라 광재우가 거주하는 영산에 있는 정자(1602 건축)를 방문하여 두 사람이 회포를 풀었다. 『오봉선생문집』 2권에 월영대에 관한 기행문이 실려 있고, 수창시 2수(首)도 있다.

1617년 4월 망우당 광재우의 죽음에 오봉 선생은 곡을 하였으며, 『오봉선생문집』 2권에 광망우당 공의 시(詩)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2수(首)가 있는데 1616년에 지은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날 꿈과 같이 용맹하던 장수가  
오늘은 난새와 학처럼 고고한 마음  
남극노인성을 맞이하고 보니  
그 명성이 해처럼 길이 빛나네

疇昔熊羆將  
如今鸞鶴情  
相邀南極老  
白日久懸名

209) 『오봉선생문집』 권2, 372쪽.

## 2) 오봉의 군사 관련 관직 10년

조선 개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고, 임진왜란은 당쟁 분열과 준비, 경험 부족으로 왜적의 대군 진출 앞에서 전혀 대항을 하지 못했다. 전쟁 시 통상 군사조직 또는 관리체계 등에서 평상시의 시스템으로는 전투를 수행할 수 없어서 전쟁 기간 중 임시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군사 관직을 많이 만들고 현장에서 조정의 허가 없이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 원고 집필 과정에서 새로운 군사 관직이 자주 등장하고 그 때마다 각주를 붙여 설명하기가 어려웠고, 때로는 각주 등에서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였다.

오봉 신지제 선생은 정유재란부터 10여 년 동안 창원 부사로 가기 전에 군대 또는 전쟁과 관련되는 관직을 맡아 왔다. 문집 번역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오봉의 한시(漢詩)에 대해서 모두 감탄하고 있는데, 필자는 오봉 선생이 임진왜란 등의 전쟁이 없었다면 퇴계 선생과 같은 학자로서 대성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문관으로서 오봉 선생이 임진왜란 의병 활동 등의 경험에 따라 정유재란 이후 10년 동안 주요한 군사 관직을 제수 받아서 문무양반을 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이 순찰사 종사관(1597.4) 체찰사 종사관(1602), 경상도 군무안핵사(1603.8), 통제사 종사관(1606.7) 등의 관직을 제수 받았다. 이러한 관직에 있어서 업적 등은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원래는 논문의 각주로 처리해야 될 군사 관련 관직명에 대해서 여기서는 본문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 **순찰사 종사관(1597.4)** : 이때의 순찰사는 경상도 관찰사인 이용순(李用淳)이었다. 그가 먼저 산성에 들어가 각 고을의 수령 등을 독려하였으며, 오봉 선생이 함께 들어갔다. 순찰사는 조선시대 지방 장관인 관찰사가 병란이 있을 때 겸하는 임시관직으로 종2품의 벼슬이다.

— **체찰사 종사관(1602)** : 조선시대 군 관직의 하나이다. 나라에 전란이 있을 때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으로 나가 군무를 총괄하던 벼슬로 재상이 겸임하는 것이 상례였다. 류성룡은 1592년 좌의정으로 병조 판서를 겸하던 4월에 임란이 일어나 도체찰사로 임명되고 1593년 충청·전라·경상 3도 체찰사 1595년 경기·황해·평안·함경도 체찰사로 임명되었다. 오봉 선생은 1602년 41세 때 사헌부 지평(3월)에 제수되었고 통훈대부(通訓大夫)<sup>210</sup>에 제수됨과 동시에 체찰사 종사관이 되었다.

— **경상도 군무 안핵사(按覈使) 차출(1603.8)** : 조선시대 지방 군대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하기 위해 보내던 임시 관직이다. 지방에 어떤 사변이나 재난이 있을 때

210) 통훈대부(通訓大夫) : 조선시대 정3품의 문관에게 붙여진 벼슬 품계의 명칭 중의 하나.

주민의 안무(按撫)를 목적으로 파견하고 정3품과 종2품이 맡고 있는 관직이 있지만 안무사(安撫使) 특히 군대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군무 안핵사가 별도로 정해 있다.

- **통제사 종사관(1606.7)** : 이 곳은 각 분야의 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도 선생은 성품이 검소하여 행장이 헤어지도록 새로 만든 적이 없었다. 이 때 서사원(徐思遠)<sup>211</sup> 공이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제사의 종사관으로 임명한 것은 어진 이를 대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곳에 머무르며 혼자만 애쓰시니 습한 바닷가 고을에서 지내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충명하고 영특하여 무리 중에서 뛰어난 분을 늘 우러러 보았습니다. 벼슬하는 틈틈이 공부하라는 뜻으로 감히 존형에게 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군사 관련 조직>

- 권관(權管) : 변경지방의 각 진에 두었던 종9품의 무관 벼슬
- 주병대장(主兵大將) : 병마와 군권을 주관하는 대장
- 감사(監司) :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최고 책임자 8도에 1명씩 두는 종2품 문관으로서 절도사 등의 무관을 겸하였다. 관찰사,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라고도 한다.
- 병사(兵使) : 조선시대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 무관벼슬, 정원은 15명으로 경기도 1명, 충청도 2명, 경상도 3명, 전라도 2명, 황해도 2명, 강원도 1명, 함경도 3명, 평안도 2명이 있었으며, 그 중에 1명은 관찰사를 겸임했다. 속칭 병마절도사라 하였다.
- 방어사(防禦使) : 조선시대 외관직으로 각 도에 배속되어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을 가진 종2품의 벼슬, 병마절도의 다음 직위
- 조방장(助防將) : 주장(主將)을 도와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장수, 주로 관할지역 내의 무예가 뛰어난 수령이 이 임무를 맡았다.
- 가장(假將) : 싸움터에서 어느 장수의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그 보충으로 정식 임명이 있기까지 주장(主將)의 명령에 따라 임시로 그 직무를 맡아보던 장수.
- 도순변사(都巡邊使) : 조선시대 군무(軍務)를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파견한 국왕의 특사(임란 때 신립 장군 삼도순변사)

211) 서사원(徐思遠, 1550~1615) : 자는 행보(行甫), 호는 미락재(彌樂齋)·낙재(樂齋)·고시자(顧詒子),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선공감 감역·청안 현감 등을 지냈다. 대구의 이강서원(伊江書院)과 청안(淸安)의 구계서원(龜溪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낙재집』이 있다.

- 도순찰사(都巡察使) : 조선시대 지방에서 변란이 일어났을 때 파견하는 임시 군 관직, 대개는 정2품, 종2품의 관찰사가 겸임.
- 통제사(統制使) : 임진란 중에 설치된 종2품 서반 외관직 정원 1명, 수군총지휘관으로 임진란 때 전라 좌수사 이순신으로 하여금 경상·전라·충청의 삼도 총지휘하기 위하여 특별 설치한 군직.
- 초유사(招諭使) : 조선시대 임시 관직으로 난리가 일어났을 때 백성을 불러 모아 타일러 안정시키는 책임을 맡았다.
- 진무(鎭撫) : 조선 초기 여러 군영에 두었던 군사 실무직으로 정3품 당하관부터 중6품 참서관 가운데 임명되었다.
- 창의사(倡義使) :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던 임시 벼슬
- 소모관(召募官) : 전시에 군량, 마필, 정병 등을 모집하는 벼슬로 소모사(召募使)라고도 불렀다.
- 파진군(破陣軍) : 특수부대로 적이 침입하면 화포를 가지고 선봉과 전후를 맡은 군대이다. 화약 제조 기술 장인 화포장으로 편성
- 파총(把摠) : 1594년 훈련 도감을 설치할 때 만들어 각 군영에 둔 종4품의 무관 벼슬 이후 모든 군영이 답습했고 임기 2년에 선전관이나 수령을 거친 자를 임명하였다.
- 초관(哨官) : 조선시대 100명 단위의 병사 집단인 초(哨)를 거느리던 종9품 무관 벼슬
- 군기시(軍器寺) : 병기, 깃발, 무관이 입던 군복, 집기 등을 만드는 일을 맡아 보는 일을 했다.
- 비변사(備邊司) : 군국 기무를 총령하는 관청 삼포왜란 때 창설되어 을묘왜란 당시 상설 기구로 되고 임진왜란 때 전시의 군사, 정치 통할기구가 되었다. 도제조, 제조 등의 관원을 두었으며 비국(備局) 또는 주사라고도 불렀다.

오봉 선생은 임진왜란 예안·안동 지방에서 의병의 조직과 활동에 관여한 경험을 살려 정유재란 때부터 10년 동안 순찰사·체찰사·통제사 등의 종사관으로서 또한 군무 안핵사로서 전쟁 시 수성(守城), 축성, 방어 작전, 무기·군량 보급 등 전반에 대해서 위 사람을 대신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다. 특히 정유재란 때 팔공산에 왜적이 침입했을 때 평소 친분이 있었던 팔공산 주위의 여러 현감 및 의병장을 독려하면서 함께 전투에 임하였다. 정유재란 때 대구로 들어 온 왜적들과 달성과 공산(公山)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였는데 달성에서는 6일 동안 8번 싸웠다. 적도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의병도 100여 명이 전사했다. 1597년 9월 22일 왜적이 팔공산을 기습하였는데 대구 지역 의병장이 모

두 참가했으나 25일 순찰사는 성을 버리고 도망갔고 왜군들은 산성으로 들어와 관사·창고·집을 모두 태우고 퇴각했다.

오봉 선생이 맡은 종사관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본군의 재침에 대응하기 위해 하삼도로 남하한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은 영호남과 호서 지방의 지방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을 하달하였다.

여러 장수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모두 관내의 산성으로 들어가고 대소사민(大小士民)들은 집에 저장한 곡식을 모두 산성으로 운반해 들여서 청야(淸野)하고 성을 지켜라. 오는(1597) 1월 5일에 종사관을 파견하여 적간(摘奸)<sup>212</sup>할 때에 영을 어긴 자는 일체 균율로 시행할 것이다.

1597년 8월 15일 왜적에 의해 남원성이 함락되었는데 현감 곽준은 죽음을 무릅쓰고 성을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두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야 왕의 신하라서 죽는 것이 당연하나 너희 둘은 물러가 몸을 보전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자 두 아들이 말하기를 “어찌 아버지는 죽어야 하고 자식은 달아나야 한다는 이치가 있겠습니까?”하고는 마침내 함께 죽었다. 그리고 딸도 있었는데 이 때 이미 시집을 간 몸이라 산성을 나와서 자기 짝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나의 부모가 성 안에서 죽어 있거늘, 나는 뻔뻔스럽게도 성 밖에 나와 가장의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지금 나는 따라야 할 가장이 없으니 차라리 죽어야겠구나.”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메어 죽었다. 이를 목격한 성 안의 사람들의 칭찬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 순찰사 종사관 신지체(申之梯)가 보고한 장계(狀啓)에 이르기를

‘아버는 충성을 위해 죽었고, 아들은 효도를 위해 죽었으며 딸은 정절을 지키다 죽었으니 한 집안에서 평소에 닦아 둔 소양(素養)이 있지 않고서는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조정은 듣고 가상히 여겨서 조종도와 곽준을 제사지내도록 하고 각각 증직하였다.

### 3) 전략 요충지 시찰·조사

#### (1) 봉화 청량산(淸涼山)

오봉 선생이 1594년 9월 봉화의 청량산을 조사·방문한 기행문이 문집에 실려 있고 제목에서 청량산을 유람한 기록(遊淸涼山錄)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한자 ‘유(遊)’의 뜻을 유람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한 훌륭한 산에 흥취되어 많은 시작품(詩作品)

212) 적간(摘奸) : 부정한 일이 있나 살펴어 캐내는 것을 말한다.



도 남겨 놓아서 방문 목적을 관광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하지 아니다. 1594년 가을 9월 1일에 정승 홍이상(洪履祥)<sup>213)</sup>이 경상좌도 관찰사가 되어 순시할 때 예안현을 찾아와서 관아의 일이 끝나자 현감 신지제를 불러서 “이 고을에 거점으로 삼을 만한 험한 곳이 있다고 들었으니 그대가 가서 형세를 살펴보게.”라고 하였다. 무릇 청량산은 오봉 신지제 현감이 한 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아직 가지 못해 흔쾌히 수락하였다. 9월 2일 관찰사가 안동에 있으면서 비장 강효업을 보내 공문 한 통을 주면서 오봉과 함께 가도록 하였다. 여기서 기행문의 앞부분의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sup>214)</sup>

1593년 겨울에 오봉 선생이 관찰사에게 글을 올려 “먼저 험준한 곳으로서 예컨대 소백산(小白山), 청량산(靑凉山), 주왕산(周王山), 팔공산 등을 찾아서 그 형세를 살피고 무기를 준비한 다음 각 진에서 나누어 지키며 서로 돕는 것도 혹 한 가지 방법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홍이상 공이 관찰사로 부임하여 오봉에게 청량산의 형세를 살피게 하였다.

오봉은 봉화 청량산으로 가기 전에 도산면 가송리에 있는 고산(당시 지명은 일동)에서 평소 존경하는 금난수(琴蘭秀) 선생과 동행했는데 그는 오봉이 온다는 소식을 알고 배에서 기다리다가 물길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퇴계 선생이 직접 쓴 짧은 시가 바위 절벽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감상하였다. 필적이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선명하였다. 청량산은 퇴계 선생이 왕래하며 유람한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천 개 바위와 만 개 골짜기에 아직도 선생이 지팡이 짚고 다닌 자취가 남아 있다. 오봉은 늦게 태어나 회고하면 퇴계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는데 퇴계를 사숙하고 싶은 마음이 청량산에 와서 다시 느끼게 된다고 술회하였다.

오봉은 청량산에서 5일을 보내면서 매일 산행 기록과 풍기 군수 주세봉이 1544년 청량산을 유람하고 12봉우리(연화봉·선학봉·금담봉·경일봉·연적봉·탁필봉·자소봉·자란봉·내장인봉·외장인봉·향로봉·축융봉) 이름 지명하였다. 이곳을 퇴계와 학봉이 다녀갔고, 오봉의 유익한 벗 달원(김해)과는 일찍이 이곳을 함께 유람하기로 약속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전란이 일어나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봉이 청량산에서 유람할 때 스님들과 많은 담론을 했는데 스님이 보여 준 시축에 퇴계 시 2편, 학봉 선생 시 여러 편, 또한 평소 경외하고 사이가 매우 돈독했던 김해의 시도 있어서 오봉은 청량산에서 이 세 사람의 시를 한꺼번에 받아 보면서 깊은 감회에 빠졌다.

213) 홍이상(洪履祥, 1549~1615) : 1579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와 호조의 좌랑을 거쳐 정언, 이조 정랑, 이조 참의, 안동 부사, 청주 목사, 대사헌 등을 지냈다.

214) 『오봉선생문집』 권2, 137~148쪽.

청량산 방문 이튿날에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융봉(祝融峯)에 올랐다. 이곳에 오른 이유는 오래된 산성을 거점으로 진지를 구축할 수 있을 지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축융봉에는 궁궐터가 있는데 깨진 기와와 부서진 벽돌이 간혹 수풀 속에 드러나 있고, 또 어정(御井)과 육부(六部)를 설치한 자리가 각각 있었으며, 남대문(南大門)과 수구문(水口門)이란 곳은 그 자취가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산성의 축조 시기와 왕에 대해서는 역사적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상고할 수 없었다. 축융봉을 거점으로 산성 일대가 지리적으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함곡관(函谷關)이나 검각(劍閣)처럼 요새지로 삼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오봉은 전쟁의 승리 요건으로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는 맹자의 말에 동의하여 인화가 가장 중요함을 이 한 편의 시를 통해 강조하였다.<sup>215)</sup>

축융봉<sup>216)</sup>이 하늘 높이 솟고  
그 옛날 성가퀴가 남아 있네  
지세의 험준함에 기델 만하니  
천시는 본디 비할 수 없지만  
함곡관도 믿을 수 없었고  
검각도 지키기 어려웠지<sup>217)</sup>  
지킬 방법은 오직 인덕뿐이니  
이 말 허투루 여기지 말아야 하리

祝融半天宇  
雉堞古基餘  
地利猶堪據  
天時自不如  
函關曾未恃  
劍閣亦難居  
所守惟仁德  
斯言莫謂虛

임무를 마친 오봉은 다시 어제 들른 금탑봉 일대로 이동하여 미처 보지 못한 곳을 유람하기에 이른다. 자연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오봉은 어느새 내적 고민에 빠지게 된다. 고민을 풀 방법은 하루 빨리 벼슬살이를 던져 버리는 것 이외에 아무런 해답이 없다. 오봉은 꿈에도 그리던 청량산을 가까스로 찾아 왔으나 전시(戰時)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바쁜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기억할 수 없는 청량산 유람을 못내 애석하게 여기면서 비록 짧은 여향이었지만 지식인의 자세를 잃지 않고 「청량산유람기」를 남겼다. 우리나라에 명산이 한 둘이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심이 일어나게 하는 산은 청량산인데, 퇴계 선생이 그 아래에 사시면서 평소 왕래하며 유람하신 곳이기 때문이다. 온갖 바위와 골짜기에는 아직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 자취가 남아 있

215) 황만기, 전계 논문, 202쪽.

216) 축융봉(祝融峯) : 청량산 12봉우리 중 하나로 해발 845m이며, 남쪽 외청량산(外淸凉山) 구역에 속한다.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北谷里)에 있다.

217) 함곡관(函谷關)도……어려웠지 : 천하의 험준한 요새라도 반드시 지켜 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함곡관은 하남성(河南省) 신안현(新安縣) 동쪽에 있는 관문이고, 검각(劍閣)은 사천성(四川省) 검각현(劍閣縣) 북쪽의 잔도(棧道)로, 모두 중국의 대표적인 요새 중 하나이다.

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음풍농월의 제재가 되지 않음이 없었다.

오봉이 청량산을 좋아하게 된 것은 이곳에 퇴계라는 불세출의 현인이 살았기 때문이다. 오봉에게 있어서 청량산은 단순한 유상(遊賞)의 대상이 아니고, 훌륭한 스승이자 삶의 철학인 것이다. 퇴계는 오봉의 나이 9세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오봉은 늘 퇴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퇴계가 남긴 일언일구의 폭 넓은 학문세계는 인생의 지남철이 되었다. 또 퇴계의 족적이 묻어 있는 청량산은 오봉에게 있어서 퇴계의 인생관과 우주관을 살펴볼 수 있는 성지(聖地)였던 것이다. 오봉은 젊은 시절 퇴계 제자 유일재(惟一齋)에게 학업을 익히는 도중에도 청량산을 유람하려고 생각했었고, 과거 공부하는 10년 동안에도 이곳을 그리워하였고, 벼슬살이로 전전하는 동안에도 청량산에 대한 향념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다. 3일간의 짧은 여정으로 인해 청량산의 진면목을 체득하지 못한 오봉은 이듬해인 1595년 3월에 다시 이 산을 찾아오게 된다.

## (2) 대구 팔공산(八公山)

팔공산과 산성은 일찍이 후백제 견훤과 고려 태조 왕건의 격전이 있었고, 임진·정유왜란 때 왜적과 수많은 격전이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6·25전쟁 때도 지리산·팔공산·태백산·소백산 등지에서 후퇴하지 못한 공비들이 남아있어 소탕하는데 몇 년이 소요되었다. 나의 7대 조모 오천 정씨(속칭 영천 할매) 무덤이 있는 소야(현재 군위 고로 양지동)도 신녕·영천읍 화산면과 인접하고 있는데 전쟁 중 3년 동안 공비들이 다니는 연결 길목이어서 성묘를 가지 못했다. 팔공산은 1597년 4월 정유재란 때 오봉 선생이 경상도 관찰사로서 순찰사의 이름으로 종사관 오봉 선생과 함께 산성에 들어가 산성을 지켰다. 그 때 의성 현령 여대로(呂大老), 의흥 현감 이대기(李大期), 경산 현령 조형도, 경주 부윤 박의장, 신녕 현감 손기양, 청송 부사 박유인, 하양 현감 문관도, 울산 군수 김태허, 영천 군수 홍계남, 방어사 권응수 등 여러 사람과 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지키며 난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였다. 손기양이 쓴 공산지(公山誌)에 실려 있다. 이 때 함께한 지방관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sup>218)</sup>

- 여대로(1552~1619) : 1583년 문과 급제, 성균관 박사·형조 좌랑·사헌부 지평·합천 군수 등 역임
- 이대기(1551~1628) : 장원서 별제·황산도 찰방·형조 정랑·함양 군수 등 역임
- 박유인(1545~?) : 1572년 무과에 급제, 청송 부사·훈련원 정

218) 상동, 370~371쪽.

- 문관도(1550~1605) : 1583년 무과에 급제, 칠포 만호·하양 현감·경주 통관·경상도 순찰사
- 김태허(1555~1620) : 1580년 무과에 급제, 옥포 만호·밀양 부사·울산 군수·경상우도 병마절도사·오위도총부 도총관
- 홍계남(1564~1597) : 경기도 조방장·수원 판관·영천 군수, 임진·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병으로 요절
- 권응수(1546~1608) : 1583년 무과에 급제, 훈련원 부봉사·경상좌도 병마절도사·도총부 도총관
- 손기양(1559~1617) 공산지 : 1597년 팔공산성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정유재란에 대비하여 산성을 개축한 사실, 적의 침입으로 무너지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팔공산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경상도 중앙에 위치해 있어 좌우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대구부의 치소가 이곳으로 옮겨졌고 성주·의흥·신녕·하양 등의 군민과 유림지사들이 많이 피난을 와 있었다. 대구 의병의 중심인물은 서사원과 정구(鄭逵)이며 이들은 퇴계의 문하이다. 대구의 의병항쟁은 팔공산에서 시작되었고 서사원은 초집 향병문(招集鄉兵文)을 만들어 주위 유림들에게 알리고 항왜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팔공산성의 의병 활동은 왜군에게 한 때를 제외하고 의병 활동의 거점이 확보되고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조선시대 팔공산은 대구부로부터 북동쪽 약 30리에 위치한 1,192m의 산으로 그 중턱에 공산산성(公山山城)이 위치하고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가 편찬될 당시 안동대호부에 속한 의흥현 남쪽 40리, 부계현 남쪽 10리, 대구 임내의 해안현 북쪽 11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팔공산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임진왜란을 통해 그 존재가 본격적으로 조선사회에 부각되면서 조선의 주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1597년 1월 순찰사 이용순은 관아의 권속을 이끌고 산성으로 들어가자 지방관들과 백성들도 역시 성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갔다. 순찰사가 조금이라도 기한을 맞추지 않으면 모두 균율대로 시행하였는데 신지제와 과거 친분이 있었던 예안·안동 고을의 인접 고을의 수령(의성·군위·신녕 등)들도 형장(刑杖)을 맞았을 정도로 혹독하였다. 신녕 현감 손기양의 『공산지(公山誌)』에 보면 청송 부사(박유인)·의성 현령(여대로)·의흥 현감(이대기)·하양 현감(문과도)·경산 현령(조형도) 등이 가솔을 데리고 함께 들어왔다는 내용이 보인다. 공산산성(公山山城)에 대한 수성 준비는 몇 달 사이에 거의 완성되었는데 신지제가 순찰사(이용순) 종사관으로 4월부터 이곳에 와 있었다.

일본군이 공산성을 침입한 것은 1597년 9월이었는데 그 이전에 순찰사 이용순은 양산의 일본군이 밀양을 거쳐 대구를 침범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고 하였으나 대패했고 일본군은 바로 공산산성을 공격하여 비축한 병기와 군량을 빼앗겼고 관사와 창고가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팔공산 회맹에 참여했던 경주 의병부대가 북상하던 중 팔공산에서 왜적을 맞아 전투를 치렀는데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영천에 주둔하면서 전투 준비, 9월 14일 대구 도착 경상좌우도 의병부대와 합류, 19일 팔공산에서 진을 치고, 22일과 23일 왜적과 전투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일본군은 상당한 손실을 입고 울산, 서생포로 남하했다. 정유재란은 1597년 1월부터 일본은 주력 부대를 다시 보내 전쟁에 돌입하였는데 선조는 공문을 보내 여러 장수들은 군사를 거느리고 관내 산성으로 들어가고 모든 백성들은 각자 저장한 곡식을 산성으로 운반하여 성을 지키도록 했다. 1597년 1월 5일 종사관 신지제를 파견하여 명령의 실행 여부를 조사하여 명을 어긴 자는 일체 군율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민들은 대구의 공산산성(公山山城),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 하동의 적개산성, 삼가의 악견산성, 합천의 미송산성, 안음의 황석산성(黃石山城) 등에 집결하여 일본군의 재침에 대비하였다.

임진란 이후 공산산성이 다시 주목을 받은 해는 1596년이였다. 이때 관찰사(순찰사) 이용순, 체찰사 이원익의 제안으로 대구 달성에 경상도 감영을 열고 석축을 더 쌓았다. 대구가 감영 자리로 주목을 받은 이유는 경상 우도와 좌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인데다가 경상도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통로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1596년 4월 도체찰사 이원익의 명령으로 공산산성이 보완·수축되었다. 이 무렵 관찰사 이용순에 대하여 “순찰사 이용순은 대구에 있으면서 늘 공산을 왕래하며 중요한 일들을 지휘하는지라 이용순을 가리켜 대구의 순찰사요 공산(公山)의 만호(萬戶)라 하였다.”는 평이 있을 정도였다.

1597년 조정에서는 대구가 경상좌도 우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으로서 사방에서 오는 곡식들이 대구를 거쳐 경주 및 울산으로 이송되었고, 조정에서는 군량 마련을 위해 경상도 좌로·중로·우로에 각 책임자를 파견하고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곡식을 거두어 상주·대구·경주 등지로 옮겼다. 1597년 12월 대구로 이송된 군량이 쌀·콩을 합쳐 5천석이 되었고, 대구로 이송된 군량은 주로 공산성에 비축해 두었다. 정유재란으로 1597년 9월 일본군이 팔공산에 이르자 순찰사가 영남 전 지역에 관물을 발하여 의병장들을 소집했는데 이 때 의병장들은 팔공산으로 병사를 이끌고 모여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회맹의 성과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순찰사의 고집(도피)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팔공산 전투가 수습된 후에 왜적이 화왕산성(火旺山城)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망우당 객재우 장군과 함께 국난 타개에 앞장섰다. 1597년 2월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재임할 때 왜적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나서겠다고 세자인 광해군에게 청원하여 정략장군(定略將

軍)으로 제수되어 활약하였다. 난리가 끝나 갈 무렵에 선조의 부름을 받아 체찰사(體察使) 종사관(從事官)으로 임명되어 임진란 이후 의병 및 전쟁의 경험을 살려 문관이었던 분이 무관으로서 겸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오봉 선생에게 선무원종공신 1등, 호성원종공신 2등의 훈공이 동시에 수여된 것은 그 분의 직급에 비하여 매우 이례적(異例的) 조치였으며 아버지(몽득), 할아버지(응규)에게 각각 증(贈)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와 가선대부 공조참판이 제수되었다. 또한 삼촌 몽필(夢弼)에게는 증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판윤(漢城判尹)이 제수된 것도 특이한 조치로 판단되고 있다. 몽필에게 한성 판윤을 제수한 것은 임진란 초기에 전 재산을 군량미로 바꾸어 관청에 헌납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 VIII. 맺음말

오봉 신지제 선생의 생애와 인품, 과거 급제와 30년간의 관직생활 임진란 당시의 예안·안동 지방의 의병 창의와 지원, 사적(事蹟)과 공훈(功勳)에 대해서는 구전 보다는 문집 또는 『왕조실록』을 통해서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문집 등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오봉선생문집』을 국역으로 번역하여 500페이지 책 2권으로 2019년 7월 정부 예산으로 발간해 주었다. 2007년 8월까지 40년간 재직한 고려대학 경영대학 교수직을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2014년 아주 신씨(鵝洲申氏) 재경종친회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조상에 대한 관심을 더욱 돈독하게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저의 13대 조부이신 오봉 할아버지의 효성(孝誠)과 충절(忠節)에 대해서 머리 숙여 존경하였고 위대한 조상을 모셔서 평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다.

특히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당해서는 많은 지방 수령들이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서 행정이 마비·공백 상태가 되었는데 오봉 선생만은 관아에서 의병 창의를 도모하고(예안) 안동 부사(공석)까지 겸직하면서 경상좌도 북부지역을 왜적으로부터 지켜냈다. 근무지로서 힘들다는 예안(難治之鄕) 현감을 임진란 기간 중에 4년 7개월을 연임하면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분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늦게 태어나 퇴계 선생에게 직접 배우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생각하면서 예안 현감과 관직을 자청하였고 서애 류성룡과 학봉 김성일 두 분에게도 사랑과 지도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분들과는 당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지냈다. 임진란이 없었다면 오봉도 퇴계 선생처럼 학자가 되었을 것 같은데 시운(時運)이 그렇지 못했으며, 임진란의 경험을 살려 정유재란(1597)부터 10년 동안 관찰사(순찰사), 체찰사(정승·영의정), 통제사 등의 종사관, 군무안핵사(군대의 기무 사령부)로서 군대, 전쟁 등과 관련된 관직을 맡아 왔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전란 후 선무원종공신(1등), 호성원종공신(2등) 등 2개의 공신록에 책훈(策勳)된 것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오봉 선생의 위상은 아주 신씨 전체 계파를 넘어서 국가 위기에 공헌하셨고, 조정에서 내려진 불천위(不遷位) 제사(음력 1월 8일)의 전통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어른의 위대함은 후손들에게 전수되어 왔다.

오봉 신지제 선생에 대한 자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관심은 내가 어릴 때부터 주위의 다른 형제들보다 남다른 면이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집성촌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초·중·고·대학시절까지 한 동네에서 방학 때는 시간을 보냈고, 종가의 친구로서 병용이와

는 나로 하여금 잦은 출입을 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절친 관계는 60대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다. 지난 5월 『오봉선생문집』의 교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평소 오봉 선생에 대한 연구 논문이 두 세편 밖에 없었고 그것도 최근의 일이어서 내가 큰 마음먹고 오봉의 생애와 임진란 의병 활동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였다. 특히 임진란과 의병 활동은 다른 사람의 경우 전업적인 의병장으로 추대되고 그 공로로 관직 제수까지 있었지만 오봉 선생은 예안현감인 지방 수령으로 현직 공직자로서 관군을 통솔하고 왜적의 방어 의무가 본인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성격의 문제가 일부 내포되고 있는 의병 활동을 다루는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오봉 선생은 30년의 관직 생활 중에서 임란 때에는 지방 수령으로서 의병 조직과 지원 활동이 계속되었고, 정유재란부터 10여 년간은 순찰사(관찰사) 종사관, 체찰사 종사관, 군무안행사, 통제사 종사관 등의 관직을 맡아 전란의 연장선상에서 문관이었던 사람이 무관 업무까지 수행하는 신분이 되었다. 필자가 오봉 선생의 의병 활동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구 자료의 부족이었다.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가 주관하는 경상좌·우도의 지역 임란사와 의병을 연구함에 있어서 의성(비안 포함)과 군위(의흥 포함) 지역 연구가 누락되어 큰 애로가 있었다. 의성현은 오봉의 고향으로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특히 근무지였던 예안·안동과 바로 아래 동네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연관성이 큰 사정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 연구에서 완벽 또는 완성에 가까운 성과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연구자 또는 오봉의 후손으로 연구하려는 사람이 있기 바라며 그들에게 연구 바탕의 일부로서 기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연구가 본인의 주된 전공 영역이 아니고 논문의 형식과 논리 전개 등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은 넓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오봉 선생의 생애와 관직 생활에 있어서는 이번 『오봉선생문집』의 국역 사업으로 선생의 업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예안·안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상좌도 북부지역의 의병 활동에 있어서는 광재우와 같은 직업적 전문 종사자가 아닌 지방 수령이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의 연구에서 아쉬웠던 점의 하나는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부터 1606년까지 10년 동안 고위 관직자(관찰사, 체찰사 등)의 종사관으로서 앞으로 임진란과 같은 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입안을 위하여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 관계자들은 이 부문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그리고 오봉 선생의 자손들과 종가에서도 오봉의 의병(관군 포함)활동에 대한 구전적, 전설적인 수준의 이야기꺼리에서 탈피하여 좀 더 체계적인 연구자료 수집과 관심을



기울여서 한 단계 상등된 조사·연구가 있기 바란다.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특히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에서 주관한 지역 임란사 세미나 자료집, 최효식 교수의 영남 의병사 등 임진왜란 연구 등이 본인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오봉선생문집』을 교정보면서 번역에 참가한 전문가 중에 고려대학교 한문학 전공자가 중심이 되었고, 한문학과 심경호 교수가 문집해제(文集解題)의 글을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래된 자료 중에서는 대부분 고려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삼복더위 중인데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자료 정리를 끝낼 수 있었다. 특히 젊은 후세들을 위하여 가급적 한자를 적게 쓰려고 했지만 원고의 성격상 한자 삽입은 불가피했다. 문집 국역에 참가한 김기엽 선생이 원고 입력에 도움을 주어 이것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오봉 종가의 힘든 일을 맡아서 수고가 많은 신명균도 평소 많은 격려가 있었다. 이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 종가에 기증하려고 하니 본인이 못다 한 연구의 부족분은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채워지기 바란다.

#### ■ 『예기(禮記)』 「제통(祭統)」

선조의 아름다운 행적이 없는데도 말하면 이는 세상을 속이는 것이요,

선함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면 현명하지 못한 것이요,

알면서도 후세에 드러내어 전하지 못하면 어질지 못한 것이다.

(其先祖無美而稱之, 是誣也. 有善而弗知, 不明也. 知而弗傳, 不仁也.)

아주 신씨 오봉공파 27세 신수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 참고 자료

### 1. 단행본

- 『(국역)오봉선생문집』 권 1·2, 한국국학진흥원, 2019.
- 경상북도, 『경북의병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해안, 2001.
- 김종우, 『의성 다가서기』, 다심, 1996.
- 남명학 연구원(역), 『망우당 괘재우』, 예문서원, 2014.
- 박희봉, 『5800 진주성 결사대 이야기』, 논형, 2019.
- 신기옥(편저), 『아주 신씨의 역사』, 아주 신씨 시조 바로 세우기 협의회, 2009.
- 신혜진(역주), 『난적회찬(원저 申佐, 亂蹟彙撰, 1603)』, 역락, 2010.
- 안동 김씨 도평의공파 문중, 『국역 만취당 선조 실기』, 2017.
- 염정섭, 『조선시대 농업발달 연구』, 태학사, 2002.
- 의성 김씨 송암공파 문중, 『국역 백암실기』, 2013.
- 의성문화원, 『의성문화제 14호』, 1999.
- 『의성의 임란사와 호란사』, (사)의성 향토사 연구회, 2015.
- 이광린, 『이조 수리사 연구』, 한국 연구 도서관, 1961.
- 이민수(역), 『징비록』, 을유문화사, 2014.
- 이태룡, 『한국의병사(상)』, 푸른솔나무, 2014.
- 이태진, 『한국 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6.
-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대구지역』, 임진란사, 2017.
- \_\_\_\_\_, 『참여후원회 위훈인명 사적 요약본』, 2018.
- \_\_\_\_\_, 『대구지역』, 임진란사, 2019.
- 장운철(역), 『징비록』, 스타북스, 2015.
-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 \_\_\_\_\_,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 2. 고문헌

- 龜尾 舊泐新粧都目完議

- 김해(金垓, 1555~1593), 『향병일기(鄉兵日記, 壬辰·癸巳)』 1책, 원본(1592.4.14.~1593.6.19)
- 신정주, 『龜莊誌』, 1812.
- 『申之悌 祿牌』, 1589.6.
- 『申之悌 祿牌』, 1590.1.
- 신홍(申弘) 원저, 『난적회찬(亂蹟彙撰)』, 신해진 역주, 『난적회찬』, 역란, 2010.
- 『梧峯宗宅誌』, 대광출판사, 2009.
- 梧峯派會中, 『梧峯·孤松 先生 兩代文集』, 1997.
- 의성 조문국 박물관, 『의성 조문국 박물관 학술대회 자료집』, 2018.12.
- 의성 조문국 박물관, 『의성지역 고문헌의 고찰』, 2018.
- (사)의성 향토사 연구회, 『의성의 수령비(守令碑)』, 2010.
- 이노(李魯, 1544~1598), 역주 『용사일기(龍蛇日記)』, 부산대 한일문화 연구소, 1960.
- 이호응(李虎應) 역주 『정만록(征蠻錄)』, 의성문화원, 1992. 원저 이탁영(李擢英, 1541~1610), 2권 2책, 보물 제880호(1986.10.15)

### 3. 학술지

- 구본욱, 「대구 유림의 임진란 창의와 팔공산 회맹」, 『조선사 연구』 24호, 조선사 연구회, 2017, 43~88쪽.
- 김강식, 「임진란 시기 경주성 북성전투와 항쟁활동」, 『경북지역 임진란사』 1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 김경태, 「임진란기 청도지역의 항왜활동과 청도지역의 전투」,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 \_\_\_\_\_, 「임진란기 봉화지역의 의병 활동과 일본군의 동향」, 『경북지역 임진란사』 2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 김진수, 「임진왜란기 팔공산의 전황과 역사적 의의」, 『대구지역 임진란사』,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7.
- 김호중, 「임진란기 문경지방의 항왜활동과 당교(唐橋) 전투」, 『경북지역 임진란사』 2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 \_\_\_\_\_, 「임진란기 상주지역의 의병 활동」, 『경북지역 임진란사』 1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 노영구, 「임진란기 봉화 소천(小川) 지역 전투와 항쟁활동」, 『경북지역 임진란사』 2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458쪽.
- \_\_\_\_\_, 「임진란기 안동지역 의병의 역할과 그 전쟁기여」,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 박명숙, 「오봉 신지제 선생의 생애와 학문」, 『동양예학』 38호, 동양예학회, 2017, 63~94쪽.
- 박채은, 「울산 도호부사 申弘望에 대한 고찰」, 『울산문화연구』 3집, 울산남구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회, 2010, 6~24쪽.
- 신차수, 「구장지(龜莊志) 해제(解題)」, 『의성문화 제14호』, 1999.
- \_\_\_\_\_, 「장대서원 중건기(藏待書院重建記)」, 『의성문화 제14호』, 1999.
- 이상호, 「임진란기 안동지역 유학의 철학적 특징과 실천정신」,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22~42쪽.
- 우인수, 「『樂齋日記』를 통해본 대구지역 임진왜란 의병의 활동과 성격」, 『대구사학』, 대구사학회, 47~85쪽, 2017.
- 이왕우, 「임진왜란기 안동지역 지방관과 관군의 역할」,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 이육, 「광산 김씨의 임란 의병활동과 의의-김해부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30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 \_\_\_\_\_, 「임진란 초기 영천지역 의병항쟁과 예천성 복성(復城)」, 『경북지역 임진란사』 1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112쪽.
-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 연구원, 2019, 179~211쪽.
- \_\_\_\_\_, 「임진란기 예안의 유학과 학맥」, 『경북지역 임진란사』 3권, 임진란 정신문화 선양회, 2018.

## ■ 편저자 신수식(申守植) 약력

### ○ 출생 · 성장

1942년 2월 7일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동에서 부 신경수(申慶洙), 모 연안이씨 이봉희 사이에서 출생.

오봉 신지제 선생으로부터 14세

봉양 초등학교(1948~1954) 졸업

봉양 중학교(1954~1957) 졸업

경북 사대부고(1957~1960)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1960~1964) 졸업



### ○ 학력 · 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독일 쾰른 대학 유학(1970)

독일 쾰른 대학 보험 연구소 객원교수(1981)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1968~2007.8)

경영대학 학장(1995~1997)

경영대학원장

노동대학원장

현재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2007.8~)

### ○ 학회장

한국 보험학회 회장

한국 사회보장학회 회장

한국 인사관리학회 회장

## ○ 자문위원

- 정부 : 재무부, 노동부, 정보 통신부, 국방부, 보건 복지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국무 총리실, 제6차 5개년 계획 사회개발 부문, 감사원, 한국 보험 감독원
- 민간단체 : 삼성생명, 대한재보험, 한국 경영자총협회,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 의료 보험 관리공단, 보험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대한 상공회의소, 축산업협 동조합, 보험연수원, 한국보험신문,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아주 신씨 재경총친회장(2014~2016)

## ○ 훈표상

- 한국보험단장상(1968.11) 제1회 보험의 날
- 대통령 표창(2003.4) 정보통신
- 홍조근정훈장(2007.8) 교육공로
- 보험문화대상(2007.5) 한국보험학회
- 보험학술부문 공로상(2008.10) 제3회 대산보험대상

## ○ 주요저서

- 한국보험사(1974),
- 국민복지 연금론(1979)
- 사회보장론(1978)
- 보험경영론(1980)
- 노사관계론(1991)
- 현대사회와 보험(공저, 2008)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00년사(2006)

## ○ 기타

- 한국 손해보험 사료(본문 6권, 부록 2권) 편찬위원장
- 한국생명 보험사료(본문 4권) 편찬위원장
- 손자 셋 육아일기(2009.3~2014.8) 제1권
- 손자 셋 육아일기(2014.8~2016.8) 제2권(속편)